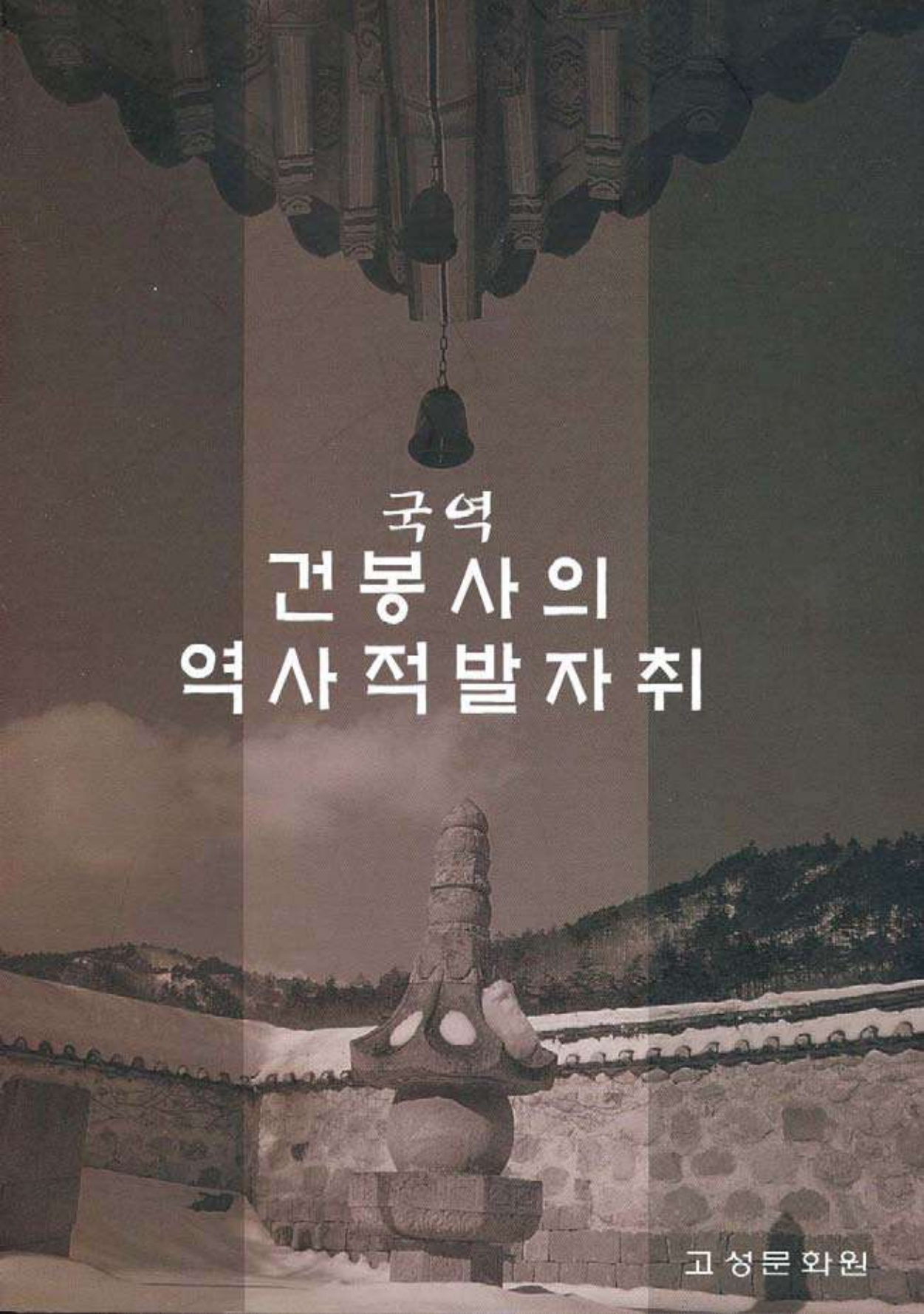


국역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고성문화원

국역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고성문화원

監　修 : 崔承洵 江原大學校 名譽教授
飜　譯 : 鄭亢教 江原道文化財專門委員
校　閱 : 崔濈琪 高城文化院事務局長

국역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편낸이 : 이　병　찬
펴낸곳 : 고성문화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전화 033) 681-2922

2000년　월　일 발행
2000년　월　일 인쇄

제　작 : 해람기획
강릉시 임당동 10-10
전화 033)643-2886
팩스 033)641-2881

편　집 : 강봉원
사　진 : 김종달

국역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발 간 사

건봉사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금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절寺刹이다.

멀리 신라법흥왕 7년(서기520년)에 아도화상이 원각사로 창건한후, 고려 공민왕 7년(1358년)에 나옹화상이 건봉사로 중수, 6.25동란전 까지만 해도 31본산의 하나요, 한국 최초의 만일회인 念佛萬日會를 배풀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이르러(1464년) 世祖가 학열學悅에게 命하여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역대 임금의 원당願堂으로 삼았으며, 석가모니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聖地이기도 하다.

6.25동란으로 폐허로 변해버린 옛터에 각계 각층의 지원과 불심이 모아져 현재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 우리 역사속에 찬란하게 전승되어온 불교 문화의 “맥”을 잇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고 무척 반가운일로 느껴집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승려시인이며 독립운동가이시며 佛敎大典을 저술하고 대승불교의 반야사상과 불교정신을 널리펴신 한용운 선사께서 저술한《건봉사 및 건봉사 말사사적》과 여러 개인들의 문집이나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 늦게나마 번역 출간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펴내면서 우리 역사속에 찬란하게 이어져온 불교문화를 재조명 해보고 불법을 따르려는 우리들 모두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번역을 맡아주신 정항교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님과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1년 4 월 일

고성군문화원장 이 병 찬

축 간 사

한국 4대 사찰중 하나인 건봉사乾鳳寺는 법흥왕 7년(서기 520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尙이 원각사로 창건한 후, 고려 공민왕 7년(1358년)에 나옹화상懶翁和尙이 건봉사로 중건하였으며 세조대왕이 원당願堂으로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건립하기도한 한국불교의 성지로서, 선교양종 대본산禪敎兩宗 大本山으로 임진왜란시 사명대사泗溟大師가 승병을 모집 봉기한 국란극복지이며,

왜군이 약탈해간 석가모니의 진신치아사리를 되찾아와 봉안한 보궁寶宮이기도하다. 또한 만해한용운卍海韓龍雲선생이 이곳에서 승려생활을 하며 건봉사지乾鳳寺誌를 저술하였고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세워 민족사상 계몽교육의 구심이 되기도 하였던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하면 조상은 물론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2년여간 각고刻苦끝에 「건봉사지乾鳳寺誌」를 번역, 감수하여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봉사지乾鳳寺誌」 발간은 오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고 21세기에 새로이 생성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생명력과 가치관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아울러 건봉사乾鳳寺의 지나온 역사를 재발견 함으로써 염불만일회의 효시가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불교의 성지임을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봉사지乾鳳寺誌」 번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강릉시 오죽헌 · 시립박물관 정항교 학예연구실장님을 비롯하여, 이병찬 고성군문화원장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4 월 일

고 성 군 수 김○○

목 차

건봉사 역사적 발자취

건봉사에 속한 암자 일람표

건봉사의 건물, 토지, 임야

건봉사의 보물

건봉사의 탑, 부도, 비

건봉사의 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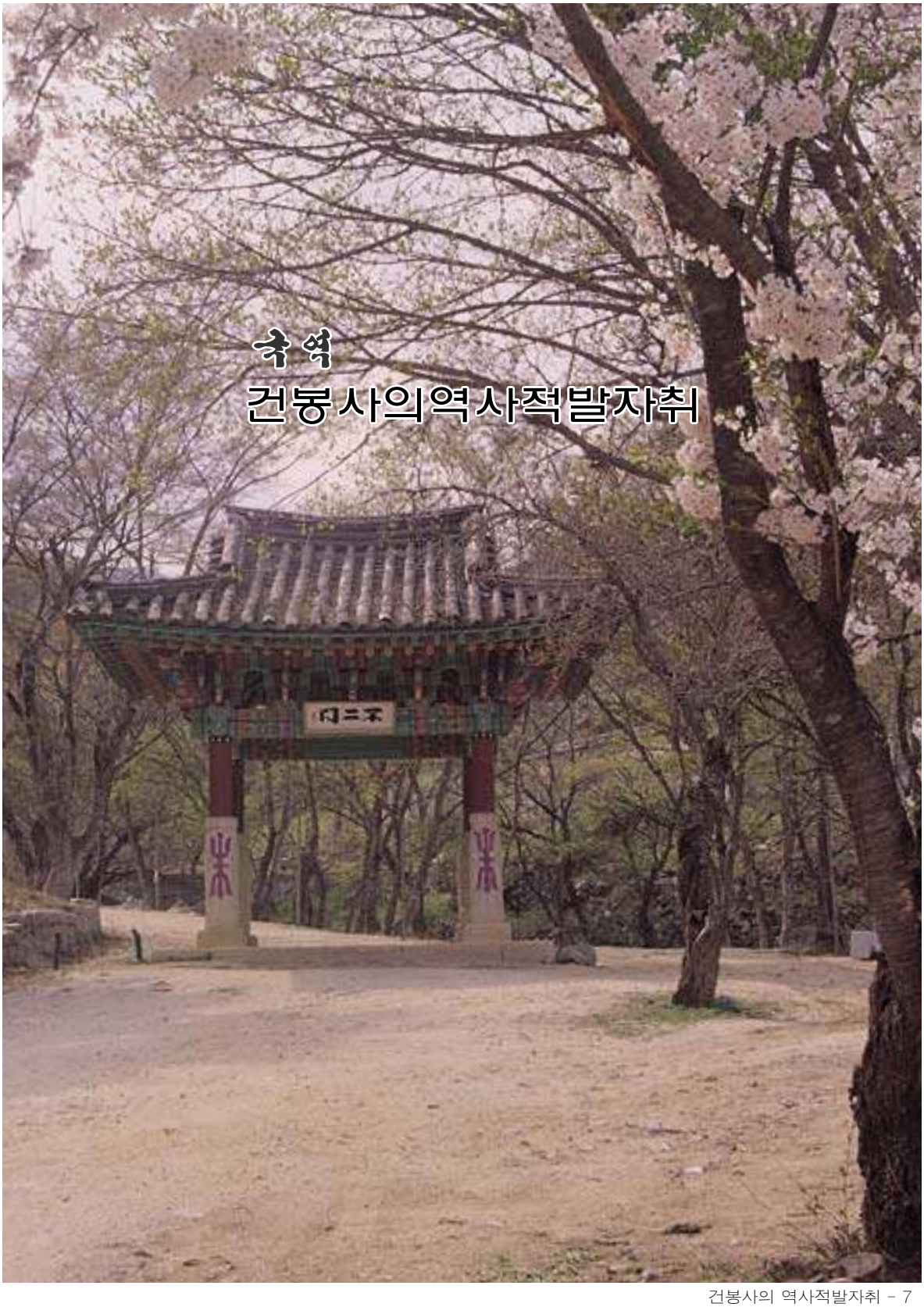
건봉사의 명소

건봉사의 옛 기록

범례

1. 본 편의 편찬은 편년식으로 하였다.
2. 년차는 석가모니 탄생을 기원으로 사용하였다.
3. 역사적 사실은 각 본사에서 기록하여 보낸것에 근거하였다.
4. 연대와 인물에 관한 일은 다른 역사 전적을 참고하여 바로 고쳤다.
5. 본문 뒤에 각 사찰의 현재 재산과 옛 기록을 부록으로 실어 참고 하도록 하였다.

※ 국역건봉사 역사적 발자취는 1928년 당시 건봉사주지 이대련 대선사께서 발행한《건봉사 및 말사 사적》가운데 〈건봉사 사적〉을 대본으로 하였다.



추억
건봉사의역사적발자취

머 릿 글

조선 사찰들이 대부분 그 역사적 내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어느 사찰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짤막짤막한 기록들은 다소 있으나 그것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용 또한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조선 사찰은 역사가 불완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실로 역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찰의 역사는 불교 역사의 대부분이 될 것인데 사찰 역사의결함은 결국 불교 역사의 결함인 즉 이것이 어찌 불교도佛敎徒의 중대한 책임이 아니겠는가!

내가 건봉사 주지로 임명되어 부임한 뒤에 평소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 미쳐 먼저 건봉사 본말사의 역사를 편찬 하고자 연구를 계속하다

드디어 본 말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찬에 착수하게 되었다. 먼저 김일우金日宇, 최관수崔觀洙 두 선사께서 각 말사를 직접 탐방하고 옛 기록을 베껴 모아 마침내 편집하여 성책成冊하기에 이르렀으니 실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이는 후일 조선 사찰역사의 완성에 하나의 도움이 된다면 어찌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1928년 6월 9일

이 대 련

머 릿 글

내가 본 사찰의 자취를 편찬하게 된 것은 다만 건봉사 본말사에 계시는 여러분의 간곡한 위촉 때문에서지 조금도 편찬할 만한 자신이 있어서 붓을 잡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선 각 사찰의 역사적 기록이 완벽한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짤막하게 보존된 기록들도 너무나 기이하고 황당한데 가깝고 어떤 것은 문장의 꾸밈이 지나쳐 역사적 사실을 생략하는 등 실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이 매우 드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사찰의 역사를 편찬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불완전 하나마 사찰의 옛 기록을 참고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그러한 옛 기록을 참고하여 편찬하게 되었으나 기이한 자취보다 일상적인 일을 중요시 하였고 문장의 꾸밈을 없애 버리고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여 사찰의 역사적 본질에 치중하였다. 편찬이 잘되고 못되고는 별 문제라 하더라도 사찰의 역사에 있어서만은 새로운 면목을 전개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옛 기록을 그대로 보존 하는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각 기록을 본문 뒤에 첨부하여 참고하도록 이바지 하였다.

1928년 6월 10일

한 용 운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건봉사(강원도 고성군 오대면 냉천리) 역사적 발자취

불교기원 1547년 신라 법흥왕 7년 경자(서기 520)에 아도화상阿道和尙《고구려 중천왕中川王때의 승려로 중국 위魏나라 아버지와 고구려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5세때 아버지에게 갔다 19세에 돌아와 신라에서 불교를 전파하려다 실패하여 숨어 있다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쳐준 공으로 불교의 전도를 허가 받고 흥륜사興輪寺를 지었다.》이 고성현古城縣 금강산 남쪽 기슭에 절을 창건하고 원각사圓覺寺라 이름 지었다.

불기 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533)에 보림암普琳庵과 반야암般若庵을 창건 하였다.

불기 1785년 신라 경덕왕 17년 무술(서기758)에 발징화상發徵和尙이 원각사를 중건하고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법회이다.기한을 정하여 백일, 천일,만일염불회가 있다.》를 베푸니 이것이 조선의 염불만일회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이때 발징화상이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 31명과 함께 염불을 드렸는데 뜻을 같이하는 신도 1,820명이 마음이 일어나 자원 하였으니 그 가운데 120명은 의복을 시주하고 1,700명은 음식을 시주하였다. 의복을 시주하는 사람은 매 사람에게 해마다 베 1단을 바쳤으며, 음식을 시주하는 사람은 매 사람에게 해마다 쌀 한 말과 기름 한 되를 바쳐, 염불하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부득이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불기1814년 신라 원성왕 3년 정묘(서기787)에 염불만일회에서 깨끗함과 선행을 닦던 31명이 아미타불의 가호를 입어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났으며, 시주를 하던 신도들도 차츰 극락왕생하였다.

불기 1837년 신라 헌덕왕 2년 경인(서기 810)에 승전화상勝銓和尙이 화엄경을 강講 하였다. 처음에는 승전화상이 당나라에 가서 현수법사賢首法師에게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 화엄경을 강 하였다.

1872년《모든 연호는 옛 불기佛紀로 표시되었으므로 연호 앞에 '불기' 라고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신라 문성왕 7년 을축(서기845)에 백화암白華庵을 창건하였다.

1964년 고려 태조 20년 정유(서기 937)에 도선법사道詵法師가 고려 태조의 명을 받들어 원각사를 중수하고 서봉사西鳳寺라 고쳐 부르니 절의 서쪽에 봉황새 모양을 한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봉암鳳岩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봉암암鳳巖庵과 청련암靑蓮庵, 극락암極樂庵을 창건하였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보리암普提菴과 적명암寂明庵, 대성암大聖庵을 창건하였다.

2385년 고려 공민왕 7년 무술(서기1358)에 나옹화상懶翁和尙이 서봉사를 중수하고 건봉사乾鳳寺라고 이름을 고쳤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백련암白蓮庵과 보문암普門庵, 상원암上院庵과 대원암大願庵을 창건하였다.

2492년 조선 세조 10년 을유(서기1465)에 세조 임금이 건봉사에 행차하시어 원당願堂을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짓도록 하였다. 또 전답과 친히 동참문同參文을 지으시고 손수 쓰시어 하사下賜하였다.

현붕대사玄鵬大師가 일출암日出庵을 창건 하였다.

2496년 조선 예종 원년 기축(서기1469)에 예종 임금이 교지敎旨를 내려 원당을 정하고 승려들로 하여금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주었다.

2497년 조선 성종 원년 경인(서기 1470)에 성종 임금이 효령대군孝寧大君,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조흥수趙興洙 등을 파견하여 노비奴婢와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주었으며, 염전을 하사하고 사방 10리로 산사山寺를 정하도록 하였다.

2550년 조선 중종 18년 계미(서기1523)에 보림선사普琳禪師가 건봉사와 보림암普琳庵을 중수 하였다.

2579년 조선 명종 7년 임자(서기1552)에 명종 임금이 교지를 내려 쌀 열 섬 지기를 수확할 수 있는 크기의 논을 하사 하였다.

2619년 조선 선조 25년 임진(서기1592)에 일출암日出庵이 임진란에 불에 탔다.

2629년 조선 선조 35년 임인(서기1602)에 의인왕후懿仁王后가 다시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토지 5결五結을 하사하였다.

2632년 조선 선조 38년 을사(서기1605)에 사명泗溟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부처님의 치아와 부처님의 사리 등을 되찾아 모시고 와 건봉사에 봉안하였다. 이는 자장법사慈藏法師가 당나라에 가서 부처님의 치아와 사리 등을 모시고 돌아와 통도사通度寺, 월정사月精寺 등 각 사찰에 나누어 봉안하였으나 임진년 난리에 왜놈의 군사가 통도사등에 침입하여 부처의 치아와 사리를 훔쳐갔다. 그러자 사명이 되찾아 모시고 돌아온 것이다.

2633년 조선 선조 39년 병오(서기1606)에 사명, 혜능惠能 두 대사가 사찰을 중건 하였으며, 또 혜능이 안양암安養庵과 적명암寂明庵을 중건 하였다. 신묵대사信默大師는 청련암靑蓮庵을 중수하였다.

2677년 조선 효종 원년 경인(서기1650)에 효종 임금이 교지를 내려 원당願堂을 정하고 어실각御室閣을 중건하였다.

2679년 조선 효종 3년 임진(서기1652)에 계월당桂月堂이 불에 탔다.

부도전

불이문을 벗어나 약500m 내려오면 부도군이 있는데 건봉사의 그 어떠한 곳에 못지 않은 성스러운 곳이다. 50여개의 부도 중 특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만일회 당시 생사리 탑인데 이는 1851년(철종5년)에 개설한 만일회에 참여하였던 승려 10여명이 1854년부터 1856년까지 3년동안 살아 있는 몸에서 치주, 안주 등의 사리 26매를 내어 놓은 이적을 나타냈는데, 이를 함께 모아 부도에 모신 곳이다.

2년 뒤에 상미尙眉, 대운大云, 대규大奎, 민영旻英등의 스님이 계월당을 중건하였다.

2700년 조선 현종 14년 계축(서기1673)에 수흡修洽 · 도율道律스님이 화주化主가 되어 큰 종을 주조하니 무게가 1,200근이나 되었다.

2710년 조선 숙종 9년 계해(서기1683)에 명성왕후明聖王后가 불장佛帳과 가탁의卓衣를 하사 하였으며, 또 천금을 내려 불상에 금분을 다시 입히도록 하였다.

2735년 조선 숙종 34년 무자(서기1708)에 능파교凌波橋의 비를 세우고 동대암東臺庵을 창건하였다.

2739년 조선 숙종 38년 임진(서기1712)에 물 북쪽에 있는 방 여덟칸이 불에 탔으나 곧 중건 하였으며, 이 때 북쪽에 방 여덟칸, 물 남쪽에 방 여섯칸이 있게 되었다.

2750년 조선 경종 3년 계묘(서기1723)에 문규文奎 스님이 육송정六松亭 석교石橋를 가설 하였다.

2751년 조선 경종 4년 갑진(서기1724)에 주지 스님 채보彩寶가 구층탑을 세우고 부처님의 치아를 봉안하자 명성왕후께서 천금千金을 하사 하였다.

2753년 조선 영종 2년 병오(서기1726)에 석가치아탑비를 세웠으며, 육송정 석교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 또 백련암을 헐어다 청련당靑蓮堂을 세웠다.

2762년 조선 영종 11년 을묘(서기1735)에 치숙緇淑, 요설了泄) · 초청楚淸등의 스님이 송월료送月寮를 중수하였다.

2769년 조선 영종 18년 임술(서기1742)에 해운대사海雲大師가 봉암암鳳巖庵을 중건하였다.

2772년 조선 영종 21년 을축(서기1745)에 봉서루鳳棲樓 앞에 있던 무지개 다리가 헐어져 무너졌다. 그러자 2년 뒤에 무지개 다리를 중수하였다.

건봉사 입구에서 처음만나는 홍예교 虹霓橋

2780년 조선 영종 29년 계유(서기1753)에 남자 신도 지해智海와 여자 신도 지혜智慧가 시왕상十王像을 중수하였다.

2781년 조선 영종 30년 갑술(서기1754)에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상궁尙宮 이씨와 안씨를 보내 석가상釋迦像을 조성하고 팔상전八相殿을 건립하였으며 원당願堂을 정하였다. 이 해 8월에는 영조 임금이 숙종 임금께서 손수 제작한 절함도折檻圖와 친필 서문序文을 하사하자 어실각御室閣에 봉안하였다. 부역賦役을 면제하여 주었다.

2783년 조선 영종 32년 병자(서기1756)에 계월당이 불에 탔다. 이듬해에 화곡華谷스님이 계월당을 중건하였다.

2792년 조선 영종 41년 을유(서기1765)에 현붕玄鵬 치흡緇洽 두 스님이 육송정 백운교를 중건하고 비를 세웠다.

2803년 조선 영종 52년 병신(서기1776)에 정순왕후가 국재國齋《왕실에서 비용을 내어 돌아가신 임금을 천도薦度)하는 재齋》를 베풀고 별제別提 이인배李仁培를 보내 국재國齋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2815년 조선 정종 12년 무신(서기1788)에 이곳 군수 이최원李最源이 임금께 아뢰어 건봉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특산물을 없애도록 하였다.

2823년 조선 정종 20년 병진(서기1796)에 강원도 순찰사 巡察使 서유방徐有坊이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를 출연하여 어실각을 중수 하였는데 이 때 강원도내 승군僧軍을 뽑아 올리게하여 4일동안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2826년 조선 23년 기미(서기1799)에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南公轍이 발기發起하여 사명선사기적비泗明禪師紀績碑를 세웠다.

2827년 조선 정종 24년 경신(서기1800)에 용허석민聳虛碩旻 스님이 사명대사 수충각酬忠閣과 사명대사 비각碑閣, 어중루御重樓를 세웠다.

2829년 조선 순조 2년 임술(서기1802)에 용허석민 스님이 제2회 만일회萬日會를 베풀었다.

만해당 대선사비와 조용출시와 노래비

2831년 조선 순조 4년 갑자(서기 1804)에 왕비 김씨가 금천금과 오동향로烏銅香爐, 오동화준烏銅花樽, 양산陽傘 등을 하사하고 순조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2832년 조선 순조 5년 을축(서기1805)에 왕비 김씨가 국재國齋를 베풀고 금자대병金字大屛과 화엄경 일부를 하사하였다.

2842년 조선 순조 15년 을해(서기1815)에 본 고을 군수 이해로李海魯가 본사에서 상정詳定해 놓고 대출해 준 돈 500꾸러미와 세금이나 빚을 그 아들 손자에게까지 받아내는 폐단을 없앴으며 세금으로 내던 두꺼운 종이 6권을 감면해 주었다. 또 속세俗世로 돌아온 승려들에게는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을 빈부에 따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2845년 조선 순조 18년 무인(서기1818)에 귀빈임씨貴嬪林氏가 등잔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등롱燈籠과 햇빛을 가리는 일산日傘, 영기令旗 등을 기증하였다.

2847년 조선 순조 20년 경진(서기1820)에 효의황후孝懿王后가 평상平床을 하사하자 어실각에 배치 하였다.

2849년 조선 순조 22년 임오(서기1822)에 본 고을 군수 김용金鎔이 본사에서 바치는 두꺼운 종이 3권, 흰 종이7권, 잡지 30여권,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농골籠骨네 수레를 덜어 주었다.

2853년 조선 순조 26년 병술(서기1826)에 본 고을 군수 송재의宋在誼가 본사의 잡역雜役을 덜어 주었다.

2855년 조선 순조 28년 무자(서기1828)에 사명대사의 영정을 봉안할 건물을 짓고 단청을 하였으며, 망해암望海庵을 창건 하였다.

2873년 조선 헌종 12년 병자(서기1846)에 물 북쪽에 있는 공전료사公殿寮舍 21동이 모두 불에 탔다. 이듬해에 화주化主 선악仙岳이 모금 운동을 펼쳐 이를 새롭게 중건하자 정부로부터 이름을 적지 아니한 임명첩 300장을 기증 받았으며, 도내에 있는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5일동안을 부역하게 하였다.

2875년 조선 헌종 14년 무신(서기1848)에 순원왕후純元王后가 금품과 집기를 하사 하시자 동화東化스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다.

2878년 조선 철종 2년 신해(서기1851)에 벽오유총碧梧侑聰이 제3회 만일회를 베풀었다.

금강갑계발상지비,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능파교신축비

2880년 조선 철종 4년 계축(서기1853)에 본 고을 군수 서유여徐有　裔 본사 사패토지賜牌土地《왕이 개인이나 사찰에 내리는 토지로 하사하는 이유를 명기하여 내림으로써 토지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장부에 감춘자를 찾아내게 하여 그 가운데 1결을 본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2884년 본 고을 철종 8년 정사(서기1857)에 본 고을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스스로 봉급에서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금강갑계발상지비

관청에 붙여두고 그 이자로 매년 70여량씩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납부하는 승번전僧番錢《조선시대 북한산성 및 남한산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각도의 스님들을 뽑아 올려 돌아가며 번番을 들게 하였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사찰에서 납부하던 세금을 말한다.》을 내도록 하였다.

2885년 조선 철종 9년 무오(서기1858)에 축성암祝聖庵이 불에 탔으나 이듬해에 석담石潭, 몽허夢虛 두 스님이 축성암을 중건 하였다.

2890년 조선 철종 14년 계해(서기1863)에 본 고을 군수 이인회李仁會가 개인 봉급 600꾸러미를 내어 건봉사 스님들이 영구히 종이를 만드는 노역勞役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892년 조선 고종 2년 을축(서기1865)에 화은강백華隱講伯을 초청하여 강원講院을 개설한 뒤로부터 강학講學의 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894년 조선 고종 4년 정묘(서기1867)에 여신도 김씨 극락화極樂華가 부처님의 향 공양을 위하여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헌납하였다.

2905년 조선 고종 15년 무인(서기1878) 4월 3일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사찰과 암자 3,183칸이 모두 불에 탔다. 이때 학림화상鶴林和尙이 불을 무릅쓰고 팔상전의 삼존불상과 오동향로, 절함도 등을 구해냈다. 군수 이주옥李周鈺이 관청 주방으로부터 밥과 국을 마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공양 하였으며, 부근 5개 면민으로부터 지붕을 이을 재료를 거두어 들여 임시로 거처할 주택을 마련하였다.

불이문不二門
건봉사 전체 가람의 정문에 해당하는 불이문은 1920년에 건립된 것으로 6.25의 전화를 유일하게 면한 건물이다. 이곳에 금강저를 그려 사찰 수호에 기능까지 보탠 것으로 정면에 걸린 현판은 해강 김규진의 글씨로 매우 단정하면서도 힘이 있다.

정부로부터는 이름을 적지 않은 임명장 500장을 받았으며, 팔도에 권선문勸善文을 반포하였다.

건봉사 중건의 큰 역사를 도모하여 이를 성사 시키기 위하여 전국 대표 사찰 다섯곳 즉 개운사, 중흥사, 봉은사, 봉선사, 용주사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토록하여 동대문 밖 미타사彌陀寺에 모두 모여 팔도 책임자 격인 화주化主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총 책임자는 서울 벽오유총碧梧侑聰으로 하고 경기도는 범운취수梵雲就竪, 충청도는 월산삼희越山三熙, 전라도는 한은정준漢隱政俊, 경상도는 용호해주龍湖海珠, 평안도는 보운본섭寶雲本葉, 황해도는 하은례가荷隱例珂, 함경도는 완명심주翫溟心舟, 강원도는 율암栗庵, 석담石潭으로 하였다.

이 해에 관음전觀音殿과 만일회를 중건 하였다.

2906년 조선 고종 16년 기묘(서기1879)에 대웅전, 어실각, 사성전, 명부전,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 청련암 등을 중건 하였다.

왕실과 각 궁, 재상으로부터 불구佛具와 금품을 다수 기증 받았다.

7월에는 대웅전, 어실각, 관음전을 단청하고 후불탱화를 조성 하였다.

대왕대비 조씨로부터 만전萬錢을 하사 받아 보운寶雲 스님으로 하여금 명부전冥府殿, 사성전四聖殿을 단청하고 십육전十六殿의 후불탱화를 그렸다. 고종 임금은 대전大殿, 곤전坤殿, 동궁東宮등 삼전三殿의 탄신을 위하여 원당을 정하고 교지를 내려 일체의 노역勞役을 없애도록 하였다.

2907년 조선 고종 17년 경진(서기1880)에 능파교凌波橋가 허물어져 무너지자 그 석재石材를 대웅전 돌 계단과 산영루山映樓를 다시 쌓는데 사용하였다.

보림암普琳庵이 불에 탔다. 벽오화상碧梧和尙이 덕원德源 무달사武達寺로부터 시왕상十王像을 옮겨 봉안 하였다.

보운화상普雲和尙이 영변寧邊 서운사棲雲寺로부터 금고金鼓 한 좌坐를 옮겨 왔으며, 장단長湍 심복사心腹寺로부터는 16나한상을 옮겨와 봉안 하였다.

대왕대비 조씨는 완화군完和君의 영혼을 위하여 천금을 하사하고 시왕불사十王佛事를 하였다.

2908년 조선 고종 18년 신사(서기1881)에 만화관준萬化寬俊이 제4회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베풀었다.

벽오, 환웅 두 선사가 보림암을 중건하고 사미沙彌 봉직奉直이 극락암을 중건 하였다.

시왕전과 16전을 단청하고 16나한상의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

2909년 조선 고종 19년 임오(서기1882)에 상궁 신씨가 예수재預修齋를 설치하고자 400금을 바쳤으며, 그의 동생 장년長連은 1,600금을 헌납하여 불구佛具를 조성하였다.

벽오, 환응 두 선사가 보림암을 중건 하였다.

비구니 성윤性允, 정심淨心 두 사람이 대원암大願庵을 중건 하였다.

2912년 조선 고종 22년 을유(서기1885)에 운파대사가 기부금과 시주 받은 것을 모아 대웅전, 명부전, 사성전의 문을 개조하고 대웅전 후면을 돌로 쌓았다.

2913년 조선 고종 23년 병술(서기1886)에 명례궁明禮宮의 토지를 사들였다.

2915년 조선 고종 25년 무자(서기1888)에 청련암과 대원암이 불에 탔다.

불이문석주의 급강저 문양

2917년 조선 고종 27년 경인(서기1890)에 인파仁坡, 만화萬化등이 팔상전, 진영각, 로전, 극락전을 중건 하였다.

2918년 조선 고종 28년 신묘(서기1891)에 신정왕후神貞王后의 소상재小祥齋를 베풀었다.

범운화상梵雲和尙이 부처님의 치아를 천안 광덕사廣德寺 스님에게 얻어와 팔상전에 봉안 하였다.

2920년 조선 고종 30년 계사(서기1893)에 경월鏡月이 독성각獨聖閣을 중건 하였으며 서봉西峰이 단청을 하였다.

2921년 조선 고종 31년 갑오(서기1894)에 원적암圓寂庵을 중건 하였다. 만화대사萬化大師가 참선실參禪室을 세웠다.

2924년 대한광무 원년 정유(서기1897)명성황후明成皇后의 대상재大祥齋를 베풀었다.

학림鶴林, 용성龍成 두 대사가 보림암을 중수 하였다.

2925년 대한광무 2년 무술(서기1898)에 회명대사晦明大師가 경선궁慶善宮의 명을 받들어 봉암암鳳岩庵을 중수 하였다.

2926년 대한광무 3년 기해(서기1899)에 응호應湖 스님이 화주가 되어 봉서루를 중건하고 대웅전 불상에 금물을 다시 입혔다.

2928년 대한광무 5년 신축(서기1901)에 극락전 남별당南別堂을 세웠다. 만화화상萬化和尙이 시주와 기부금을 모금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사들여 보안원普眼院에 기부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오래된 건봉사솟대

건봉사범종과 범종각

2929년 대한광무 6년 임인(서기1902)에 낙서암의 남별당과 반두방을 건립하고 부속사附屬舍를 옮겨 세웠다.

이듬해에 대방大房 후불탱화를 그려 완성 하였다.

2931년 대한광무 8년 갑진(서기1904) 회명대사晦明大師가 논 40마지기를 사찰에 헌납하였다.

2932년 대한광무 9년 을사(서기1905)에 명부전을 보수하고 단청을 하였으며 로전爐殿을 세웠다. 순명황후純明皇后의 소상재를 올렸다. 낙서암의 창고 16칸을 새로 건축하였다. 몽산대사夢山大師가 논 80마지기를 헌납 하였다.

2933년 대한광무 10년 병오(서기1906)에 사적비寺蹟碑를 세웠다. 어산청魚山廳, 범음계梵音 [illegible]을 주선하여 석가영아탑봉안비釋迦靈牙塔奉安碑를 세웠다.

봉명학교鳳鳴學校를 설립設立하였다. 연호대사蓮湖大師가 백련암을 세웠다. 이듬해에 봉명학교를 폐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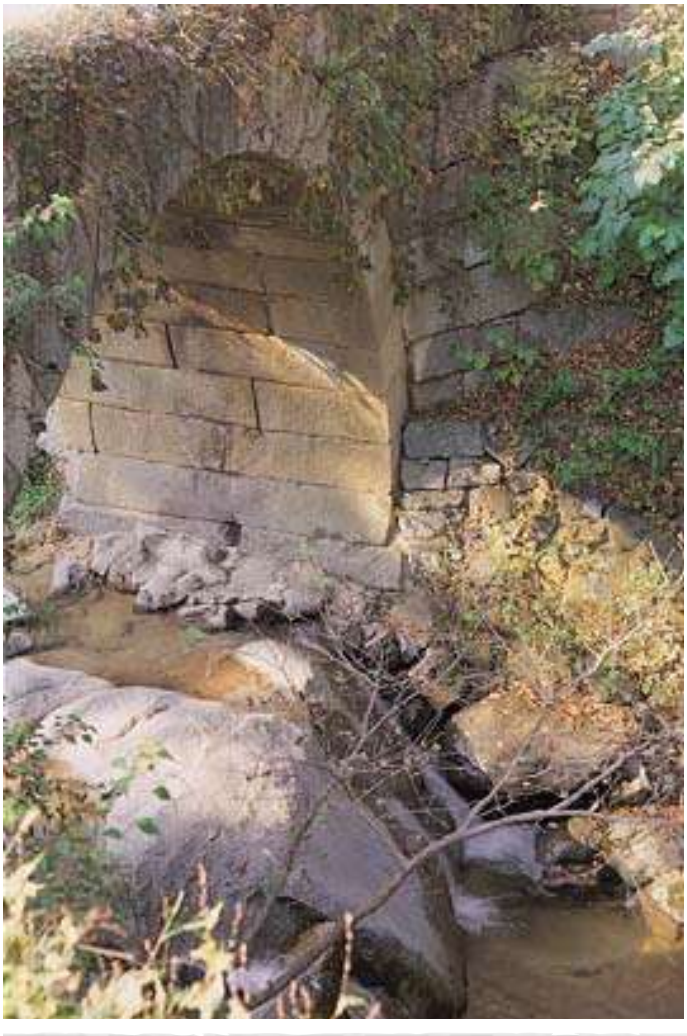
2935년 대한 융희 2년 무신(서기1908)에 제4회 만일회를 열고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었으며, 7일동안 서서 정진精進하는 법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금암의훈錦岩宜熏이 제5회 만일회를 베풀었다.

2936년 대한 융희 3년 기유(서기1909)에 무오, 갑자 두 계契에서 600원을 염출하여 동로전東爐殿 담장을 건축하고 만석계萬石階 동쪽을 돌로 쌓았다.

2937년 대한 융희 4년 경술(서기1910)에 보안원과 동지전의 담장과 수각水閣을 만들어 세웠다.

능파교



능파란 흔히 가볍고도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말로 고해의 파도를 헤치고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에서 능파교라 한 것이다. 1745년과 1880년에 중수되었다. 건봉사의 5개 홍예교 중 가장 규모가 큰 다리이다.

능파교

2938년 신해(서기1911) 6월에 조선 사찰령寺刹令이 공포되어 주지住持제도를 만들자 9월에 조세고趙世 杲 주지에 임명되었다.

영빈관迎賓館을 건축하였다.

2939년 임자(서기1912)에 사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본사는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이 되고 말사末寺는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백담사百潭寺 인제군, 신흥사新興寺 양양군, 낙산사洛山寺 양양군, 화암사禾岩寺 양양군, 영혈사靈穴寺 양양군, 명주사明珠寺 양양군, 수타사壽陀寺 홍천군, 조제암鳥啼庵 고성군, 심곡사深谷寺 양구군.

하마비 귀부, 십바라밀 석주
십바라밀 석주는 다른 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시각적인 교육효과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이다. 보살 · 마하살이 수행하는 여섯가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바라밀에다 방편, 원, 력, 지의 4바라밀을 첨가한 것으로 그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간직되어 있다.

상해上海로부터 새로 찍은 대장경 한 질을 구입하여 봉안하였다.

2940년 계축(서기 1913)에 평양부平壤府에 포교소布教所를 설립 하였다가 얼마되지 않아 폐 하였다.

2941년 갑인(서기 1914) 9월에 이운파李雲坡가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2년 을묘(서기 1915)에 31명의 소신대燒身臺에 부도를 세웠다. 간성군에 포교소를 설립하였다.

2945년 무오(서기1918)에 팔상전과 낙서암의 도량道場을 돌로 쌓았는데 금암, 경월 두 대사가 공사를 감독하였다.

2946년 기미(서기1919)에 능허, 경해 두 대사의 감독 아래 극락전 도량을 돌로 쌓았으며, 극락전의 수도水道를 매설埋設하였다.

운파화상이 시주와 기부금을 모아 중간 정도 크기의 종 5좌坐와 불기佛器30좌를 비치하였다.

낙서암의 단하각丹霞閣을 돌로 쌓았다. 11월에 이대련李大蓮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47년 경신(서기1920)에 불이문不二門을 세우고 영빈관 별실을 건축 하였다. 또 문수교文殊橋를 새로 가설하고 산영교山映橋를 고쳤다. 능허대사凌虛大師가 돈 천원을 바치자 비용에 충당하였다. 봉서루, 만일회, 보안원, 만석계의 석축 공사를 준공하였다. 낙서암의 수도를 매설하였다.

대웅전
6.25때 소실된 건물을 복원하였다.

2948년 신유(서기1921)에 인천仁川에 포교당을 설립하였다. 봉림학교鳳林學校를 설립하였다. 한암선백寒岩禪伯을 초청하여 무차선회無遮禪會를 베풀었다.

2950년 계해(서기1923) 10월에 노제봉盧霽峯이 주지에 임명되었다.

2951년 갑자(서기1924)에 봉림학교를 폐교하였다.

2952년 을축(서기1925)에 사찰 사무소를 중수하고 극락전과 만일회의 부속사를 중건 하였다. 주지 제봉이 사찰 비용을 절약하여 빚 16,000여원을 갚았다.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지에게 상품을 증정 하였다.

2953년 병인(서기 1926) 10월에 이대련이 주지에 임명 되었다.

2954년 정묘(서기1927)에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을 설립하고 공비생公費生30명을 양성 하였다. 불상 일곱분을 금으로 다시 입히고 장구사葬具舍를 건립 하였다. 원옹덕성圓翁德性이 화주化主에 뽑혀 제5회 만일회를 이어갔다.

대웅전에 모셔진 석가모니불과 좌우탱화

건봉사에 속한 암자 일람

보림암普琳庵

불기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 533)에 창건 하였으며, 2550년 계해(서기1523)에 보림선사普琳禪師가 중건 하였다. 2907년 경진(서기1880)에 불에 탔으며, 이듬해에 벽오碧梧, 환응幻應, 두 대사가 중건 하였다.

2924년 정유(서기1897)에 학림鶴林, 용성龍成 두 대사가 중수하였다.

백화암白華庵

1872년 신라 문성왕 7년 을축(서기845)에 창건 하였으며, 일명 축성암祝聖庵이라고도 하였다.

2873년 병오(서기1846)에 불에 탔으며 2885년 무오(서기1858)에 석담石潭, 몽허夢虛 두 대사가 중건 하였다.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또 불에 탔으며, 이듬해에 중건하였다.

봉암암鳳岩庵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2769년 임술(서기1742)에 해운海雲이 중수 하였다. 2925년 무술년(서기1898)에 회명晦明이 중건 하였다.

극락암極樂庵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 945)에 창건 하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4년 뒤에 사미沙彌 봉직奉直이 중건 하였다.

백련암白蓮庵

2933년 대한광무 10년 병오(서기1906)에 연호대사蓮湖大師가 창건 하였다.

반야암般若庵　　없어졌다.

1560년 신라 법흥왕 20년 계축(서기533)에 창건 하였으며, 2873년 병오(서기1846)에 불에 탔다. 옛터는 건봉사 서쪽 1리 되는 곳에 있다.

청련암靑蓮庵　　없어졌다.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2633년 병오(서기1606)에 신묵信默이 중수하였다. 2905년 무인(1878)에 불에 탔으나 이듬해에 서암西庵이 중건 하였다. 2915년 무자(서기1888)에 또 불에 탔다. 옛 터는 건봉사 동쪽 약 8리쯤 되는 곳에 있다.

대성암大聖庵　　없어졌다.

1972년 고려 혜종 2년 을사(서기945)에 창건 하였으며, 후에 없어졌다. 옛 터는 청상봉靑裳峰 아래에 있다.

적명암寂明庵　　없어졌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창건 하였으며, 2633년 병오(서기1606)에 혜능惠能이 중건 하였다. 그후 약 170년경 후에 없어졌으며, 옛 터는 건봉사 남쪽 유선곡遊仙谷에 있다.

보리암菩提庵　　없어졌다.

2188년 고려 의종 15년 신사(서기1161)에 창건 하였으며, 그 후에 없어졌다. 옛 터는 건봉사 동쪽 15리에 있다.

백련암白蓮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며, 2753년 병오(서기1726)에 무너져 없어졌다.

보문암普門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대원암大願庵　　없어졌다.

2386년 고려 공민왕 8년 기해(서기1359)에 창건 하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5년 뒤인 비구니 성윤정심性允淨心이 중건 하였으며, 2915년 무자(서기1888)에 또 불에 탔다.

일출암日出庵　　없어졌다.

2492년 조선 세조 11년 을유(서기1465)에 현붕玄鵬이 창건 하였으며, 2619년 임진(서기1592)에 병란兵亂으로 불에 탔다.

안양암安養庵　　없어졌다.

2633년 조선 선조 39년 병오(서기1606)에 혜능이 창건 하였으며, 2905년 무인(서기1878)에 불에 탔다.

동대암東大庵　　없어졌다.

2735년 조선 숙종 34년 무자(서기1708)에 창건 하였으며, 2873년 병오(서기846)에 불에 탔다.

망해암望海庵　　없어졌다.

2855년 조선 순조 28년 무자(서기1828)에 창건 하였으며, 후에 없어졌다.

은선암隱禪庵, 영귀암靈龜庵, 서봉암棲鳳庵은 언제 창건 되었다 언제 없어 졌는지 자세하지 못하나 옛 터만은 지금도 남아 있다.

건봉사의 옛 대웅전 모습(1929년)

건봉사의 건물

대웅전大雄殿 9칸, 팔상전八相殿 9칸, 관음전觀音殿 3칸, 사성전四聖殿 6칸, 명부전冥府殿 6칸, 독성각獨聖閣 3칸, 산신각山神閣 1칸, 단하각丹霞閣 1칸, 진영각眞影閣 6칸, 범종각泛鍾閣 1칸, 봉서루鳳棲樓 14칸, 보제루普濟樓 6칸, 대지전大持殿 9칸, 동지전東持殿 12칸, 서지전西持殿 9칸, 어실각御室閣 6칸, 어향문御香門 3칸, 동고東庫 3칸, 낙서암樂西庵 168칸, 극락전極樂殿 165칸, 만일원萬日院 89칸, 보안원普眼院 58칸, 선원禪院 9칸, 원적암圓寂庵 12칸, 사무소事務所 13칸, 불이문不二門 1칸, 여관旅館 13칸, 장의고葬儀庫 3칸, 성황당城隍堂 2칸, 수침실水砧室 2칸. 합계 642칸.

건봉사에 속한 암자건물

보림암普琳庵 9칸, 봉암암鳳巖庵 32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백련암白蓮庵 6칸, 백화암白華庵 28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극락암極樂庵 49칸(산신각 1칸이 들어 있음). 합계 124칸.

건봉사의 토지

건봉사 사사지社寺地는 7,340평이고, 논이 507,883평, 당시 지가地價로는 44,911원3전이었다. 밭이 164,527평이고, 3,221원35전이었다. 잡종지는 298평에 1원19전이었으며, 대지는 4,486평에 200원98전이었다. 합계는 684,534평에 48,334원55전이었다.

건봉사의 임야

임야 1,840정町3,206보步, 잡종지 4,624보.

건봉사의 보물

도금원불鍍金願佛, 오동향로烏銅香爐(소형), 철장鐵杖 이 세 가지는 사명대사의 유품이다.

큰 종은 불기 2700년 조선 현종 14년 계축(서기 1673)에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1,700근이었다.

절함도折檻圖, 차거다반磋硙茶盤《인도지방의 바다에서 나는 조개 껍질로 장식하여 만든 찻반으로 백색 광택이 나는 칠보의 한 종류임.》은 숙종 임금의 하사품이다. 오동향로는 순조 임금 왕대비 김씨의 하사품이다.

건룡33년 범종 영조44년주조
1912년

숙종어제 절함도 (부분)
1912년

청동제은입사향완
1943년

전 송운대사 사용 청동제은입사향완
1912년

건봉사의 탑

불사리탑佛舍利塔, 포암당탑浦岩堂塔, 김주화탑金柱花塔, 최씨사리탑崔氏舍利塔, 월광동자탑月光童子塔, 월성당탑月城堂塔, 동시사리탑同時舍利塔, 계운당탑桂雲堂塔.

건봉사의 부도浮屠

청담당부도淸潭堂浮屠, 정파당부도井波堂浮屠, 포운당부도抱雲堂浮屠, 진곡당부도震谷堂浮屠, 용안당부도龍眼堂浮屠, 일암당부도日庵堂浮屠, 석봉당부도石峰堂浮屠, 풍악당부도楓嶽堂浮屠, 해운당부도海雲堂浮屠, 몽월당부도夢月堂浮屠, 제봉당부도霽峰堂浮屠, 동봉당부도東峰堂浮屠, 당부도 堂浮屠, 목양당부도牧羊堂浮屠, 운파당부도雲坡堂浮屠, 월봉당부도月峰堂浮屠, 화은당부도華隱堂浮屠, 송악당부도松岳堂浮屠, 운암당부도雲岩堂浮屠, 금월당부도錦月堂浮屠, 청암당부도靑岩堂浮屠, 진각당부도眞覺堂浮屠, 송허당부도松虛堂浮屠, 당부도 堂浮屠, 당부도堂浮屠, 진부당부도眞浮堂浮屠, 치양당부도馳羊堂浮屠, 영운당부도影雲堂浮屠, 벽하당부도碧河堂浮屠, 해○당부도, 하운당부도河雲堂浮屠, 명진당부도明眞堂浮屠, 석파당부도石坡堂浮屠, 송화당부도松華堂浮屠, 백운당부도白雲堂浮屠, 월곡당부도月谷堂浮屠, 담연당부도湛然堂浮屠, 용암당부도龍岩堂浮屠, 대인당부도大印堂浮屠, 대범화부도大梵華浮屠, 용봉당부도龍峰堂浮屠, 용파당부도龍波堂浮屠, 진해당부도震海堂浮屠, 정원당부도井源堂浮屠, 유○골부도遺○骨浮屠, 임행복부도林幸復浮屠, 혜능당부도惠能堂浮屠, 신묵당부도信默堂浮屠.

건봉사의 비

불령아탑비佛靈牙塔碑, 불치상탑비佛齒相塔碑, 사명당비泗溟堂碑, 대운당大雲堂碑, 만일회연기비萬日會緣起碑, 용허당비聳虛堂碑, 일암당비日庵堂碑, 벽오당비碧梧堂碑, 운파당비雲坡堂碑, 목양당비牧羊堂碑, 월봉당비月峰堂碑, 해곡당비海谷堂碑, 송암당비松岩堂碑, 만화당비萬化堂碑, 건봉사연회비乾鳳寺蓮會碑, 건봉사사적비乾鳳寺事蹟碑, 능파교비凌波橋碑, 육송정홍교비六松亭虹橋碑, 석교조성제명비石橋造成題名碑, 대소행인하마비大小行人下馬碑, 관찰사박종길비觀察使朴宗吉碑, 관찰사조학년비觀察使趙鶴年碑, 군수이최원비郡守李最源碑, 군수이용학비郡守李容學碑, 군수서유여비郡守徐有 畬碑, 군수정재용비郡守鄭在容碑, 군수김용비郡守金鎔碑, 군수이해로비郡守李海魯碑, 군수박돈호비郡守朴敦浩碑, 군수송재의비郡守宋在誼碑, 군수이면익비郡守李冕翼碑.

건봉사의 진영眞影

발징화상發徵和尙진영, 청허당淸虛堂진영, 사명당泗溟堂진영, 풍악당楓嶽堂진영, 영파당影波堂진영, 송암당松岩堂진영, 용허당聳虛堂진영, 대운당大雲堂진영, 성원당性圓堂진영, 송파당松坡堂진영, 낙빈당樂貧堂진영, 송원당松源堂진영, 영해당影海堂진영, 몽월당夢月堂진영, 금성당錦城堂진영, 운계당雲溪堂진영, 호연당浩然堂진영, 진각당眞覺堂진영, 응운당應雲堂진영, 기봉당麒峰堂진영, 봉계당鳳溪堂진영, 선악당仙嶽堂진영, 봉림당鳳林堂진영, 벽오당碧梧堂진영, 성봉당聖鳳堂진영, 선원당仙園堂진영, 벽암당碧岩堂진영, 화은당華隱堂진영, 영담당靈潭堂진영, 원성당圓惺堂진영, 연우당蓮藕堂진영, 인파당仁坡堂진영, 석담당石潭堂진영, 풍계당楓溪堂진영, 몽산당夢山堂진영, 혜암당惠庵堂진영, 벽담당碧潭堂진영, 원호당源湖堂진영, 학림당鶴林堂진영, 쌍월당雙月堂진영, 만화당萬化堂진영, 청암당靑庵堂진영.

구절폭

건봉사의 명소

구절폭九折瀑

백운동白雲洞 하류가 멀리돌아 아홉번이나 꺾여 폭포를 이루었는데 높이는 약 40척(12m)이 된다. 그 옆에는 대臺가 하나 있는데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이를 기읍대企 [illegible]라 이름 하였다. 경치가 아름답고 고을 뿐만 아니라 기품氣品이 맑고 시원스럽다.

봉암鳳岩

봉암암의 북쪽에 있으며, 봉황새 모양을 닮은 돌이 깎아지른 절벽에 위태롭게 서 있어 기이한 장관을 드러내고 있다.

보림동普琳洞

건봉사로부터 보림암에 이르는 중간지점에 있으며, 골짜기가 그윽하고 산수의 경치가 맑고 시원하여 자못 신선세계를 방불케 한다.

소신대燒身臺

발징화상發徵和尙과 만일회에서 염불을 하던 31명이 극락왕생한 소신대로서 불기 2942년(서기1915)에 부도를 세웠으며,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의 신앙의 표적이 되고 있다.

건봉사의 옛기록

숙종대왕 어제御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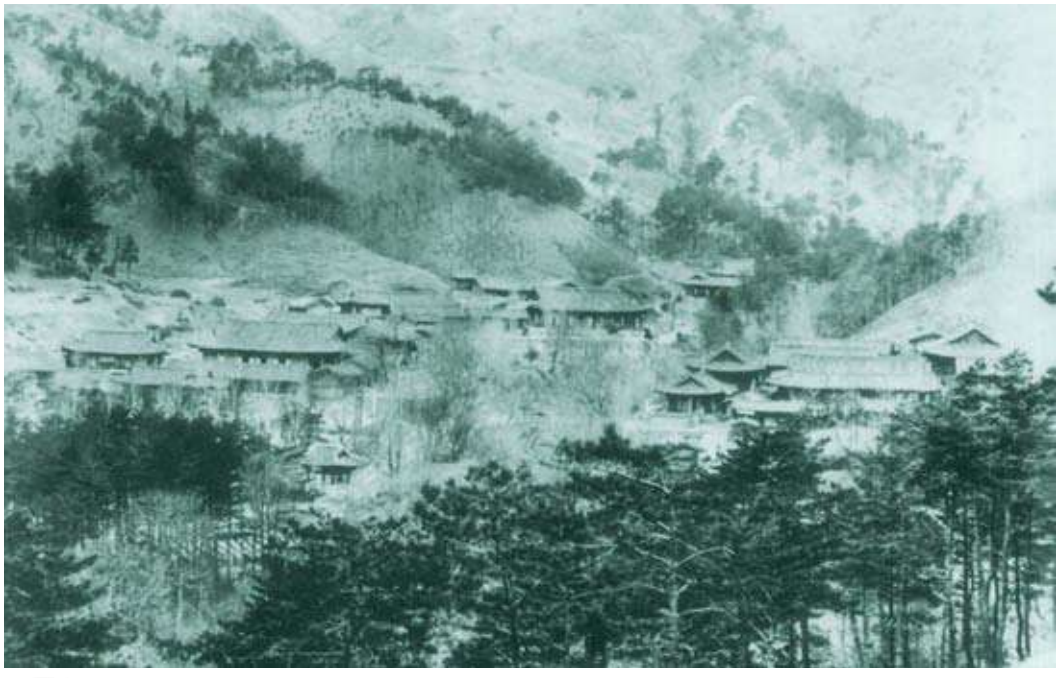
주운절함도朱雲折檻圖《한(漢)나라 때 주운朱雲이 임금에게 간諫하니 임금이 화를 내어 주운을 끌어 내리려 하므로 주운이 어전御殿의 난간에 올라가 버티다가 난간을 부러지게 한 고사를 말한다.》서문

옛날 효종대왕 때 재신宰臣 이행진李行進이 동지사冬至使의 부사副使로 중국 북경에 갔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얻어서 상소문을 갖추어 나라에 바쳤으니 바로 주운朱雲이 난간을 부러뜨리는 그림이었다. 성제成帝의 화난 표정과 주운이 슬퍼하고 분개해 하는 모습이 이 한폭의 그림속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비록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그리지는 못할 것이다.

한漢나라는 건시建始이래〈BC32~BC29〉 왕씨가 나라의 실권을 잡아 국세國勢의 위태로움은 누란累卵의 위기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태로웠다.

바야흐로 이러한 때이니 관리와 백성들이 한결같이 글을 올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기를, 이는 왕씨가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있다고 비방하였다.

성제의 마음도 자못 그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장우張禹의 집으로 행차하여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천변에 관하여 장우에게 물었다. 그리고는 관리와 백성들이 말하는 왕씨의 일에 대하여도 장우에게 알렸다. 이는 정말로 한나라가 전화위복轉禍爲福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장우는 황제의 사부師傅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로는 왕씨에게 아첨하고 위로는 황제를 기망欺罔하였으니 일에 어둡고 어리석은 성제로서 어찌 능히 그 말의 사악하고 못된 것임을 살필 수 있었겠는가! 이런 까닭에 다시는 왕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6.25사변으로 소실되기 이전의 31본산 건봉사전경

그러므로 후일에 있을 왕망王莽의 제위帝位 찬탈簒奪을 반드시 장우가 그 길을 열지 않음이 없다고 해야할 것이니 하늘에 사무치는 죄는 죽어도 남음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괴리령槐里令인 주운은 보잘 것 없는 말단 신하로써 성상께 글을 올려 알현하기를 구하고 상방尙方의 칼을 빌려 못된 신하의 머리를 자르기를 청했으니 강직한 기상은 늠름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성제는 주운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노했고 어사御史가 주운을 끌어낼 때 한나라 조정의 공경公卿들은 모두 왕씨의 위세를 두려워 하여 입을 꽉 다물고 어느 누구도 감히 이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다. 만약 좌장군 신경기辛慶忌가 벼슬에서 쫓겨남을 무릅쓰고 힘써 쟁론爭論하지 않았더라면 주운은 필경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년 후인 지금에 이 그림을 보아도 마음속 깊이 사무침을 느낄 수 있다.

우리 효종대왕과 선왕께서 늘 이 그림을 곁에 두시고 이따금 이것을 보셨으니 뜻이 매우 크셨도다. 뜻이 매우 크셨도다.

지금 내가 이 그림을 전각에서 펼치고 보는 것은 그림 그 자체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효종대왕과 선왕의 속 마음을 체득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찬贊을 스스로 짓고 그림 위에다 써 놓는 것이다.

옛날 장안에 도읍한 한나라에서
외척들이 조정의 권력을 독차지 하였네.
보검의 칼자루를 거꾸로 남에게 쥐어준 것 처럼
황제의 위세는 사그러 들었네.
근심하고 의심하여 결단을 못내고
몸소 신하의 집을 찾아가는 성의가 없음은 아니었으나
장우는 제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충성되고 강직함을 뒤로 하였네.
그 때 지체가 낮은 신하 한 사람 있었으니
그 이름을 주운이라 하였네.
충성심과 올분에 과격함이 있었으나
속 마음은 임금님을 깨우치려 함이었네.
벼락같은 황제의 노여움 앞에서도
난간에 매달리며 크게 부르짖으니
그 언사는 더욱 간절 하였네.
우뚝하도다 높은 이름이여!
무게는 태산보다 더 무겁도다.
역대의 인물중에 찾아본다 하여도
이같은 일은 또한 보기드믄 일이라네.

《한나라 성제 때 외척인 왕씨 일족이 조정의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리자 황제는 무력해져 갔다. 이 때 안창후安昌侯인 장우는 황제의 스승으로 지위가 높아 존중 받고 있었다. 어느날 주운은 황제에게 뵙기를 청하여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말하기를 "요즈음 조정의 대신들은 위로는 황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지 못하면서 국록國祿이나 축내고 있으니 원하옵건데 황제의 상방검尙方劍을 빌려 주십시오. 못된 신하 한 사람의 목을 베어 다른 사람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주운은 "안창후 장우 입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크게 노하여 어사를 시켜 끌어 내 쫓으려 하자 주운은 난간을 부둥켜 안고 늘어지며 말하기를 "신은 죽으면 비간比干「은나라 주왕 때 충신」을 만나 같이 지하에서 놀면 되지만 성조聖祖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부둥켜 안고 있던 난간이 부러졌다. 그 뒤 난간을 고치려고 하니 황제는 "그대로 놔 두어라" 하였다. 황제는 그것을 보며 늘 주운의 충성심을 생각하려 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해는 기축(1709) 정월에 쓰다.

석가여래 치아탑 비명과 서문

봉래산 춘파 제2세 운파문인 월봉선사 쌍식이 짓고 아울러 전서로 쓰다.

적멸보궁

듣건대 먼 옛날 자장법사가 몸소 중국에 들어가서 석가 여래의 정골頂骨 치아의 사리와 금빛 가사 약간을 얻어다 양산 통도사에 간직하였으니 몇천 년전의 유래인지 알지 못하겠다. 중간에 왜적이 와서 탈취해 감으로 온나라가 실망에 빠져있었는데 사명대선사 유정께서 사신의 명을 받들고 일본국에 갔다가 치아사리 12매를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와 건봉사 낙서암에 모셔놓았다. 사람들이 모두 진귀해 하며 완상하고 제를 지내기를 또한 일년이 넘게 걸렸다. 대중들이 말하되 불법이 땅에 떨어져 쇠잔해지고 인간도 경시되고 불법도 경시되어 밖에다 모셔놓는 것은 옳지 못하니 대중과 의논한 끝에 탑을 세워 보관하기로 하고 각각 물자와 금전을 출자하여 장인에게 돌을 쪼아 다듬도록 하여 건봉사 서쪽 산기슭 안전한 곳에 편안히 모셨다. 비록 불도佛道의 가풍이 쇠잔했다고는 하나 또한 만세토록 심원한 불법을 길이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니 부처님을 받드는 성의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 이를만 하다.

이에 구름도 기뻐하고 물도 기뻐하며, 승려와 속인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앞다투어 몰려와 무릇 보고 듣는자 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참으로 고금에 보기드문 광경이요, 인연이었다. 그러니 재산을 덜어 보시布施한 신도와 역사役事를 맡은 임원과 돌을 다듬는 석공들은 부처님의 소중한 치아사리로 하여금 거듭 오늘에 빛을 발하게 한 사람들이다, 아! 아름답도다.

월봉 쌍식은 미천한 재주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삼가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고 비명을 짓노니, 명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 대각**大覺**이시요
인천사**人天師**께서
서역에서 입멸을 보이시자
탑을 세워서 봉안했던 사리니
팔만 주변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인연이 있어.
보배로운 치아사리를 봉안함이니
기린의 뿔과 같이 희귀하도다.
온 산문이 밝게 빛나고
우뚝 서 있는 모양이 뛰어나시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공경하고
용과 천인도 수호하리라.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로다
만세토록 영광된 기풍은
영원 불멸하리라 !

황명 숭정기원 후 100년 해는 병오(1726) 6월 일에 세우다.

금강산 건봉사의 새로 낙성한 계월당 기록

산은 금강으로 써 이름하니 견고함이 있고 예리함이 있으며, 절은 건봉으로 이름하니 바탕도 있고 문채도 있다 하겠다. 대저 계월桂月은 허공에 출몰하되 때로는 흰색도 되고, 때로는 검은 색도 되어 둥금과 이지러짐을 자유로이 한다. 이 당堂의 액額이 특히 이것으로 이름을 삼은 것은 깊이 까닭이 있다 할 것이니, 대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에 말미암아 수행하여 깨달음도 없고 수행도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하고자 한 것 뿐, 이런 까닭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밤에 이야기하며, 달을 문제삼을 때 혹은 말하기를 공양할 만하다고 하고 혹은 수행할 만하다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가사를 떨치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으니 그들이 각자 얻은것은 육신이 실체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계월당의 건축은 즉 어찌 다만 금강중에 건봉이 있고, 건봉중에 계월이 있음만 되겠는가. 또한 계월속에 건봉이 있고 건봉속에 금강이 있음이 될 것이다.

다시 차례로 계속 미세한 부분까지 추구해 들어가면 곧 일이 곧 삼이요, 삼도 아니며 일도 아님이 되리니 무애한 속에 융합하여 마침내 필경공畢竟空에 이르고 말리니 산과 절도 존립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당堂이며, 당도 존재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당속의 사람이겠는가, 경境도 없고 인人도 없어서 끝모르게 광대함이 원각圓覺의 대가람大伽藍이요, 필경공적畢竟公寂의 집인 것이다. 이집은 남의 공을 빌리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성취한 것인데 다만 사람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성취된 것을 본것도, 파괴된 것을 본것도, 새로운 것을 본것도, 옛것을 본것도 모두 계월당이었으니 이 건봉사와 나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 계월당의 년기年紀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기사년 여름에 오직 담연자湛然子, 재민載敏, 비구가 중수했다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 더욱이 건륭乾隆 병자년(1756) 겨울밤에 홀연히 화재를 만나 이를 구하지 못하고 몽땅 소실되었는데 이듬해 정축년 봄에 뛰어난 목공을 불러 좋은 재목을 다듬어 그 해 늦여름에 비로소 낙성을 보게 되었다. 칸수는 다 전과 같았으며, 우뚝한 지붕의 웅장미도 실로 옛것 보다 배나 나았다.

이 계월당은 한 절의 대중들이 서원을 일으켜 제각기 재물을 출자하는데 그 힘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에 이를 수 있었으리오! 하물며 화곡도인華谷道人이 그 의지를 살려 홀로 모든 협조를 구한 끝에 이룩해 놓았으니 그 공이 여러 사람을 뒤덮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껏 인人과 법法에 함께 실체가 없을 바에는 누가 이를 이룬자이며, 누가 물자를 보시한자 이겠는가 어떤것이 보시된 물자이며, 어떤것이 이루어진 당堂이겠는가. 당도 이루어짐이 없었겠는데 하물며 이를 기술하는 자이겠는가. 화곡이 비록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였으나 어찌 활활 타오르는 불꽃속에서 한 점의 눈송이를 용납 하겠는가!

때는 건륭 23년 무인(1758) 가을에 모某가 기록하노라.

새로 창설한 만일회 사적일기

태청가경 경신(1800) 6월 28일 우리 성상 정종대왕이 승하하심으로 국상을 당하니 온 나라안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 같았다. 비록 심산유곡에 있는 하찮은 백성일지라도 어찌 천리가 멀다하여 빨리 달려가서 통곡을 하지 않으리요. 나도 8월에 슬픔을 머금고 괴로워 하며, 임금님의 궁성이 있는 곳으로 가서 다가오는 국장일國葬日에 국상여國喪輿를 바라보며 하늘이 무너지는 끝없는 슬픔을 달래려 하였으나 국장일까지는 몇 달이 남아있어 화계와 회운사이를 왕래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홀연히 회운에서 9월 13일밤에 꿈을 꾸었는데 길옆에서 성상과 태자를 태평세월을 즐기며 엎드려 기다리고 있었더니 성상께서 소신을 돌아보며 이르시기를 '너는 어찌 새 상감을 위해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고 '하시기에 신은 오직 분부를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자' 태자가 말하기를 '너는 이미 축하 하였는데 별로 내려 줄 것이 없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고 하면서 즉시 임금께서 직접 쓰신 한 편의 글을 앞에다 던져 주었다. 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받들고 나오면서 백번 절하고 소리 높여 외치며 말하기를 신은 외람되게 하찮은 벌레와 같은 존재로서 하해와 같은 은혜를 입었사오니 신은 마땅히 죽더라도 결초보은 하여 우러러 성상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뿐 입니다라 하고 잠깐 눈을 뜨자 마치 꿈을 꾸는것 같기도 하고 꿈을 깬 것 같기도 하여 이렇게 밤을 새웠다. 이튿날 아침 지난밤 꿈에 대한 감동과 목이 메이는 것을 이기지 못해 삼가 한 편의 글로써 공경히 그 사실을기록한다고 하였다.

꿈에 임금께서 타신 수레를 곁에서 모셨는데 위엄있는 용안과 낭랑한 말씀을 지척에서 들으매 잠시 멈추었다 소리높여 부르짖고는 문득 놀라 깨어 일어났으나 남루하게 걸친 옷은 그대로였으며, 임금님의 향훈이 엄습해 왔다. 그 이튿날

보름이 국재일이라 부름을 받고 몸소 나아가 이에 참석하였는데 어젯밤 꿈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으며, 이틀밤을 똑같은 꿈을 꾸었으니 이는 실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었다.

아! 꿈이란 깨어있을 때의 일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깨어있을 때의 일이 꿈을 꾸게되는 바탕이 되는 것이리라. 깨어있을 때의 본질이 바르면 꾸는 꿈도 바른 것이 이치의 당연함이라고는 하나 꿈이 이와 같이 기이할 때도 있는 것이니 깨어있을 때의 일이 어찌 이와 같이 신기한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매우 기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법 강론에 뛰어난 선사들이 국재를 올리는 자리에 많이 모여 들었는데 한가히 시사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봉사 옛 만일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청하자 내가 말하기를 옛날 발징화상이 만일회를 베풀자 31인이 참여 하였는데 육신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고 하였다. 그 같은 일이 매우 영적이고 기이하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었으며, 이 때 발징화상은 바다에 굳게 맹세하고 산에 엄숙히 맹세하고 나서 옛날 만일회를 열었던 도량에서 새로운 만일회를 거듭 베풀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쇠잔해 가는 불도를 건져 주심이 어찌 발징화상 혼자만이었겠으며, 오로지 옛날의 아름다움만이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발징화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분은 그와 같은 때를 만났다고 할 수 있으며, 마땅히 만일이라는 기한이 찼으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시고 31인의 참선자들의 육신이 허공에 올라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날에는 발징화상의 만일회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때 수행 정진하던 사람들에 미칠 수 없으니 어찌 감히 옛날 그 때와 그 사람들을 더볼 수 있으리오. 내가 굳이 사양을 하자 모든 불자들은 더욱 간절히 청하며 말하기를 선사께서는 어찌 그 같은 분이 아니라고 하시고 때가 그와 같은 때가 아니라고만 하십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제봉대사霽峯大師와 민관旻官 동지가 함께 부처님 앞에 맹세코 다짐을 결정하고 권선문勸善文 두 축을 작성하여 제봉과 민관 두 선사는 서울에 머물며 만일회를 위한 모

금 활동을 하다 나는 동짓달에 건봉사로 돌아와서 이같은 사실을 사찰에 알렸더니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분분 하였다. 그러나 큰 공을 이루자면 대중에게 일일이 논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하기로 하고 먼저 설법을 할 수 있는강당을 건축하고 나서 다음으로 염불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맞이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거민巨敏으로 모든 일을 도맡아 살피게 하고 운오運悟, 입윤入允 등으로 별좌別坐의 일을 보게 하였으며, 연파대사蓮坡大師는 그 역사役事의 총괄을 맡도록 하고는 재목을 마련하니 즉 신유(1801) 3월 3일 삼짓날이었다.

이에 모연문募緣文 다섯 축을 작성하여 남북 각지에 발송하고 나 또한 그 글을 소매에 넣고 차례로 남쪽을 향해 도움을 청하러 나섰다. 영천 은해사銀海寺 등지를 돌며 모금한 결과 거의 천금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었으니 이는 어찌 부처님의 성스러운 도움의 힘이 아니었겠는가!

사월이 되었어도 영남지방을 다 돌지는 못하였으나 역사에 필요한 재정은 부족하였고 또 확보할 길이 어렵게 되자 거민과 민관 등은 속수무책이었다. 장차 벌여놓은 일이 중도에서 그만두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남쪽에서 모금한 물품이 절에 도착하게 되자 재정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본 역사는 평탄하게 진행되어 90%의 성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영남에서 모금을 마치고 6월 18일 절에 도착하자 마침내 우뚝한 새로운 전각이 낙성되자 허공을 뚫고 선 듯 하였다. 내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기뻐하여 말하기를 만일염불의 전당이 여러달이 채 못되어 이와 같이 낙성을 보게 되었으니 염불하는 사람들이 어찌 30년을 기다려 허공으로 날아 오르리요. 오히려 혹은 눈으로 비웃으며, 마음 속으로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다행스럽게 이 같은 비방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남이 나를 비방함을 어찌 내가 알겠으며, 또한 어찌 남의 말로 내가 물러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좋은날을 가려 낙성을 보게 되었다.

8월 북한사北漢寺 국재 때에 영남에 계시는 영파법사影波法師 큰 사부께서 역참驛站의 말을 타고 서울에 이르러 국재에 참석하여 이에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행할 때 나 또한 여

염불만일회

기에 참석하였다. 국재가 끝난 뒤 영파 노사부님을 보내드리고 또 제봉화상과 함께 돌아오는 날에 제봉화상이 만일회의 옛 자취를 기록하였다.

영화를 누리로다 구중궁궐이여! 궁궐이 비록 깊은 곳에 있으나 보잘 것 없는 작은 정성에 감동하시어 어전으로부터 청동 이백근과 황금 6속을 내려 주셨다. 이것으로 보배로운 탱화를 완성하였으며, 붉은 비단 장막 2건과 붉은 비단 양산 1건, 황초 100쌍을 내리신 물자로 부처님을 받들기 위한 장신구를 갖추었다. 또 200꾸러미의 돈과 논을 하사하여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였다. 또150꾸러미의 돈을 하사받아 100일을 기한으로 새로이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었는데 영파, 제봉, 연파 세 분 화상과 또 대중과 많은 선사들이 화합하여 100일동안 불공을 드리는 100일재를 열었던 것이다. 이 때 모든 대중들은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임금님의 만수를 빌었으며, 영파 노선사는 화엄경을 외우면서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계해년 봄에 또 200꾸러미의 돈을 하사 하시자 다시 100일 불공을 올렸다. 이어서 금로적金露滴이라는 붉은색 큰 초 두 쌍을 내려 주었으며, 가사불사袈裟佛事를 만일회 도량에 세웠다. 전후로 해서 내려 보내주신 하사품으로 두 번에 걸

쳐 100일불공의 명을 받들었으니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그랬던 것이었다.

이는 한결같이 회운晦雲에서 꾼 꿈과 어찌 그렇게도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일까? 이런 까닭에 그것을 살펴보니 깨어있을 때의 본질이 올바르면 꾸는 꿈도 바르다는 이치를 믿게 되었다. 이처럼 하해와 같은 성은聖恩이 온 산에 널리 미쳤으니, 비록 바위 굴속에 엎드려 있는 사슴들과 이웃이 되었다고 하여 어찌 임금을 향하는 마음과 살찐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으로 이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 않으리요. 모두 화려하게 받들어 봉축할 진져! 다행히 태평성대를 만나 아름답고 천고에 어려운 일을 성사 시키는데 있는 것이니 어려운 일이란 일만일一萬日 30년내의 기한으로서 날마다 임금님의 만세와 만수무강을 빌며, 아울러 날마다 아미타 부처님을 만 번 소리내어 외우는데 있었던 것이다. 30년밖에 우리와 법계法界 모든 생령生靈들이 함께 부처님께서 띄운 보배로운 배를 타고 모두 저 피안彼岸《번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사고해生死苦海를 차안此岸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생사경계를 초탈超脫하여 일체의 번뇌를 벗어나 자성自性을 깨친 경지를 말하며 열반涅槃을 뜻한다.》에 들 수 있으리니 하늘과 땅 사이에 어찌 이 같은 경사스러움이 자주 있을 수 있겠는가!

1912년

금강산 건봉사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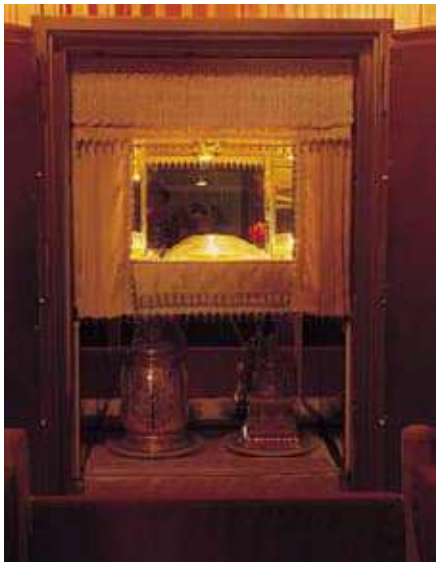
마음속으로 곰곰히 생각해 보니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6년 즉 천감天監 19년 경자(서기520)에 창건 하였다. 처음 창건 될 당시의 이름은 원각사圓覺寺라 불렀으며, 고성현古城縣에 있다. 당나라 숙종肅宗 건원원년乾元元年 무술(서기758)에 발징법사發徵法師가 미타만일염불회彌陀萬日念佛會를 베풀었다. 만일회를 베푼 29년 뒤인 병인(서기 786)에 이르러 그동안 꾸준히 만일염불의 공적을 쌓은 31명의 육신이 공空《육계六界의 하나로 아무 물건도 있지 않다고 하는 빈 세계.》의 실적을 쌓았음이 역사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려 열산현烈山縣 때에는 편액扁額의 이름을 서봉西鳳이라고 고쳤으니 오늘날 건봉사가 이것이다. 서북쪽 모퉁이에 봉황鳳凰과 같이 생긴 돌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했다. 아득하여 골똘이 생각해 보니 성화成化 원년 을유(서기1465) 4월 11일에 우리 세조대왕께서 동쪽으로 행차하셨을 때 이 건봉사에 이르러 5일동안 어가御駕를 세워 머무르고 원당願堂을 정하였으며, 어실각御室閣을 세웠다. 또 전답을 하사하여 부처님을 공양함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였다.

지장전

만일원

임금께서 직접 법회法會에 참석하시어 발원문發願文을 손수 쓰셨으니 발원문에 이르기를“무릇 나도 법회에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이미 불법을 믿어야 할 마음이 생겼으니 망녕되어 함부로 마음을 미혹되게 갖지 말며, 미혹한 마음이 생기는 곳은 모두 구태에 얽매인 인연 때문이니 이러한 구태에 얽매인 인연이 모이게 되면 무겁고 탁한 것이 태산을 이룰 것이며, 마침내 한계를 지어 막는 것이 되어 마음이 가볍고 맑은 날이 없을 것이니라. 만약 이러한 것을 제거하려 하면 삼태기와 삽을 번갈아 사용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오히려 넓은 바닷물을 조개와 모기가 함께 마셔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니 불도를 꾸준히 닦아 성취함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면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속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덜어 버리려면 보리菩提를 구하고 자비를 펴서 중생을 제도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하니 그것은 바로 자비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서명하기를 하늘을 받들고 도의道義를 본뜨며, 문文이 빛나고 무武에 뛰어 나기를 발원發願하면서, “조선국왕朝鮮國王 어휘御諱 이李는 이에 옥새를 찍어 건봉사에 봉안하노라”고 하였다. 원당을 정한 건봉사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석가세존 진신치아사리
1986년 6월 일반 출입이 제한되던 때,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보시려 함인지 사리탑이 도굴당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바 우여곡절 끝에 되찾아와 3과는 탑에 모시고 일반인이 친견하도록 법당에 봉안된 5과이다.

성화成化 5년 기축(서기1469)에 예종대왕께서 선성先聖의 뜻을 우러러 받들어 또 원당을 정하고 자세히 하교下敎하기를 원당사찰에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6년 경인(서기1470)에 성종대왕께서 특별히 효령대군孝寧大君과 수충협책 정난동덕 좌익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겸 경연 춘추관사 서운관사 세자사 고령부원군 신 신숙주와 수충위사협책 정난동덕 좌익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상당부원군 겸 판병조사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체찰사 한명회, 진용교위 조흥수등을 보내 선왕의 발자취를 더듬어 살피도록 하고 특별히 노비와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선박과 소금 등을 하사 하였다. 또 사찰 주위 사방 10리를 빙 둘러 경계를 정하고 표시를 하였으니 동쪽으로 10리는 육송정六松亭 까지이고, 남쪽으로 10리는 초고개 아래 험천險川까지이고, 서쪽으로 10리는 고진령古津嶺 아래 세 번째 냇물까지이고 북쪽으로 10리는 노루목재 까지로 하였다. 사찰 원당에는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정 31년 임자(서기1552)에 봉림鳳林, 제안齊安 두 대군께서도 임금에게 아뢰어 먼저 분들이 한 대로 신하 하선필河善弼에게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도록 하고는 전교를 내리기

만일원에 모셔진 아미타불

를 건봉사는 선대先代 임금들의 원당사찰願堂寺刹로서 소중할뿐 아니라 다른 사찰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였다. 그러자 본 군에서도 쌀 1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논을 아끼지 아니하고 갈라서 절에 주고는 부처님 공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만력 30년 임인(서기1602)10월에는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가 다시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토지 5결을 하사 하였다.

순치 6년(서기1649)에 효종대왕이 또 원당을 정하고 어실각을 중건하였으며, 원당사찰에 부역賦役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강희 22년 계해(서기1683) 3월에 명성왕후明聖王后 김씨가 천금과 침전에 두루는 휘장, 가사, 그밖에 집기 등을 하사하였다.

옹정 2년 갑진(서기1724)에 또 천금을 하사하고 석가여래 치아를 봉안하고 있는 9층석탑을 중수 하였다.

건륭 10년 을축(서기1745)에 봉서루鳳棲樓 앞 무지개 다리가 홍수로 무너지자 1749년에 개조하였다.

19년 갑술(서기1754)에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가 팔상전八相殿을 세우고 원당을 정하였다. 또 그 해 가을에 영종대왕께서 숙종임금께서 직접 제작한 절함도折檻圖를 하사하자 어실각에 봉안 하였으며, 원당사찰에 부역을 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41년 병신(서기1776) 4월에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가 특별히 본 사찰에서 국재國齋를 베풀고, 별제別提 이인배李仁培를 보내 국재를 보살피도록 하였다.

명부전

53년 무신(서기1788)에 이곳 군수 이최원李最源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뵙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와 미역등의 공물을 바치는 폐단을 아뢰자 임금께서 분부를 내려 이같은 폐단이 영구히 없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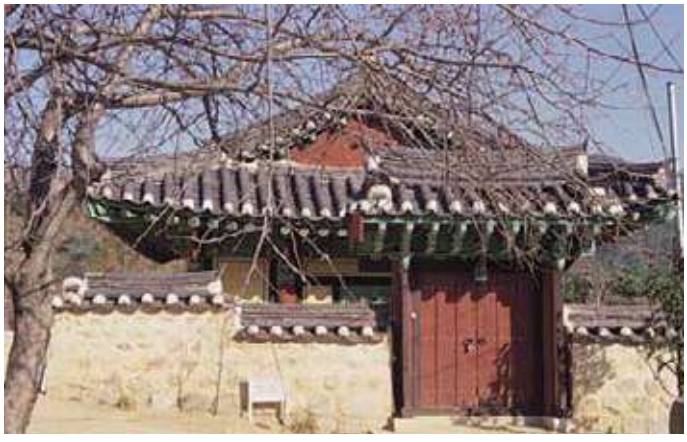
가경 원년 병진(서기1796)에 강원도 순찰사巡察使 서유방徐有坊이 순시를 하다 이곳에 머무르며, 어실각을 받들어 살펴보고는 장차 무너질 우려가 있자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를 출연하여 어실각을 중수 하였는데 이 때 도내 승군僧軍을 뽑아 올리게 하여 4일동안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4년 기미(서기1799)에 강원도 순찰사 남공철南公轍이 돈 200꾸러미를 출연하여 사명대사의 기적비를 세웠다. 또 나아가서는 권선문勸善文 두 축을 만들어 돌렸으며, 도내에서 재물을 모아 기적비 건립에 쓰도록 하였다.

20년 기해(서기1815)에 본 고을 군수 이해로李海魯가 부역을 감해 주었다.

25년 경진(서기 1820) 봄에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가 평상平床을 하사하여 보내오자 어실각에 봉안 하였다.

도광 2년 임오(서기1822)에 본 고을 군수 김용金鎔과 1826년 송재의宋在誼 군수가 종이를 만들 때 동원되던 노역과 각종 잡역을 덜어주거나 감해 주어 나머지 노역도 얼마남지 않게 되었다.



육화당

8년 무자(서기1828)에 영부사領府事 정원용鄭元容이 본도를 살피고 다닐 때 관아에서 돈 200꾸러미를 출연토록하여 사명대사의 비각을 중수 하였으며, 영당影堂에 단청을 하도록 도왔다. 대개 사명대사의 공이 나라안에 남아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사명대사의 공덕을 칭송하여 서로 제창齊唱하였으며, 특히 건봉사는 사명대사께서 삭발을 한 본사로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생전의 진영眞影과 원불願佛, 은탑銀塔, 가사袈裟, 염주念珠, 마상장삼馬上長衫, 오동향로烏銅香爐, 철장鐵杖, 목취혜木橇鞋 등의 유물이 모두 건봉사에 남아있게 된 원인이 된 것이었다.

도광 26년 병오(서기1846) 4월 11일 밤중에 갑자기 발생한 큰 불로 물 북쪽에 있던 각 공전요사公殿寮舍가 한꺼번에 모두 불에 타버렸다. 본 고을 군수 정재용鄭在容이 각 감영監營에 이 사실을 적어 돌리고 순찰사 박종길朴宗吉이 즉시 장계狀啓를 올려 청하자, 이름을 적지 않은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위로부터 받았으며, 또 강원도내에 통문通文을 돌려 불에 탄 사찰을 복원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 승군僧軍으로 하여금 5일간씩 이 일을 돕도록 하였다. 이듬해 정미년(서기1847)에 역사役事를 마쳤으며, 무신년(서기1848)에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께서 천금과 침전에 두루는 휘장, 가사 등을 하사하고 신으로 하여금 동화당東化堂 스님의 축전竺典을 봉행하는데 힘쓰라고 하였다.

함풍 3년 계축(서기1853)에 본 고을 군수 서유여徐有㤗가 본사 사패토지 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 장부에 감춘자를 찾아내게 하여 1결을 다시 본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7년 정사(서기1857)에 본 고을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돈 600꾸러미를 출연하여 아전이 집무하는 관청에 붙여두고 건봉사에서 납부하는 승번전僧番錢 70량을 돈을 맡아 관리하는 관청 담당자가 이를 대신 납부토록 하였다.

동치 2년 계해(서기1863)에 본 고을 군수 이인회李仁會가 돈 600냥을 마련하여 건봉사에서 종이를 만드는데 동원되던 노역勞役을 아주 없애 주었다.

5년 병인(서기1866) 9월에 건봉사 영기永起 스님이 사명대사의 진충보국盡忠報國에 보답하고자 사명대사의 업적을 판각하여 걸자고 임금께 이뢰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예조禮曹에 분부를 내려 강원도 감영監營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으며, 강원도 감영에서는 사명대사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본 군에 문서를 보냈다. 군수 이인정李寅正은 관련 문서에 따라 건봉사 영기 스님을 초청하여 사명대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빠짐없이 조사케 한 다음 여러 가지 실증實證을 고증 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기록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감영에 보고하자 순찰사 조석여曹錫輿가 건봉사는 사명대사께서 처음으로 삭발한 곳이라 하여 그의 충성과 독실한 신불信佛을 본받는 곳으로 삼아 사명대사의 진영眞影과 유물을 본 사찰에 두고 스님과 신도들이 은전恩典을 입기를 바랐으며, 부처님을 숭배하고 받드는 자들로 하여금 행실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였다. 이같은 사실들을 갖추어 임금에게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었으니 때는 광서 4년 무인(서기1878)이니 즉 우리 성상전하聖上殿下께서 보위에 오르신지 15년이 되는 해 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4월 초사흘 오후 세 시에서 다섯시 무렵에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본 사찰 남동 남서 방향 10리 밖에서 갑자기 산불이 발생하여 삽시간에 본 사찰에 까지 불이 번졌다. 먼저 보림암普琳庵으로부터 상원암上院庵, 팔상전八相殿, 낙서암樂西庵, 혜월당慧月堂, 어실각御室閣을 넘어서 타고는 대법당大法堂, 향전香殿, 사성전四聖殿, 명부전冥府殿, 보안원普眼院, 봉서루鳳棲樓, 범종각梵鍾閣, 만일회萬日會, 관음전觀音殿, 진영각眞影閣, 연빈관延賓館, 참선실參禪室, 함월당含月堂, 청련당靑蓮堂, 백화암白華庵, 청련암靑蓮庵, 극락암極樂庵, 안양암安養庵, 열반당涅槃堂, 양로방養老房등 모두 3,183칸과 전래되어 오던 옛 기록, 사찰에 딸린 임야 등이 한꺼번에 불길에 휩싸여 한줌 재가 되었으

낙서암옛터

며, 불상마저 맨땅에 드러나자 승도僧徒들은 참혹한 현상에 놀라 정신을 잃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이 때 본 고을 군수 이주옥李周鈺이 먼저 관청 주방으로 부터 밥과 국을 마련하여 관원들로 하여금 사찰까지 운반하여 승려들을 모아 공양하였으며, 일일이 간악奸惡한 일을 적발하여 밝혀낸 뒤 오현면梧峴面, 대대면大垈面, 해상면海上面, 군내면郡內面, 왕곡면旺谷面 등 5개면에 명命을 내려 각각 지붕을 덮을 재료를 가지고 오게하고 막사幕舍를 얽을 수 있도록 터를 닦게 했으며, 불에 탄 사찰 도구들을 챙기는 한편 책을 만들어 감영에 알리자 순찰사 홍재현洪在鉉이 즉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또 직접 권선문勸善文 세 축을 작성하여 강원도내에 돌려 모금 운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또 본 읍 향중鄕中에 첩본帖本을 내려 앞으로의 역사役事에 들어가는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이니 조금씩이나마 돕도록 하였다.

5월 초닷새 이최응李最膺이 영의정에 제수되어 임금에게 사은숙배謝恩肅拜를 드리던 날 연석筵席에서 건봉사를 위해 임금에게 아뢰자 특별히 이름을 적지 아니한 임명장 500장을 하사 받도록 하였다. 또 예조로 부터는 8도에 권선문勸善文을 내려 보내고 전국 대표 사찰 다섯곳에 알려 흥인문興仁門밖 탑동塔洞 미타사彌陀寺에 모이도록 하여8도 화주化主를 정한 다음 부지런히 복원에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이 때

영월교

벽오당碧梧堂 유총侑聰이 본 사찰 총 화주가 되어 마음으로 맹세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주선하였으며, 이에 침계당枕溪堂 민열玟悅을 도목수都木手로 부르고 그 밑에 100여명의 사람을 거느리게 하여 그 해 7월에 복원의 역사役事를 시작 하였다.

먼저 관음전과 만일회를 중건 하였고, 이듬해 2월에 주관主管 성봉당聖鳳堂 정안定安, 도감都監 운계당雲溪堂 경연敬衍, 승통僧統 쌍월당雙月堂 창신昌信, 별좌別坐 학림당鶴林堂 의환宜還 등이 스스로 주장하여 먼저 어실각과 극락전, 사성전, 명부전, 봉서루,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 청련암을 차례로 중건하여 이 해 10월에 모두 마쳤다. 비록 훌륭하고 아름답기는 전보다 나았으나 중건은 3분의 2에 지나지 않았다.

이 해 3월에 우리 주상전하께서 500금을 하사 하였으며, 왕비전하께서 500금, 세자저하께서 500금, 또 대왕대비전하 조씨께서 100금, 왕대비전하 홍씨께서 100금, 운현궁에서 400금을 하사 하였다. 또 영의정 이최응이 200금, 병조판서 이재원이 100금, 판서 민겸호가 200금,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이 100금, 판서 윤자전이 100금, 호조판서 김재욱이 100금을 출연하였다.

이에 수진궁壽進宮 이민화李敏和로 하여금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게 하고 화주 범운당梵雲堂 취견就堅에게 수급收給의 일을 보도록 하였다. 또 스스로 대내연大內輦 1좌一座, 인로번引路幡, 양산陽傘 각 1건, 청도淸道, 순시巡視, 홍령紅令, 청령靑令 각 1쌍, 등롱燈籠 2쌍 가사, 침전에 두르는 휘장 등을 하사 하였으며, 범운당 취견을 이 사찰에 이르러 주지의 일을 아울러 보도록 하였다. 7월에 어실각을 시작으로 대법당 관음전의 단청 및 탱화를 그려 일시에 완성을 보았다. 10월에 또 왕대비전과 내전의 탄신과 왕세자 탄신을 축원하기 위한 축원당祝願堂을 정하였다. 이로부터 2월 초 팔일, 7월 25일, 9월 25일을 좇아 사찰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건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부처님에게 공양을 드리고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축원하였다. 수진궁壽進宮《조선시대 봉작封爵을 받기전에 죽은 왕자나 시집가기 전에 죽은 공주, 옹주의 제사를 지내던 곳임.》에는 봉과封菓와 점서占書를 진상 하였다.

임금께서 원당사찰에 나아가 나라에서 세금 납부 대신 노동을 시키는 일을 없애 주었으며, 특별히 이봉심李奉審으로 하여금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도록 하고 전교傳敎를 내리기를 본 궁으로부터 본 도 감영에 도서圖署에 찍는 인印을 두도록 하였으며, 감영으로 부터는 본 군에 이 사실을 알려 주었다. 또 본 사찰이 담당하는 노역勞役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말고 영구히 없애라는 뜻을 담은 도서완문圖署完文《조선시대 관부에서 개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권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내용은 각종 부역(賦役)이나 잡역 등의 면제를 인정 또는 확인해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을 내렸는데 한 권은 본 읍에, 또 한 권은 본 사찰에 비치하여 두고 영구히 따라 시행토록 하였으니 국은國恩이 어찌 막중하지 않겠으며, 어찌 감히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치 않을 수 있겠는가!

경진(서기1880) 6월 화주化主 유총이 함경도 덕원德源에 있는 무달사武達寺에 가서 시왕존상十王尊像을 원산포구元山浦口까지 등에 지고 와서 다시 배로 순풍을 타고 하룻만에 본 읍 거진포巨津浦에 도착하여 배를 정박 시키고 본 사찰에 옮겨 봉안 하였다.

7월 보운당寶雲堂 긍섭恒葉이 불법을 닦던 지학持學으로 하여금 영변寧邊 약산藥山 서운사棲雲寺로 보내 금구金口 1좌一座를 싣고 본 부府에 있는 여러 고을을 지나 본 사찰에 도착하였다.

8월에 화주 환엽은 또 경기도 관찰사 김보현金輔鉉이 장단 고을 심복사心腹寺에 16나한존상十六羅漢尊像이 있다고 알려오자 이를 얻어 본 사찰에 옮겨 봉안 하였다.

10월에 대왕대비전하 조씨趙氏가 완화군完和君이 타는 수레를 위하여 천금을 하사하고 화주 환엽에게 명하여 시왕불사十王佛事를 하도록 하였다. 또 왕대비전하 홍씨와 경빈저하敬嬪邸下 김씨는 대궐과 명문거족名門巨族 가운데 불교를

신봉하는 남자와 여자는 물론 용만관龍灣館 및 안흥관安興館에서도 시왕불사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신사년(서기1881)봄 3월에 시왕전十王殿과 16전十六殿에 단청과 금분金粉을 새로 입히고, 불당 채색도 새로이 하였다. 아울러 시왕나한十王羅漢 후불탱화를 조성하였으며, 4월 초 엿새 시왕불사의 준공을 궁중에 알려 드렸다. 때마침 초 열흘날 완화군 탄신일을 맞아 임금께서 특별히 하교下敎하여 재회齋會를 베풀도록 하고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 연1좌輦一座와 양산, 깃발, 등롱, 선실禪室에 두루는 휘장, 가사 등을 사찰에 들여보내고 지은知隱 스님으로 하여금 일일이 완화군 생일을 위한 재회를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신하 유성종劉聖鍾을 보내 재회를 돌보도록 하였다.

5월 화주 벽오당碧梧堂 유총 및 환응당幻應堂 선은善听이 마음을 합쳐 보림암普琳庵을 중건 하였으며, 사미봉직沙彌奉直이 극락암極樂庵을 중건 하였다. 또 이듬해 임오(서기 1882) 4월에 상궁 신씨가 본 사찰에서 예수재預修齋를 베풀었으며, 불사에 필요한 그릇과 재齋를 올릴 때 필요한 각종 용구와 그릇을 새롭게 주조鑄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400금을 시주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우 신장연申長連, 신석효申錫孝도 직접 예수재에 참석하여 굉장한 광경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여 1,600여금을 시주하여 어려운 나머지를 보충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또 경파당鏡波堂 기혁琪赫이 스스로 모금을 하여 중간 정도 되는 종과 큰 시루를 장

만하여 각종 불사에 사용토록 하였으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위대한 일이 아니리오! 이는 어찌 부처님의 가호와 신의 도움이 아니었겠는가! 다만 생각컨대 왕실에서는 건봉사의 뒤가 끊어져 없어질 뻔한 은혜를 입었고, 또 임금께서는 건봉사를 염려해 주므로해서 크나큰 은덕을 입었다. 하늘과 땅이 영원하듯 영읍營邑《감영監營, 수영水營, 병영兵營이 있는 고을(여기서는 강원도 전체를 말함).》은 모두 왕실과 부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택을 입었으니 시주하고 기도를 드리려는 마음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던 것이다.

만약 벽오碧梧, 보운寶雲 선사의 헌신과 환응幻應, 범운梵雲의 원력願力, 그리고 경파鏡波를 비롯한 여러 선사들이 마

음을 쏟아 하나같이 성취하고자 기울인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조그마한데서 비롯된 일이 오늘과 같이 큰 과업을 이룰 수 있었겠으며, 또 성봉聖鳳, 운계雲溪, 쌍월雙月, 의환宜還 선사들이 모두 화합하여 속세 잡된일을 마다하지 않고 의견 일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오늘과 같은 가람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아, 안타깝고 한탄스럽도다! 그러나 본 사찰이 화재를 입은 뒤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고 증빙이 될 만한 문서도 없어 만약 처음 내력부터 중요한 것들만 간추리고자 함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과 말로 전하는 것을 주워못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서로 뒤섞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 하자면 곧 본 사찰에 대한 역대 임금들께서 원당願堂을 정한 내력과 사패賜牌를 내린 연도를 고찰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각종 하사품을 내려주신 관대한 은전恩典을 입었음이 뚜렷이 남아 있어 명백히 증거를 삼을 수 있는데다 이제 또 삼전탄신三殿誕辰《왕대비전王大妃殿, 대전大殿, 중궁전中宮殿을 일컫는다.》을 위한 원당을 정하고 이를 축원 드리는 곳으로 삼아 향을 비롯한 이에 소요되는 예물과 용품까지도 임금으로부터 하사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성지수호聖址守護에 어찌 소홀함이 있으리오!

적멸보궁

건봉사 지역 내에서 제일 신성한 도량으로 석가여래의 치아사리탑과 비석, 부도가 있고 그 아래로 적멸보궁, 지전, 진영각, 보제루가 있다.

이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초지종을 기록하였으나 후손을 위해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바라건대 비록 천 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눈앞이 환히 밝음이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니라 광서8년 임오(서기1882)5월 행군수行郡守《행行은 계급이 높고 직책이 아래일 경우에 사용한다. 종일품계從一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正二品職인 판서判書가 되면 숭록대부행판서崇祿大夫行判書라고 한다. 당시 건봉사 사적을 기록한 고성군수는 종삼품從三品의 품계를 가지고 정사품正四品격인 군수자리에 있었다. 1882년 당시 군수는 이도식李道植으로 보임.》

건봉사 낙서암 전 송운대사 원불
1912년

금강산 건봉사 사적과 중창한 기록의 총 계보

내 들으니 범어 기달枳達을 번역하면 금강이라고 하는데 천하에 가장 이름있는 산이라 한다. 동해의 동쪽에 있으며, 특히 수척한 뼈가 서 있는 것 같으며, 만가지 기이한 형상이라 깊숙하면서도 첩첩이 쌓였으며, 장엄하고 또 웅장하게 주위를 둘러 싸고 있는 것이 주州와 군현郡縣과 같아 가히 십여 고을은 됨직하였다. 들판을 측량하여 획을 그어 놓아 마치 뛰어난 승지요, 별천지 같았다. 속됨에 물들지 아니하고 속세인은 감히 범접치 못하고 오직 부처님 가람만이 별처럼 드문드문 벌려져 있으며, 영취산의 종소리와 범어의 독경소리 뿐이라 하였다. 주산이 비스듬히 남쪽으로 이어져 100여 리에 걸쳐 있으며, 감로봉甘露峰이 있고 그 위세 아래 20리에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남쪽을 향해 또 동해 나루에 이르면 문득 불보살을 만나볼 수 있을 것도 같아 돌아와 이곳에 머무르기로 하고 물이 빙돌아 드는 한 골짜기에 별도로 두 곳을 나누어 개척하였다. 그 산의 승경과 물의 수려함이 풍악을 잉태하고 길러내던 것이다. 그 북쪽에는 설산을, 남쪽에는 오대산을 혹은 삼키기도 하고, 혹은 토해 내기도 한 것 같았다. 이는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낸 신비로 땅을 더욱 공고하게 간직토록 하였으니 어찌 청조靑鳥가 살핀 뜻이 아니겠으며, 이에 백마가 개척한 땅임을 알려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중국 양나라 무제 천감 19년 즉 신라 법흥왕 7년(520)경자에 읍 이름을 고성이라 하고 사찰 이름을 원각사圓覺寺라 하였으며, 한결같이 흥성하였다. 고려 열산현烈山縣때에 이르러 편액을 서봉西鳳이라 고쳤다. 비록 이름이 다르고 그 때의 일이 변천 되었다고는 하나 도량은 위엄이 있으면서 수려하였으니 오늘날 의연히 금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아득히 우리 조선에 들어와 건봉乾鳳이라고 편액을 걸었으니 이는 건봉사 서북간西北間 방향 모퉁이에 봉황 모양을 빼닮은 돌이 있는데 마치 九成《음악 아홉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한 곡이 끝나는 것을 일성一聲이라 함.》에 맞추어 너울 너울 춤을 추며 사뿐히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옛 일을 상고해 보면 당나라 숙종 건원무자《당나라 숙종년간에는 무자戊子가 없어 건원 무자는 무술(서기 758)이 아닌가 함.》에 발징조사發徵祖師가 만일선원萬日禪院을 베풀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할 때 불법에 밝은 정신貞信과 양순良順등 31인을 청하여 두타頭陀를 행하자 향도 계원들이 함께 동참하였으니 이로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를 좇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는 것을 일컬어 만일회萬日會라 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동방에 처음 교화敎化하자 부처에 귀의 하기로 원하는 자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웠다. 이는 함께 좋은 과보果報를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었겠으며, 부지런히 염불하여 공적을 쌓은 것이라 할 수 있지 아니 하겠는가!

만일회를 시작한지 29년이 되는 해에 이르러 수행하던 어느날 물이 불어나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아미타 대성 두분 보살께서 청정한 대중들과 반야용선般若龍船에 승선하여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 세 번씩이나 나타나자 마침내 31인의

석가세존 진신치아 사리탑

1605년(선조38년)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되찾아 온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한 탑으로, 1724년(경종4년)에 건립하였다. 120여년간 다른 곳에 모셔져 있다가 이곳에 봉안된 셈이다. 이 탑 옆에는 2기의 부도가 서 있는데 부도에는 3과의 사리가 모셔져 있고 5과의 사리는 법당에 봉안되어 있어 친견할 수 있다.

육신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으며, 961인의 향도는 동시에 극락정토의 상, 중, 하 세등급 가운데 최상급에 왕생하였다. 이렇듯 두 번씩이나 영험한 조짐이 나타나 상서로움이 서로 교감하였으니 하늘과 땅에 화합의 기운이 가득차고 6종이 교집되었다.

다시금 강주땅에 아간이란 계집종이 미타회중에 있었는데 매일 절구에다 쌀을 찧어 놓고는 남을 따라 기도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속박을 당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공중에서 이 도량에서 열심히 수행하라는 교시를 듣고는 일심으로 전념한지 21일만에 홀연히 천장을 뚫고 공중으로 날아올라가 5리 가량되는 곳에 몸을 버렸다. 이때 21인이 함께 맹서하고 바로 기도장으로 향했으며, 그 후 날아올간 자리가 비가 새지 아니했으니 실로 생각한 바가 징표로 드러남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한 즉 천종과 중정이 첫머리에 출현하여 경사가 남음이 있었으며, 수행자가 어느 목적을 달성코자 맹세를 하고 정진함이 이와 같았다. 이에 한가지 취지로 불국토와 인연을 맺어 선후로 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 극락에 왕생한 사람도 다수가 되

었으니 이는 모두 발징조사의 교화에 힘입어 무수한 사람들이 극락왕생의 아홉 등급 가운데 최상급에 왕생 한 것이다.

한 번 머물렀다 감에도 차례가 있으니 위대하도다! 어느 누가 발징조사를 따를 수 있겠으며, 능히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만일회와 이 같은 계의 명칭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널리 천하 사찰에 대하여 들음이여! 일찍이 이 같은 사찰이 있으리오. 남쪽 물가는 곧 백봉화계白峰華界이니 발징조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진실로 하나의 부처가 출현케 하였으며, 또 보림普琳 고추高錐는 수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불도를 추구하게 하여 귀먹은 것 같이 현묘하고 또 심오한 이치를 터득케 하여 혀를 잘 놀리는 말솜씨는 근원부터 철저히 없애 버리도록 하였으니 이로인해 이름있는 암자가 된 것이었다.

남아있는 모든 옛 업적은 사찰의 편액이 서봉이라고 한 때였으며, 가사, 석장, 바리가 오롯한 징표로 남아 있었으니 현거진대懸車鎭帶《한나라 설광덕薛廣德이 연로하여 치사致仕하였을 때 천자께서 치사한 수레를 매달아 놓고 영광스러움을 기념했다는 고사로 건봉사에 임금께서 많은 물자를 하사한 것에 비유한 것임.》의 꽃다운 자취가 남아 있었다는 앞에 사람이 기술한 것을 생각케 하였다.

성화 원년(1465)4월 여름 우리 세조世祖 혜장대왕惠莊大王께서 동쪽을 순행하시다 이 사찰 부처님 앞에 향배하시고 발원문을 손수 지은 어필과 어휘, 어보를 봉안하고 대왕비 전하와 왕세자를 호종한 문무군신들이 5일동안 어가御駕를 머무르고 불공을 드릴 단을 설치하였으니 무늬가 곱고 화려한 모양이 마치 발타야跋陀耶의 양식으로 그린 그림과 같았다. 이에 명하여 발원하는 당을 정하고 어실각을 지으니 이에 가벼운 바람에 구름이 움직이자 초목들도 생기가 빛났다. 이로인해 임금께서 해상에 유람하시어 행차하는 소리와 이를 둘러싼 깃발의 아름다움은 장관이었다. 산중에 사는 백성이나 물가에 사는 백성이 어찌 일찍이 없었던 이 같은 성대한 광경을 보았으리요. 태평한 시대에 거리의 풍경을 읊은 노래며, 남방에서 잔잔히 퍼지는 노래 소리가 마침내 우리 동방에까지 미쳤으니 태평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예종대왕께서 분부를 내리시어 발원하는 원당을 정하라 하셨으니

독성각

이는 성종대왕대에 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찰은 두 분 성상聖上의 원당 사찰인데다 또 전날에 임금의 어가가 두 번이나 임람臨覽했던 곳이다.

그 후 대군大君과 대신大臣, 대관大官을 파견하여 선왕의 자취를 살피게 함과 아울러 사찰의 둘레 10리를 임금께서 하사하신 땅으로 하여 정표를 세워 관리토록 하였다. 전지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을 다시내려 주셨으며, 나라에 바치는 세금도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

효종대왕께서 봉림대군으로 잠저潛邸에 계실적에 글을 올려 10석의 논을 하사하게 하였으니 이로써 상주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해에 바로 왕위에 오르시자 특별히 원당을 정하라 하셨다. 영조 임금때에 또 어필을 내려 주시자 어실각에 봉안하였다. 다행하도다! 사찰의 빛남이여! 천년을 이어오며 옛것은 옛것대로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갖추었도다.

송운대사松雲大師가 있었으니 호는 사명泗溟이었다. 백밀주白密州 옛산이 있었는데 이곳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전심으로 수행하여 큰 덕을 이루었다. 여러해 수행 정진하여 학문이 높았으며, 의문나는 점을 설명하는데 매우 밝았다. 나라에 큰 변란을 당하자 병장기와 의병을 모집하여 왕실에 공을 세웠으니 그 위대하고 혁혁한 공이 방방곡곡에 알려져 한 나라안이 모두 칭송하였다. 일본에 갔을 때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치아사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 취서산鷲棲山 통도사通度寺 단탑壇塔에 봉안하였으며, 또 17매의 치아사리는 은탑銀塔에 나누어 간직하였다. 낙서암은 사명대사의 본사本寺로, 그 후 음력 7월에 정성스레 돌을 다듬어 석탑을 쌓고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서쪽 산기슭에 봉안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순조 경진년(서기1820)에는 용허석민聳虛碩旻 화상和尙이 연원蓮院을 중건하고 만일회의 기일을 채우고 마치게 되니 이같이 성스러운 불사의 인연으로 보배로운 기운이 조화롭게 일어나 모든 만물이 안정되게 번성하였다.

또 헌종 병오년(1846) 4월에는 물 북쪽에 있는 아전鵝殿과 요사채가 갑자기 화재를 입었다. 다행히 임금의 은총을 입어 중건의 기틀이 마련되자 모든 불자들이 힘껏 협력하고

출자하여 의연한 옛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해년 겨울에 동화축전東化竺典과 벽오유총碧梧有聰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자 모두 이에 동조하여 세 번째 만일회를 베풀고 평소대로 수행하며, 정성을 다했으니 이는 마치 선세善世임을 들창문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함과 같을진져!

우리 성상께서 즉위 하신지 2년 을축(서기1865)에 화은과 호경, 강백이 설봉으로부터 와서 강회講會할 수 있는 선원禪院을 창건하고 이를 개원하여 널리 베풀자 사방에서 모여들어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감응함이 있었으니 마치 구름이 운행하고 비가 내리는 듯 하였다. 조용히 생각해 보니 진실로 사찰을 이미 깨어나게 하였으니 불법이 함께 흥기하였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신의 감응이 일찍 나타나 크신 불도가 드디어 권장되니 누가 상서롭지 않다 이르며, 어찌 감히 돌보지 않아 황폐한 곳으로 흘러간다 하리요.

무인년(서기1878) 4월 초 사흘에 하늘이 화두火頭를 금강에 보내자 닥치는 대로 산문의 빗장을 뛰어 넘으며 삽시간에 불길이 번져 팔상전을 태우고 이어 진영각, 낙서암, 혜월당, 함월당, 청련당, 백화암, 청련암, 보림암, 상원암, 극락암, 안양암등이 참담하게 잿더미로 변했으니 어찌 이같이 금과 같은 옥토에 기와 조각과 자갈같이 쓸모없는 것들로 나뒹굴게 하여 역대 임금들께서 눈물을 뿌리며 슬퍼하게 하리요. 또 두 발을 모아 부처님에게 머리를 조아릴 곳마저 없어졌으니 토끼가 콩과 귀리밭을 짓밟는 것같이 마음이 아플 뿐이며, 쇠잔한 풀과 차가운 연기만이 눈에 가득하였다. 군수 이공李公이 관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순찰사 홍공洪公이 조정에 아뢰었으며, 같은 시기에 상국 이공은 경연經筵에서 임금께 아뢰자 성상께서 공명5백첩空名五百帖을 내려 주었다. 봄에 모연문募緣文을 작성하여 팔도에 보냈으며, 유총을 화주化主로 정하고 서울로 올려 보냈다. 또 예가例珂를 해서海西로 보내 모금을 하고 심주心舟는 관북關北에 가서, 정준政俊은 호남湖南에 가서, 삼희三熙는 금호錦湖에 가서 각각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환섭 葉聶한 관서지방에서 모금활동에 참여하였다. 선흔善昕, 지희志禧, 부연芙淵, 기혁琪奕, 모윤妙允등은 모두 집단 구성원 가운데 쟁쟁한 사

람들로써 자신의 뛰어난 재덕才德을 나타내지 않고 덤덤히 세속을 따르면서 시주를 앞장서서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경행敬行과 정안定安은 그 역사를 맡아 처리하였고, 창신昌信은 주지로서 역사의 총감독을 맡았으며, 의환宜還은 매일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하였으니, 이들은 이 일을 함께한 지인들이었다. 또 대중들은 각자 흩어져 널리 함께 힘을 모아 그 일을 도모하여 이듬해 2월 봄부터는 목공 장인을 불러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힘을 쏟았다. 민열敏悅은 향도香徒 수백명을 인솔하고 불이 난 십리 주위를 말끔히 정리하였으며, 수많은 산봉우리를 손질하였다. 먼저 어실각과 대법당, 각감전各紺殿 및 법원法院, 연사蓮社를 건축하고 누각과 요사채를 같은 날에 낙성을 보았으니 참으로 거대한 역사였다. 한결같이 걸출하게 지어 구름과 잇닿은 것이 현기증이 날 정도였으며, 우뚝 솟은 전각은 햇빛에 빛나 마치 도솔천과 같아 옥황상제가 거처할만 하였다. 이에 신령스러운 빛이 비치니 이같은 일은 인간세상에서는 희귀한 일로써 자못 더욱 장엄하고 화려하였다. 불이나기 이전과 같이 행랑채, 재실, 부엌, 창고같은 부속건물도 차례로 질서있게 죽 늘어 섰으니 모두 다 갖춘 셈이 되었다. 긍종肯宗은 청련암을 엮었으며, 보의普宜는 백화암을, 봉직奉直은 극락암을 보수하였다. 또 보림은 대중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귀착시키며, 힘을 모은 결과 나란히 모두 낙성을 보게 되었다.

임금께서 사사로운 재물을 보관하는 내탕內帑으로부터 만전을 출자하여 취견就堅으로 하여금 어실각과 대법당, 관음전에 단청을 입히고 나아가 각각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 대왕대비께서 하사하신 만전으로는 긍섭으로 하여금 명부전과 사성전에 단청을 입혔으며, 또 시왕상을 조성하고 흠집이 있는채 방치되어 있던 여러 후불탱화와 16성왕상을 보수하였다. 다른 성왕들의 탱화도 모두 채색을 고쳤으며, 겸해서 종종 새로운 탱화를 완성해 가자 시절도 때마침 좋음을 얻은 듯 오색 구름이 영롱하고 황홀히 사방에 꽃잎이 떨어져 흩날리는 것 같았다.

성상께서 가람의 복원공사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를 축원할 축원당祝願堂을 정하라 하였으며, 7월

25일은 임금께서 탄신한 날이고, 9월 25일은 왕비의 탄신일이며, 2월 초 파일은 왕세자의 탄신일이었다.

탄신일에는 매번 부처님께 향 공양을 하였는데 수진궁壽進宮에서 하사 하신 것으로 공경히 받들어 봉행하였다. 또 성지聖旨를 받들어 혹은 과거를 시행하니 전국에서 과거에 뜻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임금을 받드는 정성으로 재를 올렸으니 어찌 하찮은 정성으로 임금의 큰 은혜에 보답할 수 있으리요! 공경히 받들도다 주상전하시여! 하늘의 명령에 크게 순응하셨도다. 성군이 되심이여! 흔연히 바라보도다. 구오九五《구는 주역에서 양의 수이며, 오는 괘의 오효五爻로서 밑에서 세어 다섯 번째의 양효陽爻이다. 이 괘효卦爻는 천자의 자리로 천자의 지위를 말함.》의 지위가 비상함이여! 형통하고 신령스러워 밝게 운행함이 많으니 마침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만났도다. 성조聖祖께서 몸소 친행親行하던 마음으로 존경하고 숭배함이 진실로 이에 버금 갔으니 이는 국토와 왕실의 영원한 안락을 생각하심이며, 대업을 고르게 성취시켜 굳건한 반석위에 서게함이 우리 임금의 밝은 슬기는 이 나라 왕토가 항상 화창한 봄날과 같게 하는데 있었다. 모두 말하기를 백신百神이 인도하고 도우셨다고 하였으며, 만가지 경사를 점지 하시고 모두 이룩해 내셨다고 하였다.

왕비 전하께서는 시경詩經 관저편關雎篇의 아름다운 법도대로 산초와 꽃다운 난초의 향기와 같이 행실이 아름다워 억조창생이 모두 왕비의 은총을 입었으며, 몸소 요순시대와 같이 되기를 받들고 원했으니 베푼 은덕은 성왕에게 까지 미치게 하였네. 대궐안에서는 임금을 덕으로 모시자 인지지화麟趾之化《주周나라 문왕 후비后妃의 덕이 자손과 그 종족까지 선화善化한 까닭에 시인詩人이 '인지麟趾' 의 시를 지어 칭송한 일로 왕후의 아름다운 덕을 기리는 말임.》는 베짱이가 깃을 치며 서로 날아오르는 것과 같았다.

금지옥엽과 같은 왕손은 더욱 번창하였으며, 하늘을 섬김이 지극하시니 누가 혹 재앙이 이를 것을 근심하리요. 또한 부처님을 받듬이 지극하시니 장차 왕실의 무강無彊함이 도래하는 것을 볼 수 있을것이로다.

세자 저하께서는 어지심과 영수靈粹함을 타고 나셨으며,

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무예는 동전이 서로 상서롭게 맞떨어지는 것과 같았다. 하늘과 땅이 함께 길하여 널리 퍼져 나가니 세자저하 옥체와 빛을 다투는 것과 같고 해와 달이 나란히 왕세자를 상서롭게 하니 타고난 천수가 땅과 같이 오래 누리어 덕을 기림이 하늘같이 끝이 없도다.

세자빈 저하께서는 마음이 곧고 성실하시어 높은 자태는 그 거동이 순수한 복과 합치 되었네. 나라의 기둥을 이어 전할 자리에 책봉 되었으니 반드시 복록과 왕세손을 얻어 왕토의 터전위에 왕업을 이어갈 것이니라. 세자빈으로 하여금 불길처럼 요원하고 창성하게 하리라.

왕태후 전하께서는 순임금의 어머니 태임을 돌아보는 것 같았네. 궐내에는 은나라의 명상名相 이윤伊尹과 주나라의 명상 주공周公 같은 분을 두어 위로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들

어 돌아보게 하셨으며, 온 강토를 덕으로 덮어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어 길러 주셨으니 인자한 음덕이 만고에 빛나도다. 문文으로 다스리니 나라가 태평하여 목탁소리가 밤하늘에 울려퍼져 영원히 그침이 없으며, 비바람이 함께 고르니 들판에서는 늘 격양가가 울려 퍼지네. 이에 불교에 귀의한 사람으로써 집무를 보도록하니 인연이 도와 부자처럼 믿고 따르네. 한평생 오복을 심고 정성을 다하니 좋은 인연에 좋은 과보果報가 돌아옴을 느끼네. 열 길에 백가지 상서로움이 내리니 과연 신불神佛의 가호가 차별이 없음을 징험하게 하도다. 역사役事를 돌보며 독려하여 다같이 덕을 쌓았으니 모연募緣을 주관한 화주化主도 경사스러운 기쁨을 마음깊이 함께 느끼도다. 현세나 미래나 국사國師로 삼으니 달빛이 천지에 드리우듯 육법공양은 보람으로 나타날 것이며, 어느 세상이고 진리를 깨달을 불교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공덕이 강물의

1928년경 건봉사

모래와 같이 헤아리기 어려워 속세에서의 성대한 칭송은 무한히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때를 얻어야 쉽게 번창하고 적임자가 있어야 잘 이루어 지는 것이니 마치 대지大地의 조물주가 한 번 바람을 불게 하여야만 빈 곳이나 구멍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아! 사물의 정당한 이치란 갔다가 다시 돌아오듯 일이 폐하고 흥함과 같은 것이니 옛것을 믿으므로 해서 이같은 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징조사는 이에 아미타 염불회를 개설하고 정진하였으니 일천부도탑과 신불에 기도를 드려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망은 불법 세계의 본성으로 볼 때 한계가 있지 아니한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불쌍한 곳에 드리우니 신의 위엄있는 가호가 더 하였다. 은혜를 고루 입을 때 다시 저 우뚝한 곳에서 항상 불법을 수호하고 계율을 지키며 스승을 도우니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사들이 계속해서 뒤를 이어오

고 있음을 진실로 이 사찰에서 알겠도다. 이는 하늘과 땅이 서로 처음과 끝까지 관계를 같이 하는것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환섭亘葉께서는 조심조심 하면서 위태롭게 정도正道를 밟아 오셨는데 지조志操가 굳세어 임금께서 물리쳤다 다시 믿었다 하심이 엇갈렸으니 문한文翰의 자리에 얼마나 계셨던가, 정성으로 행도行道할 기회가 드물었으니 건봉사에 어느 섬돌에서 슬퍼하셨을까, 절의 고적이 모조리 쓸쓸한 언덕처럼 되었으니 결국 증빙할 문헌조차 없도다. 어디에 물어야 옛일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좀이 쓸기를 여러해 지난 뒤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 흩어져 버린 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추록追錄을 만드니 이는 마치 바닷물을 표주박으로 떠내는 것과 같아 사람들의 비웃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목을 갖춘분들은 더러 여기서 얻을 만한 것에 주의는 하지 않겠는가.

광서 10년 갑신(1884) 윤월 상순

석가세존 진신탑묘인 적멸보궁을 수호하는 석품釋品 제1 도원장 보운 환섭은 삼가 기록하고 글로 써서 본사에 두게 하노라.

영의정 이최응, 순찰사 홍재현, 군수 이주옥, 수진궁 차지 이민화, 상궁 청신녀 하씨 정덕혜, 청신녀 윤 공덕운, 지사 김윤종, 주부 이희원, 지사 이일수, 주부 유천혁, 지사 김충범, 화주 벽오유총, 하은예가, 석담지희, 환응선흔, 범운취견, 영담부연, 서암긍종, 몽허보의, 완명심주, 경파기혁, 천봉묘윤, 월산삼희, 보운환섭, 비구봉직, 감동 성봉정안, 운계경행, 주지 쌍월창신, 목수 침계민열, 화사 경선응석, 벽산용하가 기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이루고 함께 정토의 업을 닦기 위한 결사結社를 태동케 하노라.

금강산 건봉사 중창기

성상26년 기축(1889)여름날 성봉로덕聖鳳老德이 나에게 말하기를 절을 중창한지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태에 얽매여 지금까지 지냈는데 이렇다할 고증할 문서가 없어 두려울 뿐이라 하면서 마땅히 그 근원을 궁구하고 그 요점을 간추려 바라건대 내일의 지침으로 삼자고 하였다. 또 많은 덕있는 사람들을 위촉 하자고 하자 내가 옳다고 하였으나 나는 삼산三山 도봉道峯사이에서 노닌자로서 30여년을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역사의 대략을 알지 못할까 두려웠다. 모름지기 착한 말로써 영향을 미치게 했으니 노덕의 말이 과연 옳았다.

무인년 4월 3일 미친듯한 바람이 불자 산불이 빠르게 번져 감전紺殿과 상요사祥寮舍 3천여칸이 화재의 재앙에 빠져 들고 말았다. 그 깜짝 놀라고 참혹한 형상을 어찌 말로써 표현을 하겠는가! 관아에 달려가 보고하자 순상巡相은 아뢰어 도움을 청하였으며, 상국相國)은 조정에 아뢰어 국고에서 6천여금을 나누어 주었다. 봄에는 모연문을 작성하여 8도에 보내고, 벽오유총과 여러 화주化主 사인士人들이 그 일을 도모하였다. 모두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있는 힘을 다했으니 쌍월창신雙月昌信과 학림의환鶴林宜還이 검증을 하고, 운계경행雲溪敬行과 나는 중창 역사의 총감독이 되었다. 이듬해 2월 민첩한 장인등 수백명의 기술자를 불러모아 어실각을 시작으로 대법당, 관음전, 향로전을 복원하고 차례로 명부전, 영산전, 봉서루, 범종각, 낙서암 및 창고와 부속건물을 짓고 만화관준萬化寬俊으로 하여금 만일연원萬日蓮院을 짓도록 하고 참선방장參禪方丈 영담주靈潭珠와 책응조전策應潮佺 등은 보안법원普眼法院을 건축하였다. 또 보림은 대중들과 마음이 상응하여하나같이 낙성되었다. 8월에는 법운

1918년 금강산 건봉사 봉서루

취견(梵雲就堅)이 서울 근처로부터 와서 전각의 단청과 탱화 복원을 모두 마쳤으니, 이듬해 봄에는 화사畵師를 두고 성전聖殿과 왕전王殿에 단청을 끝내고 이에 탱화를 보수 하였다. 겨울 11월에는 특별히 보묵寶墨을 하사하였으며, 삼전탄신三殿誕辰을 위한 축원당祝願堂을 정하였다. 공양에 필요한 향과 소요되는 제반 물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구는 모두 임금께서 하사하셨다.

공경히 성지를 받들어 임금을 섬기는 정성으로 재를 올리니 위대하고, 성대하도다! 어찌 행운이 있지 않으리요. 아!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절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극락정토인데 하물며 한나라 밖에서까지 천하에 제일이라고 하는 금강산임에랴!

이 절은 31인이 수행 끝에 허공으로 올라간 도량이다. 만약 경전에 이른대로 그땅이 견고하여 금강이 이루어졌으며, 또 6천 불자가 말한대로 도를 이루었다면 이는 같은 동류가 아니겠는가! 그러한즉 이곳은 역대 임금께서 원당을 정한 성지 사찰이므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새롭게 면목을 일신하였으니, 이는 이땅이 영험하고 신의 보살핌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귀머거리나 소경이라 할지라도 또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한 도량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머지 일을 맡아 추진한 공과 잡다한 작은 일들도 있다고 하면 있을 것이나 나란히 모두를 기록 하기란 불가능하므로 이로써 모범을 삼고자 하니 헤아려 양지하기 바라노라. 내가 삼가 받들고 마침내 중창기를 기록하였다.

광서 15년 (1889) 가을 7월 하순

부처님 종찰원장宗刹院長 여든 여덟 늙은이 보운긍섭寶雲恒葉은 삼가 기록 하노라.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산신각 중건 및 단청기록

이름난 산이 있으면 큰 사찰이 있고 큰 사찰이 있으면 신을모신 사당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옛 사료史料와 남긴 글에서 보니 오늘날 신선이산다고 하는 동녘땅에 명산 금강이 있는데 천리가 한 줄기가 되어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비스듬히 꿈틀거리며 수성군(고성)서쪽 20리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 의연히 우뚝 솟아오르고 특이하게 섯는 자태가 빽빽하고 성하며, 깊고 그윽하였다. 봉우리들이 쭉 늘어선 것이 기이 하였으며, 수풀과 골짜기를 빙둘러싼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 보였다.

그 위에는 큰 사찰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금강산 건봉사라고 하였다. 사찰 남쪽에는 또 낙서암이 있으며 이 사찰과 이 암자는 모두 신라 때 창건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는 백천년이나 되었다. 어떤 때에는 무너지고 헐어짐에 따라 중수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화재를 만나 다시 복원하기도 하였으니 이제 다시 찬란히 빛나는 것이 새로운 것 같았다.

이 사찰은 이른바 우리 동방에 이름을 떨쳐 훌륭한 것이 이와 같아 내가 이 날에 한 번 갑갑한 마음을 풀려고 군수 이공과 함께 틈을 내어 이곳에 올라 바라보며, 이리저리 감상하며 다니다 낙서암에 이르렀다. 암자 서쪽에 집 한 칸이 새롭게 지어져 있길래 스님들에게 물어보니 산신각山神閣이라 하였다. 이 산신각은 낙서암과 같은해에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영험하고 신이한 것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반드시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불행히도 무인년(1878)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사찰의 힘으로 겨우 한 칸을 세웠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 년이 못가 동쪽이 기울고 서쪽이 무너져 비단 이 암자의 스님들이 비통해 함은 물론 지나가는 행인들 조차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또한 혀를 끌끌찼다고 했다. 이에

산신각

사미沙彌, 도삼道三, 계명桂明등이 10여명의 동지들과 같이 각기 힘써 동전 한 꾸러미씩을 내어 수년간 이자를 늘렸으나 겨우 100여금에 이르는데 그쳤다. 금년 여름에 바야흐로 집을 새로 짓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가 필요한 물품을 힘써 모으고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니 짓고자 하는 당초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탄식만하고 있었다. 이때 이공이 특별히 보시布施할 생각을 하고 동전 3000닢을 내어 주었으며, 또한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보시에 참여할 것을 권하여 바라는대로 단청의 일까지 끝내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일을 도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으며, 산신령의 음우陰佑 덕분이 아니겠는가! 이는 그같은 일이 그 때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니, 공이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아! 이같은 명산내에 이 같은 암자가 있었으며, 이같은 산신각이 있으므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 다시 옛 모습대로 복원한 것이다. 이곳에 산신이 있고, 이곳에 스님이 있으니 천추에 그 이름이 드리워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마침내 이를 기록하노라.

광서 계사 (1893) 6월 그믐 지산산인砥山散人 임명선林鳴善

대한국 간성 건봉사 만일연회 연기緣起

《인因과 연緣이 서로 응하여 만법이 생기는 일로서 사찰 등이 창건된 유래를 말함.》

숭록대부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겸 홍문관학사 조병필이 짓고 숭록대부 의정부찬정 농상공부대신 김가전이 쓰다. 통정대부 전 행대구판관 정학교가 전서로 쓰다.

불경에 이르기를 이대로 가면 10만억 찰나에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수마제須摩提인데 번역을 하면 극락원이라 하였으며, 부처님은 아미타라 부르며, 번역을 하면 무량수라 하였다. 진실로 위로는 현겁賢劫 7불을 계승하였으며, 아래로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한 대성인이다. 라고 하였다.

때는 당나라 숙종 건원 무술에 신라국 고성현 원각사에 발징發徵이라는 대화상大和尙이 있었는데 법명은 동량棟樑이었으며, 산문에 주지가 되었다.

아미타부처의 본원 가운데 근본이 되는 서원誓願을 하고, 두타스님 정신貞信과 양순良順 등을 청하여 31인이 미타만일연회彌陀萬日蓮會를 창설하고 향도香徒 1828인을 결성하였다. 1700인은 음식을 시주하였고, 120인은 의복을 시주하였으며, 해가 바뀔 때며는 집집마다 쌀 한말과 향유 한 되반, 종포綜布 한 단씩을 내어 오랫동안 공양하였다.

29년을 지난 병진년 7월 17일 밤에 대홍수가 도량 문밖에까지 넘쳤다. 아미타불과 관음세지 두 보살은 자금연대紫金蓮臺에 올라 문앞에 이르도록 황금 팔뚝을 펴서 염불하던 대중들을 가까이 이끌어 들이는 것을 대중들이 보고 모두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일로써 이 부처가 대중을 거느리고 반야선《반야般若의 지혜를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에 비유한 말.》에 올라 48원《아미타불이 과거세過去世에서 법장보살이었을 때 세운 원願을 말하며, 첫 번째 무삼악취원(無三惡趣願)에서 득삼법인원得三法忍願까지 있다.》을 주창하자 백련화白蓮花 세계로 왕생하여 상생상품으로 영생하였다.

이때 발징대화상은 여러곳을 순행하다 금성金城에 이르러 良茂阿干의 집에서 잤다. 이날밤 큰 불빛이 그 집을 환히 비추자 동량은 깜짝놀라 일어나 양무아간 및 집안에 있던 남녀

등공기념탑

건봉사는 우리나라 염불본산으로서 758년 발징화상이 염불만일회에 승려 31인과 신도 1820명이 동참하여 염불회가 회향되던날 염불하던 승려 31인은 모두 왕생하고 동참신도도 차례로 극락왕생하였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탑

가 밖으로 나와보니 관음보살이 현신하여 동량에게 고하기를 "너의 도량 스님들이 부처님이 가까이 이끌어 들여 서방정토에 상품상생으로 왕생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속히 가서 보라"고 하고는 말을 마치자 온데 간데도 없었다. 동량이 곧 가려고 하자 양무가 말하기를 "우리 스승께서 최초로 발원을 하셨는데 우리와 같이 어리석은 무리들을 먼저 제도하신 후에 세상에 나가십시오. 저희도 역시 29년동안 자못 미력이나마 작은 정성을 기울였는데 오늘 어찌 이같이 저희들을 버리고 홀로 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며 몸을 들어 땅을 끌으며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자 동량은 이에 양무 등을 인솔하고 가서 31명의 스님들을 보았는데 육신은 이미 허공으로 올라갔다. 마음이 맑아지고 기뻐 도량을 향하여 1300여 배를 올린 후에 다비식을 거행하였다. 이로인해 만일회를 수행한 향도 913인도 도량의 대중과 더불어 한꺼번에 단정히 앉아서 돌아가니 나머지 907인이 남아 수행하였다. 동량이 도량에 돌아온지 7일만에 또 아미타부처를 보았는데 배를 가지고 함께 타라고 하니 동량이 아뢰기를 "저는 향도를 아직 제도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본원本願《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려고 세운 발원發願.》이 아니라 하면서 부처에게 다시 고하자 18인이 상품 중생으로 왕생하였다. 그 나머지는 다시 왕생할 수 있도록 덕업을 더 닦

게 하고는 그런 연후에 와서 제도 하겠다고 아뢰자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향도들이 자신의 성불을 마다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원통해 하였다. 향도들이 서로 이르기를 우리들이 어떠한 죄업을 지었는지도 모르시면서 홀로 왕생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더욱 부지런히 힘쓰라하니 우리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고 정진하였다.

또 7일후 밤에 아미타불이 다시 반야선에 올라 동량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원의 힘으로써 너를 맞아 함께 왕생하고자 한다." 라고 하자 동량은 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만약 단월檀越들이 중한 죄가 있어 왕생의 연분이 없으면 맹세코 지옥에 들어가 대신 그들의 고통을 받아 영원히 그 죄를 없애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같이 왕생케 한 다음 마땅히 왕생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이 그 말을 막지 못하고 31인을 상품 하생으로 나게하시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먼저 왕생하면 다음에 왕생토록 하겠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를 주었다. 이에 무생인無生忍을 깨달아 지혜가 신통하여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 이에 다 제도하고 동량은 부처님의 교칙敎勅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신표를 받았다. 즉 부처님의 수족을 받들고 반야선에 올라 서방정토에 왕생하였다.

그 후 고려국에 이르러 고성을 고쳐 열산현烈山縣이라 하고 절 이름을 서봉西鳳이라 하였다. 이때 강주康州에 있던 아간장자는 다시 연회蓮會를 베풀고 21인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서원誓願하였다. 이 때 아간의 계집종이 하루에 절구에 다 벼를 찧어 1석의 쌀을 만들어 부처님 봉공에 열심이었다. 어느날 여가를 내어 대중들을 따라 염불하는 곳으로 갔다. 어느날 밤 뜰 가운데 좌우에 말뚝을 박아놓은 곳에 손바닥이 새끼끈으로 묶여 있는데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정진하러 온 여자가 무슨 까닭으로 도량에 들어오지 않느냐고 하면서 빨리 가서 정진하라" 고 하였다.

아간 및 도량에 있던 대중들은 일시에 놀라고 두려워 여자를 도량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그 때부터 그 여자는 오로지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에 힘썼다. 37일에 이르러

육신이 공중으로 날아 오르면서 집의 대들보를 뚫고 5리 가량 날아가 몸을 버리고 정토에 왕생하였다. 절 북쪽 5리되는 곳에는 소신대燒身臺라고 하는 돌무더기로 쌓은 탑이 있는데 그곳에는 허물을 버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후 집의 들보를 뚫고 날아 오른자를 모아 빠짐없이 전했다.

동량이 연회蓮會시에 감원監院에 계율을 어긴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변하여 부석사의 소가되어 화엄경을 싣고 다녔다고 했다. 이와같이 몸이 변하여 여자가 된것도 공양으로써 염불하는 사람과 인연으로 이 업보業報《선악의 보응報應이 일어나는 원인.》를 얻었다고들 하였다. 이상으로 제1, 제2연회가 본 사찰의 고적故蹟에 함께 실려있다.

조선에 이르러 열산현을 고쳐 간성군이라 하고 사찰의 이름도 건봉이라 하였다. 영조 임술년(1742) 용허 석민화상이 제3회 연회를 베풀자 상서로운 조짐이 많이 나타났으나, 안타깝게도 사적을 잃어버려 더 이상의 고찰이 불가능하다.

철종 신해년(1851) 겨울 벽오 유총화상이 제4회 연회를 베풀었는데 뜻을 같이한 영암취학과 동화축전 두 사람이 참여하였다. 수행 정진한지 몇해가 흘렀는지 셀 수 없으나 영암과 동화 두 화상은 입적하고 벽오 유총화상 혼자 열심히 정진하자 향도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4년이 지난 갑인년 여름에 두타(頭陀를 행하던 영수永守에게서 치아 2매를 얻었으며, 윤의潤宜, 금윤錦允에게서도 각각 하나씩 얻었다. 5년 을묘년에는 여옥사유呂玉　|灑가 입적하려 하매 상서로운 빛이 비쳤으며 사리 17과를 수습하였다. 6년 병진년 4월에는 해월쾌준海月快俊의 치아, 한매를 얻었으며, 7월에는 선일善日과 의활宜活의 치아를 각각 1매씩 수습하였다. 동자 신응준申應俊이 공양 참여를 마치자 치아 1매를 얻었으며, 전후 합하여 모두 26매를 얻었다. 모두 석종형石鐘形부도를 세우고 그곳에 간직 하였다.

옛날에 이르기를 본 사찰은 일천여기의 부도가 있던 도량이라 하였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합符合하여 들어맞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29년 기묘년에 공덕을 마치니 만일萬日에 두 해가 더 지난셈이었다.

내가 천명을 받들고 황제폐하의 승운承運을 위하여 등극하신지 18년 신사(1881)에 만화萬化 관준화상寬俊和尙이 제5회 연회를 베풀자 참선실參禪室을 건립하였다. 지금이 24년이니 이로써 사실을 짚어보면 5년이 지나 준공을 보게된 셈이다.

오호라! 위대하신 불법佛法이 우리 동방에 전해진지 오래다. 석조石趙《중국 오호십육국五胡十六國의 하나인 후조後趙의 별칭(320년경)》요진姚晋으로부터 강남 혜원慧遠《진晋나라의 고승으로 육경六經 및 노장老莊의 학에 통달하였으며, 태원太元 년간(376~396) 여산廬山에 동림사東林寺를 세웠다.》 같은 고승에게 미쳤다. 혹은 염불회도 베풀며, 혹은 결사結社를 하기도하여 지극한 요체를 강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처의 세계와 아름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정과正果를 얻은 증거와 상서로움이 나타난 이같은 일에 대하여는 아마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발징화상과 같은 시대에 지나支那 즉 중국에서 남북의 두 파가 나누어 지면서 불법이 남행南行하여 발징화상에게 이르렀던 것이다. 차례로 세청, 원사, 남악, 양영, 가락 등의 모든 조사들께서 각 방면으로 나누어가서 불법의 근본을 깊이 깨달아 부처의 지위에 섰으며, 후세에 그들은 종파의 계통을 이었으나 역시 부처님이 친히 이끌어 맞이하여 왕생하는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한즉 우리 동방의 만일염불회는 그야말로 영산靈山의 용화회龍華會《석가세존이 입멸후入滅後 56억 7천만년 뒤에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내려와 용화수아래에서 깨닫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신앙에 근거하는 설법說法의 법좌法座를 말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옛것을 구하여 오늘에 관철하니 천상천하에 부처님이 우뚝하실진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1회 만불회에서는 부처님이 현신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제2회 만불회에서는 허공에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제4회에서는 다만 사리만을 얻었으니 이에 지금은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 갈수록 떨어지고 더욱 쇠잔해 감이 아니겠는가?” 라고들 말하나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 옛날에 우리 석가여래께서는 세태에 순응하며 인연을 맺었고, 그와 같은 시기에도 친히 부탁함이 있었다. 제자들이 서로 분리되어 왕생함도 있었으며,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 보이며 입적한 사람도 있었다. 그 자취야 비록 다르지만 이치는 곧 한가지가 아니겠는가! 이제 또 관준이 원력願力으로써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이어 진실로 열심히 일념정진하고 있으니, 시절과의 인연이란 과일이 익으면 떨어진다는 이치와 같은 것이나 또한 어찌 얕은 모래땅에서 사는 조개와 같은 보살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는가! 또 죽이 끓는 가마곁에 문수 보살이 친히 내려 오셔서 이끌어 맞아 주시니 초월함을 넘어 상생상품으로 태어나게 하시니 과연 뛰어날진져!

본 사찰의 스님 운파대련雲坡大蓮이 장차 다섯차례의 연회에 대한 고사를 돌에다 기록하여 영원히 산문에 남기려고 오백리밖에 있는 곳까지 달려와 나에게 비명碑銘을 청하므로 내가 글을 지어 이르기를 착하고 아름답도다! 이는 삼대가 지나 천 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틈을 내지 못해 이루지 못한 성대한 일이다. 또 불문과의 인연을 스스로 맺어 명성을 부탁하니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그 옛 자취를 살펴 간략히 글로써 기록하여 계승하고자 하노라. 그 비명에 이르기를,

도의 으뜸이 서역으로부터 동방에 이르렀으니,
백마에 경전을 싣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비로소 통하게 되었도다.
동쪽으로 또 동쪽으로 계림의 나라에 이르니,
발해는 푸른 파도요, 금강산은 눈썹을 그린 듯 곱도다.
하늘이 뛰어난 승지를 만들도다. 열산현의 한쪽 에
서 북쪽으로는 오직 붉은 새가 비상하는 것같아
이에 신인이 내려와 곧 바로 대승의 교법을 뛰어 넘도다.
자연의 승경을 쫓음은 훌륭한 선비와 고승이었네.
스승이 되는 스님이 법요를 베푸는 날에 동방의 나라에 불보살의 지혜 빛나도다.
광명이 치달으며 문채가 내달으니 모두가 한 곳으로 모여들도다.
아미타 부처님이 곳곳에서 도우니
불도가 높은 도량에 향과 동반자되어 분골쇄신 하도다.
인도의 갠지즈강이 거꾸로 흐르니 가벼운 바람은 돛단배를 이끌도다.
불당을 장식한 깃발은 꽃으로 덮였으니, 아득히 거두어 감추는 것 같도다.
인생으로 태어나 하늘에서 죽으니,부처님의 명으로 왕생하도다.
좋은 인연을 뿌려 좋은 과보를 얻으니, 형체가 있는 것 같고 형체를 따르는 것 같도다.
계집종이 공양미를 찧어 바치니, 용왕의 딸이 그 앞에서 뛰어나다 하도다.
머리를 늘어뜨린 어린아이도 공양에 참여하니, 달빛이 뒤에서 맞이 하도다.
벌려선 뭇 별이 높은곳에 있지 아니하니 대지도 넓지 않도다.
인간 세상의 백겁은 천상에서는 한 순간이며,
천년 고찰은 석가 세존이 지나간 곳이로다.
삼신산 오악이 어찌 같은 해가 비춘다고 말하리요.
북두칠성이 무지개 빛을 따우니, 불탑에 목탁소리가 가랑비 내리듯 분분하도다.
우뚝 솟은 높은산에 비를 세우니 상서로운 구름이 그 위 감싸도다.팔부八部《사천왕에 딸려 있는 여덟 종류의 귀신.》가 보였다. 안보였다 하니 천차 만별인 것이 의지 하도다.

내가 이 비명을 짓노니, 조서를 받든 뒤에 치의緇衣《검은 물을 들인 옷으로 승려를 말함.》를 입었다 하소서.

광무8년 갑진(1904)3월에 세우노라.

금강산 건봉사 석가여래 영아탑 봉안비

정일품 대광보국 숭록대부 원임 의정부의정 규장각학사 훈일등 해평 윤용선이 짓고 정이품 정헌대부 의정부전찬정 반남 박기양이 쓰고 아울러 전서로 쓰다.

당나라 정관 12년 무술(638)에 신라 스님 자장이 당나라 청량산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의 정골사리와 치아, 가사 염주를 받들어 모시고 돌아와 오대五臺, 취서鷲棲, 사자獅子, 갈래葛來등 네 산에 간직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임진왜란 때 일본인이 이 보물을 가지고 갔다. 그후 갑진년(1604) 사명스님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일본에 들어가 두루 찾아 모시고 돌아와 여러 사찰에 나누어 간직하였는데 그 중 치아사리 12매는 간성 건봉사에 소장하였다. 이 사찰은 곧 사명대사의 스승 신묵탁석信默卓錫이 수도하던 곳으로 관동 최고의 명승구역이라 할 수 있다.

숙종 계해년(1683) 봄에 금 · 은합과 채색 비단보자기를 내려주시고 탑을 세워 간직하라고 하자 그 옆에 비를 세웠다.

지금의 고종황제 15년 무인(1878)에 사찰이 화재를 만나 비 역시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27년이 지난 갑진년(1904)에 건봉사 어산청魚山廳, 범음계梵音禊,스님들이 오랫동안 허물어진 것들이 흩어져 나라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공에 만에 하나 보답치 못할까 두려워 하여 이에 자금을 갹출하여 장인에게 명하여 우선 돌을 다듬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장차 비를 다시 세우기로 하고 그의 신도 자월병운慈月炳云을 보내자 서울 오백리를 달려와서 나에게 비문을 요구하였다. 내가 일찍이 불가의 글을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일찍이 그 교리에 대하여 들으니 이 세상은 마치 물거품과 같이 덧없는 것이라 하고, 이 몸은 가죽 주머니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 늘 세상이 괴롭고 귀찮아 이를 버릴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불로써 장례를 대신하고 있으며, 그것을 불가의 법으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대저 그 몸을 또 구휼救恤하지 아니하고 어찌 천년동안 뼈가 있다 하리요. 또 일

찍이 그 설에 대하여 들으니 말이 있으면 인간은 그 형상을 보고자 해야 착한 마음이 생긴다하며, 말이 없으면 인간은 형상에서 분리되려고 하고 있으니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 나타나는 고명한 사람은 그 형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나 고명한자는 적고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어미가 많은 것은 모두 이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천하의 지아비와 지어미로 하여금 만萬자를 우러러 처다보게 하면 공경함이 일어날 것이요, 팔상八相《석가모니의 일생 경력중 여덟가지 상相을 말함.》을 우러러 보게하면 지은죄를 뉘우치게 할 것이니 서로 더불어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된다면 사리舍利를 취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어찌 그 뼈가 없다고 하리요. 무릇 있고 있지 아니한 사이를 나는 분별하기가 불가능하나 그러나 세상의 도가 옛날과 같이 오램만 같지 못하니라. 천하에 지아비와 지어미로 하여금 이로 인해 그 착한 마음이 발동하게 하여 이로써 선량한 선비가 되게끔 하고 이로써 정숙한 부인이 되게끔 하는데 있으니 어찌 인간이 사는 나라, 인간이 사는 가정에 두터운 행복이 아니겠는가! 내가 또 들으니 불가의 계를 받고 수도하는 스님들은 다년간 면벽面壁《달마達磨가 소림사에서 아홉 해 동안 절벽을 마주하고 좌선坐禪한 고사.》을 하고 부지런히 염불을 하고 하루 아침에 마음과 힘을 돋우어 법회 때 주지스님을 도와 큰 법요法要를 맡는데 나아가니 위로는 국가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중생들의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한다고 하니 이 또한 가상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사양할 수 없음을 알고 위와 같이 글을 짓고 비석에 새기도록 하였다.

대한광무 병오년(1906)에 세우다.

대한국 강원도 금강산 간성군 건봉사 사적비

대광보국 숭록대부 궁내부 지진관 전성 이근명이 짓고 숭록대부 궁내 부대신 홍문관학사 여흥 민병석이 쓰고 통훈대부 전행대구판관 나주 정학교 전서로 쓰다.

대한황국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하여 금강산이라 하였다. 수려한 명승지여서 천하에 소문이 났다. 부처님의 적멸보궁과 스님들의 요사채가 있으며, 금강산주변에서 거처하는 사람들이 무려 천여명이나 되었는데, 간성의 건봉사가 제일이라 하였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520)에 창건되었으며, 이 때는 중국 양나라 천감 19년 경자가 된다. 무릇 건봉사는 그 이름이 세 번 바뀌었으니 처음에는 원각圓覺이라고 했다가 고려 때에는 서봉西鳳이라 했으며, 오늘날의 이름은 건봉乾鳳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서북쪽 모퉁이에 봉황과 같이 생긴 돌이 있다고하여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였다. 당나라 숙종 건원 무술년(758)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發徵 동량화상棟樑和尙이 만일연회를 베풀고 29년이 지난 병인년(786)에 만일을 채우고 아미타부처로 현신하여 두타를 수행하던 31인을 제도하고 육신은 허공으로 날아올라 갔다. 향도 961인은 전후로 해탈하여 서역 극락토에 왕생하였으며, 사찰 북쪽 5리에 허물을 벗기 위한 소신대燒身臺와 영골零骨이 아직도 남아 있다.

김부식이 지은 삼국유사를 살펴보니 발징은 관음이 응하여 현신하였다고 했으며, 또 이르기를 강주康州에 아간귀진阿干貴珍은 발징을 흠모하여 그의 뒤를 쫓고자 매번 미타사彌陀寺 혜숙소惠宿所에 이르러 마음을 가다듬고 염불을 하였다. 이때 데리고 있던 계집종 욱면郁面이 염불하는 뜰에 따라가 참여하였는데 말뚝에 노끈을 걸고 손바닥을 뚫어 매고는 부지런히 정진하며 물러나지 않았다. 이 때 공중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교시가 있었다. 얼마되지 않아 하늘나라 극

락을 좇아 집 들보를 뚫고 날아 올라갔다는 것이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즉 이는 사관史官이 조서를 받든 뒤에 쓴 것으로 발징의 서원誓願이 얼마나 높고 깊었던가를 상상할 수 있다.

건봉사에 딸린 부속 건물로 보림암이 있는데 바위가 울퉁불퉁하게 우뚝 솟아 오르다 끊어진 곳에 돌기둥으로써 마루의 난간을 삼았다. 이곳이 바로 보림조사께서 도를 깨우친 곳이다.

본조 을유년(1466)에 세조 임금께서 동쪽을 순행하실 때 이곳에 이르러 5일동안 어가御駕를 머무시고 옛 자취를 돌아보면서 크게 신이神異 하다 하시고 원당을 정하고 어실각을 지었다. 또 사찰에 토지를 하사하였으며, 발원문을 손수 짓고 써서 내려 주었다. 기축년(1469) 예종 임금이 또 원당을 정하자 완성을 보았다.

경인년(1470)에 효령대군 및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분부를 받들고 사찰 주위의 산을 동쪽으로는 육송정六松亭 다리앞까지, 남쪽으로는 초개험草芥險 냇물까지, 서쪽으로는 고진령高鎭嶺 아래 두 냇물까지, 북쪽으로는 노루목재 밖 큰 냇물까지를 경계로 사방십리를 건봉사의 경계로 삼고, 스님들을 잡다한 노역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명종 경술년(1550)에도 논 10석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사하였다. 효종 기축년(1649)에 또 원당을 정하였으며, 숙종 계해년(1683)에는 명성대비께서 부처님 치아사리탑을 세우라고 하였다. 부처님 치아사리는 즉 신라 자장법사가 당나라 청량산淸凉山에 들어가 받들어 모시고 왔으며, 사명대사는 공무公務로 일본에 가서 다시 찾아 모시고 돌아왔다.

임진년 냇물 북쪽에 있는 방 여덟칸이 화재로 타버리자 중건하였다. 영조 을축년(1745) 누대 앞에 있는 무지개 다리가 무너지자 다시 고쳐 쌓았다. 갑진년(1724)에는 정성왕후의 명으로 팔상전을 건축하였으며, 가을 8월에는 숙종임금이 지은 어제절감도御製折檻圖를 제작하여 하사하였다. 병신년(1776)에는 정순왕후의 명으로 국재國齋를 베풀었으며, 순조 임술년(1802)에는 용허석민 화상이 발징의 자취를 이어 연회를 베풀자 상서로운 조짐이 많이 나타났다.

무자년(1828)에 강원도 감사 정원용이 200꾸러미의 돈을 시주하여 사명대사의 비각을 세우고 또 그 영당에 단청을 하였다. 대개 이 사찰은 즉 사명대사가 삭발한 곳이며,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나라에 충성을 받친 곳이기도 하다. 헌종 병오년(1846) 냇물 북쪽에 있는 전각들과 스님들의 요사채가 불에 타자 군수 정재용은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며, 감사 박종길은 임금님께 아뢰어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내려 주는 은총을 입어 정미년에 그 공사를 마쳤다. 철종 신해년(1851)에는 벽오유총이 이어서 연회를 베풀고, 두타를 행하던 동자의 치아와 사리를 얻자 나란히 부도를 세우고 보관하였다. 예전에는 이 사찰을 일컬어 일천기의 부도가 있는 도량으로 영험한 곳이라 하였다.

정사년(1857) 군수 이용학이 봉급에서 600꾸러미의 돈을 시주 하여 승번전僧番錢을 덜어 주었다. 계해년(1863) 군수 이인회가 600꾸러미의 돈을 시주하여 종이를 만드는데 동원되던 노역을 덜어 주었다. 오늘날 고종황제 을축년(1865)에 화은호경이 법원法院을 설치하고 문을 열어 널리 설법을 베풀자 강 남북에서 제일가는 강당講堂이라 하였다. 무인년

(1878) 4월 3일 사찰에 화재가 발생하여 3183칸을 모두 태웠다. 그러자 군수 이주각이 관청 주방에서 밥을 지어 스님들을 공양하고 주위 5개 면민으로 하여금 풀로 덮은 임시 막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에 감사 홍재현은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자 서울 궁성에 알려졌으며, 영의정 이최응이 공명첩 500통을 내려 주었다. 예조로부터는 모연문을 하사받아 이듬해 기묘년(1879) 대웅전과 응향각, 관음전, 사성전, 명부전, 범종루, 만일회,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을 중건하였다. 화주化主 벽오와, 보운, 율암, 석담, 몽허, 영담, 용호, 하은, 완명, 서념, 월산이 일을 도맡았으며, 성봉, 운계, 쌍월, 학림은 공사를 감독하고 채근하였다. 7월에는 조정에서 5천금과 연기치輦旗幟를 하사하고 특별히 범운에게 명하여 대웅전에 단청을 하도록 하였다. 겨울 10월에 中官《지방관地方官에 대해서 조정에서 근무하는 벼슬아치.》 이민화에게 명하여 임금의 탄신일인 천추경절千秋慶節을 맞아 이를 축수祝壽하는 곳으로 정했으며, 중관 황수연에게 명하여 사찰 승려들의 잡역을 덜어 주었다.

경진년(1880)에 벽오는 시왕상을 큰 배에 모시고 왔으며, 보운은 16라한상을 옮겨 봉안하였다. 이에 화주는 두 전각을 준공한 후에 등을 달고 단청의 역사를 마쳤다. 또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영변 약산에 있던 금구종金口鐘을 관청의 말에 싣고 옮겼다. 신사년(1881)에는 완화군完和君을 위한 재를 베풀었으며, 괘불번掛佛幡과 주물로 그릇을 만들었다. 화주 율암은 이 해 여름 만화관준과 연회蓮會를 베풀었으니 이제 26년째가 된다. 가을에는 보림암과 극락전을 중건하였으며, 병술년(1886)에는 명성왕후가 궁가宮家에 딸린 밭으로써 고성군 계월 반정 기동에 있는 3평《본문에 3평은 3000평의 오기誤記가 아닌가 한다.》을 끊어서 사찰에 붙여주자 이를 받았다.

중관 황윤명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사찰에 내려줄 물품의 양을 완문完文《관청에서 향교, 서원, 사찰,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전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나 인정서이다.》으로 작성하여 내려주자 향자香資에 보태어 씀을 축하하였으며, 상궁 홍씨가 특별히 도왔다.

경인년(1890)에 팔상전과 영각, 노전, 극락전, 및 창고를 중건하니 화주는 인파, 만화, 운파, 성암이요, 일을 채근하고 바로잡아 주는 일은 학림과 벽응이었다. 신묘년(1891) 신정황후 소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다. 계사년(1893) 독성각을 건축하니 화주는 병운이었다. 또 참선실은 화주 만화가 건축하였다. 정유년(1897) 명성황후 대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다. 무술년(1898) 경선궁에서 명을 내려 봉암암을 중건하였으며, 화주는 회명이었다. 기해년(1899)에 또 하사하는 은전을 입어 봉서루를 중건하고 또 대웅전을 중수하고 단청을 하였으며, 개금불사改金佛事 화주는 응호였으며, 상궁 신씨가 특별히 도왔다.

을사년(1905) 봄에 명부전의 지붕을 다시 잇고, 노전을 세웠다. 7월에 순명비純明妃의 소상일을 맞아 재를 베풀었으며, 상궁 천씨가 특별히 도왔다.

사찰에 석가세존의 성도재成道齋와 강탄재降誕齋, 열반재涅槃齋 및 등촉계燈燭契, 육생등갑계六生等甲契, 상당어산서청계上堂魚山書廳契가 있으니 즉 천지와 더불어 서로 시작과 마침을 같이하는 것들이다.

대저 궁실과 그에 딸린 영토는 살아있는 자가 의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는 속가의 말인즉 석문石門에 주석 기와로 만든 고대광실인 집과 구불구불 파놓은 인공 연못과 같은 것은 이루어짐이 있으면 무너져 없어 버리는 것이 인간세상의 정한 이치이다. 만약 사찰이나 승사에 이르면 전세前世, 현세現世, 내세來世의 모든 부처가 장엄하여 천하 모두가 시주를 의뢰하고 일체의 중생들은 앞 뒤에서 신불神佛의 가호를 지니어 유독 그 목숨을 오로지 할 수 있으니 이는 속가俗家에 비할바가 아니며, 자기 한 몸이 사사롭지 않음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생각할진대 이 건봉은 백마白馬가 비로소 길을 닦았고, 청조靑鳥가 날아오르다 점지한 곳이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 사백년을 지났으며, 편액을 세 번 고쳐 달고 삼천 백여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 이미 보수가 끝났다. 그윽하고 깊숙하여 한 나라의 대 장관으로 삼

았으며, 높고 높으니 삼보의 근본 사찰이 되었다. 하물며 임금께서 거둥 하실 때 천자의 깃발을 마중 한 곳이 아닌가! 신선이 지은 문에서 보묵寶墨《역대 임금께서 하사한 어제어필御製御筆.》을 받들었으니 임금의 은총이 곳곳에 서렸도다. 산과 바다가 높고 깊으니 만년토록 훌륭하도다. 어른과 거사居士, 수령, 방백에게까지 큰 복이 미쳤으니 모두가 풍악을 울리고 발원하여 보시 하였네. 도량의 역사가 오래고 긴 세월 새로우니 이곳이야 말로 든든하여 빠지지 않는 확고한 터전이 되었으니 융성하도다!

해는 갑오년(1894) 사찰 스님 보운만화가 글로써 산문의 발자취를 청하니 마침내 간략히 써서 그 산문을 연 처음을 찬미하고 드리워 뒤에 오는자에게 보이노니 강물의 모래가 한량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년수가 무궁하도록 하소서. 비명에 이르기를

오직 금강의 뫼 뿌리와 동해의 넓은 바다는

뭇 산의 조종祖宗이요, 백천의 물이 돌아모인 곳이다.

부처님의 힘으로 재회를 높였으니, 나라의 은총과 같이 크도다.

사찰을 처음에는 원각이라 불렀으니, 태산과 같도다.

천하의 주지들이 미타가 친히 나타남을 보았네.

31인을 제도하고 육신은 허공으로 날아올라갔네.

보배로운 연회를 세 번이나 베풀었으니 발징화상으로부터 비롯되었네.

불법을 닦는 스님이 대를 이으니 신라 때부터 우뚝 하였네.

일천 사백년을 공양에 응했으니 복전福田《부처님을 공양하여 얻는 복으로 부처를 섬기면 복덕福德이 생기는 것이 밭에서 곡식이 나는 것 같다는 뜻임.》이로다.

나에게 미처서도 밝게 빛나니 지중하신 임금에게 글을 올렸네.

운문산에 보배로움을 간직했으니 화산을 나눔과 같도다.

옥으로 만든 띠로 진정을 하니 봉황이 밧줄로 거북 인장을 묶도다.

베품이 있으므로 해서 무너진 것을 그 즉시 중수 하였네.

전각을 복원하고 누각을 중수 했으니 구역내에서 마주 바라보도다.

이름난 구역인데다 큰 사찰이 있으니 이를 제일이라 하도다.

병오년 3월에 여러 스님들에게 서로 묻고 일을 도모 하였네.

목소리 하나되어 구하고 찾아내어 이에 업적을 돌에 새기려네. 우뚝

솟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숲이 우거진 산하이였네.

글로써 차례대로 이를 밝히어 그것을 잇고자 비에 새겼네.

공덕이 오래 쌓였음을 드리워 보이나니 너의 허물을 신불과 대중에게 보일지니라.

산신령과 용왕이 영원 무궁함을 지켜 주리라.

광무 10년 병오(1906)에 세우다.

대한제국 금강산 건봉사 제2미타회 연기비

당나라 헌종 원화3년 무자(808)에 화주化主 혜숙법사惠宿法師는 승려와 속세사람 21인과 동맹을 맺고 합동으로 미타회彌陀會를 결성하였다. 그 가운데 강주에 있는 아간귀진阿干貴珍의 여종 욱면郁面이 매일 저녁 7~9시경에 절구에다 쌀 두 석을 찧어놓고 노예 신분으로 주인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렇게 8년이 되는 기미년 정월 21일에 홀연히 천상의 음악소리가 서쪽으로부터 들려오자 상서로운 기운이 허공에 가득하였다. 욱면은 밝은 빛을 크게 비치면서 천장을 뚫고 허공으로 날아올라갔다. 그 뚫고 올라간 구멍이 둥근데도 비가 새지 않았다. 유골을 육신대肉身臺에 봉안하고 찬탄하기를 "서쪽 인근 옛절에 부처님이 등불을 밝히시니 방아를 찧어놓고 밤이 깊어 돌아오도다. 스스로 한 가르침만 따라 성불하니 노예의 천한 신분임에도 참되게 육신을 잊고 득도하였네."라고 하였다.

융희 2년 무신(1908) 7월에 비를 세웠으며, 만화가 기술하였다.

처사 김계화 치아사리탑 내력

강원도 인제현 북면 용산리에 거주하는 김계화金桂花는 나이가 64세요, 본관은 김해金海였다. 병오년 3월에 서쪽을 향해 집안 사람이 고하기를 치아가 대단히 아픈지고! 대단히 아픈지고! 라고 하였다. 갑자기 문채가 밝게 빛나는 구슬이 책상 아래로 떨어지자 오색 영롱한 무지개가 금강산을 둘렀다. 스님이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자 곧 사리임을 알았다.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호를 용계龍溪라 하였으며, 이름은 세경世鏡이라 하였다. 이에 대인大仁의 법통을 이었으며, 한 아들이 출가하니 호를 운호運浩라 하였다. 운호의 사리는 금강산 남쪽 기슭 건봉사 서왕동瑞旺洞에 봉안하고 석탑을 세웠다.

건봉사 보안원 상량문

은혜는 삼세여래三世如來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슬퍼하고 불쌍해하고 생로 병사도 불법이 널리 구제해주니 그 공은 百丈和尙 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늙고 병드는 것을 마음 아파하여 기둥을 세우고 보안원普眼院을 건축하였다. 크고 작은 사찰이 바둑판에 놓인 바둑돌 같이 복된 땅 신선의 구역에다 펼쳐 놓은 것 같았다. 스님들은 불당을 장식한 깃발이 펄럭이는 향림香林에 별처럼 늘어서 있었다. 머리를 조아리고 본 사찰의 내력을 상고해보니 처음 길상吉祥의 땅에 선문禪門을 열자 신라국의 비와 이슬에 고루젖듯 은혜를 널리 입었다. 아득히 먼 옛 터전의 자취를 찾아 나서니 우리 열성列聖 3조 임금께 은하수의 빛이 비쳤다. 육바라밀과 팔정도로 경계를 나누니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면서 위의威儀가 화락하였다. 31인이 허공으로 날아올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자 명성과 소문이 자못 많았다. 이 일은 해가 깊고 세월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별자리가 이동하고 바뀌더니만 엄청난 화마가 병오년 여름에 휩쓸자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다. 이에 신령께 공손히 착한 일을 시작함을 고하고 정미년 봄에 복원의 역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록 여러 건물을 새롭게 중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보안원 건물은 이지러지고 기울어진지 오래되었다. 매번 장소가 비좁아 겨우 무릅이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을 찡그리는 때가 많았다. 완고하신 우리 스승 화은화상華隱和尙께서 봉갈棒喝《선가禪家의 문답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큰 소리로 꾸짖는 수행修行을 말함.》로 번갈아 가며 치닫다가 크게 더 넓히어 우리에게 일천 일곱개의 문제를 내어 추구하게 하고는 떼로 만든 배를 타고 널리 중생제도에 나섰다. 팔만사천의 법문으로 노를 휘둘러 저어가 서산의 바른 정통으로 우뚝 서서 동방의 혼미한 도를 지도 하였다. 방자한 사람에

게는 육법을 쫓게하고 민망한 사람에게는 삼보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자 의지가 깊고 개연하여 여러 대중과 한가지로 의기 투합하여 모든일이 마침내 순조롭게 되었다. 망녕됨이 없이 뭇 신령들과 손을 잡으니 벌이 꽃을 찾아 동으로 서로 분주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불가에는 독실한 믿음이 있어 지은죄를 참회하면 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까치가 집을 짓듯 앞에서 물어 나르고, 뒤에서 실어 나르며, 몸이 고되고 형상이 피곤함을 생각지 아니하였다. 뛰어난 목공 장인을 남쪽에서 부르고 아름다운 재목을 동쪽 산마루에서 사서 도끼로 다듬고 톱으로 잘라 백설과 같이 깨끗하고 용이 승천한 억만년 안락한 곳에다 터를 정하니 곤충도 새무리도 기뻐하는 듯 깊은 산중에 호랑이도 꺼꾸러지고 없으니 천추 길이 길이 부귀의 땅이 되었다. 기뻐서 뛰며 춤을 추는 자리에서도 삼세三世 부처와 어버이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리면 오탁악세五濁惡世《이 세상의 다섯가지 더러운 것으로 겁劫, 견見, 명命, 번뇌煩惱, 중생衆生을 말하며, 이 같이 오탁이 있는 세상은 말세末世라는 뜻임.》에도 은총을 입을 수 있으니 어찌 부처님에게 귀의하지 않으리요! 찬미하고 경하드리는 날에 입으로 노래를 부르니 백 길 큰 은총이 한 곳에 모인 맑은 대중들에게 돌아가니 노을이 상서롭게 타나나고 산수도 빛을 더 했네. 믿음으로 이해하고 한 곳으로 오니 한마음으로 상응하네. 널리 중생을 보는 관세음의 자비로운 눈을 함께 열고 바라보네. 흥겨워 삼보를 공양드리니 모두가 삼륜공적三輪空寂《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모두 공空이라고 보아 포시布施에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주는자나 받는자, 주는 물건의 삼륜의 본래는 공이라고 보는 것을 말함. 이것을 각기 시공施空, 수공受空, 시물공施物空이라고 함.》이네. 모두가 발원發願의 마음을 가지니 보리원菩提園에 비가 개이고 깨달음을 얻는 진실된 지혜의 바다에 둥근달이 떴네. 애오라지 짧게 부르며 읊조려 들보를 올림을 돕고자 하네.

동쪽을 향하니 사성四聖《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말함.》과 육범六凡《불가의 십계十戒중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이름.》이 그대로부터 떠나지 않도다.

파도는 일지 않고 상서로운 햇빛만 있으니 만 천 그 모든 것이 한 빛 가운데 있도다.

서쪽을 향하니 수행의 기간을 더함에는 긴 가운데 짧음이 있도다.

두 서 넛 상서로운 무지개에 그림자가 가지런하니 차례로 따라 나오는 길이 희미하지 않도다.

남쪽을 향하니 우뢰와 같은 벽력소리 구름이 다 거두어 가도다.

좋은 재물에 무슨일로 온갖 성에서 참여하는가.

맑은 하늘에는 달이 찼고 못에는 물이 가득 찼도다.

북쪽으로 향하니 큰 성인과 선사가 법응을 널리 펴도다.

일만 이천 금강산이 북두칠성에 임했으니 여러 십찰十刹《선사禪寺의 사격寺格으로 12세기 후반 송대宋代에 정해진 정부가 주지를 임명하는 사찰을 말함.》 가운데 으뜸 가도다.

위로 향하니 새벽이 오자 머리를 조아리며 실상문實相門《생멸무상生滅無常을 떠난 만유萬有의 진상眞相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도다.

법음 소리가 층층이 들려오니 삼라만상이 그 사이에 있고 별빛이 가이없이 비치니 하늘과 동일 하도다.

아래로 향하니 설법이 밝고 빛나니 진정한 깨달음을 존중하도다.

황금이 만리에 널렸으니 넓은 뜰에 성을 쌓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식견을 지녔으니 속세를 떠나 몸을 숨기도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들보를 올린 후 황제의 크신 도가 온 천하에 창달하게 하시고, 부처님의 밝은 해도 널리 세상 밖에까지 고루고루 비추도록하여 주소서. 뜰에는 풍년이 들어 이를 고맙게 여길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산문에서는 산불의 재앙으로부터 손실을 보지 않도록하여 주소서. 악귀에 덮힌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고해에 허덕이는 중생을 널리 구제하여 주소서.

백엄청수百厂淸秀가 짓다.

만일원 중수기

세상에서도 중대한 일이란 충忠과 효孝이다. 옛날 목주진존숙睦州陳尊宿《〈전등록 목주장〉에 전기傳記가 있다. '존숙'이란 학덕이 있는 노승을 말함》은 어머니를 옥행玉行으로 섬겨 소문이 났었고, 우리나라 서산대사는 무기를 잡고 나라를 지켜 그 공훈功勳이 책서策書에 기록되었다.

승도僧徒들이 역시 대대로 이를 본받아 그 가르침은 시들지 않았으니 진실로 충효의 도리는 천지와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석씨釋氏=佛徒가 유교에 명성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종 그러한 효자와 충신이 있었다.

건봉사 만일원萬日院은, 석민碩旻스님이 수도하시던 곳으로 석민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정성들여 계율을 닦으며, 이 만일원을 만들었다. 대개, 날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우리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기를 이제 7천9백여일이 되었는데 석민스님의 본래의 뜻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덜 검게 물들인 장삼을 걸친 무리들이 화복禍福을 들먹이며, 부질없는 말을 꾸며대고, 위로는 상이나 하사품下賜品을 요구하고, 아래로는 우민愚民, 속객俗客과 함께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는데 석민스님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임금과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출한 것은 진심에 바탕을 둔 것이라, 움직일 수 없이 단단한 것이었다.

"몸이 이미 승려가 되었으니 군사軍士나 이속吏屬이 되어 문무간에 여러 가지 소임을 맡아 근력筋力을 다 바칠 수도없고, 또 땅에서 농사짓고 호구戶口를 이루어 부역賦役을 바칠 수도 없으니, 오직 마음을 불도에 의지하여 우리 임금님의 수와 복을 빌 뿐이다. 이것을 나는 힘 쓸 뿐이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불도는 만물에 자비로우니, 일체의 모든

만일원

생명 있는 존재에 대하여 모두 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제도할 생각이다"라 하였고, "우리 임금님이 위에서 편안하셔야 백성이 평안하고 국토가 안전하다."고 하였다.

비단 석민같은 불도佛徒뿐만 아니라, 제자리를 얻도록 보호하면 꿈틀거리고, 물고, 쫓는 미물들도 다 그 사는 보람을 이루는 것이다. 야인野人이 별 것 아닌 미나리를 먹다가도 맛이 있으면 그 것을 임금님께 바치려는 생각을 하고, 산골 백성이 빈 그릇을 두드리면서도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칭송하는 것은, 군자도 그 정성과 순박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만일원을 만든 이유이다.

또한 내가 생각하니, 인심이 잘못되고 어두워져서, 허겁지겁하며, 재물을 쫓고, 송곳 끝 같이 작은 이해득실을 다투니, 근본을 떠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임금과 어버이에 대한 생각처럼 중대한 일도 왕왕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는데 석민스님과 그 신도들은 그 마음이 본래 고요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물욕에 집착하지 않았다. 바야흐로

그는 밖으로 재물에 접하지 않고, 안으로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고허적담枯虛寂淡, 즉 고고枯高하고, 허심虛心하고, 고요하고, 담백하여 머무는 경계가 없으니, 본래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라, 물이 흘러가듯, 나무에 싹이 트듯, 애연靄然하게 화기和氣를 풍기고, 유연油然하게 자연스럽다. 나로서도 반드시 그렇게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늙었는데, 앞으로 또 7년이 있어야 그의 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에 은퇴하여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상이나 하사품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복리福利가 이렇게 높고, 정수精粹함이 진실로 두텁다.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들의 스승처럼 한다면, 이 만원은 천백년 헛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어찌 만일에만 그칠 뿐이겠는가. 석민스님이 움직여서 신소信所의 시설을 갖게 되는데,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나와의 사귐이 오래되어 더욱 정이 두텁다. 서울까지 와서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길래 나는 불교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느끼는대로 그리고 그의 뜻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을 뿐이다.

만일원을 중수한 월일月日같은 것은 석민이 기록한 기문記文에 있으니 여기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다시 쓰지 않는다.

임오년(1822)9월9일 순계거사醇溪居士가 쓰다.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축석기

무릇 경치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를 감상하고 즐기는 손님이 없으면 이름만 걷돌다 마는 것이다. 또 산이 아무리 좋다한들 산에 사찰이 없으면 이것도 텅빈 이름만 두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산중에는 사찰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건봉사의 보배로운 사찰이 금강의 영험한 구역에 있으니 우리 동방에서는 유명한 사찰이다. 청룡과 백호가 그를 감싸 안고 남쪽물과 북쪽물이 형국이 되었다. 옛날에는 경내에 여덟칸, 여섯칸짜리의 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하였다. 냇물 남쪽에는 낙서암, 영월당, 계월당, 송월당, 혜월당, 청월당이 있었으며, 냇물 북쪽에는 만일회, 보안원, 징청각, 서상실, 동상실, 함월당, 청련당, 축성암이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서너곳에 요사채만 남아있는데 산문내에 암자가 많은곳에 있다고 하였다. 동쪽에는 청련암이 있고 남쪽에는 망해암, 서쪽에는 백련암, 반야암, 상원암, 봉암암, 보림암, 북쪽에는 극락암, 대원암, 보문암, 안양대성암이 있었으며, 그밖에 사이 사이에 토굴이 있는데 이름을 모두 적기 어렵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암자로는 네 다섯곳에 있는 것 뿐이다. 옛날에는 대중이 천여명이 거주 하였으나 지금은 불과 백 사십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많은 화재를 겪었으므로 크게 흥성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암자가 처음 세워진 것은 신라 법흥왕 기해 6년(519) 고구려 안장왕 1년으로 암자는 계운啓雲 선조께서 처음 창건하여 후손에게 보존되어 오면서 중수되었다. 신라, 고려 때의 먼 일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으나 조선 선조 때 이르러 사명 · 혜능 두 대사께서 이곳에서 참선을 하면서 불경을 공부하였다. 중간에 들어오면서 운파, 월봉, 대운, 송암, 목양,

낙서암 축석

일암등 대종장들이 나왔으며, 또 그 사이 고제조령高提祖令과 광화미륜廣化迷淪 같은 분들이 거듭나왔으니 실로 산중에서 복을 누릴만한 땅이 되었다. 해동 명승구역에 매양 기쁨만이 있는 암자가 되어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흙으로 쌓아만든 섬돌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이 무렵에 나는 대본산의 주지로 있으면서 팔상전을 돌로 쌓는 일을 마칠 때였으며, 또한 본 암자를 돌로 쌓으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들에게 의견을 듣자 모두가 한결같이 흔쾌히 승낙하였으며, 공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전날에 이같은 역사를 하면서 미리 헤아려 놓은것과 대중들이 각자 출연한 기금을 모아 다년간 이자를 늘리자 얼마 안되어 수천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임시로 대중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자 모두 참여하여 조금씩 기금을 출연하였으나 그래도 나머지는 부족하여 공금으로 보충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장인을 초청하여 돌을 다듬는 공사에 들어 갔으니 때는 불기 2947년이요, 해로는 대정7년 무오(1918)《불기 2947년은 서기로는 1920년 대정大正9년 경신庚申이 되며, 대정 7년은 무오戊午년으로 불기로는 2945년이 되므로 2년이 차이가 남.》이었다.

금암선사가 이 일을 도맡아 감독하고 바로잡아 나가면서 매일매일 공사를 독려 하였다. 또 경월, 춘호 두분이 재산을 맡아 그때 그때 비용에 조달하였으며, 대중들이 수시로 찬조금을 흔쾌히 내놓았다. 이렇게 내외에서 협조하고 동참하는데 힘입어 서로가 따라서 협조하였다. 이듬해 기미년 (1919) 가을 7월에 마침내 준공되었다. 파괴 되었던 섬돌은 엄연하게 큼직한 전돌로 쌓아졌으며, 황량하던 도량은 다시 청정한 지경이 되었다. 아! 우리들이 만약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하게 묵묵히 지켜오며 당시에 이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어찌 오늘의 성공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대중들이 바라는 것은 사찰 도량이 항상 온전히 있어 아침으로 불경을 외우고 축성법회祝聖法會《임금의 장수를 축원하기 위하여 베풀던 법회로 주로 임금의 탄신일에 행함.》를 열며 저녁으로 참여하며 학덕이 높은 스님의 법게法偈《불가에서 교법敎法을 설명하는 귀글.》를 듣는데 있었다. 이에 무상無相《형태나 모습이 없이 특별한 상을 갖지 않는 것, 즉 특징 지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일체의 집착을 벗어난 경지를 말함. 수행자의 최고의 경지인 공, 무, 상, 무원의 하나.》을 받아들여 베풀 때 자연히 위로는 사은四恩《인간으로 태어나서 받는 네가지 은혜로 부모父母, 중생衆生, 국왕國王, 삼보三寶 또는 국왕, 부모, 사장師長, 단월檀越의 은혜를 말함.》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삼도三途《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를 말함.》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큰 지남指南을 삼을 진져!

내가 하루는 장수산방長壽山房에서 잠잘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옷을 입은채로 잠깐 조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대중의 부탁을 받아들이라 하면서 나에게 청하에 그것을 기록하라 하므로 말하기를 내가 비록 글은 잘하지 못하나 흥이 나는지라 대중들의 부탁에 감명을 받아 졸렬함을 잊고 이에 간략히 기록하여 모든 후손들에게 보이노라.

해는 대정8년 기미(1919) 가을에 봉래산인 운파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삼가 기록하노라.

대공덕주大功德主는 능허계명凌虛桂明과 비구니 정심淨心이였다.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중건기

가만히 생각하건데 이 암자는 신라 법흥왕 5년에 고구려 안장왕 1년, 양梁나라 천감 19년에 창건하였다.《신라 법흥왕 5년은 서기 518년이며, 고구려 안장왕 1년은 519년, 중국 양나라 천감 19년은 520년이 되므로 건봉사 낙서암 창건 연대는 각기 달리 전해오고 있다.》 이렇게 전사傳史에 실려 있는데, 창건후 여러번 불에 타 없어졌다.

사찰의 내력을 기록한 것마저 함께 화재를 입었으니, 신라 · 고려 사이의 역사를 일일이 거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길은 전의 길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대로, 월봉대사가 지은 이 암자의 중수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즉, 아도화상阿度和尙이 고구려로부터 와서 신승神僧은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사이를 어찌 의심하겠는가? 산의 모습으로 점을 쳐서 길한 땅을 택하여 이 암자를 창건하였다. 이것이 터를 개척한 시초이고 처음으로 창건한 것이다. 이로부터 특출한 인재들이 배출되고 임금님이 애호하고, 신도들이 열심히 시주하니, 자연히 법전法殿이 솟아나게 되었고, 요사채가 나뉘어 늘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당숙종 건원 원년 무술(758)에 발징화상發徵和尙이 중수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염불하는 스님들과 경서를 읽는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각각 제자리를 잡아, 불법을 크게 일으켜 군중들의 미혹함을 널리 교화하였으니, 법은 외롭지 않아 사람으로 인하여 크게 세상에 밝게 드러나게 되었다.

건너 뛰어 조선조 선조대왕 6년 계유(1579)에 사명泗溟과 혜능惠能 두 분의 큰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고, 숙종대왕 40년 갑오(1714)에 이르러, 용암선사龍岩禪師가 또 다시 지붕을 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종황제 9년 임신(1872)에 성봉선사聖鳳禪師와 학림만화鶴林萬化 두 분이 합심하여 중건하였는데, 이렇게 흥했다 쇠퇴함이 무상하였다.

6년이 지난 무인(1878) 4월 3일에 맹렬한 바람이 크게 불고 산불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불길이 절에 옮겨 붙어 눈 깜짝할 사이에 사찰경내가 금방 기왓장이 자갈밭으로 변하였다.

아! 슬프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사찰이라고 지목되던 것이 어찌 갑자기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 화재를 입은 건물의 칸수를 헤아려보면 3,173칸이나 되었다. 관아의 주방에서 밥 짓고 국을 끓여 가져다가 스님들에게 제공하고, 각 면과 부근의 사람들을 지휘하여 기와를 거둬내고 천막을 쳐서 거처를 잃은 여러 스님들을 우선 모셔다 대접하였다. 그 고을의 원은 감사가 있는 곳에 알리고, 이를 보고 받은 감영에서는 나라에 장계를 올렸다. 다행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감영에서 공명첩 5백장을 찍어서 내려주고 모금을 위한 글을 출급出給하였다. 오규정五糾正으로부터 8도의 모금 책임자를 정하고 각각 정재淨財를 모으기로 하였다. 그리고 모금 총책임자인 벽오로사碧梧老師가 계획을 짜서 앞서서 주장하니 보운, 율암 두 선사가 서울에서 일을 주선하고, 성풍, 운계, 석담, 덕암, 혜암, 쌍월, 천봉, 월산, 학원, 청암, 완허, 월송, 금담, 의산, 학산, 학림, 만화 등의 여러 선사가 마음으로 맹서하고 서로 호응하여 목수인 침계 민열 등을 불러서 건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벽오로사는 만화관준공과 함께 먼저 영남의 각 사찰에서 기부금을 받았다. 여름 7월이 되어 먼저 관음전 만일회를 세우니, 이는 이듬해에 건축을 할 때 막사로 쓸 계획이었다.

기묘년(1879) 봄에, 영담선사는 응호전공과 함께 보안원을 세우고, 몽허, 포련 두 선사는 축성암을 세우고, 서암선사는 청련암을 세웠다.

총책임을 맡은 도화주에 벽오스님, 주관에 성봉, 승통에 쌍월, 목수의 총감독인 도감에 운계, 별좌에 학림과 만화등 여러 스님이 책임을 분담하고, 여러 사람과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였다. 먼저 대법당, 어실각과 각 공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암자를 세웠다. 이 암자는 산중에 처음 창건한 장소에 위치하여, 대중이 모두 모이고, 사무와 출입을 맡은 곳이라 아주 중요하다.

그 뒤 22년이 지나 경자(1900)에 보운선사가 대방의 장식이 덜된 곳과 눈에 거슬리는 곳이 있음을 한탄하고, 다시 좋게 고치고자하여 초암, 남곡의 두 큰스님으로 하여금 원근의 여러 절을 돌며, 인연에 따라 기부를 받도록 하였다. 곧 여름에 공사를 시작하여 햇빛을 가리는 횡각을 철거하고 남쪽 정면을 향하게 하였고, 긴 서까래를 끊어내고 부연을 이어 놓았다. 또 앞면의 옆으로 여닫는 문과 창호를 고쳐 만들었다. 엄동설한에도 아침저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바람과 눈이 드리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흙을 모아 급작스럽게 이룬 절이 점차 장엄한 보각으로 되어갔다.

39년 임인(1902) 봄에 이르러, 학림과 완허 두 스님은 별실을 갖추지 못하여 수용할 곳이 마땅치 않음을 한탄하여, 역사를 이르키고자하여, 바로 여러사람과 의논하여 의견을 물으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림선사는 나의 법통을 이은 은사이시고, 완허장로도 나의 은사와 같은 항렬의 스님이시니, 나는 비록 불민하나, 스승님들의 공심이 지극하심에 감동되어,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다. 신도들에게서 부지런히 모금하고 또 공공의 재산을 보태서 곧 여름에 터를 닦고 연내에 완성하였다.

남별당과 큰 문깐을 새로 세우고, 또 남쪽 뜰창가에 있는 곳간과 뒷간을 옮겨 세웠다. 또 대방의 뒷면을 개수하여, 쓸모가 있게 하였다. 또 이듬해 계묘 봄에 대방뒤의 불탱화佛幀畵와 신중탱화神衆幀畵의 불사를 아울러 거행하였다.

을사년(1905) 봄에 이르러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조고槽庫를 세웠다. 16년에 미진하였던 일들을 이제서야 끝냈으니 전에 급하게 만들었던 암실이 이제는 번듯한 일대정사가 되었다.

아아, 운이 비색否塞하였다가 다시 형통亨通하고, 흥륭興隆하였다가 퇴폐頹廢하였다가 하는 것은 이理의 상도常道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헐어 못쓰게 될 때마다 보수하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킬 수가 있었겠는가. 천天 · 지地 · 인人 · 삼재三才 가운데 사람이 가장 으뜸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이 암자를 창건한지가 지금으로부터 천 4백여년이 되는데, 그동안 수해와 화재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었다. 만약 이상에서 기록한 여러 스님들이 잡초처럼 억센 힘으로 어렵게 뚫고 솟아오른 기백과 거기다 매운 맛 쓴 맛을 다 보신 공로가 없었더라면, 어찌 오늘날 이같이 편안하게 자리잡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글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탁을 이기지 못하여 졸렬함을 잊고 대략 기록하는 것이다.

임술년(1922) 6월 상순에 봉래인蓬萊人 운파정념雲坡淨念이 삼가 기록하다.

금강산 건봉사 낙서암 매수주부기埋水鑄釜記

무릇 우주 사이에 사람이 비록 귀하나 올바른 일을 했을 때 귀한 것이고 만약 옳지 못한 일을 하였다면 천하다고 할 수 있으니 금, 은, 동, 철, 산림山林과 하천河川등의 일체만물은 인간에게 유요적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요, 또한 인간이 사용함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천한 것이니 어떤 물건이든 그러하지 않으리요.

오직 이 낙서암은 삼한三韓 고대古代에 창건되어 이름이 해동海東에 떨치었으니 맑은 풍모를 갖춘 스님과 밝은 혜안慧眼을 가진 뛰어난 인물이 거듭 이곳에서 출생 하였으니 산중에서도 장엄莊嚴한 도량道場이라 하겠다. 그러나 산은 높고 낮음이 있고, 물은 맑고 흐림이 있으며, 땅은 지저분한 것이 있고,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가려 수용함이 있으니 그 좋고 나쁜 것을 하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 낙서암은 모든 수용이 조금도 결함이 없으니 다만 음료로 사용하는 식수나 음식을 만들 때 큰 가마가 걱정이 되니 음료 식수는 먼 곳에서부터 부엌까지 이르도록 나무 홈통으로 연결하여 끌어 오도록하여 낮에는 새나 짐승, 곤충으로부터 더러워짐을 막을 수 있고 겨울에는 눈과 얼음으로 막히는 폐단이 없을 뿐더러 비가 올 때에도 흙탕물이 흘러들어 탁하게 되지 않으며, 여름철 무더위에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한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취사炊事때 사용하는 가마는 혹 작아도 별 문제가 없으나 만약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에는 참여 인원이 많아 밥을 지을 때 알맞게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여러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한 선사禪師가 계셨으니 호는 능허凌虛였다. 능허선사는 자비심을 발하여 지난해에는 백환百圜

을 시주하여 식수를 땅속에 묻어 끌어 오는것을 혼자 부담하였으며, 올 해에는 200환을 출연하였다. 당중堂中으로부터는 또 공금 300환을 보태어 만허법사滿虛法師로 하여금 영남嶺南에 있는 철물점에 보내 가장 큰 가마솥을 주물로 부어 냈는데 몸 전체가 우람하고 겉 모양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 가마솥을 기선汽船으로 실어오자 보는 이들마다 아름답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해가 바로 경신년(서기 1920) 여름 5월이었다. 그러나 부엌에 걸어놓고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 바닥이 새는 결함을 보였으니 이는 조물주造物主의 시기猜忌인가!

임술년(1922) 봄에 능허선사가 또 350환을 출연하여 직접 솥을 만드는 철물점에 가서 주조하는 기술자에게 긴밀하게 부탁을 하여 가장 큰 가마솥을 또 주조해 기선으로 운반하여 옮겨왔다. 기물器物이 최고로 아름다우며, 묘하여 또한 보는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칭찬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마시는 식수가 땅속에서 솟아 나왔는데 모두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였으며, 곤충, 눈과 얼음이 뒤섞여 흐르지 않았고, 찌는 듯한 더위의 폐단도 없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청량산淸凉散을 복용한 것과 같다고 하였다.

가마솥에 불을 지펴 밥을 짓자, 정성스러운 마음이 흘러나와 가마솥 또한 조그마한 결함도 없이 밥을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시공양齋時供養이 다 향적반香積飯을 얻게 하였으니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그 공을 생각하지 않으리요.

오호라! 오탁악세五濁惡世《오탁은 이 세상에서 다섯가지 더러운 것으로 즉 겁劫, 견見, 명命, 번뇌煩惱, 중생中生을 이르며, 악세는 이 같은 더러운 것이 있는 좋지 않은 세상 즉 말세를 이름.》에 인간의 탐욕이 능허선사는 능히 이와같이 좋은 일을 하여 대중에게 혜택을 입도록 하였으니 어찌 석가여래의 사자使者가 500년 후에 다시 탄생함이 아니리요! 실로 사람 중에 귀한 사람이라 이를진져! 내 기쁨이 한량없어 그 대략적인 자초지정을 기록 하니라.

해는 대정 11년 임술(1922) 여름 6월에 봉래산인蓬萊山人 설파雪坡가 삼가 기록하다.

식수를 땅속으로 묻어 끌어 들이고, 가마솥을 혼자 부담하여 주조한 대시주大施主는 능허당凌虛堂 계명桂名이었다.

목양당대사, 영안 , 비명 과 서문

牧羊堂大師, 靈眼, 碑銘 序文

가선대부령 경연사감 춘추관사 홍문관대제학 지성균관사 이조참판 겸 수이덕수가 짓고, 대광보국 숭록대부 겸 의정부좌의정 서명균이 썼으며, 자헌대부 지돈녕부사 이징하의 전篆으로 하였다.

내가 강원도 간성에 들어와 살던 이듬해 갑진(1724) 정월에 검으면서도 수척한 스님이 북쪽으로부터 와서 건봉사 상원上院에 머물렀다. 나이는 대략 84세쯤 되었고, 이름은 영안靈眼이라고 하는데 그 동작이나 위의威儀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나 다만 날마다 미타불彌陀佛을 부르며 외우고 있었다. 사찰에 있던 스님들이 아무 허물이 없이 지내면서도 그를 업신 여겼으며, 혹 멀리 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다. 오래지 않아 마침내 그 스님은 입적入寂 하였는데 다비식茶毘式을 올리는 저녁에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가득 하였으며, 49재 저녁에서 부터 100재까지 미쳤다. 또 잇달아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므로 산중에 있는 승려들이 비로소 크게 놀라며 모두가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 동자가 꿈을 꾸었는데 산신山神이 나타나 알려 주기를 "보살이 이미 돌아갔는데 그 유골을 수습하여 간직하지 않으면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는 꼭 스님들에게 알리라고 하였다." 곧 스님들이 또 크게 뉘우치고 두려워 하면서 여럿이 수색하자 과연 정골頂骨을 사찰 남쪽 반석위에서 찾아 냈는데 오색이 영롱하였다.

더욱이 푸른색 사리 두 개를 습득하여 사찰 동쪽 산등성이 탑에 아울러 보관 하였다. 승도僧徒들이 그 영험한 자취가 이와 같다고 전해 주었다.

내가 그것을 듣고 혼자 마음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금년 을사년(1725) 여름 6월에 내가 간성 서쪽에 있는 사택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의영義英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나를 보잔다고 하기에 내가 나가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바로 영안대사靈眼大師의 제자였다.

목양당 부도

그는 말하기를 앞으로 자기 스승의 자취를 비석에 남기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비문碑文을 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 그의 스승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대사는 함경도 영흥부永興府 북촌 사람으로 속성俗姓은 김씨인데 집안은 대대로 유학儒學의 학문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8세에 출가하여 보살계菩薩戒를 받았으며, 20세에 경률론經律論에 통하였다. 회경당回警堂 홍변洪辯 장로長老에게 사사師事 받았으며, 위로는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 선사와 3세손이 되는데, 안으로는 탐욕이나 성을 내는 어리석음을 걸어 잠그어 계정혜戒定慧《불자가 계율戒律, 선정禪定, 지혜知慧 즉 3학三學을 닦는 것.》를 하고 사방 명산을 두루 다니며 지식을 넓혔다고 했다.

그 나머지를 미루어 살펴보면 또 후학後學을 가르치자 때마침 내린 비가 대지大地를 고루 적셔 싹들이 다투어 자라는 것과 같았으니 대사가 도를 행함이 이와 같아 청을 들어 글을 써 줄만 하였다.

무릇 선도禪道는 방외方外의 학문이라 그 자취가 없으며, 속세를 초월하여 이른바 삼공三空《불교에 있어 아공我空, 법공法空, 아법이공我法二空을 말함.》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오늘날에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남의 선행을 칭송하기 위하여 그 자취를 남기는 것이나 기뻐하며, 여러 신도들을 모아 고명高名한 이로써 서로 마음을 한 곳으로 쏟는데만 힘쓰고 있으니 이것이 속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과 무엇이 다르리요!

그러나 대사만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외곬으로 불법만을 닦았기 때문에 일 밖의 미혹된 일은 생겨날 수 없었다. 비록 이상한 표적과 사람에게 기이한 것은 없었지만 스님들과 세속의 무리들을 놀라 동요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널리 퍼지게 하였으니 내가 이 같음을 기뻐하여 사양하지 않고 명銘을 지었다. 그 명에 이르기를"불법을 항상 짊어지고 솔잎만 먹고 지내는데 게으른 이들은 화로를 끼고 앉아 토란이 타는 것도 모르네, 형산 봉우리가 캄캄하여 어두운 빛을 띠자 여섯 매화나무에 열매가 떨어지고 그루는 말라갔도다.

오직 대사만이 스님들의 행적과 어울렸으니 어찌 또한 불문의 사람이라 아니하겠는가!

황명皇明 기원후紀元後 두번째 신해(1731) 6월에 세우다

황명 조선국 송암당대사 비명과 서문

皇明 朝鮮國 松岩堂大師 碑銘 序文

같은 종파의 제자 승환勝還이 짓고 같은 종파 후학 우평宇平이 서書와전篆을 쓰다

석가가 장차 시적示寂《보살이나 높은 스님의 죽음을 이르는 말.》함에 정법안正法眼으로써 간직하고 가섭迦葉에게 부여하니 법등法燈과 법등으로 서로 전하자 서역 하늘과 동녘 땅에 대대로 사람이 있게 되었다.

승국勝國《자기 나라가 싸움에 이기어 멸망시킨 나라를 일컬음.》시에는 태고화상太古和尙《고려말(1301~1382)의 고승으로 공민왕이 궁중에 머물게 하고 설법을 들었으며, 유명한 태고집太古集을 남겼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宗祖로 받들리고 있다.》이 중국 석실石室에 들어가서 임제진종臨濟眞宗을 얻어가지고 여덟곳에 전하며, 서산에 이르러 종파의 교의敎義를 널리 퍼드리고 여섯곳에 전하면서 풍악楓岳에 이르러 동쪽땅의 명수名宿가 되었다. 그의 문인 송암대사는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 불법을 강의 하였으니 바다 동쪽에서 불법의 묘리를 깨달아 칭송이 높았다. 대사의 이름은 의천義泉이요, 성은 김씨였으며, 어머니는 손씨로 해를 보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병신년(1356) 10월 20일에 태어났다. 신비스러운 광채에 얼굴은 준수하였으며, 비범한 그릇이 아니라 빼어났다. 14세에 건봉사에 나아가 석흡釋洽 장로長老의 제자가 되었으며, 월봉대사月峰大師에게 율법을 듣고 풍악화상楓岳和尙에게 수업 하였다.

또다시 두루돌며 지식을 넓혔으며, 도가 이미 성숙하여 강당講堂에 올라 불법을 두루 설명하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여 이르기를"옛적에 혜원慧遠 도림道林이 재주와 덕행에 뛰어 났었는데 오늘날 송암당대사는 이 두 가지를 겸비 하였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도솔산兜率山에서 강설講說할 때 문득 꿈에 해가 지자 신도들에게 말하기를"꿈에 해가 뜨면 내가 살것이요, 꿈에 해가 지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과연 임오년(1402) 6월 19일 향탕香湯을 청하여 목욕하고 시적示寂하니 나이는 47세요, 법랍法臘은 33세였다. 다비식을 올리는 날 밤에 상서로우면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으니 정골頂骨하나가 뛰어올라 소나무 가지에 앉자 모두들 괴이한 일이라고 하였다.

대개 대사의 일상생활은 오로지 평등함에 있었으며, 심혈을 기울여가며 불법을 익혀 자비와 인내로서 애정과 증오를 단절 하자, 사람들이 부르기를 보살이 다시 왔다고 하였다. 문인들이 도솔에다 탑을 세우고, 10년 뒤에 건봉사에 비갈碑碣을 세웠으니 그 원상原狀에 쓴 명銘에 이르기를"송암은 풍악화상에게서 배운지라 그 가사와 그 바리가 호암虎岩의 삼三이요, 서산의 팔八이로다. 남긴 풍도風道가 끝없이 넓고 아득하니 거센 물결도 머뭇거리네. 어쩌다 밝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불도가 떨치려다 무너지려는데, 널리 부처의 덕에 감화되도록 하였으니 도솔천을 옮긴 듯하네. 해가 지는 것을 꿈꾼 뒤 부처의 세계에 귀의 했으니 그같은 사실은 미묘하여 알 수가 없네. 사찰에 머물며 자취를 남기자, 천축으로부터 부처의 진신이 온 듯 생전의 자취나 죽어서의 자취 모두 거센 광채 발하네. 바위사이로 끊임없이 물이 넘쳐 흐르고 구름 덮힌 산에는 하늘이 개어 맑아 지도다. 오로지 송암대사를 생각하니 오대산 위에 보배로운 달빛만이 길이길이 비치리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신묘(1651) 8월에 세우다.

유명 有明 금강산 金剛山 해곡당대사海谷堂大師 가 속세를 벗어나 스님이 된 데에 대한 비명 碑銘 과 서문 序文

운파문인雲坡門人 월봉선사月峰禪師 쌍식雙式이 짓고 썼으며 전자篆字는 산인山人 익붕翼鵬이 쓰다.

위 해곡당대사가 스님이 된 데 대한 대략적인 행장行狀은 그의 법제자法弟子가 기록하였다. 해곡당대사가 속세를 벗어나 스님이 된 데 대한 행적은 세계보世系譜에 있으니 우둔한 소치로 감히 비겨 의논할 바가 아니나 내가 일찍이 보고 들은 바로는 대사의 법명은 처진處珍이요, 호는 해곡이라 하였다. 그 선조는 우계인羽溪人으로 간성杆城에 옮겨와서 살았기 때문에 간성군의 서촌西村사람이 되었다.

아버지는 술述이요, 어머니는 윤尹으로 경응성慶應星의 빛으로 임신하여 태어났다. 마음에 거짓함이 없이 곧고 발랐으며, 화평 스러움만 생각하였다. 머리를 길게 땋은 채로 절에 투신하여 머리를 깎고 구족계九足戒를 받았다. 비록 문필文筆은 없었으나 지략智略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법칙이 있다고 하였다. 여든살에 이르도록 날마다 나무아미타불로써 일삼고 행하였으며, 천명天命에 이르러 갑자기 입적入寂하니, 바로 병오년(서기1726) 2월 초 이튿 날이었다. 곧 다비식을 올리는데 상서로운 빛이 밝게 빛나자 도인과 속인들이 나와 보는 것이 마치 저자거리와 같았다. 모두가 혀를 차며 탄복하기를 불법의 오롯한 공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

오호라! 그 공이 없으면 어찌 이와같은 상서로움이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곧 영골靈骨한 편을 수습하여, 석종石鐘 모양의 부도에 간직하고 표를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당시 세속 나이는 75세였으며, 출가한 후의 나이는 57세였다.

대사가 사문沙門에 발을 들여 놓은 다음 큰 자취를 남긴 것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영원히 후세에 전함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정부자程夫子《중국 북송北宋 때의 학자로 이기철학理氣哲學을 처음으로 제창하여 유교도덕에 철학적 기초를 부여하였음.》 안락정顔樂亭의 명銘에 이르기를"흐르는 물은 차마 끊어지지 아니하고, 땅은 차마 거칠어지지 아니하매, 이제 이같이 비를 세우는 것도 저와 더불어 함께 하리로다"라 하고 또 명銘에 이르기를"부처는 형체가 없이 오셨으나 영골靈骨이 현저히 드러나 이것 또한 간직하고 문자를 빌려 선양함이었네. 문자로는 갖추었으나 인멸될까 두려워 돌에 새겨 영세토록 전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영골인가? 돌인가? 어느 것이 견고하며, 어느 것이 참된 것인가? 불도를 행함이 이와 같은지라 다만 주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눌 뿐이니 누가 그러한 무리인가? 만고에 길이 거룩함이 있으리라"

대명大明 숭정기원崇禎紀元으로부터 두 번째 기미(1739) 3월에 세우다.

유명조선금강산건봉사 월봉대사 비명과 서문

有明 朝鮮 金剛山 月峰大師 碑銘 序文

조계종 설암문인雪岩門人 일암日菴 정이精頤가 짓고 풍악문인楓岳門人 영허永虛 우평宇平이 쓰다.

성상聖上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지 30년 계유(1753) 2월 월봉대사의 법제자法弟子 의탄誼坦이 병중에 있는 늙은이를 찾아와 뵙고는 말하기를“저의 스승의 탑을 세운지 이미 오래되어 바라옵건대 한 말씀 하여 주시면 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병든 늙은이는 지위가 높거나 대가大家의 글씨도 아닌데 어찌 후세에 전하며 보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자 의탄이 더욱 굳은 마음으로 부탁 하길래 내가 마지 못하여 그의 청을 들어 잇고자 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대사의 법휘法諱는 쌍식雙式이요, 자는 세종世宗이며, 월봉은 그의 호다. 성은 황씨요, 즉 창원昌原 사람이다. 고려조에 간성으로 옮겨와 살았다. 아버지의 휘는 수원守元이요, 어머니는 정鄭씨이다. 달이 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꿈을 꾸고 감응感應하여 태어났으니 즉 강희康熙 기미(1679) 9월 초나흗날이었다.

대사께서는 총명함이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 나이 16세 되던 해에 금강산 건봉사에 들어가 각령覺岑 장로長老에게 다가가 머리를 깎고 계율을 받았다. 19세 때 운파대사雲坡大師를 배알하고 법요法要《진리의 본질로서 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며, 오늘날에는 불교 의식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를 간청하자 대사는 은근히 마음은 진여眞如의 깨달음이요, 인印함은 그 깨달은 마음을 결정하고 밝히는 것임을 역설 하였다. 법요를 듣고 깊이 깨달은 대사는 이로부터 지각이 고명高明하여 수행자에게 설법하는 도량을 처음 열고, 설교를 하는 곳마다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문 밖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다. 이같이 법통을 이은 사람은 손을 곱아 셀 정도로 뛰어났으니 즉 춘파대사春坡大師로 부터는

4세가 되며, 사명은 6세가 되며, 사명은 능인能仁의 14대요, 임제臨濟는 26세 적손嫡孫이 된다.

신축년간에 월봉대사께서 산천을 두루 살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 지기知己와 지우知友를 만나자, 법문法門에는 불법의 요체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고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대사는 건봉사에 되돌아와 봉암鳳庵에 오래 머물며, 사욕을 떨쳐 버리고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을 오로지 불법의 요지要旨만을 연구하면서 말하기를"원래 불법은 문자를 많이 하지 않는데 어찌 구구하게 팔만경八萬經을 쓰리요."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멀리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여러 사찰을 정결히 하자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정결하여 졌으며, 모든 사찰에 한 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쳤으니 다른 종파까지도 오히려 깨끗하게 되었다. 불도에 지극히 심원深遠한 자를 인도하여 자기 쪽으로 넣은 것이 매우 많았으니 또한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다.

월봉대사가 하루는 내일 아침에는 문인들에게 일러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 하기를"너희들은 나의 형상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내가 오래 머물어 있지는 못할 것 같으니 참된 영혼이 무한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이에 육신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니,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되나니 생겨나도 생겨남이 없고, 멸滅하여도 멸함이 없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은 비록 없어지나 마음속의 영혼은 없어지지 아니 하느니라"라고 말씀 하시고 홀연히 입적하니 때는 건륭乾隆 병인(1746) 5월 11일이었다.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믿는 진실된 마음의 보응報應으로서 정토淨土에 왕생하였으니, 이 때 속세의 나이는 68세였다. 대사께서는 붕새처럼 나타났다 학처럼 돌아갔으니 법세法歲로는 52세가 된다.

6월초 이렛날 건봉사 서쪽 기슭에서 다비식을 올리자 상서로운 빛이 환하게 비쳤으며, 갈가마귀가 놀라서 울기도 하였다. 이 때 두개골 한 조각이 가파른 바위 위에까지 튀어 올랐는데 아주 뚜렷하고 오색이 선명 하였으니 미묘한 불법의 진리를 환히 깨닫지 못한 자라면 누가 능히 이같은 징조가 나타나리요!

월봉당 부도

오! 아름답도다. 마침내 기야祈夜《12부경의 하나로 경전 속에서 먼저 산문散文으로 기술한 것을 거듭 운문韻文으로 표시한 부분을 말하며, 응송應頌 또는 중송重頌이라고도 한다.》를 위한 명銘을 짓기를 "부처님을 비치는 등불이 환히 빛나니 동서사방이 밝게 빛나네.

동서남북을 골고루 비치니 현교顯敎《석가여래가 알기쉽게 설명한 천태종, 화엄종 등 일반 불교를 말함.》와 밀교密敎《불교의 교설敎說가운데 최고 심원深遠하여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불교.》를 설파하여 전하였네.

누가 이어 계승하며 일으켜 세우리, 월봉대사가 있도다.

바로 진여의 깨달음과 깨달은 마음을 결정하여 밝히는데 투철하게 통하였네.

하늘은 둥글고 바다는 넓은데 월봉대사는 부처의 세계에 떨어졌네.

소나무와 회나무가 초췌하니 계곡과 산봉우리 마져 슬퍼 마음 아파하였네.

한 조각 신령스러운 뼈는 오색이 선명하였네.

동쪽 산 기슭에 안치 하였으니 탑이 구름이 감도는 뜰에 높이 솟았네.

이 짤막한 비갈碑碣에 기록하여 뒷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노니

대사의 행적은 돌이 없어지지 않듯 영원히 남아 송대松臺에 길이길이 밝게 빛나리.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두 번째 갑신 50년 계유(1753) 7월 9일 세우다.

유명조선국 금강산 운파당대사비명과 서문

대광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이의현李宜顯이 짓고, 통훈대부 행용담현령行龍潭縣令 남원진南原鎭 병마절제도위 홍득복洪得福이 썼으며, 통정대부 사간원대사간 지제교 유척기兪拓基가 전자로 쓰다.

내가 양주의 도산陶山에 거쳐하면서 촌늙은가 되어 들판 밭두둑길 사이를 오가며 배회하는데 문득 스님 한 분이 문빗장 앞에 와서 뵙고자 하길래 그에게 물었더니 "소승은 간성 건봉사의 중 쌍식雙式이 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바 있어 길이 멀고 가까움을 해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뵙고자하여 찾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속세를 버리고 산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구애되는 일이 없고 또 아무것도 구할것이 없을텐데 어찌 나에게 이같이 고역스럽게 하는가?"라고 하자 쌍식은 "불교는 무위無爲로써 종지宗旨를 삼고 무위하기 때문에 구애되는 일도, 구하고자 하는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의 길을 열어서 밝혀 후세에 전함은 또한 법문法門이 폐하여 없어지지 아니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장차 저의 스승의 발자취를 비석에 새겨 선종禪宗의 교단敎團을 빛내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선생의 한 말씀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유자儒者일세. 유불儒佛의 도道가 같지 않은데 내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 또 병이 있어 부탁을 들어주기 어려우니 그대는 그만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하자 쌍식은 재삼 깍듯이 예를 갖추며, 굳게 요청하며 돌아가지 아니하자 내가 말하기를 "너의 스승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길래 너의 감동이 이다지도 깊단 말이냐? 또한 그의 발자취를 영구히 계승할 만하고 부처님의 깨우침을 말할 수 있을만한 분인가?" 라고 하자 쌍식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의 이름은 청안靑眼이요, 자는 법장法藏이며, 호는 운파雲坡라고 합니다.

성은 전씨이며, 계보는 정선旌善에서 나왔습니다.

고려 때부터 간성에 옮겨 살아 이래 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친은 충량忠亮이라 하오며 모친은 엄씨로 꿈에 밝게 빛나는 구슬을 삼키고 잉태하였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며, 겨우 6~7세에 누린고기 냄새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삶거나 굽는 짐승의 고기를 보면 문득 측은해 하고 비통해 하면서 차마 그것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때에도 반드시 모래를 긁어 모아 놓고 부처를 만들자 사람들이 이미 그의 장래를 짐작하였답니다. 나이 13세에 금강산 유점사의 대적암大寂庵에 들어가 허곡대사虛谷大師에게 복종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허곡대사의 이름은 뢰백瀨白으로 춘파당 쌍언雙彦의 뛰어난 제자였다고 합니다.

쌍언은 송월당 응상應祥의 문하에서 나왔으며, 응상은 사명당 유정惟政의 문하에서, 유정은 청허당 휴정休靜의 문하에서 나왔습니다. 이같이 선종禪宗의 조종祖宗 임제臨濟의 적통嫡統을 이어 왔습니다. 운파당대사가 허곡대사를 모신 지 2년이 지나 머리를 깎고 계율을 받았으며 불교 경전을 두루 익혀 부처에 대한 깨달음을 깊이 얻었다고 하며, 그 나머지 일로 문장도 익혔으니 또한 뛰어 넘어 앞지름이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 중년에는 지팡이를 끌고 영남 고을과 서남지방을 돌아다니다 운문산에 들어가 결하結夏《인도의 우기雨期에 해당하는 음력 4월 15일부터 90일간 한곳에서 조용히 지내며, 불도를 닦는일.》하고 금강산으로 다시 돌아와 마침내 건봉사의 높은 스님이 되어 10년을 산문을 나오지 않고 적선積善하여 도가 더욱 높고 업業이 더욱 수련되었다고 합니다. 정유년(1717) 겨울에 작은 병으로 앉아서 입적하였는데, 전과 같이 대낮에 꿈을 꾸듯이 오랫동안 주무시는 것 같더니 문득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는데도 안색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으며, 다비식을 올리는 날 밤에는 상서로운 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영골 사리 한 조각을 얻자 석종형石鐘形 부도에 간직하였으며, 이 때의 나이는 67세였고, 불문에 들어온 후의 해로는 53세가 됩니다. 우리 스승 종파의 실마리는 이

와 같으며, 불도에 힘써 정진함도 이와 같아,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찬란히 빛난것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를 갖추어 기록하기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이는 하찮은 저가 거듭 찾아 여러 방면에서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너가 넓게 펴서 기술한 것은 진실로 뛰어나며, 또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유가儒家의 도가 이를바가 아니어서 내가 위하지 않을 뿐"이라 하면서 이에 한마디 말로써 알아듣게 일러 주기를 "허무적멸을 불도라 하며, 살아 있음은 거짓이요, 죽음이 참됨이라 하니 마땅히 살아 있을 때 유와 무를 들어야 하지 죽은 뒤에 널리 떨쳐 오르게 함은 크게 기뻐함이 아닐세. 비석에 새긴 글도 유가에서 나왔거늘 불가의 인因이란 도리어 일정 불변한 인륜이 아닐는지"?라 하였다.

숭정갑신후 87년 경술(1730)4월에 세우다.

운파당 부도

유명 조선국 일암대사 탑명과 서문

보국숭록대부 행판중추부사 치사 봉조하○○○가 짓고, 전자篆字를 썼으며, 통훈대부 전행공조정랑 김상숙金相肅이 글씨를 쓰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나 구계龜谿에서 늙으며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다. 계곡 동쪽에 은석사銀石寺라는 절이 있는데 꽤나 청초하였다. 먼 곳의 승려가 더러 내왕하며, 하안거夏安居를 하기도 하는데 금강산의 교청敎淸 큰 스님도 머물러 살고 있었다. 나와는 친숙한 사이라 한유韓愈의 친구 회소懷素나 구지연歐之演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루는 교청敎淸이 와서 말하기를 "나의 스승은 불도에 정진함이 높고 불법의 그릇이 굉장히 크시고 계행戒行이 청점淸苫하십니다. 이제 그 탑에 쓸 글을 지어 돌에 새기려고 하는데 공께서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하여 붓을 적셔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안되지요, 안돼. 나는 붓과 벼루를 불살라 버렸으니 비록 벼슬이 높은 양반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모두 사절하고 있는데 하물며 불가의 불자에 있어서랴? 불가의 문자는 우리 유가에서는 손을 대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였다. 교청은 무안해서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때에 따라서는 그 때에 맞는 법이 나오는 것이니 안목을 갖추어서본다면 실상 유가나 불가나 다를 것이 없지않습니까? 비록 선배를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보제에 대하여, 계곡谿谷 장유張維는 서산대사에 대하여 역시 비문을 지은적이 있는데 공은 어째서 사양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주부자께서는 고사古寺에서 여러 조사祖師의 화상畵像을 보시고, 천하의 인재를 불가에서 주어가 버렸구나."라고 한탄하셨으니 그대의 도는 우리가 말하는 도가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 그 빛나는 영靈이 그렇게 빼어나다면, 본래의 면목을 알기에 적당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대의 스승은 과연

어떠한 분이었으며, 또 증거가 될만한 문헌의 기록이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교청이 말하기를 "저의 스승님께서는 남기신 문집이 열 다섯권이 있사옵고, 설법을 하면 하늘에서 꽃이 어지럽게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으신 글이 있으니 제가 한 번 외워 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것을 외우는데, "객客과 도인道人은 무엇이나 자유자재로 못하는 것이 없다며,"라고 조롱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답하기를 "대개 사람은 반드시 치우치는 것이 있다. 만약 불행하게도 내가 명리名利의 나루를 건너 돈벌이의 길에서 방황하여 화를 부르고 몸을 위태롭게 한다면 어떻게 내 자신을 구원할 것인가? 만약 나에게 안으로 생각을 이기는 공력功力이 없고, 밖으로 다투지 않는 덕이 모자라서 인격이 최하로 낮은 사람에 이르러 일찍 죽는다면 어떻게 나를 구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선정禪定의 규율을 어기고 저들 천마天魔와 외도外道의 방해를 받아 타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나를 구할 것인가? 나는 지금 다행히도 인신人身을 얻어, 멀리 속세를 벗어나, 저 천마와 외도를 따르지 않고 유유자적하면 안될것이 없다. 더구나 모난 벼루로 서도書道에 노닐며 마음을 더듬어 찾으니 내 일신을 돌아보아 무엇이 슬프겠는가? 부끄러운 것은 내가 우주 사이에 형체를 붙여서 재주와 덕이 옛날 현자에게 멀리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명은 안념安捻에게, 내세는 원규遠規에게, 문文은 십관什觀에게, 신神은 지증誌證에게, 화化는 혜도慧道에게, 재才는 마룡馬龍에게, 지智는 무자鵡子에게, 설雪은 만자滿慈에게 효孝는 목련目連에게, 맹猛은 능인能仁보다 모자라니, 대개 이와 같은 것이 내가 아쉬워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무엇을 더 구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궤탁에 기대어 여기까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속이 시원함을 느끼고 말하기를 "그대의 스승은 진실로 기남자奇男子이네. 그렇게 글을 외우니 그 정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러한 슬기로운 지식과 넓은 우주관, 인생관을 가지고 마른 나무와 찬재로 일생을 마쳤구료. 그대 불가의 가르침은 달마達磨는 너무 차갑고, 종고宗杲는 너무 뜨거운데, 그러나 그대

스승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참으로 자유자재의 교리를 지닌 분이라 하겠네. 어디 한 번 그대 스승의 본말인 내력을 말해보시오."라고 하였더니, 교청이 말하기를 "스승님의 성은 김씨요, 신라 정선군旌善君의 후예로서 대대로 낭천狼川 흥익 興益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씨는 꿈에 해가 정상에 임하는 것을 보고, 숭정 갑인년(1674)에 현아縣衙 동쪽의 관불촌觀佛村에서 스승님을 낳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울지를 않으셨고, 그의 부모를 귀찮게 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려서 놀기를 좋아하였는데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꽃을 따서 공양이라고 하면서 바치니 사람들이 불종佛種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과일을 얻으면 자신이 먹지 않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드리자 사람들은 또 효동孝童이라고 하였답니다. 16세에, 각암설우대사覺庵雪祐大師에게 의탁하여 삭발의 의식을 받았고 금파대사金波大師에게서 계율을 받았습니다. 20세에 월저법사月渚法師를 뵙고, 또 이해에 설암대사雪巖大師를 뵈었는데 설암은 월저의 계통을 이은 스님이신데 실은 서산대사의 제4대 적손嫡孫이 되십니다. 스승님의 내력은 이상과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공부하신 것으로는 고봉의 만법귀일화萬法歸一話, 조주趙州의 무자화無字話, 능엄경楞嚴經, 반야경般若經, 원각경圓覺經, 염송拈頌, 전등록傳燈錄, 청허귀감淸虛龜鑑등 여러 교전敎典들인데, 한 번 스치기만 하면 훤하게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썩은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당을 개설하고 가르치시니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마치 소리의 울림과 같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분이 돌아다니며 거치신 곳은 우악산牛岳山, 용문산龍門山, 묘향산妙香山 및 호남과 영남외에 여러 명산들인데, 금강산의 건봉사와 설악산의 내원사에서 가장 많이 머무셨습니다. 만년에는 건봉사의 백화암白華庵에서 두문불출 한 것이 수 십년이었습니다.

을유년(1765) 10월 22일에 입적하시니, 속세의 나이로는 92세이시고, 출가한 후 법문에 몸 담으신 나이는 76세 이십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게偈를 하나 지어 보이셨습니다.

본래 머무는 법이 없으니,
머무름이 없다는 것이 참 법이로다.
이제 이 법을 전하려 하는데
이 법이 어찌 법이었던가.

제자 무외無畏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사대四大 즉 땅, 물, 바람, 불이 네 원소가 조화를 잃었으니 나는 이제 가련다."라고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다비를 모시는 저녁에는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뻐쳤습니다. 이때 사리 한조각을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 얻어 절 남쪽 기슭에 탑을 세워보관하였습니다.

스승의 모습은 크고 단단하셨고, 도기道機는 침점沈點하셨는데, 때로는 수안輸雁하셨습니다. 외모를 장식하지 않으시고, 산좋고 물좋은 곳과 좋은 시절, 좋은 때를 만나시면 의기意氣가 고한高閑하셨으며, 시문은 영롱하게 아름다워, 그 자서自敍와 임종때의 게偈를 보더라도 그 시원하고 소탈하시어 무엇에나 구애받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그러셨구려. 나는 비록 그대 불가의 문자에 익숙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한마디 해서 그대의 청을 들어 주어야 하겠소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명銘을 지어 이르기를

이와같이 들었도다.
얻은것이 고금에 유래가 없으니
그것은 선남자善男子를 말하도다.
맑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으니
동방의 나라 조선이로다.
불일佛日이 크고 명랑하니
이것이 꿈이요, 이것이 환상이로다.
나타나서 실상을 만드니
관불촌에 태어남이로다.
모래로 탑을 쌓고 꽃으로 공양하니
일찍부터 마음은 시원하게 뚫렸도다.
부처의 성품으로 맑은 효도 드리니
과실은 어머니에게 갖다 바쳤도다.
회초리로 꾸짖고 야단쳐도
스승에게 원망하지 않았도다.

점점 수양하고 갑자기 깨닫고
깨달음이 많으니 여러 절을 돌았도다.
여러 부처 마음에 새기니
작은 힘도 모으기로 서로 약속하도다.
장엄한 누각들이
겹겹이 솟아나듯 나타났도다.
영롱하게 깨달음 투철함이
스님의 본래의 면목이었네,
눈에는 그늘진 빛이 없었으며
당당하여 구애됨이 없었도다.
가로 세로 설법을 자세히 하고
스치는 곳마다 삼매경에 들었도다.
추운 산에서 시를 짓고
서장은 크게 지혜로웠도다.
맞지 아니한 곳에 가지 아니하였으니
법문에 용이 코끼리처럼 위대하였도다.
많은 산을 넘고 맑은 물을 건너
인연을 따라 여러 곳 내왕하였도다.
돌아와서는 두문불출 오래하니
건봉사 꼭대기 백화암에 계셨도다.
강당을 열어 법륜을 돌리니
또한 대중을 바로잡으셨도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인가?
해탈하시니 꿈결과 같도다.
아름다운 문집을 남기셨으니
이것 또한 사리와 다름 없도다.
제자가 여러가지 이야기 한 것을
차례로 적어서 이 글을 지었도다.

숭정3년(1770) 3월에 새기다.

대운당 비명과 서문

후학 영송대활永松大活이 짓고, 근철近喆이 전액篆額을 쓰고 치관置寬이 본문을 쓰다.

대사의 휘는 우평宇平이요 호는 대운大雲이니, 성은 밀양 박씨이며, 외가는 강릉최씨이다. 대대로 평강平康에 사셨는데, 13세(1739)에 불문에 들어와 옥잠대사玉岑大師의 제자가 되었다. 풍악대사에게 배우고 아울러 구족계를 받았다. 재주가 있어 공부를 잘하고, 마침내 운계대사의 입실제자入室弟子가 되었다. 운계雲溪는 풍악楓嶽의 고제高弟이니 스승은 청허대사 즉 서산대사의 8세손이 된다.

불拂을 세우고, 당幢을 세워 30세에 법을 베풀어 사람을 교화하니 어찌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었겠는가! 경술년(1790)에 화산대사의 법석法席에 참석하니 나라에서 전교하여 장경奬敬이라는 법호法號를 내리자 시를 읊었으니

진중한 나라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 꿈은 달빛을 따라 꽃방석에 비치도다. 라하고 스스로 그것을 썼다.

갑인년에 밀양종정密陽宗正을 지내고 무오년(1798)에 반야사般若寺에서 입적하시니, 속세의 나이는 72세이고 법랍은 56세였다. 다비후 이재二齋 때에 한 조각의 정골을 열 발짝 떨어진 소나무 가지밑에서 얻으니 깨끗하기가 유리와 같았다. 곧 비석을 세워 글을 새기니

스님이 세상에 계실때는
그 마음이 곧았고
스님이세상을 버리시니
그 업적이 혁혁하게 빛나도다.
마음으로부터 언행을 하시니
일마다 무리를 속이지 않으셨도다.
산이 높고 바다가 넓듯이
이 비석은 영원히 보존되리라.

가경嘉慶4년 기미(1799)6월에 세우다.

유명 조선국 팔도도총섭 의병대장 홍제존자 사명대사 기적비명과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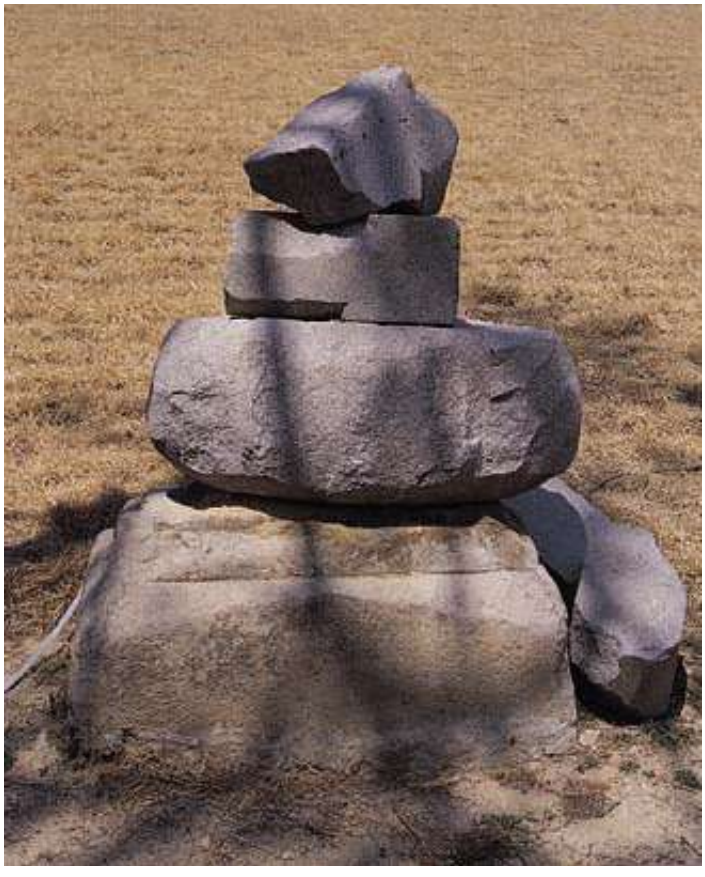
가선대부 강원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원주목사 원임규장각직각 지제교 남공철이 짓고, 통정대부 행영월도호부사 겸 원주진관병마사 첨절제사 토포사 허질이 비문을 쓰고 아울러 전서를 쓰다.

금강산은 비로봉으로부터 두 줄기로 나뉘었으며, 단발령 서쪽은 안고개라 하였고, 안문 동쪽은 바깥고개라 하였다. 안고개에 자리잡고 있는 표훈사는 서산대사가 교를 베풀던 곳이며, 바깥고개에 있는 건봉사는 사명대사가 의병을 모집한 곳이다. 두 사람이 비록 불교에 몸을 담고 출발하였으나 서산대사는 그 곧은 절개로서, 사명대사는 그 높은 공으로 이름을 떨친 곳이기에 모두 소중하게 여기며, 또 이러한 사연이 있으므로해서 오늘날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찰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도서圖書와 지리지地理誌의 기록을 살펴보니 당나라 건원년간에 산인 정신貞信이란 사람이 이곳에 도량을 설치하고 미타, 관음 두 보살상을 봉안하고 이름을 건봉사라 하였다. 절에는 옛날부터 보관하고 있던 화상과 원불, 은탑, 향로, 철장, 교혜, 산호염주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금으로 만든 가사 한 벌 이 세상에 전해 오는데 그 가운데 석가여래의 진신치아사리가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니 그 말은 이서異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석탑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함이 겠는가! 산중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밤중에 상서로운 기운이 이곳에 있었는데 무지개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명대사의 이름은 유정이요, 본래의 성은 임씨로서 경남 밀주 사람이다.

조상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에서 자랐으며, 성장 해서는 은사 중덕을 따라 배웠다. 그뒤 낙서암에서 삭발하고 서산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며, 연화경 육만 구천여 마디를 익혔다.



파손된 사명대사 기적비

만력20년(1592) 왜구가 조선을 침략하자 휴정은 묘향산으로 부터 승려를 불러 모아 병사(승병)로 삼고 명나라 도독 이여송과 함께 평양에서 왜군을 크게 쳐부수었으니 이 때 목을 베인자 만도 2천여이나 되었다. 소경왕이 행궁에서 그를 불러 보고자 직접 묵죽을 그려 주면서 팔도도총섭 의병장을 명하고 수레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도록 하였다. 대사가 서울로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전쟁을 그만두라는 의론이 분분 하였다. 휴정이 임금에게 청하기를 “신은 노약하고 또한 병이 많은 몸이라 원하옵건대 병사에 관한 일은 저의 제자 유정에게 부탁하고 늙은 육신은 그만 돌아가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라고 간청하자 마침내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고 허락하였다. 곧이어 유정에게는 역말을 타고 궁성으로 들어오도록 명하고는 그로 하여금 승병을 거느리게 하였다.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일본은 본래부터 불교를 좋아하니 마땅히 사명을 보내 회친和親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자 마침내 일품一品의 관복官服을 내리고 사신의 예로 일본에 보냈다. 스님이 일본에 이르러 곧 지옥도地獄道 · 축생도畜生道 · 아귀도餓鬼道와 불살생不殺生 · 불도투不盜偷 · 부사음不邪淫 · 불망어不妄語 · 불음주不飮酒를 들어 말씀 하니 일본 왕과 풍신수길이 그 말은 모두 청신하고 깨끗하여 살인을 하려는 뜻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에 화합을 바탕으로 일을 성사 시켰으며, 돌아올 때 죄없이 붙잡혀 간 우리 동포 3,000여명을 함께 데리고 왔다.

이에 앞서 신라 자장법사는 서역으로 들어가 석가여래 치아사리 10매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으나 후에 왜적들이 이를 약탈해 가자, 대사가 앞장서서 간곡히 타이른 뒤 되찾아와 이곳 건봉사에 안치하였으니 바로 이 석탑을 이른 것이다.

유교가 불교와 교리가 달라 학자나 사대부들은 일찍이 비난하고 그것을 배척하기만 하였지 유교와는 동일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자비가 인의仁義와는 근본 취지가 달라 인간의 본성을 살피는 것이 격물치지格物致知와 같지 아니하고, 불도를 닦는 것은 유가에서 말하는 성誠과 경敬에 어긋나 처음 생긴 조그마한 차이는 갈수록 커져 성인聖人의 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하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그 세운 업적을 미루어 보건대 군신君臣 부자간의 의리에 있어 과연 어떠하였겠는가? 유자儒者로서 의관을 반듯이 하고, 상세히 성리性理를 강구하여 인의仁義를 높이 말하면서 행실이 독실하지 못한 사람과는 한가지로 말 할 수 없다. 불자佛者의 이름으로 유도儒道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성학의 도 뿐이요, 유자의 이름으로 불도를 행하는 것이 상서로운 일만을 좇는 것 뿐이니 이는 물으면 옳다고 하고 바로 잡자고 하면 그르다고 하니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물리쳐야 할 것이니라.

당시 조정에서는 일본과 화친을 주장함에 현인 군자는 나아가 죽을 만한 땅도 없으니 모두가 스스로 그 몸가짐을 정결히 가짐이 옳다고 하였다.

서산대사는 돌아갔지만 우리는 그가 남긴 오롯한 덕업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요, 사명대사와 같이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없으니 힘껏 그들의 공을 논하고 찬양함이 어떻겠는가? 대체로 서산대사는 경經에 가까우면서 그 절의는 높고, 사명대사는 권權에 가까우면서 그 공은 넓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그만 두자는 쪽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사 시켰으니, 이는 당시 많은 선비들이 한결같이 주장해 온 바였다. 비록 사명대사가 아니었더라면 이같은 일이 이루어 지지 못했음을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더구나 일본은 불교를 숭배하므로 해서 요순, 공자와 같은 도와는 서로 화합치 못하니 진실로 이 일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바르게 인도함이 당연한 것이었다.

사명대사의 충성과 믿음은 가히 오랑캐 나라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이는 어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구구하게 자기 의견을 설명하며 이를 받아 주기를 바라는 하찮은 선비들과 같을 수 있겠는가? 나라를 열어 백성을 이롭게 한지도 어언 300여년이 되었다. 서산대사는 물러나 끝까지 도를 지켰고, 사명대사는 불굴의 의지로 중생을 구제 하였으니 이는 그 의로움으로 해서 이름이 났으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 무렵 서산대사를 쫓아 배운 해안과 영규란 제자가 있었다. 해안은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영규는 일찍이 대열공 중봉 조헌의 문하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금산 싸움에서 죽었다. 밀주에 옛 스승의 신주를 섬겨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목릉성세穆陵盛世에 나라에서 사당 이름을 표충表忠이라고 내렸다.

우리 임금이 보위에 오르신 이래 더욱 서산 · 사명 두 대사께서 남기신 덕업에 대하여 감복하고 계셨으며, 일찍이 영변에 있는 옛 사당에 나가 그를 표창하기도 하였다. 본 조에서는 오로지 유교의 도를 숭상하였기 때문에 널리 승려들을 보살피지 않고 사찰 꾸미기에만 숭상하였기에 이성二聖께서 이를 못잊어 뒤돌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충의로써 불도를 권장하고자 함에 있었으니 어찌 성하지 않으리오!

사명대사 기적비 1912년

내가 관동을 살펴 볼때 이 사찰의 유적을 돌아보고나서 예부禮部에다 의론을 부치고 또 조정에 청하여 이를 시행하게 하자 신도들이 힘을 얻어 대사의 기적비를 세우자고 뜻을 모아 마침내 돈 백꾸러미를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였으며, 또 시주를 청하는 모연문募緣文 다섯 축을 만들어 기적비를 세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비명에 이르기를 불교는 서역으로 부터 흘러 중원에 들어왔으며, 한나라와 양나라를 지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에 미쳤다. 유교는 이단異端이라고 하여 나무라며 같은류로 다루려 하지 않았으나 대사와 같이 불교로 부터 깨달음을 얻어 의로움을 일삼으며, 믿음으로써 길을 연 분도 있었다. 대사는 불자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분으로 이룩한 업적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이다.

대사의 엄전한 화상은 금강의 사찰에 보존되어 있으며, 곁에는 석탑이 섰고, 이곳에는 석가여래의 전신인 치아사리가 안치되어 있기도 하다. 유리의 목구멍과 산호의 혀로 천여년의 오묘한 형상이 서로 바리를 전한 것 같도다.

만력 년간에 섬나라 오랑캐 무리가 천명을 거스리고, 이웃 나라를 침범하자 서산대사께서 제자 유정으로 하여금 이를 다스려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 임금께서 이르기를 저 도적들은 바로 나에게 닥친 환난이었으며, 8년 전쟁에 백성들은 편안치 못했으니, 그 많은 조정 신하들 가운데 누가 나의 근심을 덜어 주었단 말인가! 공경公卿들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간사한 오랑캐들은 궁벽한 곳에서 오랑캐 옷을 입고 보잘것 없이 지낸것 들인데…… 저들은 본래 불교를 숭상하는 습속이 있었으나 참된 도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불교의 이치를 벗어남으로써 환난을 자초하였다. 이에 대사께서 분연히 일어나자 임금께서 일본으로 채비를 갖추어 보내시니 바다길 만리에 하늘은 가이없고, 땅마져 요원 하였다. 3월에 배를 띄울 준비를 마치고 순풍을 기다려 4월에 돛을 올리자 이내 적진에 당도하였다. 대사는 두목을 만나 온화한 모습으로 담소하며, 성의를 다하자 마침내 화친和親이 성사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조선팔도에서는 왜구들이 더럽혀 놓은 곳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 하였다. 남녀 모두가 노래하고 춤을 추니 하나같이 태평하였다. 무엇보다 이는 서산대사의 높은 절개와 사명대사의 위대한 공적이 있었기 때문이니 오늘날에는 혹 없어지기도 하였으나 그 의로움은 아직까지 여전하다 하겠다.

대사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산하를 두루 살피자 검푸른 말과 화룡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구리 화로와 쇠로 만든 지팡이, 나막신과 구슬 주머니는 천년 세월을 손으로 주물러 아직까지도 그 손때 끼친 곳에는 향을 피우고 예불 소리를 듣는것 같았다. 서산대사는 구름과 같은 분이고, 사명대사는 물과 같은 분이라 물은 흐르며 자취를 남기고, 구름은 흘러가도 그침이 없느니라.

계운당 영유대사 탑명과 서문

대사는 바로 서산대사의 8세손이며, 대운당의 제자이다. 성은 김씨이고 간성군 해상촌海上村 사람이다. 17세(1768)에 국청장로國淸長老의 제자가 되었다. 배움에 열심이었고 의지가 굳어 장래가 촉망되었는데 건륭 임진년(1772) 4월 초4일에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나이는 21세였다. 다비식에 상서로운 조짐이 있었으니 과연 자취를 남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형 月允스님이 울며 탑을 세웠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문득 왔다가 문득 가니
세상이 무상하다고 말하는가.
가진 마음은 소박하고 곧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도다.
돌아갔어도 자취를 남겼으니
죽었어도 아주 죽은 것이 아니로다.
아아 그 형이여!
너무 처절해하지 말지니라.

계사 (1773)4월 일 같은 문인 한위翰爲가 짓다.

대한국 강원도 건봉사 제44회 만일회를 베푼 벽오대선사 유적비

통정대부 전 승정원우부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수찬관 항양 여규형이 짓고, 전 승정원 우승지 월성 이시영이 전액과 비문을 쓰다.

이 사바세계에서 동쪽 땅 대한은 불법이 융성하기로 천하에 제일이다. 바로 천축국 인도에 접하고, 인도에서 볼 때 이곳은 바깥땅이 아니다. 어찌 그러하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대개 우리 큰 법은 하나로 빛날 뿐이다. 하늘의 해와 같이, 성중城中의 주인과 같이 아홉 가마귀가 다떨어지고 하나의 해만이 하늘에 걸려 있듯이 여러가짜가 삭탈하여 평정되고 대통大統만이 존중된다. 무엇 때문에 중국에서는 불법에 여러 문파가 있다고 말하는가. 남북이종南北二宗은 이름을 돈종頓宗이니 점종漸宗이니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조계曹溪 육조대사六祖大師의 가르침에 "법에는 돈점頓漸의 구별이 없고, 사람에게 이둔利鈍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 또 옛날 덕이 높은 장로長老에게 들으니, 돈오頓悟한 뒤에도 모름지기 점수漸修를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래서 돈점頓漸이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째서 돈점에도 또 다시 많은 갈래가 있다고 말하는가. 거짓으로 조계종을 우러러 보면서 각각 뭐니 뭐니 이름을 내세워 불쑥 불쑥 취락聚落을 이루고 투기하여 해를 끼치며 서로가 다투기 때문인데,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청허, 사명이래로 하나의 법통으로 이어오고 하나의 문파로 전수하여 왔다. 비록 하나가 열에게 전하더라도 열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었다. 불법이 융성한 이유는 이것이 그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삼교三敎가 아울러 대치하고 있는데 불교와 유교와 도교이다. 그리고 그 종교를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뒤로는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천민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막배膜拜《두 무릎을 대고 몸을 세운 채 꿇어 앉아 손을 들어 절하는 것.》하고 신앙하여 변치않는 마음으로 귀의한다.

대사가 당에 올라 자리를 깔고 앉으면 장엄하게 존중하고, 앉아서 신도들의 보시를 받는다. 이렇게 불문의 권세가 세상의 임금과도 맞먹는다. 그러나 오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승삼보法僧三寶로써 먼저 불문에서의 나태함을 꺾고 고행을 하며,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습속이고 관습인데 이것을 본연의 모습이라하였다.

공물이나 시주를 바치고 외부로 보호를 받는 것은 이를 평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우리 불문은 말기가 된 듯 하다가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오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 귀의하면 머무르게 하였다. 이는 대법사가 있어서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양 어깨에 짐을 지고 오직 인연이 닿는 일을 하며, 얼굴빛이 망가져서 진흙으로 구워만든 그릇처럼 되고 낮출수록 더욱 존귀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종正宗이요, 이것이 대법문大法門이다. 돌이 다듬어지고 뿔이 꺾이어 진리를 깨닫고 눈을 크게 뜨게되면 여러 부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記를 전하여 믿음을 나타내고 영접하여 이끌어 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융성한 것은 이것이 그 두 번째 이유이다. 겸손하여 분수를 넘지 않는 것으로 대막大莫과 서울처럼 천하에서 제일이라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열산현烈山縣 옛고을 건봉선사乾鳳禪寺에 계戒를 지키는 승려가 있었으니, 이 분이 바로 선석禪席을 주재하였는데 도호道號를 벽오碧梧라 하고 법명法名을 유청侑聽이라 하였다.

사명대사에게는 서산대사가 당시 전하기를 누누히 부탁하였는데, 9세에 이르러 설봉영허雪峯影虛에게 큰 제자가 있으니, 봉림응직장로鳳林應直長老이다. 본원의 주지로서 낙서암에 거처하였다. 이 분이 우리 대사에게서 머리를 깎고 득도得道하여 곧 진종眞宗을 얻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직계계통을 전수받아 내려오는 대통大統인 것이다.

삼가 우리 대사께서 몸소 행하시고 겪었던 기록을 읽어보니, 속세의 성은 최씨이고 바라문족婆羅門族《인도 카스트제도에서 네 성姓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으로 바라문, 승려, 학자, 사제를 말함.》이다.

아버지의 휘는 강손江遜이시고 어머니는 정부인鄭夫人이시다. 용포리龍浦里에서 계유년(1813)에 대사가 탄생하니 어

릴적부터 노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물을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온 것을 알 수 있었으니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꽃을 따서 공양을 하였다.

21세가 되어 마음에 맹서하고 출가하여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배웠고 이에 크게 발원發願하여, "오히려 빈몸을 돌보지 않을지언정 마음을 수양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신해년(1851)에 제4회 만일연회를 부흥시켰다. 좌로는 학공學公에게 협력을 구하고, 우로는 흥사興師와 제휴하여 발징대사發徵大師의 옛터에 선원禪院을 새로 지은 것이다. 학공·흥사 두 분이 화주化主의 일을 보았으나, 대사는 남달리 더 우뚝 높이 보였다. 서원誓願하고 광대한 계획을 담당하여 모두 "진정한 화주 이시다"라고 칭찬하였다.

일찍부터 성품이 부지런하고 행실을 삼가며, 재법齋法은 엄숙하고 공경스러웠으니 남녀 신도들이 늘 존경하며 예를 다 하였다. 번뇌의 속박을 풀고 널리 불문에 귀의하는 인연을 맺었으며, 여러번 의·식·주에 얽매인 생각을 끊고 수행정진 하였으니 기적같은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마치 향엄동자香嚴童子《향광장엄香光莊嚴의 준말로 염불삼매를 말하며, 동자란 보살과 같은 뜻으로 아무런 물욕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와 같았다. 치아와 영골사리를 모두 돌탑에 차례로 보관하였다.

벽오 대선사는 병술년(1886) 겨울에 가벼운 병환이 나더니, 발자취는 인연을 따라 다하여, 세상의 생로병사의 원리대로 원적圓寂《원만구족圓滿具足한 적멸寂滅이라는 뜻으로 스님의 죽음을 말함.》하니, 법문의 나이는 53세요, 속세의 나이로는 74세이였다. 대선사께서는 서방정토에 말쑥하게 왕생하였을 것이다.

그의 문하에서 배출된 뛰어난 사람으로는 학림의환鶴林宜還과 만화관준萬化寬俊이 있으며, 이들은 벽오대선사의 대업을 고스란히 계승하였다. 관준寬俊이 스승의 뒤를 이어 제5회 만일회를 베푼지 24년에 스승의 행장을 갖추어 비석에 새길 글을 도와 달라고 하기에 글을 잘 짓지는 못하나 의리를 중하게 여겨 이렇게 말을 하였다. 게偈에 이르기를, 이

것의 이름이 삭가라爍迦羅《범어梵語의 음역으로 조조무애照照無礙하여 득실得失을 변별하는 활동을 말함.》인데 바로 불퇴전不退轉《신앙하여 변치않는 마음과 수행이 뒤로 퇴보하지 않음을 말함.》이로다.

내가 불법에 대하여 들었을 때엔
좋은 건지 나쁜건지 알지를 못했도다.
그런데 불교의 수련하는 법을 보니
좋은점은 있어도 나쁜 점은 없도다.
내가 조사의 선에 관해 들으니
주리면 밥먹고 곤하면 잔다는데
엄격한 율사의 가르침을 보노라면
계율만 엄격하고 인정이란 없도다.
천 번 매질하고 만번 꾸짖으니
내게는 다만 한 가지 법만 있도다.
귀의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으니
남을 속이는 말만은 하지 않으리라.
선한 길로 중생을 이끌어가고,
계율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니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대도량은
발징대사의 만일회였도다.
두 번째 만일회는 강주대사가 베풀었고
세 번째 만일회는 용허스님이 베풀었도다.
마침내 우리 선사에게까지 전해왔는데
위로는 청허대사를 계승하였도다.
자비를 용用으로 삼고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함을 체 로 삼았도다.
옥주玉柱는 하늘을 받쳐서 높고
중향성은 흐르고 건넘을 재량하도다.
큰 서원의 힘을 굳게 쥐고
믿음을 크게 가지고 용감히 정진하도다.
선남과 선녀들은
향불을 피워들고 공양에 참여하도다.
수행이 반듯하여 자비로움에 미치니
온 세상 모든 곳 극락세계를 이루도다.
만화스님이 유덕을 계승하니
다시 스님 유적지에 제5회를 베풀었도다.
이곳은 대사께서 처음 터를 닦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옛날 서방국 인도에서는
일곱 곳에 아홉 모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5회의 모임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니
성대하도다! 역사에 없는 일이로다.
금강산은 천 길이나 솟았으며
동해 바다는 만리나 뻗었도다.
보월은 먼지와 안개를 쓸어내고
상서로운 바람은 거친 물결을 잠재우도다.
돌을 다듬어 큰 비석을 세우니
용이 보호하고 신령한 거북이 희롱하도다.
우뚝 높이 솟았도다. 산문의 진영이여!
천만년 내려가며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리라.

광무 갑진년(1904) 7월

부종수교전 불심인 대각등계존자 전수호 오대산적멸보궁 겸 팔도승풍 규정도원장 만화당대선사 비명과 서문

전가선대부 비각지제고 동궁시독 해평 윤희구尹喜求가 짓고, 전통정대부 검사 월성 김돈희金敦熙가 쓰고 아울러 전자로 쓰다.

같은 불법인데도 어떤 이는 우리나라가 서역과 다르다고 하며, 말세가 된 나머지 옛날의 유덕有德한 스님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말이다.

자리自利냐, 타리他利냐를 막론하고 또 크느냐, 작느냐를 막론하고, 그것이 정진하는 것이라면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원만한 것이라면 그 공덕은 마찬가지이다. 내가 불법에 대하여 들을 때 만일염불회를 말하는 자가 비록 저쪽 인도에는 화엄도량이 아직 7처9회七處九會뿐이라고 하는데 지금 건봉사 한 곳에서만 만일회가 4회에 이르니 대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찍이 이같은 일은 역사에 없었다.

건봉사는 금강정토이니 신라 경덕왕 14년(755)에 발징화상發徵和尙이 제1회 만일염불회를 창설하여 원성왕 2년(786)에 만일의 불사佛事가 끝나게 되니 선남선녀 31인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다.

조선조 순조 2년(1802)에 용허聳虛대사가 제2회를 이어 정진하였고 철종 2년(1851)에 벽오碧梧 대사가 제3회를 이어 정진하였으니 모두 법대로 만일의 불사를 마쳤던 것이다.

고종 18년(1881)에 제4회를 베풀었는데, 바로 만화당대사萬和堂大師였다.

대사의 휘는 관준寬俊이며, 본래 정씨의 아들이니 개국공신 삼봉공三峰公 정도전鄭道傳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가선대부 진록振錄이고, 어머니는 최씨이다. 꿈에 쌍룡을 보고 감응하여 태기가 있었다. 철종 원년 경술(1850) 11월 23일에 간성군 용포龍浦 시골집에서 태어났으며, 자를 쌍용雙龍

이라 하였다. 일찍부터 성품이 총명하여 마치 영오穎悟한 사람과 같았다. 나이 13세에 이르자 출가할 뜻이 있었는데 부모가 난색을 보이자 그렇게 아니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하여 드디어 승락을 받았다. 드디어 건봉사에 이르러 금현장로錦玹長老를 따라 머리를 깎고 의발衣鉢을 받았으니 이는 호암정공虎岩淨公으로부터 9세손이 되는 것이다. 정계淨戒를 대허유공大虛遊公에게서 받고 선참禪懺은 성봉안공聖鳳安公에게서 받았다.

임신년(1872) 23세에 이미 석왕사釋王寺 향관香官에 보임補任되고, 이어 건봉사의 탱화화주幀畵化主에 뽑혔으며, 이루어 놓은 공이 매우 컸다. 이듬해 갑술년에는 승통僧統으로 오르고, 3년 뒤 정축년(1877)년에는 전등사傳燈寺 총섭總攝으로 자리를 옮겼다. 얼마 안되어 본사가 화재로 타버리자 개연히 인끈을 풀어놓고 돌아와 발로 뛰면서 모금 운동을 하였고, 몇 해 가지 않아서 모조리 복원하였다.

만일회의 일을 처음 맡게 된것은 신사년(1881)이니 대사의 나이 32세 때였다. 화엄법회를 부설副設한 것이 50여개처요, 여기에 참석한 신도만도 8천을 헤아린다. 오랫동안 본사를 중건하는데 모든 일을 도맡아 보면서 팔상전, 극락전, 음향전 등을 건립하였다.

광무 5년(1901)에 승진하여 부종수교전 불심인 대각등계존자 수호 오대산적멸보궁 겸 팔도승풍 규정도원장이 되었다. 간간이 관동도교정關東道敎正이 되기도 하였다. 이미 본사에 비석이 서 있는데 사실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인연이 작용한 나머지일 것이다. 만일회의 만기일이 다가옴에 나라의 역대 임금과 불법계의 유령을 위하여 먼저 천일동안 참석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 법회를 열었으며, 융희 2년(1908) 9월에 마쳤다.

이렇게 영남 · 호남으로 석장錫杖을 바삐 움직이고 혹은 서울에 가서 봉갈棒喝에도 고분고분히 따랐으나 그같은 기색은 조금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니 탄복하여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승려가 묻기를

“일좌一座의 철당鐵幢이 백 길이나 되고 둘레는 열 아름이나 되며 가져다 댈만한 땅이 없는데 이것을 사람들을 위하여 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대사가 말하기를 “이것을 들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마땅히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였다. 무오년 가을에 시자(侍者)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것을 받아 적어라. 올해 9월 13일에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이 들어맞았다. 그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으시고, 여러사람을 불러 모아 놓고 결별 하시면서 게偈를 남기셨다.

극락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삼세의 부처를 무엇에 쓸 것인가.
삼세가 비록 장엄하다고 해나
부처마다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라.
끝없이 넓은 우주 허공 가운데에
나의 부처는 본래 그러한 것을.

말을 끝내고는 단정히 가부좌를 하고 앉아 서쪽을 향하고 숨을 거두었다. 이때 속세의 나이로는 69세이고 법랍은 57세였다. 바야흐로 열반涅槃에 들때에 서쪽으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뻗쳤다. 다비식을 끝내자 사리 하나가 나타났다.

대사의 신장은 8척이 넘고, 입에는 이가 40개나 되었으며, 몸무게가 매우 무거웠고, 그 목소리는 종이 울리는 것처럼 우렁찼었다. 앉은 모습을 바라보면 마치 높은 산악山嶽과 같았다. 또 선정禪定에서 나와 응물접인應物接人 할 때는 여자나 아이들도 친숙하게 따랐다. 서울이나 시골에 가셨을 때 못된 소년들이 놀리거나 하더라도 그냥 웃으며 끄떡 거리실 뿐이었다. 대사의 좌하座下에 용龍이나 코끼리같은 제자가 무려 천여명이나 되었으며, 지금 그 문도門徒들이 비를 세우고자 하여 나의 친구 영호정호映湖鼎鎬가 지은 만화당대사의 행장을 가지고 와서 명銘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나도 불법에 어두운 자로서 어찌 대사 같은 분을 잘 알겠는가. 다만 호상인鎬上人에게서 알았을 뿐이다. 명에 이르기를,

명에 이르기를,
하루는 열 두 시간이요,
한 시간은 사각**四刻**이라.
매분 매초마다
생각은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 뿐 이었네.
하루를 그렇게 이틀을 그렇게 보내면서
마침내 만일에 이르렀도다.
생각은 오로지 진정한 깨달음에 있었으니

만일이 하루와 같았도다.
이것이 곧 수행이며
수행이 곧 공덕이로다.
천상천하 온 세상에
이 법 밖에는 별다른 것이 없도다.
누구를 위하여 이 비를 세우겠는가
만화대사를 위하여 세움이로다.
대사는 지금 어느곳에 계실까?
생각하면 바로 오시도다.
대사가 계신 그곳은 바로 비가 서있는 이곳이로다.

5백년이 지난 뒤에도 이와 같으리로다. 이와 같으리로다.

옛날 이른바 위인 호걸들은 비록 전적典籍에 극히 많이 실려 있으나, 천년이 지나면 아득하여 어렴풋하다. 내가 직접 보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러한 위인 호걸을 가까운 선배 가운데서 겨우 세 분을 볼 수 있다. 한분은 조계曹溪의 함명로사函溟老師와 금산金山의 용명로사龍溟老師, 그리고 이 풍악의 만화로사萬化老師이다. 노사는 참으로 위인, 호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았다. 거의 산문에서만 계시어 빛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천하 국가에 크게 쓰인일은 없고, 혁혁하게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다. 그러므로 높고 빼어난 기백과 준수하고 위엄스럽고 준걸스러운 풍채는 가만히 여산廬山의 원적안종遠赤眼宗과 견줄 수 있다.

아! 이제부터 노사의 잠휘봉림潛輝鳳林, 동산적막東山寂寞, 창해횡류滄海橫流 단암창릉端巖蒼稜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용모와 거지擧止를 어느날에나 다시 뵈올 수 있단 말인가! 노사의 자리를 계승하는 훌륭한 제자들에 힘입어 불도를 잘 전파하고 드날리며, 선사의 영열英烈이 영원하기를 도모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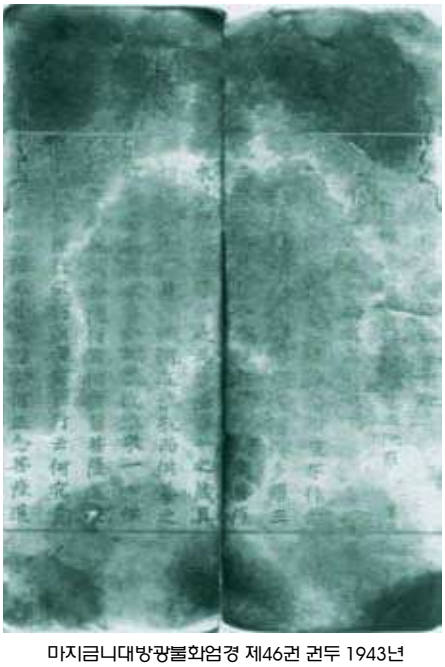
우당于堂 윤희구尹喜求의 훌륭한 글과 성당惺堂 김돈희金敦熙의 꿋꿋한 전서篆書를 얻게하여 비석을 세우고 글을 새긴다.

영호정호映湖鼎鎬는 일찍이 가풍을 흠모하여 감히 뒤를 잇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같이 훌륭한 글의 뒷자리에 한마디 말을 덧붙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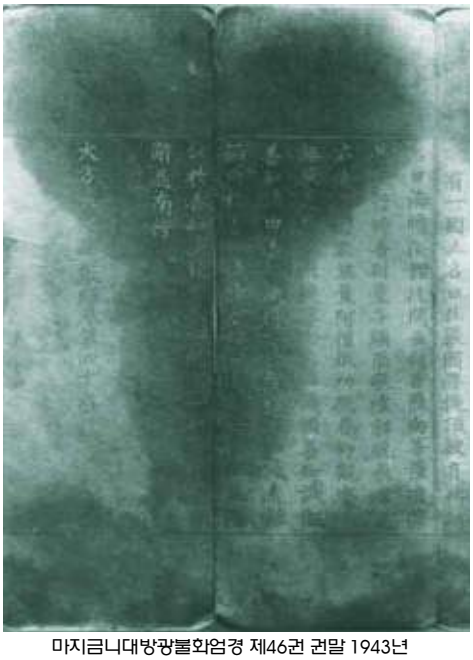
갑자년(1924)4월 영호정호가 삼가 기록하노라.

건봉사포교당

현재 간성읍에 있는 건봉사포교당은 본산인 건봉사가 6.25로 인해 전소됨과 동시에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1954년 뜻있는 분들과 주지 양청우 스님이 건봉사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자리에 임시 불당을 건립하였고, 대웅전大雄殿과 승원僧院인 수마제원須摩提院을 지어 금강산건봉사의 법맥을 잇기 위해 힘을 기울인 결과, 현재 고성군의 포교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이 곳은 1971년 9월 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당시 주지 문성각(성준)스님이 사무寺務를 관장하던 도량이기도 하다.



마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권두 1943년



마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제46권 권말 1943년

金剛山 乾鳳寺의 歷史

520. (新羅 23代 法興王 7年) 아도화상이 고성현 金剛山 南麓에 寺를 創하고 "圓覺寺"로 稱하다.

533. (新羅 法興王 20年) 普琳菴과 般若庵을 創建하다.

758. (新羅 35代 景德王 17年) 發憲和尙이 원각사를 重建하고 念佛萬日會를 設하니 이것이 朝鮮의 念佛萬日會의 효시가 되었다.
이 때에 發憲和尙이 貞信, 良順 等 31人으로 더불어 念佛을 勤修할때 香徒 1820人이 自願發心하여 그 中의 120人은 의복을 보시하고 1700人은 飮食을 보시하니, 의복을 보시하는 자는 매인 每歲에 布 一端을 납하고 음식을 시하는 자는 매인 매세에 백미 1두와 淨油 1升을 납하여 염불인의 生受를 바치었다.

782. 만일회에 참가했던 31인 육신등공의 이적

787. (新羅 원성왕 3年) 念佛萬日會에서 淨業을 닦던 31人이 아미타불의 加被를 承하여 정토에 往生하고 香徒들도 점차 왕생하다.

810. (新羅 憲德王 2年) 勝詮和尙이 華嚴經을 강하다. 처음에 승전이 唐에 가서 賢首法師에게 經敎를 배우더니 이에 이르러 경을 강하였다.

845. (新羅 문성왕 7年) 白禪庵을 創建

937. (高麗 太祖 20年) 道詵法師가 高麗 太祖의 命을 받아 원각사를 增修하고 西鳳寺라 改稱하니 절의 서쪽에 鳳形의 돌이 있는 고로 이름지었다.

945. (高麗 顯宗 2年) 鳳凰庵과 再運庵과 極樂庵을 창건하다.

1161. (高麗 毅宗 15年) 菩提庵과 淑明庵과 大聖庵을 창건하다.

1254. (高麗 高宗 40年) 蒙古軍 侵入함.

1592. 4. (朝鮮 宣祖 25年) 壬辰倭亂 勃發함. 宣祖 義州 行在所로 播遷함.

1592. 5. 倭軍 서울 入城. 6月 八道 점거, 7月末에 西山大師는 義州로 宣祖를 찾아서 "僧侶의 老弱者는 至心으로 國運回復을 祈禱하고 壯年者는 軍兵으로 나가 싸우기로 誓約"하고 檄文을 통해 "降魔救國軍"을 募兵하매 四溟大師는 乾鳳寺의 改服庵에서 七百名의

僧義兵을 調練하여 乾鳳嶺을 넘어 平安道 順安 法興寺 僧義軍本部에서 12月에 明나라 應援軍과 合流함.

1593. 1. 平壤城을 점거한 倭軍 小西行長軍을 擊退하여 平壤城을 奪還함.

1604. 8. 四溟大師 講和史로 日本에 가서 亂離를 收拾하고 이듬해 佛齒舍利를 奉安하고 乾鳳寺로 還寺함.

1883. 4.18 金剛山 楡岾寺 重掛佛事에 본사 僧軍 246名을 派遣함.

1894. 9.19 嶺東地方을 어지럽힌 假 御使 金容浩(一名 龍珠) 一行 40餘名을 一網打盡하여 杆城 官衙에 移送함.

1896. 9. 杆城郡守 徐相大의 武斷事件을 膺懲함.

1896. 8.18 乾鳳寺 僧侶 참기 義兵 連累로 裁判 회부됨을 獨立新聞에 報道함.

1904. 晦明大師 普琳庵 石壁에 七星堂 造成함.

1907. 1.26 "鳳鳴學校 設立趣旨文" 皇城新聞이 취재 보도함.

1907. 4. 9 鳳鳴學校 學生 國債報償 義捐金 146원 갹출을 大韓每日申報에 報道함.

1907. 6. '杆城郡 乾鳳寺 鳳鳴學校에서 春期運動 附近 15里 八薔里(海上里) 前坪에서 擧行 ᄒᆞᄂᆞᆫ데 國旗□와 虹霓綠門의 極히 壯여ᄒᆞ매 傍觀人이 3千名에 逢ᄒᆞ얏다더라', "鳳校運動"題下로 6. 22日字 大韓每日申報에 報道함.

1910. 8.29 韓日合邦, 國恥日. 日帝 植民地統治時代 開幕됨.

1912. 9. 2 乾鳳寺 "寺法" 內務長官 認可함을 官報를 通해 道長官 및 郡守에게 通知함.

1913. 9. "乾鳳寺 僧侶奪牒 江原道 杆城郡 僧侶 李錦庵은 寺法違反의 行爲가 有ᄒᆞᆷ으로 當 本寺 談判은 祇奪度牒에 至ᄒᆞᆷ으로 30本山住持에게 公翰을 發ᄒᆞ얏더라"(排日時局事犯 關聯事件). 1913. 11. 20. 海東佛報 報道함.

1914. 6. "乾鳳寺住持 趙世杲和尙은 昨年 9月에 當本寺 李錦庵氏 祇奪度牒ᄒᆞᆫ 事件에 對ᄒᆞ야 다시 和解同居를 主張ᄒᆞ고 3職 任員과 寺中 僉尊의 懇乞에 依ᄒᆞ야 奪牒은 玆에 取消ᄒᆞᆷ이라 ᄒᆞ고 本年 4月 11日에 本社及 30本寺에 發函하였더라" 1914. 6. 20. 海東佛報에 報道함.

1917. 8. 9 鳳鳴學校에서 夏季放學동안 東京留學生인 李智光和尙을 講師로 日語講習을 1個月間 開設하는데 受講生이 50餘名에 達하였다.(每日申報)

1918. 金剛山 九龍淵에 "彌勒佛"이란 海剛 書를 石刻(字劃넓이 1.3尺, 길이 64尺)하는데 本寺僧侶 李晦明和尙의 400원 施主 外에 다수 同參함.

1921. 3.17 李大蓮 住持 피임함.

1921.10.15~1922. 1.14 無遮禪會에서 本寺 禪院規則 9條와 禪問答 21條 制定함.

1922. 4.18 서울東光學校 各本山 聯合運營으로 復活 됨.

1922. 5. 4 乾鳳寺 能仁布敎堂 仁川市 龍雲洞 237番地에 세움.

1922. 5. 5 道內 乾鳳寺 檢帖寺, 月精寺 住持會議에서 3寺共同事業 推進을 決意함.

1927. 1.14 忠信洞 서울中央布敎堂에서는 華嚴山林을 圓滿이 回向함.

1927. 4.15 乾鳳寺 佛敎維新會 第13回 定期總會를 極樂殿公會堂에서 開催함. 會長 曺東奭, 庶務部長 黃金峰 部員, 理財部長 趙極尙, 部員 朴大愚, 朱鳳朝 智育部長, 崔學演 體育部長 黃永眞, 部員 李錫根, 金賢律.

1. 聖誕行事 盛了의 件.
1. 運動獎勵의 件.
1. 布敎發展의 件 等 圓滿이 決議함.

1927. 6. 3 "件鳳寺本末寺史蹟" 編纂委員 崔金峰, 金日宇 外 1名 末寺로 資料蒐集次 出張함.(深谷寺, 壽陀寺 紀行文 有)

1927.11.29 專門講院 內에서 臨時學生會議를 開催하고 從來의 鳳鳴講友會를 佛敎專門講院講友會로 名稱을 고쳐서 理事制로 運營토록 하고 任員을 다음과 같이 庶務部 專務理事 崔學演, 常務理事 安宇天, 理財部 專務理事 朱鳳朝, 常務理事 金龍治, 智育部 專務理事 朴鐘雲, 常務理事 尹永賢, 德育部 專務理事 金聖典, 體育部 專務理事 孫明淑, 常務理事 李春城, 幹事 崔南基, 朴泰敬을 選任하고 其他 前 鳳鳴講友會 財務 朱鳳朝를 表彰하기로 議決함.

1927.12. 8 專門講友會에서는 悟道記念劇을 極樂殿 公會堂에서 300餘 觀衆으로

1. 大木蓮의 求母生天 9막
1. 아득한 天地 5막
1. 슬프다? 人間 2막
1. 女子世界 2막을 上演하여 觀衆에게 깊은 感銘을 준 바 다음과 같은 賛助가 있었음.

朝鮮佛敎維新會 10원, 趙東庵, 全世鳳 各 5원, 金鏡峯 2원, 金寶蓮, 金日宇, 李錦庵, 申蓮庵, 朴寧曦, 黃金峰, 林桂虛, 尹百鉉, 崔西應, 金大岩 各 1원.

1927.12.18 法脈相續式을 擧行함에 凌虛禪師 法嗣 鏡松 白法訓. 鏡峯禪師 法嗣 龍波 金賢律, 萬海禪師 法師 錦松 黃永眞, 滿虛禪師 法師 月英 張宗甲, 寂潭禪師 法嗣 碧雲 崔學演, 震宇禪師 法嗣 和山 李錫根으로 定함.

1927.12.20 乾鳳寺專門講院 第25回 卒業 및 修業式을 擧行함.

1927.12.28 京畿道 楊平郡에서 組織한 演劇團 一行 20名이 本寺를 訪問 過歲함.

1928. 1 人事發令 : 서울 忠信洞 15番地 乾鳳寺 서울中央布敎所 金虎山 서울 杏村洞 8番地 乾鳳寺布敎所 布敎師 咸東虎. 仁川市 龍雲洞 237 乾鳳寺 能仁布敎所 曺東庵. 全世鳳 發令함.

1928. 4 雪巖堂 不二門을 丹靑 함.

1928. 2.14 鳳西佛敎少年會를 創立 發起, 同年 3月 6日 組織하고 文藝月刊을 刊行하며 少年 男女들에게 朝鮮語를 講習하고 會員은 "少年"雜誌를 必讀토록 함.

1928. 4. 8 維新會, 講友會, 少年會 合同으로 聖誕奉祝式에 假裝行列, 提燈行列, 素人劇 等을 盛大히 擧行함.

1928. 4. 8 서울中央布敎所에서는 鄭義山師를 招請하여 3日間의 華嚴山林을 回向함.

1928. 6 本寺 卓凌虛 和尙은 陜川 海印寺 의 水道工事를 自費 700圓으로 完成함.

1928. 6.10 卓凌虛 和尙의 功德碑 立碣式을 擧行하였는데 和尙은 寺中에 杏 203斗落(正米 595斗收穫)과 現金 5,780圓을 獻納하고 其他 各寺에도 많은 佛事를 行하여 그 功德을 記念하여 永世不忘토록 함.

1928. 7 念佛道場과 寺名의 象徵으로 "나무아미타불" 石塔 鳳凰塔 建立함.

1928. 7.22 佛敎專門講院 第26會 卒業式을 擧行함.

1928. 7.29 乾鳳寺講院은 夏期放學동안 講演隊를 發足하여 巡廻講演中 特히 元山서 朝鮮·中外 兩 新聞의 後援으로 大盛況을 이루었는데, 演士와 演題는 "現代宗敎家에게(金炳奎)", "우리는 무엇을 먼저할까?(鄭斗石)", "唯心(崔學演)" 等임.

1928.11.30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誌(非賣品) 發行함.

1928.12.17 朝鮮佛教青年本末支會 第1回 定期總會에서 다음 任員이 選出됨. 庶務部 曺東庵, 黃錦松, 理財部 金大岩, 黃金峰, 文敎部 崔碧雲, 金己祚, 體育部 孫華經, 全允文 等이 選出됨.

1928.12. 本寺 住持 李大蓮和尙은 설을 맞이하여 近洞 住民中 極貧者에게 換歲할 費用을 傳達하여 稱頌이 藉藉함.

1929. 1.11 鳳鳴講友會(講院講友會改名) 定期總會 庶務部 李春城, 金龍洽, 財務部 金東雲, 金啓日, 智育部 韓永圭, 全允文, 德育部 尹龍賢, 體育部 崔南基, 金己祚 等으로 任員을 改選함.

1929. 2.15 서울中央布敎堂에서는 李大蓮和尙을 招聘하여 涅槃記念行事를 擧行함.

1929. 6. 1 鳳鳴講友會 任員改選 庶務理事 朴致善, 張仁煥, 財務理事 韓永圭, 安永周, 智育理事 金己祚, 金聖年, 査察 金萬應으로 改選함.

1929.12. 8 서울中央布敎堂에서는 金寶蓮和尙을 會主로 成道記念行事를 擧行함.

1929.12.31 鳳鳴講友會 忘年講演會를 普眼院에서 演士는 鄭斗石, 曺東庵, 金己祚, 尹龍賢, 金龍洽, 丙昌洽, 金龍波, 李春城 等 沈慶相의 司會로 開催함.

1930. 5. 本寺에 卍藏支部 結成됨.

1930. 5.20 佛敎專門講院 第20回 定期總會 開催함.

1930.11.20 李大蓮 住持 再 選任됨.

1932. 8. 2 서울中央布敎堂의 水陸法會를 漢江에서 擧行하매 600餘名 參席으로 開催함.

1932.10.31 靑城布敎堂을 忠北 沃川郡 靑城面 道場里 127에 開設하고 布敎師 金鏡峯 就任함.

1932.11. 李大蓮 第6代 住持 選任됨.

1933. 1 本寺⇔塔峴里⇔海上里 間에 新作路를 寺中 울억과 近洞民으로 開設함.

1933. 2. 1 馬山布敎所 慶南 馬山市 城湖洞 30에 開設 布敎師 李滿虛 就任함.

1933. 4. 8 關東蹴球大會 鳳鳴學校 運動場에서 開催. 本寺 팀 優勝함.

1934. 3.25 金剛甲稧 己卯稧 創立. 李錦庵 外 28人 결사 함.

1934. 8. 佛敎婦人會結成, 會長 信女 辛氏小鳳華 選任 함.

1934.11. 3 8大 大本山에서 普成高敎 運營을 乾鳳, 通度, 海印, 梵魚, 恩海, 大興, 法住, 白羊 等 合議 함.

1934.12. 6 馬山 城湖洞 乾鳳寺布敎所 佛像 盜難事故 發生 未久에 찾음.

1935. 2. 2 鳳棲少年會 定期總會 會長으로 朴漢瑢 選出 됨.

1935. 4. 4.8聖誕節 萬歲事件으로 寺中 亂離로 昏迷함.

1935. 7. 4 江原道 孫 道知事 道內 3大 本寺 住持會議 주재함.

1935. 6.24~28 江原道 明德靑年會 修養講習會 開催함.(對象 20歲 以上 男子 10個郡 各 4名씩 參加함)

1935.11. 本寺와 明德靑年團 主催 敬老會 잔치를 巨津邑에서 開催함.

1936. 白樺廊에 法雨경원 金日宇 講伯으로 開院함.

1936. 1.30 僧侶養成目的으로 "心田開發" 運動 展開함.

1936. 2. 3 第5回 念佛萬日會 回向함.

1936. 4.18 金寶蓮 住持 피임함.

1936.10. 9 金寶蓮 住持 高城, 襄陽 水害地區 視察 後 慰問金 傳達, 大雄殿에서 犧牲者 慰靈 遷度祭 擧行함.

1936.11. 9 布敎事業으로 "心田開發" 巡廻講演隊 發足함.

1936.11.10 李大蓮 前 住持 元山 釋王寺 布敎師로 赴任함.

1936.11.28 洛山寺 重建功勞者 김규현, 이용신, 박수근 3人에게 表彰狀 受與함.

1936.11.14 襄陽布敎所 및 幼稚園을 建築하여 오던 바 襄陽邑 南門里 119番地 能仁幼稚園에서 幕佛式 및 開園式을 擧行함.

1937. 本寺 蹴球팀 江陵에서 開催한 關東蹴球大會參加 優勝함.

1937. 1. 1 서울中央布敎所는 忠信洞에서 開所한 10周年 記念式을 擧行함에 式順 : 3歸依禮, 讀經, 入定, 經過報告, 紀念品贈呈, 祝辭, 祝文 및 祝電朗讀, 答辭, 感想交換, 閉會로 함.

1937. 2.26 現在 全國佛敎現況(每日申報) 記事임.

本 山	31
寺刹數	1,330여
僧侶數	7,000여
信徒數	150,000여
財 産	1,000만원

1937. 5.10~1938. 4.까지 上院寺에서 江原 3本山聯合회의 僧侶 修練生 5名 派遣 要請 黃永眞, 趙重連(鳴巖) 等 派遣함.

1937. 7. 1 襄陽布敎所 開設 記念行事에 鄭寶城 布敎師는 郡內 5個 寺刹과 4個團體를 演劇 等 多彩로운 文化行事로 布敎活動을 開催함.

1937.12. "心田開發" 江原道內 巡廻講演會를 講師 金泰洽으로 杆城에서부터 始作함에 杆城普通學校講堂에 350人의 聽衆이 모임.

1937.12. 8 本寺 圖峴 河震宇. 金剛山 神溪寺에서 念佛萬日會를 結社 함.

1938. 3.15 佛敎專門講院, 鳳鳴講友會 定期總會에서 庶務部 劉喩燮, 김태현, 文藝部 유해수, 李喆雨, 財務部 朴春燮, 全允澤, 運動部 池龍出, 金得龍 等 選出함.

1938. 4. 7 長箭 金剛學院 增築, 南亭祿에게 認可함.

1938. 7. 1 忠倡洞 中央布敎所 所長 李虎山 布敎師 李大蓮 就任함.

1938. 8. 僧侶修養講習會 開催. 講師 權相老. 金泰洽 兩師 招請함.

1938. 8. 本末寺聯合會 主催 佛敎巡廻講演會를 杆城을 爲始하여 高城, 襄陽郡內에서 開催함.

1938.10. 2 鳳鳴講友會 第34回 定期總會를 樂西庵에서 開催하고 選出任員은 庶務部長 徐聖鳳, 李喆雨, 智育部長 韓昌逸, 金光日, 理財部長 朴참수, 朴成男, 體育部長 朴春燮, 卓慶允을 選任함.

1939. 3. 5 本寺에서 江原道 3本寺 乾鳳寺, 榆岾寺, 月精寺 住持會議 開催함.

1939. 5. 鳳鳴學校 朝鮮語 敎習事件으로 廢校 當함.

1939. 5.15~6. 2 日本佛敎寺刹에 崔翠巖, 金金峯, 李慰虛 外1名 派遣함.

1939.12 峯鳴講友會 第35回 定期總會 "庶務部長" 박참수, 차삼오 選任함.

1939.12. 現在 乾峯寺 財産狀況表(佛敎時報) 記事임.

田	: 137町9,419
畓	: 297町3,329
林野	: 6,938町8,715
其他	: 13町715
計	: 7,382町2,178

1940. 1. 1 襄陽布敎堂 布敎師 羅在祐 就任함.

1940. 1. 1 長箭 金剛學園 南亭祿 設立 竣工함.

1940. 2. 靑年僧侶에게 日本軍 志願兵을 督勵함.

1940. 3. 鳳棲少年會 第12回 定期總會 開催함.

1940. 3.16 佛敎專門講院 第42回 卒業式 擧行함.

1940. 3.29 金鏡峯 住持에 피임함.

1940. 6. 朝鮮에 創氏改名 制度 實施함.

1940. 6.10 中央佛教專門學校 惠化專門學校로 改名인가, 日人共學 興亞科를 신설하고 校長 金敬注로부터 日人 高橋 亨 就任함.

1940.12.28 厩谷寺에서 31本寺 住持會議 開催함.

1941. 3.15 鳳棲少年會 第13回 定期總會 開催함.

1941. 4. 8 서울中央布教堂에서 慰靈祭 擧行함. 金虎山禪師 法嗣 慶山으로 定함.

1941. 6. 錦巖宣勳 妙寂川에 極樂橋 및 念佛碑 建立하고 時僧 247人 銘記됨.

1941.12. 8 第2次 世界大戰(太平洋戰爭) 勃發함.

1942. 4. 鳳鳴學校 崔載亨, 崔永俊 赴任함.

1943. 江原道 乾鳳寺를 江原道修鍊道場으로 開所함.

1943. 9.28 佛寶物 應召, 名分으로 鐵製香爐 外 6點 供出 當함.

1943. 7. 咸北 會寧邑에 布教所 開所함.

1943.11. 1 金鎭峯 9代住持 就任함.

1945. 8.15 日帝植民地로부터 解放. 蘇聯軍의 進駐로 共產治下가 되자 宗教 迫害로 僧侶 大部分 越南 함.

1945.10. 鳳鳴學校를 冷泉人民學校로 改名하고 校長 咸興祚 赴任함.

1946. 3. 5 北朝鮮 土地改革. 宗教活動 封鎖, 寺刹 管理人을 任命함.

1947. 7.30 서울에서 "佛教藝術同盟" 結成, 本寺僧 超靈出, 委員長에 選出됨.

1948. 3.22 大陣德文 서울에서 入寂함.

1950. 6.25 "6.25 韓國戰爭" 勃發함.

1950.10. 1 國軍 進擊으로 杆城 以南 左翼 隱身 및 遊擊隊 集結地 됨.

1951. 5.10 大雄殿 爆擊으로 燒失 됨

1951. 5.20 乾鳳寺 所藏 "國寶第412號'麻紙金泥華嚴經' 全46券" 燒失 됨.

1953. 7.27 休戰으로 本寺 民統線 以北으로 出入統制되고 軍駐屯 幕舍로 使用 함.

1954. 4. 杆城收復, 邑內 新安里(現布教堂)에서 本寺宗務 開始, 住持 楊巖雨 就任하여 大雄殿 建立함에 本寺에서 極樂殿 資材一部 및 造形物 等 옮겨 세움.

1954. 8.26 佛教界 比丘·帶妻의 佛教紛糾 始發 됨.

1954. 9. 樂西庵 火災, 八相殿 倒壞 됨.

1954.10.21 收復地區 臨時行政措置法에 따라 杆城邑 海上里까지 收復 함.

1954.11. 李承晩 大統領 "倭式習慣 버려라", "帶妻僧 물러나라" 談話 發表 함.
1955. 農地改革, 地價證券 總務院 建立에 使用됨.
1957. 楊廳雨 住持 就任 함. 옛 樂西庵 "中鐘" 서울에서 回收 備置 함.
1962. 3.25 曹溪宗 새 宗憲 및 總務院法 確定 함.
1962. 9. 7 孫慶山 住持 就任 함.
1965. 3. 普眼院터에 人法堂을 住持 孫慶山, 郡守 朱雨英, 推進委員長 李永宣 建立 함.
1965. 7. 5 楊廳雨 住持 就任 함.
1966. 1. 松江貯水池 築造, 松江里, 冷泉里一部 水沒, 極樂殿 및 念佛碑 水沒됨.
1966. 4. 8 安동성 住持 就任 함.
1966. 8.17 李일경 住持 就任 함.
1966. 9.20 安동성 住持 就任. 崔圓徹 在任 함.
1966.12. 1 曹溪宗 宗正 李青潭, 總務院長 孫慶山 就任 함.
1967. 高城郡內 電氣誘致 事業으로 寺中林木伐採 當함.
1970. 1.22 文成俊 本寺 住持署理로 就任 함.
1971. 9.20 李芸松 住持 就任 함.
1971. 9.20 第3教區 本寺에서 新興寺로 移管, 住持 文成俊 就任 함.
1973. 乾鳳寺 一帶 天然保護區域 指定함.(天然記念物 第247號, 83.3.6. 160㎢)
1974. 9.10 李성우 住持 就任.
1976~1979 本土 人法堂에 初代 軍僧 석정 勤務함. 後佛幀畵, 佛壇, 電氣架設 工事 함.
1979. 4.21 朴正圓 住持 就任 함.
1979~1981 本土 人法堂 第2代 軍僧 설현 勤務함.
1980.10.14 金度吼 住持署理 就任 함.
1981.10. 5 崔圓徹 住持 就任 함.
1982~1985 本土 人法堂에 第3代 軍僧 지남 勤務 함.
1982.11. 3 乾鳳寺(冷泉里 36, 37, 40, 62番地 內 27,570㎡) 一帶 道記念物 第51號로 指定됨.
1983. 徐원심 住持 就任.(1986年 6月 現在 徐상길 住持 在任 中임)
1984. 6. 2 不二門 地方文化財 第35號로 指定 됨.
1986. 6.13 佛國舍利 盜掘 當함.(유치환, 이의호, 고수명, 지상국, 송서현 等에 의해)

1986. 7.26 佛齒舍利 盜掘記事 都下 各 新聞 報道함.

1986. 7.28 文獻 紀錄上 舍利12果 中 8果만 回收됨으로 搜査當局 現場檢證 實施함.

1986. 8.24 文化公報部에서 舍利 移安式을 擧行함에 信徒 2千餘名이 參加하여 曹溪寺로 奉安함.

1986. 8.24 曹溪寺는 舍利親見法會를 開始한 後 全國巡廻法會를 擧行함.

1987. 大統領 選擧時 乾鳳寺 復原 大役事를 公約함.

1987. 2.10 임동철 住持 就任함.

1987.11. 佛齒舍利 確認 및 引導 請求 訴訟 開始함.

1988. 5.28 乾鳳寺 傳統寺刹로 登錄됨.

1989. 4. 佛齒舍利 8果와 同 副葬品一切를 原所藏寺인 乾鳳寺로 奉安함.

1989. 6. 乾鳳寺 地域 民統線 北上으로 本土一部 收復함.

1990. 8. 高城郡 및 새한建築文化硏究所 代表 李應默 3千만원(國1千5百, 道7百50만원, 郡7百50만원) 調査費로 "乾鳳寺址 地表調査" 完了 함.

1991. 八相殿址 및 舍利塔 整備工事費 1億2千5百만원(國6,250만원, 道 3,125만원, 郡 3,125만원)임.

1991. 朴진설 住持 就任함.

1992. 樂西庵址 上別堂 大房寮舍址 整備함. 工事費 6千만원(國3千, 道1千5白, 郡1千5白만원)임.

1982. 9. 8 朴현소 住持 就任함.

1992.10. 松江貯水池 水沒地域에서 居士 李永宣이 在京 乾鳳人들의 考證을 거쳐 念佛碑를 收拾 復元하고 石造虹霓 "極樂橋"는 옛 자리 水沒址에 尙存 함.

1993~1996 樂西庵址, 山神閣, 장독대, 排水口, 반두방지 整備함.
工事費 5千5百만원(國2,520만원, 道1,375만원, 郡1,375만원)

1993. 八相殿地域 整備함. 工事費 7億3千9百만원(國4億, 交付稅3億3千9百만원)

1993. 4.27 八相殿址에서 寂滅寶宮 起工式 擧行함.

1993. 5.18 敬老잔치 杆城 布敎堂에서 開催 500餘名 參席함.

1994. 大雄殿, 山神閣 起工함. 工事費 6億9千만원(道1億5千만원, 郡1億5千만원, 寺中自體3億9千만원)임.

1994. 5.25 寂滅寶宮, 眞影閣, 普濟樓, 持殿, 담장 等 竣工함.

1995. 萬日院, 冥府殿, 東持殿, 일문 起工함. 工事費 7億5千만원(道2億, 郡2億, 自體3億5千만원)임.

1995.10.17 大雄殿, 山神閣, 上樑法會 擧行함.

1996. 6. 6 護國英靈 慰靈祭 擧行함.

1996. 8. 極樂殿址, 門間, 庫房, 寮舍, 築臺整備 工事함. 工事費 1億2千만원(國6千, 道3千, 郡3千만원)임.

1997. 烏啼庵(縣內面) 財產 國家로부터 回收 整理함.

1997. 2. 金海藏 住持 就任함.

1997. 宗務所址, 圓寂庵址, 解憂所, 迎賓館址 整備함. 工事費 2億(國1億, 道5千, 郡5千만원)임.

1997.11. 白樺庵址 앞에서 四溟大師 紀蹟碑 破片으로 發見함.

1997.12. 海藏 住持 스리랑카 켄듸 佛齒寺와 姉妹結緣 締結함.

1998. 1.18 乾鳳寺의 法統을 繼承하는 第6回 全國念佛萬日會 發願法會를 서울東山佛敎大學에서 金海藏住持, 韓普光敎授, 金在日法師 等 200餘名의 四部大衆 參席리에 擧行함.

1998. 4. 乾鳳寺 寺有林 回復登記 開始함.

1998. 4. 5 第5代 念佛萬日會 化主 錦巖堂 浮屠 및 碑 立碣式 擧行함.

1998. 7. 白華庵址 整理 自體佛事로 擧行함에 옛날 샘물을 發見함.

1998. 7. "乾鳳寺" 案內 小冊子 初版 2萬部 發刊함. 서울 李文榮 施主함.

1998. 8. 5 第6回 全國念佛萬日會結社 및 修鍊法會를 1千餘名이 參加하여 3日間 本寺에서 擧行함.

1999. 1. 5 寺有林地籍復舊 및 所有權確認에 裵內蓮華의 功德으로 原狀을 回復함.

1999. 3. 5 樂西庵 影池 및 河川 兩岸 石築整備함. 工事費 3億(國1億5千, 道7千5百, 郡7千5百만원)임.

1999. 3. 8 萬海 詩碑, 鳴巖노래비, 金剛甲稧記念碑, 建立을 爲한 準備모임을 高城郡 文化院에서 開催한 바 朴雪山, 金海藏, 崔載亨, 李永宣, 金德命, 裵仙熙 等이 各自 實務를 推進하고 基金은 各界 誠金으로 年內 建立을 決議함.

1999. 8. 2 第6回 全國念佛萬日回 第2次年度 修鍊法會를 3日間에 걸쳐서 開催한 바 特히 阿彌陀舞踊團과 金憲洙 四物놀이團의 合流로 더욱 異彩로웠음.

1999. 8. 3 오래된 "木魚" 佛具를 裵再蓮華 施主함.

1999. 9.17 四溟堂紀蹟碑 復元을 爲한 세미나 開催함.

1999.10.15 鐘閣 및 판두방 竣工. "雲版" 佛具를 仁川 淸信女 施主함.

1999.10.17 大鐘佛事 回向式 擧行함. 聖鐘社에서 製作. 製作費 3億원, 同參人員 2千5百名, 무게 2千5百관임.(當日 快晴한 하늘에 燃燈모양으로부터 始作하여 부처님의 聖像을 한 구름 한 點이 出現하는 異蹟이 狀觀하게 演出되매 同參한 3千餘名이 歡喜心에서 一齊히 歡聲을 올리며 起立 禮拜하다)

1999.11.18 寶城 鄭斗石(前 東國大學校總長, 太古家 宗正)浮屠 除幕式 擧行함.

2000. 1. 1 萬海堂詩碑, 趙靈出(鳴巖)노래비, 金剛甲楔記念碑 除幕式이 2千餘民官軍 四部大衆 參席리에 擧行함.

2000. 4. 金度吼 住持 就任함.

2000. 7. "乾鳳社" 案內 小冊子 再版 5萬部를 서울 李東殷, 李文榮 外 等이 發行하여 法布施 함.

2000. 8. 比丘尼 千行이 西持殿에 獨聖像을 造成 奉安함.

2000. 安保展示館 및 案內板, 解憂所 竣工 및 完成함.

2001. 3. 6 鄭暎道 住持 就任함.

參 考 文 獻

-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精神文化硏究所)
- 獨立新聞
- 皇城新聞
- 大韓每日申報
- 每日申報
- 佛敎時報
- 海東佛報
- 韓國佛敎 100年 畵報
- 31本寺寫眞帖 1920
- 乾鳳寺本末寺史蹟. 乾鳳寺刊 1928版
- 朝鮮古蹟圖報 第12卷 1727p, 1932. 3. 26 朝鮮總督府藏版
-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近代史
- 官報 : 乾鳳寺寺法
- 寒嚴法語集, 一針錄
- 朝鮮寺刹史料
- 韓國寺刹譜
- 晦明文集
- 雪山回顧錄
-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 遺跡總攬
- 朝鮮金石總攬 上, 下
- 金剛山 乾鳳寺 事蹟(乾鳳寺史蹟記 韓龍雲 著 外의 沿革 모음임)
  - 記 事모음 作成者 李鳳山, 2001, 4.

寒碎已。戊午秋。謂付者。曰小子識之。是年九月旬三。吾當歸眞矣。果驗。其日昧爽。澡浴淨衣。號衆而訣。曰極樂自心地。何用三世佛。三世雖莊嚴。佛佛自心佛。十方虛空中。我佛本如然。說已端坐。向西而化。壽六十九。臘五十七。方涅槃也。有彩虹亘于西。旣闍維之。現靈骨一。師身長八尺餘。口四十齒。軀甚重。其聲吼鍾然。坐望之。若喬嶽。蓋出定應物。嫺猶可狎也。嘗之都鄙。有惡少詬弄。亦笑領之而已。座下龍象。無慮數十百衆。而今其門徒將碑焉。以予友鎬上人所爲大師行略。乞銘。余嘗於法者。烏能知大師乎。唯鎬上人是徵。銘曰。

日十二時。一時八刻。分分秒秒。念念正覺。一日二日。至于萬日。念念正覺。萬日如一。是即修行。修行功德。天上天下。無他別法。誰與爲者。爲萬化師。師在何處。念之則來。師在之處。碑則在此。後五百年。如是如是。

古所謂大人豪傑。雖載籍極博。然渺漠千載。吾不得見之。則惡可盡信已。此近前輩中。僅得見三老。曹溪之鷓溟老。金山之龍溟老。及此楓嶽之萬化老。師眞不愧大人豪傑耳。殆以入山叢光。因無大用於天下國家。自不市赫赫扳能。然雖掩者天資也。故卓穎之氣魄。儁偉之風神。有啻比於廬山遠赤眼宗焉。嗚呼自玆老師。潛輝鳳林。東山寂寞。滄海橫流。端巖蒼稜之容止。得復恭覩於何日。賴有繼席龍象。能播揚祖道。圖永先師英烈。使得于堂雅文。惺堂健筆。立石以銘之。若鎬。嘗欽家風。非敢後者。可無付一言乎驥尾。

甲子肇夏映湖鼎鎬謹識

拳碎已。戊午秋。謂侍者。曰小子識之。是年九月旬三。吾當歸眞矣。果驗。其日昧爽。澡浴淨衣。號衆而訣。曰極樂自心地。何用三世佛。三世雖莊嚴。佛佛自心佛。十方虛空中。我佛本如然。說已端坐。向西而化。壽六十九。臘五十七。方涅槃也。有彩虹亘于西。旣闍維之。現靈骨一。師身長八尺餘。口四十齒。軀甚重。其聲吼鍾然。坐望之。若喬嶽。暨出定應物。婦孺可狎也。嘗之都鄙。有惡少詬弄。亦笑領之而已。座下龍象。無慮數十百衆。而今其門徒將碑焉。以予友鎬上人所爲大師行略。乞銘。余嘗於法者。烏能知大師乎。唯鎬上人是徵。銘曰。

日十二時。一時八刻。分分秒秒。念念正覺。一日二日。至于萬日。念念正覺。萬日如一。是即修行。修行功德。天上天下。無他別法。誰與爲者。爲萬化師。師在何處。念之則來。師在之處。碑則在此。後五百年。如是如是。

古所謂大人豪傑。雖載籍極博。然渺漠千載。吾不得見之。則惡可盡信已。此近前輩中。僅得見三老。曹溪之函溟老。金山之龍溟老。及此楓嶽之萬化老。師眞不愧大人豪傑耳。殆以入山藏光。因無大用於天下國家。自不市赫赫拔能。然雖拖者天資也。故卓穎之氣魄。儁偉之風神。有竊比於廬山遠赤眼宗焉。嗚呼自玆老師。潛輝鳳林。東山寂寞。滄海橫流。端巖蒼稜之容止。得復叅覩於何日。賴有繼席龍象。能播揚祖道。圖永先師英烈。使得于堂雅文。惺堂健筆。立石以銘之。若鎬。嘗欽家風。非敢後者。可無付一言乎驥尾。

甲子肇夏映湖鼎鎬謹識

扶宗樹敎傳佛心印大覺登階尊者前守護五臺山寂滅寶宮兼八道僧風糾正都院長萬化堂大禪師碑銘幷序

前嘉善大夫秘閣知制誥東宮侍讀海平尹喜求撰
前通政大夫檢事月城金敦熙書幷篆

同一法也。或謂東震。殊異乎西竺。而像季之餘。古德遠矣者。是大不然。無論自利利他。幷無論是大是小。其爲精進則同一修行也。圓滿則同一功德也。我聞諸佛法。有謂萬日念佛會者。雖在彼方華嚴道場尙云七處九會而已。今於乾鳳一處。乃至四會。盛矣哉。未曾有也。乾鳳寺。金剛淨土也。新羅景德王十四年。發徵和尙。掫第一會。至元聖王二年回向。有善男女等三十一人。肉身騰空。我純祖二年。爲登虛二會。哲宗二年。爲碧梧三會。並回向如法。至高宗十八年。爲第四會。則萬和堂大師其人也。師諱寬俊。本鄭氏子。開國功臣三峰公之裔也。父嘉善大夫振鉉。母崔氏。夢雙龍。感而有身。章皇帝初元庚戌十有一月二十有三日。舉于杆城龍浦田舍。就以雙龍字之。夙根聰明。若有穎悟者然。甫舞勺有出家志。父母有難色。不然不迴。竟獲允。遂至乾鳳寺。從錦玆長老。零染受鉢。是於虎岩淨公。爲九燈矣。受淨戒于大盧遊公。禪懺于聖鳳安公。旣壬申。補釋王寺香官。尋選本寺幄書化主。功甚蔵。翌年甲戌。進僧統。越三年丁丑。遷傳燈寺摠攝。無何。本寺燼。慨然解印歸。跋履行化。不數年悉復之。其嗣會之始。則爲辛巳。而師年三十二矣。副開華嚴法會五十數所。化檀越八千數。久之膺本寺重建化主。建八相殿極樂殿凝香閣等。光武五年。陞爲扶宗樹敎傳佛心印大覺登階尊者。守護五臺山寂滅寶宮。兼八道僧風糾正都院長。間爲關東道敎正。旣而爲本寺立石。紀實甚悉。此其因緣作用之餘也。會將滿。爲國家朝宗及法界幽靈。先千日作無遮大會。至隆熙二年九月終焉。於是飛錫嶺湖間。或至漢師。棒喝循循爾。然機鋒微露。無不咋舌也。僧問一塵鐵幢。百仞周十圍。無地可着。可能爲人建竪否。師曰有能舉似者。我當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189

戒行僧。寔主禪席。道號碧梧。法名侑聰。泗溟西山。時傳嘱屬。至于九世。雪峯影虛。有大弟子。鳳林應直長老。住持本院。樂西之庵。剃度我師。乃得眞宗。是爲嫡傳。敬讀我師實行之記。俗姓崔氏。婆羅門族。父諱江遜。母鄭夫人。龍浦之里。祭酉降生。爲兒遊嬉。已識再來。聚沙而塔。採花而供。弱冠踰一。矢心出家。遊學諸方。乃發弘願。寧以虛軀。不若修心。乃以辛亥夏制之日。復興第四萬日蓮會。左挹學公。右提輿師。發徵舊址。禪院新修。二公觀化。師獨歸然。誓擯廣謀。咸稱化主。夙禀勤謹。齋法肅恭。檀越男女。持所敬禮。普結普緣。累獲瑞應。遍行頭陁。香嚴童子。齒眼骨珠。列藏于石。丙戌之冬。因示微疾。跡隨緣盡。順世圓寂。法臘五十三。世壽七十四。西方淨土。翛然往生。高足上座。鶴林宣遠。萬化寬俊。寔紹其業。寬俊五回。二十四年。具師本行。刻之貞珉。以文字相。說無上乘。重宣此義。以說偈言。

我聞諸佛法　善惡莫思量。及覩佛萬行。有善而無惡。我聞祖師禪。飢飯困來眠。及覩諸律師。有戒而無情。千捧與萬喝。我只有一法。不依不了義。不作謾人語。有善導衆生。有戒導自己。是名檗迦羅。眞寔不退轉。圓覺大道場。發徵萬日會。第二是康州。第三咎聳虛。傳至我禪師。上承淸虛嗣。慈悲以爲用勤苦以爲體。玉柱擎天屹。香城截流渡。牢握大願力。勇往大信志。善男與信女。香火叅供養。方行而等慈。一切成樂土。萬化繼遺囑。復跡弟五會。寔師以啓之。迄今我不乏。唯昔西方國。七處九會成。五會只一處。盛哉未曾有。金剛山千仞。東海波萬里。寶月掃分霧。祥飈息颺浪。伐石爲穹碑。龍覆神龜戴。嵯峨鎭山門。頂禮千萬禩。

光武甲辰七月　日

桂雲堂永裕大師塔銘幷序

師即西山八世。大雲堂門人。姓金。本郡海。上村人也。十七爲國淸長老弟子焉。篤學堅志。有將來之望。乾隆壬辰四月初四日。不幸去世。壽二十一。茶毘有異瑞。果有跡。兄月允師。泣塔而銘曰。

忽來忽去。云世無常。持心質直。人皆悼傷。歸而留踪。示滅不滅。吁々其兄。母用悽切。

祭巳四月日　同門人翰爲撰

大韓國江原道乾鳳寺設第四蓮會碧梧大禪師遺蹟碑

通政大夫前承政院右副承旨知製敎兼經筵參贊官春秋修撰官　恒陽呂圭亨撰

前承政院右承旨　月城李始榮書幷篆

維娑婆世界東土大韓。佛法之隆。甲於天下。直接竺乾。非震旦外。問何以故。其故有二。凡我大法。照一而已。如天中日。如城中主。九鳥旣落。一輪獨揭。群僞削平。大統斯尊。云何震旦。法有多門。南北二宗名爲頓漸。我聞曹溪。六祖之訓。法無頓漸。人有利鈍。又聞古德長老之說。頓悟之後。仍須漸修是知頓漸。是一無二。云何頓宗。又復多峙。僞仰曹洞。各標名號。聚落崢嶸。妬害競起。唯我大韓。淸虛泗溟。一法承當。一門傳授。雖一傳十。十統于一。佛法之隆。此其一也。震旦之國。三敎並峙。釋氏儒仙。尤其宗仰。上自刹利。下至旃陁。投誠膜拜。信心歸依。雖大師昇堂敷座。莊嚴尊重。坐享檀施。沙門之權。與世主抗。維我大韓。法僧三寶。先折慢幢。而就苦行。尊人自卑。習俗見慣。以爲本然。藉曰外護。寔非平等。是故我門。像季以還。無依者歸。有托乃逃。有大法師。非依非托。獨兩肩擔。唯一事緣。壞色瓦器。卑而益尊。是正宗。是大法門。石撥角折。諦理目瞠。然華諸佛。粲然啓齒。授記表信接而引之。佛法之隆。此其二也。謙不可踰。大莫與京。甲於天下。豈徒然哉。烈山古邑。乾鳳禪寺。有

者。異端而已矣。問之則非。校之則是。吾當進之矣。問之則是。校之則非。吾當退之矣。當倘廷與日本講和也。賢人君子。進無可死之地。則自潔其身可也。西山之去。吾知其必有以也。如師者。不與之同其去。而又爲之力贊其議。何也。蓋西山。近於經。而其節高。泗溟。近於權。而其功而博。然和議之成。當時之士。多主其事。雖非師。而不患其不成也。況日本。崇信佛敎。堯舜孔子之道。所不可化。則事固有因其勢而導之者。又師之忠信。可以行蠻貊之邦。而服人之心。此豈區區游說之士所可得。而國家之享有其利者。今三百年矣。然則西山之退身守道。泗溟之屈志濟物。各有其義。而其忠於爲國一也。同時。從西山學者。又有海眼與靈圭。海眼起義嶺南。靈圭嘗與趙文烈公憲。從死錦山之役者也。密州。舊有師妥靈之祠。穆陵時。賜號曰表忠。及我、聖上即祚以來。尤起感於西山泗溟之事。嘗就寧邊故祠。而表章之。本朝。專尙儒術。未嘗廣度僧尼。崇侈寺刹。而二聖之眷眷於此者。徒以忠義爲獎也。豈不盛哉。余按關東。以本寺遺蹟。論移禮部。又將請於、朝施行。而其徒。有以紀蹟之碑來屬者。遂捐錢百緡而施之。作募緣文五軸。以相役。銘曰。

佛自西竺。流入中原。歷漢及梁。迄唐宋元。儒譏異端。不與同門。孰如大師。自禪而悟。義以爲事。信以爲路。扳乎其類。益見所樹。有儼師像。金剛之刹。傍有石塔。藏如來骨。琉璃之甌。珊瑚之舌。千輪妙相。若相傳鉢。萬曆年間。島夷逆命。西山奏功。弟子曰政。王曰彼冠。維予之患。干戈八年。百姓不休。凡厥廷臣。孰紓予憂。公卿曰吁。維茲蠻猾。僻處卉服。俗本崇佛。寧因勢導。難以理奪。於是起師。裝送日本。滄溟萬里。天長地遠。三月候風。四月楊帆。乃見酉長。言出至誠。雍容談笑。和事遂成。從此八路。倭氣廓清。士女歌舞。同我太平。西山高節。泗溟偉功。或去不去。其義則同。跋涉山河、紺馬大龍。銅爐鐵杖。木鞋珠囊。千載摩挲。如聞佛香。西山如雲。泗溟如水。水流有跡。雲去無止。

師之在世。其心也直。師之棄世。其跡也赫。自中發外。事不欺群。山高海濶。此石永存。

嘉慶四月己未六月立

有明朝鮮國八道都摠攝義兵大將弘濟尊者泗溟大師紀蹟碑銘幷序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原任奎章閣直閣知製敎南公轍撰

通政大夫行寧越都護府使兼原州鎭官兵馬司僉節制使討捕使許眶書並篆

金剛山。自毗盧分爲二岐。斷髮嶺以西曰內岾。雁門以東曰外岾。內岾之表訓寺。是西山大師施敎之地也。外岾之乾鳳寺。是泗溟大師募義之地也。二子者。雖出於浮屠。而西山以其節。泗溟以其功。故地以而重。寺之名。於是乎甲于國中。按圖誌。唐乾元間。山人貞信。設道場。奉彌陁觀音兩菩薩像於此。號爲乾鳳寺。寺舊藏師畵像及顯佛、銀塔、香爐、鐵杖、穩鞋、珊瑚念珠、各一、金袈裟一襲。而世傳。如來牙事。尤神奇。其說近於異。而所謂石塔者。至今尙存。山中人皆言。夜或有瑞氣爲虹云。師名惟政。本姓任氏。密州人也。世有簪纓所長。從恩師中德。落髮於寺之樂西庵。而師事西山大師休靜。學蓮花經六萬九千餘言。萬曆二十年。倭冠朝鮮。休靜自妙香山。募僧徒爲兵。與提督李如松。大破倭兵于平壤。斬首二千級。昭敬王。召見行在。親書墨竹圖。以賜之。命爲八道都摠攝義兵將。及、車駕還都。執政大臣。多主和義。休靜請於、上。曰臣老且病。願以兵事。付弟子惟政。乞骸骨歸。昭敬王。嘉其志許之。命惟政。棄期至京師。遂率其衆。(此間四十四字削除)其言皆以淸淨不殺爲宗。於是和事成將還。贖得被虜男女三千餘口。先是。新羅慈藏法師。入西竺。得如來牙十枚。後爲倭所掠去。師乃懇辭乞還。以藏于寺。即石塔是也。儒與佛異敎學士大夫嘗譏斥之。不欲同。中國曰慈悲與仁義異旨。而見性。不若格致。習靜。有違誠敬。毫釐之差。去聖人之道遠甚。雖然。觀於西山與師之所樹立。則其於君臣父子之義何如哉。彼冠儒衣儒。細究性理高談仁義。而無其實者。不可同日而語也。佛名而儒行者。吾道而已矣。儒名而佛行

利及研磨竹。開堂敎授。擊拂如響。其遊歷。則牛岳、龍門、妙香及湖嶺諸名山。而金剛之乾鳳、雪岳之內院。住錫最多。晩歲。乾鳳之白華庵。杜門不出者數十年。乙酉十月二十二日示寂。世壽九十二。法臘七十六。前一日。會諸弟子。示一偈曰。本末無住法。無住是眞法。今將是法傳。是法何嘗法。謂弟子無畏曰。四大違和。我將逝矣。遂奄然而化。茶毘之夕。祥光亘天。得金頂骨一片於松根。建塔于寺之南麓師風儀魁岸。道機沈黙。而有時輸贍。不修邊幅。佳山麗水。良辰好月。意氣高閑。詞藻玲瓏。觀其自敘及臨化之偈。可見其灑落之不拘不縛者矣。余曰然乎。余雖不嫻爾家文字。姑言之。以塞爾請。遂銘之曰如是我聞。得未曾有。曰善男子。淸淨無垢。東方震旦。佛日鴻朗。是夢是幻。現爲實相。覩佛之村。沙塔花供。夙心洞徹。佛性淨孝。獻果于慈。鉗槌棒喝。溫無上師。悟修漸頓。諦淨詣寺。諸佛心印。針芥相契。莊嚴樓閣。重々湧現。玲瓏透悟。本來之面。目無所翳。堂無所碍。橫說竪說。觸處三昧。寒山詩什。大慧書狀。無往不合。法門龍衆。千山萬水。瓶錫隨緣。歸以活埋。乾鳳之巓。開堂轉輪。亦有匡衆何去何來。解脫如夢。留其藻華。是亦舍利。弟子云々。第用撰次。

崇禎三庚寅三月日鐫

大雲堂碑銘幷序

後學永松大活撰　近喆篆　置寬書

師諱宇平。號大雲。姓密陽朴。外江陵崔。世居平康。十三入鉢淵。爲玉岑弟子。學於楓嶽。兼受具足才學盈科。終入雲溪室。溪楓嶽高弟也。師淸虛八世。竪拂建幢。三十載施法化人。豈其徒然哉。庚戌叅花山法席。傳敎賜奘敬。吟曰、珍重國思猶未報。夢隨殘月照花筵。乃自題。歲甲寅行密陽宗正。戊午法臘十九。示寂于般若。俗齡七十二。法臘五十六。茶毘後二齋。得一片頂骨于十步松枝。淨如琉璃。仍以竪石。銘曰。

余退老于龜谿。習靜端居。谿之東。有銀石寺。頗淸楚。遠方衲子。或來往結夏。金剛山敎淸上人。亦棲止焉。余與之相熟。無異韓之顚。歐之演也。一日淸來曰。淸之師。日庵大師。積願。法器宏大。戒行淸苦。今其塔銘。將上石矣。公可爲貧道汎筆否。余曰否否。吾焚棄筆硏。雖薦紳大夫之請。一切謝之。況浮屠家文字。非吾儒所可浸染者耶。淸蹙然曰。世出世法。自具眼見之。實無異同。雖以先輩言之。若牧隱之於普濟。谿谷之於西山。亦嘗闡揚焉。公何辭爲。余曰朱夫子。見古寺諸祖師畵像。嘆天下人才。爲佛氏掇拾去。爾之道。非吾所謂道。而若其炳靈挺秀。領取本來面目。亦當人其人矣。爾之師果何如。而亦有可徵文字否。淸曰淸之師有文集十五卷。說得天花亂墜。而今不可以殫記。有自敍一篇。淸請誦之。遂誦之曰。客有嘲余者曰。道人無己大自在乎。應之。凡人必有所偏。設若不幸。使吾涉于名利之津。循乎貨貨之路。爾至於觸禍危身。奈救吾何。使吾。內無克念之功。外乏不諍之德。以至於下惡夭命。奈救吾何。或使吾。溺於修眞之訣。鍊永之術。以至於無誠。奈救吾何。或使吾。錯其禪定之規。被他魔外之撓。以至於墮落。奈救吾何。吾今幸得人身。迥超塵臼。不隨彼而自適。無適而不可矣。況遊方硏尋之中。顧何傷哉。所愧者。吾僑形宇宙之間。而才與德。不逮於昔賢者遠。所跂者。壽於安稔。當於遠規。文於什觀。神於誌證。化於慧道。才於馬龍。智於鶖子。說於滿慈。孝於目連。猛於能仁。夫如是。爲吾所慕。餘何求哉。余憑几而聽。不覺灑然。曰爾之師。誠奇男子也。誦其文。不知其惰乎。以此慧識曠觀終乎枯木寒灰。然爾家之敎。達摩太冷。宗杲太熱。爾師自敍。不冷不熱。眞可謂大自在法門也。試言爾師之本末。淸曰師姓金氏。新羅旌善君之後。世居猥川興益。母李氏。夢見日輪臨頂上。以崇禎甲寅。生師于縣東觀佛村。生而不啼。不惱其父母。幼而嬉遊。聚沙成塔。採花爲供。人謂之佛種。得果實。不自啖。歸獻于母。人謂之孝童。十六投覺庵雪祐大師。受剃度。受毘尼敎于金波大士。二十。謁月渚法師。是年謁雪巖大師。巖卽月渚法嗣。而實爲西山之第四嫡孫也。師衣鉢之所自。如是焉。其用工。則自高峰大慧萬法歸一話。趙州無字話。楞嚴。般若。圓覺。拈頌。傳燈。淸凉龜鑑。諸敎集。靡不觸處通透。如

僧雙式也。寄有所懇願。不計道路近遠。敢以見。余曰山人無求於世。又何於余。而辛勤若是。式曰佛敎以無爲爲宗。無爲故無求。然闡明師道。傳之來後。亦法門之所不廢也。今將鐫吾師靈蹟。以夸耀叢林。願得夫子一言。是以來。余曰余儒也。儒釋不同道。吾蔑與爲之力矣。且吾病未能也。爾姑去。式頂禮再三。固要請不肯去。余曰爾師果何人。而感爾之深至此。抑其有永久繼之可稱。妙悟之可言者歟。式曰吾師名淸眼。字法藏。號雲坡。姓全氏。系出旌善。而自麗朝徙居杆城。仍爲郡人。父曰忠亮。母嚴氏。夢呑明珠而娠。既生肌膚香。甫六七歲。即不喜葷葷。見燔炙禽獸肉。輒悲惻不忍食。與同隊嬉戲。必聚沙作佛。人已知其爲世垂也。年十三。入金剛山楡岾寺之大寂庵。服事虛谷大師。虛谷名懶白。春坡堂雙彦之高足弟子。而雙彦。出松月堂應祥。應祥。出泗溟堂惟政。惟政。出淸虛堂休靜。此其臨濟正嫡然也。越二歲。祝髮受戒。遍習竺典。深得祖印。餘事文章。亦超軼其倫。中歲携一笻。遊嶺洲西南。入雲門山結夏。還入金剛。終卓錫乾鳳。積善十年不出。道益高。業益修。丁酉季冬。以徵疾坐化。前若日夢。老宿別去。昇天旣化。顔色如生。茶毘之夜。祥光洞徹。得靈骨一片。藏于石鍾。世壽六十七。禪臘五十三。吾師宗派之端的如此。道力之精進如此。而瑞應之炫煜又如此。俱不可不識。此貧道所以反復申請而不能已者也。余曰爾之舖張叙述。固勤且至矣。然非吾儒所可道也。去矣。吾不可爲已。仍以一語曉之曰。虛無寂滅。佛道云。生兮是假死是眞。當其假時縱有閒。死後宣颺非渠忻。石而文之出儒門。蓋因以反存彝倫。

崇禎甲申後八十七年庚戌四月日立

有明朝鮮國日庵大師塔銘幷序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致仕奉朝賀○○○撰幷篆

通訓大夫前行工曹正郎金相肅書

姓黃氏。卽昌原人也。麗朝徙居杆城。考諱守元。妣鄭氏。夢月輪峯上。感而生。卽康熙己未九月初四日師穎悟絕倫。年至二八。入金剛山乾鳳寺覺岑長老出家。落彩受戒。十九謁雲坡大師。痛懇法要。大師密示心印。顯通宜筌。於是悟解高明。隨處開堂。學者雲集。而戶外屨常滿矣。屈指法胤。則於春坡也。爲第四世。於泗溟也。爲第六世。泗溟是能仁六十四代。臨濟二十六世嫡孫也。辛丑年間。師遊覽諸山。參詣知識。所得法門。尤深尤廣。返入乾鳳。久住鳳庵。日用剋念。唯究密旨。曰元來佛法無多字。何用區々八萬經。自是遐絕世緣。潔累禪池。行門益淨。千林一點之華。可以喩之。他家尙白。而攝化玄々者甚衆。而亦無抑之懷。師一日詰朝謂門人。曰汝等勿以哀泣於我形質不可以久住。而眞靈永劫而長存。乃知化者無常。存者是也。生而無生。滅而無滅。色相雖亡。心靈不泯。奄然而逝。卽乾隆丙寅五月十一日也長往盡報也。六十八祀。鵬顯鶴歸者五十二夏。越初七日。荼毗於寺之西麓。祥光洞徹。鴞鳥驚啞。於是一片頂骨。超在岩畔。班々然五色鮮明。非爛嚼法味者。誰能如是乎。嗚呼美哉。遂爲祇夜。銘云。

佛燈祖燄。東西朗然。分光普照。顯密說傳。誰紹與起。月峯在焉。直示心印。傍通義筌。天圓海濶。月墮山空。松檜憔悴。溪巒悼慟。一片靈骨。五色鮮明。厝乎東麓。塔聳雲庭。紀玆短碣。揭示後來。

天衣拂石。永曜松臺。

崇禎紀元後再甲申五十年歲在祭酉七月初九日立

有明朝鮮國金剛山雲坡堂大師碑銘幷序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李宜顯撰

通訓大夫行龍潭縣令南原鎭兵馬節制都尉洪得福書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敎兪拓基篆

余里居楊州之陶山。日與田更野叟。徜徉阡陌間。忽有緇衣者。詣扉來謁。問之。則曰貧道杆城乾鳳寺

有明金剛山海谷堂大師出世碑銘幷序

雲坡門人月峯禪師雙式撰幷篆

山人翼鵬書

右海谷堂大師出世行狀。其法弟之所記也。其出世之跡。世係譜。有非愚之所敢擬論。而余窃嘗見聞。師之法名處珍。自號海谷。其先羽溪人。徙居杆城。因爲郡之西村人也。考曰述。母曰尹。慶應星光而因娠既生。心無詐僞。率直惟和。垂髫投寺。薙髮因受毗尼大戒。雖無文筆。智略出萃。多衆有綱。及至耄年以南無佛。日事爲行。天命已至。奄然歸定。乃丙午二月初二日也。遂火化。祥光炫煌。道俗出見如市。彈舌嘆服。曰佛法海動尙未泯也。嗚呼不有其動。安有若此之瑞乎。遂得一片靈骨。藏之石鍾。以爲不滅之標。世壽七十有五。法臘五十有七。師之出世。大跡。有旣如是。傳寫垂永。亦其宜也。程夫子顔樂亭銘曰。水不忍廢。地不忍荒。今此立石。與彼同仍。以爲銘曰。

佛來無形。現骨著玄。骨亦藏之。假文以宣。文具懼泯。鐫石永傳。骨耶石耶。誰堅誰眞。行道如此。亦分主賓。誰然同衆。萬古有神。

大明崇禎紀元再己未三月日立

有明朝鮮金剛山乾鳳寺月峯大師碑銘幷序

曹溪宗雪岩門人日菴精頤撰篆

楓嶽門人永虛宇平書

聖上即位之三十年祭酉仲春。月峯之嗣法誼坦。來謁病老。曰吾師樹塔已久。願企一言。以鐫誅石。病老非朱門大家之筆。何以傳示後來。請益堅。余不獲已承其命。謹按大師法諱雙式。字曰世宗。月峯其號

道行如此。其可書也。夫禪方外之學也。其泯迹超俗。以契其所謂三空者。而乃今叢林中。喜標榜庞聚徒衆。務以名高相傾。玆與市朝之人奚別。獨師不然。專其法。不可事外眩生。雖無標異。於人沒有異。驚動緇徒俗衆。使其道。久而彌著。余喜如此。不辭而爲之銘。々曰。法常衣荷餐松。懶殘擁爐消芋。衡岑黯々暝色。六梅實落株枯。唯師混跡緇流。豈亦斯人之徒歟。

皇明紀元後再辛亥六月日立

皇明朝鮮國松岩堂大師碑銘幷序

同宗門弟勝還撰　同宗學後宇平書篆

釋迦氏將示寂。以正法眼藏。付與迦葉。而燈々相傳。西天東土。代各有人。勝國時。太古和尙入中國石室處。得臨濟眞宗。八傳而至西山。廣暢宗旨。六傳而至楓岳。爲東土之名宿。其門人松岩大師。傳鉢承講。浴海之東。悟解稱高。名義泉。姓金。母孫氏。夢日而娠。於丙申十月二十日生。神采俊秀。拔非凡器。十四。詣乾鳳寺。爲釋洽長老弟子。聽律於月峰大師。受業於楓岳和尙。復歷遍知識。道已成。登堂普說。聽徒咸服曰。古慧遠道林。各長才德。今師兼二。未曾有也。嘗講於兜率山。忽夢日沒。而語徒曰。夢日出生者。夢日沒死矣。果於壬午六月十九日。召香湯沐浴而逝。壽四十七。臘三十三。茶毘夜有異瑞。頂骨一箇。超在松枝上。異哉。蓋師之日用。專平等。習勤苦。慈忍絕憎愛。人呼以再來菩薩云。門人塔于兜率。後十年喝于乾鳳。原其狀而銘之曰。

松受楓嶽。其衣其鉢。虎岩之三。西山之八。遺風渺漫。結浪遷廻。匪伊猝哲。就振將頹。化洽金剛。移緣兜率。夢日寄歸。其事恍惚。楹林留迹。自天眞來。兩所鍾碣。光可騰々。岩水決々。雲山蒼々。唯師旨趣。寶月淸凉。

崇禎紀元後辛卯八月日立

師。乃能如是善捨。賴及衆人。豈非如來使人。復出於後五百歲後哉。實謂人中之貴者歟。吾隨喜無量。爲之略記顚末云耳。

歲在大正十一年壬戌之夏流月

蓬萊山人雲坡謹誌

埋水鎔釜獨擔大施主凌虛堂桂明

牧羊堂大師靈眼碑銘幷序

嘉善大夫領經筵事監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吏曹參判兼守李德壽撰

大匡輔國崇祿大夫兼議政府左議政徐命均書

資憲大夫知敦寧府事李徽夏篆

余寄水城之明年甲辰正月。有僧黧而癯。自北方來。住錫于乾鳳之上院。年盖八十四矣。名靈眼。其動作威儀。無甚異於人者。唯日誦彌陁佛號。寺之僧。狎而侮之。或有厭且苦者。未久僧遂化去。荼毘之夕祥光亘天。逮七七齋夕及百日。又連有異瑞。山中緇群。始大驚異。意其非常人也。有童甫兆夢。山神告曰。菩薩身旣化矣。曷不拾其遺骨。而禮厝焉。不者。且有禍。明而適告寺僧。則又大悔懇。衆竟尋之。果得頂骨。於寺南盤石上。五色具焉。況得青色舍利二枚。並塔於寺之東岡。僧徒傳其靈跡如此。余嘗聞而獨心奇之。今歲乙巳夏六月。余屛居城西私第。有僧義英。叩門求見。進而與之語。乃師之高足。將以其師之跡。載之石。而乞文於余。々始詳詢。而得師之始末。師咸鏡道永興府北村人也。俗姓金氏。家世業儒師。八歲出家。受菩薩戒。二十歲奄通經律論。師事回瞥堂洪辨長老。上接淸虛休靜。爲三世孫。內則鎖貪嗔痴。爲戒定慧。外則歷四方明山。恭禮知識。推其餘。又誨後學。如時雨普霑。萌芽競長。師之

爲一大精舍。噫否而泰。興而廢。理之常道。然若無其人。發謀於中。焉有隨廢修補。隨毁復興之道乎可謂三才中。人物爲最。惟我本庵肇建。于今千四百餘載。間經流灾。而若不有上來諸禪師。撥草瞻風。喫辛喫苦之功。豈有今日晏然棲息之餘裕哉。余於文不能。不勝衆囑。乃忘拙略記。

歲在大正十一年壬戌六月上澣

蓬萊人雲坡淨念謹誌

金剛山乾鳳寺樂西庵埋水鑄釜記

夫宇宙之間。人雖爲貴。可爲於可爲之事則貴。若行於不可之行則賤也。然則金銀銅鐵。山林河川。一切萬物。適合於人之所用則貴。亦不合於人之所用則賤也。何物不然哉。惟此樂西庵。肇在三韓古代。名振海東。清風衲子。明眼巨擘。重々出於此。則可謂山中莊嚴道場也。然而山有高低。水有清濁。地有汚穢。人有受用之好惡。其所好惡。在於人之爲不爲也。惟我本庵之諸般受用。聊無所欠。而惟以飲料食水及炊食大釜。爲患者。飲料食水。則自源處至厨中。以木縄地上引來。晝有禽獸昆蟲之汚。冬有氷雪擁塞之弊。雨有泥水雜流之濁。夏有熱水服飲之歎。每當飲時。以是爲憂。而又炊食大釜。則或小或缺。若當齋時。衆多炊飯。不能善造。以此亦爲衆患矣。爰有禪師。凌虛其號也。能發慈心。前年施金百圓。飲料食水。地中埋來。以爲獨擔。今年捐金二百圓。自堂中又添公金三百圓。使滿慮法師。送于嶺南鐵店。最大食釜鑄出。體極大。胷樣甚好。汽船輸來。衆目所視。無不讃美。時乃庚申之夏五月也。掛厨不久。仍爲缺漏。此非造物之猜忌耶。壬戌之春。凌虛禪師又出三百五十圓。金額。躬往于所鑄鐵店。緊托工匠。最大食釜。又爲鑄出。汽船運來。器物之最好最妙。亦使見者。皆發贊心。然則於是乎。飲料食水地中湧出。都無汚穢昆蟲氷雪雜流蒸熱之弊。使渴飲者。如服清凉散。炊食大釜。誠心流出。亦無小缺裂破之欠使炊食者善造。齋時供養。皆得香積飯也。則人誰不思其功。嗚呼五濁惡世。人之貪欲。如火如燄。吾禪

戒。發徵和尙。以爲重修。於是念佛道人。看經衲子。雲集。各得其所。大興眞法。廣化群迷。法不孤起由人弘闡。越至　李朝宣祖大王六年癸酉。泗溟惠能兩古錐。亦爲重修。至　肅宗大王四十一年甲午。龍岩禪師。又爲重葺云。而至於　李太王九年壬辰。碧鳳禪師與鶴林萬化兩公。同心重修。而興廢無常。過六年。至戊寅四月三日。猛風大作。山火忽起。延及寺宇。須臾之間。金沙寶界、便成瓦礫。哀哉。豈擬三韓古刹。忽至於此耶。計其被燒之間架數。至三千一百七十三間。自官廚炊飯作羹。持來饋僧。指揮各面附近。收盖作幕。使失所衆僧。爲先奠接。自本官報營。自本營狀啓。幸蒙天恩。判下空名帖五百張。自營門。勸善文出給。自五斜正。定八道化主。各得鳩財。而都化主碧梧老師。發謀首唱。寶雲、栗岩兩禪師。在京周事。聖鳳、雲溪、石潭、德庵、惠庵、雙月、天鳳、越山、鶴圍、靑庵、甄虛、月松、錦潭義山、鶴山、鶴林、萬化、諸禪師。盟心相應。召木手枕溪敏悅等。以爲營建。而碧梧老師。與萬化俊公先化于嶺南各寺。當夏七月。先建觀音殿萬日會。此即爲明年成造依幕之計策也。己卯春。靈潭禪師。與應湖俓公。建普眼院。夢虛浦蓮兩禪師。建祝聖庵。西庵禪師建靑蓮庵。都化主碧梧、主管聖鳳、僧統雙月、都監雲溪、別坐鶴林萬化、及與大衆。同心戮力。先建大法堂、御室閣、及各公殿。次建本庵。是庵爲山中初祖之地。大衆都集。事務出入之領所也。至重后二十二年庚子。寶雲禪師。恨大房之修飾未了處。及眼目之所得處。更欲得修好。使草庵南谷兩閣梨。投遠近各寺。隨緣勸化。即夏設役。而撤遮陽橫閣。爲向陽正面。斷長椽。續婦椽。亦改作前面分合窓戶。使朝夕禮拜者。或當嚴冬。能免風雪所逼。是以集土猝成之招提。漸至於莊嚴寶閣。至三十九年壬寅春。鶴林甄虛兩禪師。歎別室之未備。及受用處之不洽。欲舉役事。方發詢議。衆所欣然。而鶴林禪師。即余之法恩爺。甄虛長老。亦余之從翁師也。余雖不敏。慷慨師翁之公心至切。欲小分之助於有信檀處。勤々募緣。又添公財。即夏拓基載完。新建南別堂與大門間。又移建南庭之溝邊所有庫間及厠室。亦改修大房後面。從其所用。又翌年祭卯春。並舉大房後佛幀壽及神衆幀壽佛事。至乙巳春。又建雜用槽庫。十六年。有所未盡。於是訖了。則前之率爾庵室。今

之古修。乃羅代法興王庚子六年高句麗安藏王一年。開山先祖。啓運初刱。保管後孫。繼蹟重修。而羅麗時遠不語。越至于　李朝宣祖時。泗溟慧能兩古錐。常在此庵。叅禪看經於當時。中間以來。雲坡、月峰大雲、松庵、牧羊、日庵諸大宗匠。重々間出。高提祖令。廣化迷淪。實爲山中福地。海東勝區。每喜堂宇之永存。可惜土階之頹破矣。當此之時。余佩大本山住持之印。因八相殿石役訖了之際。亦欲以本庵築石之意。詢議于大衆。皆爲欣諾。而用費之策。前日預擬。此等役事。衆各捐義醵金。多年殖利。幾至數千圓。且以臨時大衆。皆捐義鳩聚。其餘不足。公金補充爲計。仍以請工伐石。維佛紀二千九百四十七年歲次大正七年戊申七月。錦庵禪師。爲監董。日々督役。鏡月春湖兩公。爲典財。時々用達。大衆隨喜讚助。寔謂內外協從。影響相隨。至翌年己未秋七月竣功。壞破之階砌。儼爲磅礴。荒凉之道場。便成淨界吁我等若以晏然守默。不能出役於當時。豈有成功於今日哉。願大衆。常在道場。朝以誦貝葉。貝葉祝聖暮以叅活句。活句活佛。畢至於能所雙亡。施受無相。則自然爲上報四恩。下濟三途之大指南者歟。余一日。假寢于長壽山房。有一長老。受大衆之囑。請余以記之。曰余雖不文。與感于大衆之囑。忘拙略記。示諸後昆云耳。

歲在大正八年己未菊秋　蓬萊山人雲坡淨念謹誌

大功德主凌虛桂明大功德主比丘尼淨心

金剛山乾鳳寺樂西庵重建記

窃以本庵。刱在新羅法興王六年庚子。高句麗安藏王一年。梁天監十九年也。此載傳史。而刱建後累經火燼。如干寺蹟。同被刼灾。則羅麗間歷事。未能一々枚舉。而今路據前月峯大師之所撰本庵重修記。則阿度和尙。自麗而來。(代現前却神僧隱現以凡情難測何疑其間)占山容擇吉地。而刱本庵。是爲拓基之始刱建之首。自此人傑輩出。國君愛護。檀走贊助。自然爲法殿湧出。寮舍分列。而及於唐肅宗乾元元年戊

吾力已。且以爲佛之道。慈悲萬物。凡一切含生之倫。思皆以吾心濟之。其心以爲。吾君安乎上。則民安而國土寧。非但旻之徒。得所庇護。雖蠢動蚊喙之微。無不遂其生也。野人食芹而美。思獻諸君。幽之民鼓公缶。而稱其上萬壽者。君子亦取其誠慤焉耳。此萬日院之所以作也。且余思之。人心膠昏。顚倒逐物爭於利害得失。雖力之末。去本愈遠。故雖君親之念。往往忽忘之。如旻之徒。其心本靜。靜故不膠黏於物。方其外物不接。內念不作。枯廬寂淡。無所止宿之際。本根於是乎呈露。如水之流。如木之芽。藹然油然。其必有不能自已者歟。故由其跡而論之。則爲別於名敎。而原其性而求之。往々有魁偉卓絕之行。若睦州西山之事是已。今是老矣。將又七年。其願乃足。然後退。而使其徒守之。使其徒者。無貴賤是求。福利是崇。精修誠篤。一如其師之爲。則使此院。千百年無毁可也。奚止萬日而已哉。碩旻動而有信所施設。無不久遠而成之。與人遊。久而彌篤。來京師。求余文爲記。余未諳浮屠語。因其所感於心者而原其意如此。若院之重修月日。旻自有記。此不疊云。

壬午重陽日　醇溪居士書

金剛山乾鳳寺樂西庵築石記

夫景雖勝景。無甄客。則浪歸於虛地。山是好山。無精舍。則終置於空名。故景上有人。山中有寺。玆有乾鳳之寶刹。金剛之靈區。靑丘之名寺。靑龍白虎爲其擁。水南水北爲其局。古有局內八房六房之蓍列云。水南。則其名曰。樂西庵、迎月堂、桂月堂、送月堂、慧月堂、淸月堂。水北。則其名曰。萬日會、普眼院、澄聽閣、西想室、東想室、含月堂、靑蓮堂、祝聖庵云。而今存四五處寮舍。又有山內諸庵之多處云。其名東有靑蓮庵。南有望海庵。西有白蓮庵、般若庵、上院庵、鳳岩庵、普琳庵。北有極樂庵、大願庵、普門庵、安養大聖庵。其外間々有士窟之名。皆不可記之。而今庵之所存。亦不過四五處。昔日之大衆。千有餘名居之。今之大衆。不過百有四十五之餘。則是爲多經流灾。否泰興廢之常理也。原始本庵

於八萬法藏。立西山之正宗。指東邱之迷道。恣爾順六。憫斯思三。志深慨然。而同人衆議相合。事遂順之。而無妄百靈共拱。蜂花而之東之西。檀有信於懺罪邀福。鵲巢而載前載後。身無思於苦骨勞形。召良匠於南天。市美材於東嶺。斧彼鉅彼。雪姿龍騰於億萬歲寧樂之基。翬斯鳥斯。雲根虎倒於百千秋富貴之地。舞蹈之席。頂禮三世慈父。五濁蒙恩。盍歸乎來。讚賀之辰。口歌百丈弘恩。一堂淸衆。乃得其所。烟霞現瑞。山水增光。信解一來。而一念相應。同開普濟之眼。興供三寶。而三輪空寂。各發當願之心。雨霽菩提園。月滿般若海。聊吟短唱。助舉修樑。

東。四聖六凡君莫別。海不揚波瑞日紅。萬千都是一光中。西。加行期有長中下。三三瑞蕚影相齊。次第隨生路不迷。南。一聲轟霹雲收盡。善財何事百城叅。月滿靑天水滿潭。北。有大聖師演法音。萬二金剛臨斗極。普周十刹微塵國。上。曉來頓入實相門。層音寶帳間森相。無際寒光天一樣。下。說法明光正覺尊。萬里黃金城大野。度諸含識出塵惹。伏願上樑後。帝道遐暢於寰中。佛日普照於世外。野有感戴之願。山無損減之災。魔雲頓消。衆海斯普。

栢广淸秀撰

萬日院重修記

世間大事。惟忠與孝。昔睦州陳尊宿。事母以玉行聞。我東西山師。仗干戈。衛社稷。功載策書。僧徒亦世宗。其敎不衰。信乎忠孝之道。與天地俱生。雖釋氏之不沾沾於名敎。而往往有其人焉。乾鳳寺萬日院者。上人碩旻之所修也。旻與其徒。精修戒律。爲是院。盖日誦佛號。爲吾 聖上祝無疆之壽。今七千九百有餘日矣。原旻之意。非有求於世者也。世或有緇徒衲者。設禍福。飾虛駕說。上以要賞賚。下與愚俗。同其衣食。旻則不爲是也。特以君親之念。根於心。而不可拔。身旣爲僧矣。旣不可爲軍吏文武百執事之任。以彈其筋力於其上。次又不能耕於土。與編戶齒。以供上役。唯心仗佛道。爲吾君靳壽祝禧。是

光武十年丙午　立

大韓帝國金剛山乾鳳寺第二彌陁會緣起碑

大唐憲宗元和三年戊子。化主惠宿法師。與道俗二十一人。同盟結社。而其中。康州阿干貴珍之婢郁面每夕一更。舂米二石。穿掌係橛。隨主精進。至八年己未正月二十一日。忽然天樂西來。瑞相滿空。郁面放大光明。透梁騰去。其穴圓而不漏。遺骨奉肉身臺。讚曰

西隣古寺佛燈明。舂罷歸來夜二更。自許一敎成一佛。掌穿繩子眞忘形。

隆熙二年戊申孟秋立　萬化述

處士金桂花齒舍利塔來歷

原春道麟蹄縣瑞北面龍山里居金桂花。年六十四。本金海。丙午三月向西告家人。曰齒大端痛云云。俄而有文明珠落案下。五色虹繞金剛山。僧驗之方知舍利。歸依佛。以龍溪爲號。以世鏡爲名。乃大仁之嗣法也。有一子出家。號曰運浩。浩奉舍利于金剛南麓下乾鳳之瑞旺洞。以樹石塔也

乾鳳寺普眼院上樑文

恩莫大於三世如來。悲憫生死。而斯道廣濟。功無上於百丈和尙。感傷老病。而其棟始營。紺宮棋布於福地仙區。緇服星羅於香林寶幢。稽考本寺。始開吉祥地。蒙被新羅勝國雨露之沾。迥出尋常基。奉我三朝列星雲漢之照。六八分界。在左在右。威儀爰暢。卅一騰空。乃東乃西。名聞頗多。玆因年深歲久。以致物換星移。鬱攸流災。掃塵於丙午之夏。靈祇告慶。結架於丁未之春。雖喜列院之重新。偏惜此堂之虧舊。每因容膝之際。自多蹙眉之時。爰有我師翁華隱和尙。棒喝交馳。恢及於千七公案。舟筏普渡。揮椶

像。舶海而來。寶雲奉十六像移安。仍爲化主。竣兩殿後燈及丹雘役。又奉旨。移寧邊藥山金口鍾。以官馬馱至。辛巳完和君設齋。造掛佛幡。鑄佛器。化主栗庵。是年夏。萬化寬俊。設蓮會。今二十六年。秋重建普琳菴極樂庵。丙戌。明成皇后。以宮田之在高城郡桂月畔程基洞三坪者。折受屬寺。中官黃公允明奉 旨給量案完文。爲祝香資。另助尙宮洪氏。庚寅重建八相殿影閣爐殿極樂殿及唐廊。化主仁坡萬化雲坡星岩。董役鶴林碧應。辛卯 神貞皇后小祥日設齋。癸巳建獨聖閣。化主丙云。建叅禪室。化主萬化。丁酉 明成皇后大祥日設齋。戊戌慶善宮命下。重建鳳岩庵。化主晦明。己亥又蒙內下。重建鳳棲樓。及丹雘重修大雄殿。佛相衣金。化主應湖。另助尙宮申氏。乙巳春重葺寧府殿。爐燼殿。七月 純明妃小祥日設齋。另助尙宮千氏。寺有世尊成道齋、降誕齋、涅槃齋、及燈燭契、六生等甲契、上堂魚山書應契。則與天地相終始矣。夫宮室庄園。有生者之所托也。以俗家言之。即如石門錫瓦高臺曲池。有成則有毀。乃理之常。至若梵宮僧舍。三世諸佛之所莊嚴。十方檀越所依歸。伽藍那提。後先護持。獨專其壽。非俗家比者。無他。不私於一己也。惟此乾鳳。白馬肇垢。靑鳥升卜。歷三朝千四百載。更三扁三千百間。災而復之。己而修之。耽耽爲一國之鉅觀。鬼鬼作三寶之宗刹。而況迓翠華於蹕路。奉寶墨於仙閣。恩光攸暨。山海崇深。於皇萬年。以介景福。以至長者居士守宰方伯。擧皆讚風樂法。發願檀施。道場之歷舊長新。寔爲不拔之地基也。其可謂盛矣。歲甲午。寺僧寶雲萬化。以文踵門而請。遂節略書之。讚美其開山之始。而垂示來後。與無量河沙。同其年數云爾。銘曰。

維楓之岳。維桑之溟。衆山所宗。百川所滙。佛力齋隆。國恩同大。寺始圓覺。同泰同時。十方住持。彌陁親現。度卅一人。勝廣肉身。寶蓮三會。肇自發徵。嗣有法僧。鷄林鵠嶺。千四百年。應供福田。逮我昭化。玉趾天章。雲門寶藏。華山之分。玉帶之鎭。鳳綬龜印。有施斯化。隨圮輒修。複閣重樓。域中相望。名區巨刹。斯爲第一。丙午暮春。梵衆詢謀。同聲相求。乃勒以績。乃墮峨嵯。樹之山河。撰次以書。繼之以銘。垂示德齡。咨爾神衆。山君海王。衛護無彊。

一人。前後解脫。往在西土。寺北五里。遺蛻之燒臺。零骨尙存。按金富軾所撰三國遺事云。發徵。觀音應現也。又云康州有阿干貴珍。慕發徵芳躅。每到彌陁寺惠宿所。發心念佛。家婢郁面。隨往庭叅。概繩貫掌。精勤不退。有空中敎入堂。未幾從天樂。穿屋樑騰去。遺事所載。即是史筆之詔後者。而發徵之誓願弘深可想也。屬寺有普琳庵。盤陁陟絕。以石柱承軒檻。乃普琳祖師悟道處也。木朝乙酉。世祖東幸至此。駐蹕五日。閱古蹟大異之。定願堂御閣。賜田土。御製願文。親書下之。己丑　睿宗又定願堂。成完庚寅。遣孝寧大君及上黨府院君韓公明澮。封寺之山。東六松亭橋前。南草介險川。西高鎭嶺下二川。北獐項峙外大川。四方十里以爲界。勿侵徭役。明宗庚戌。賜也非吝坪畓十石落。孝宗己丑　又定願堂。肅宗癸亥。明聖大妣。建佛牙塔。佛牙即新羅慈藏法師。入唐淸凉山奉來。泗溟政公。往日本。更爲奉還者也。壬辰水北八房災。重建焉。英祖乙丑。樓前虹橋圮。改築焉。甲辰　貞聖王后。命建八相殿。秋八月內下　肅宗御製折檻圖。丙申。貞純王后。命設國齋。純祖壬戌。有聳虛碩旻。繼發徵遺跡。設蓮會。多瑞相。戊子江原監司鄭公元容。出二百緡。閣泗溟碑。又丹臒其影堂。蓋寺即泗溟落髮之所。而壬辰之亂仗忠募義於此。憲宗丙午。水北公殿僧寮炎。郡守鄭公在容牒報。監司朴公宗吉。啓蒙空名帖三百張重修至丁未訖工。哲宗辛亥。有碧梧侑聰。繼設蓮會。得諸頭陁童子齒眼骨舍利。並浮屠藏之。古稱玆寺。爲千浮屠道塲者驗焉。丁巳郡守李公容學。捐俸六百緡。蠲僧番錢。癸亥郡守李公仁會。給六百緡。蠲紙役得付吏廳。今皇帝乙丑。華隱護敬。設法院。開堂普說。爲江北南第一等講堂。戊寅四月三日寺災。三千一百八十三間俱燼。郡守李公周鈺。以官厨飯僧。令五面民。覆草爲幕庇之。牒報監司洪公在鉉。轉報京師。領議政李公最應。下空名帖五百通。自禮曹。下募緣文。以明年己卯。重建大雄殿、凝香閣、觀音殿四聖殿、冥府殿、泛鍾樓、萬日會、普眼院、樂西精舍、白華庵。化主碧梧寶雲栗岩石潭夢虛靈潭龍湖荷隱翫溟西念越山。監董聖鳳雲溪雙月鶴林。七月。內下五千金及輦旗幟。特命梵雲。主佛寺丹臒後。冬十月。命中官李公敏和。定　萬壽聖節、千秋慶節、祝釐之所。命中官黃壽延。蠲雜役。庚辰碧梧。奉十王

金銀盒綵襚。命建塔而藏之。碑于其傍。

今皇帝十五年戊寅。寺災。碑亦燼焉。越二十七年甲辰。寺之魚山廳梵音禪僧等。恐久而事佚。無以報國恩佛恩於萬一。乃出稧錢。命工治石。將碑之。遣其徒慈月炳云。走京師五百里。求余爲文。余未嘗學浮屠家書。然嘗聞其教。以此世爲浮漚。此身爲皮囊。常欲厭棄之。以火代葬。著爲其家法。夫其身且不恤。何有於千年之骨乎。又嘗聞其說。曰說有者。欲人觀其相。而生善心。說無者。欲人離相。而見自性高明者。體其無。愚夫愚婦。信其有。然而高明者少。而愚夫愚婦皆是也。故必令天下愚夫婦。瞻萬字而起景。仰八相而懺罪。相與棄惡爲善。舍利取義。然則焉可不有其骨乎。夫其有不有之間。吾不能多辨。然世道之不如古久矣。倘使天下愚夫婦。因此而發其善念。以之爲良士。以之爲貞婦。則豈非人國人家之厚幸也。我且聞。梵首禪僧。面壁多年。勤於念佛。一朝奮發。以就鉅役。上爲國家所命。下爲衆生造福是又可嘉也。遂不辭而撰次如右。俾刻諸石。

大韓光武丙午立

大韓國江原道金剛山杆城郡乾鳳寺事蹟碑

大匡輔國崇祿大夫宮內府持進官全城李根命撰

崇祿大夫宮內府大臣弘文館學士驪興閔丙奭書

通訓大夫前行大邱判官羅州丁學敎篆

大韓皇國之東。有山。曰金剛。秀麗名勝。聞於天下。佛宮僧寮。環山而居者。無慮十百計。以杆城之乾鳳爲第一。新羅法興王七年所搬建。時梁天監十九年庚子也。凡三易名。始爲圓覺。在高麗曰西鳳。今稱乾鳳。蓋以寺之西北隅。有鳳石故名云。至唐肅宗乾元戊戌。新羅景德王十七年。有發徽棟樑和尙。設萬日蓮會。至二十九年丙寅。滿萬日。而阿彌陁佛現身。度頭陁三十一人。肉身騰化。與香徒九百六十

百古貫今。獨尊於天下者歟。或曰第一會。見佛直身。第二會。開空中音。第四會。只得舍利。無乃今不及古。愈降而愈衰者乎。此大不然。昔我如來。應世化緣。同其時。有親嘱咐者。有分遣弟子應化者。有學人自證而自入者。跡雖殊。而理則一也。今寬俊。以願力。繼其芳躅。苟能一念精苦。時節因緣。果熟蒂落。則又安知不有蛤蜊之菩薩、粥鏟之文殊。親降接引。超陞上上品勝果歟。寺僧雲坡大運。將記五度蓮會故事于石。永鎮山門。走維那五百里外。謁余爲銘。余作而曰。善哉美哉。此歷三代千有餘載。未遑之盛擧也。且以自結東林之緣。托名爲幸。玆按其古蹟所記。節略書之。而繼以銘曰。

至道之宗。自西而東。白馬馱經。榛棘始通。東而又東。鷄林之國。渤海滄波。怳峯黛色。天作勝區。烈山一方。西北之維。丹鳥若翔。乃降異人。直超大乘。烟附景從。善士高僧。阿闍法日。震旦慧月。馳光走彩。咸萃于一。無量光佛。左右補處。弭節道場。摩頂香侶。恒河倒流。輕風引帆。珠幢花蓋。縹緲掩斂。生天成佛。佛命往生。種因得果。如形隨形。丫者徹舂。龍女前超。髻者叅供。月光後邀。列星匪高。大地匪廣。百刼人間。一瞬天上。千年古刹。眞佛過處。三山五嶽。詎同日語。閻道虹亘。塔鈴雨紛。有屹穹碑。上罩祥雲。八部隱現。萬品依歸。我作是銘。詔後緇衣。

光武八年甲辰三月日立

金剛山乾鳳寺釋迦如來靈牙塔奉安碑

正一品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議政奎章閣學士勳一等海平尹容善撰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前贊政潘南朴箕陽書幷篆

唐貞觀十二年戊戌。新羅僧慈藏入唐清凉山。奉釋迦頂骨舍利齒牙袈裟數珠而還。藏于五臺鷲棲獅子菴來四山。本朝壬辰之難。日本人以爲寶持去。其後甲辰。僧泗溟。啣命入日本。遍尋而奉還。分藏于諸寺。而靈牙十二枚。藏杆城之乾鳳寺。蓋寺即泗溟之師信默卓錫之所。爲關東最勝之區也。肅宗癸亥春。內下

悲泣懊惱。相謂曰我等不知作何罪業。獨未得往生乎。更加精勤。曉夜匪懈。又七日夜半。阿彌陁佛。復以船謂棟樑言。我以本願力。故迎汝與俱往也。棟樑謝而泣曰。若檀越有重罪。無往生分。誓入地獄。代受其苦。永滅其罪。使人人盡往生。然後當往生也。佛言止止。三十一人。上品下生。其餘汝宜先往。蒙佛授記。悟無生忍。智慧神通。還到人生。乃能度盡。棟樑聞佛敎勅。信受稽首。即奉佛足。上船往生西方淨土。其後至高麗。改固城爲烈山縣。寺名西鳳。于時有康州阿干長者。再設蓮會。與二十一人。同心誓願。阿干婢子。日舂一石米。供奉作務。以餘暇。隨大衆念佛。一日夜。於庭中左右釘橛。貫掌繩次。忽空中有聲曰。精進女。何故不入道場。速往赴也。主阿干及道場衆。一時驚悚。命女赴道場。時其女。一念精勤。至三七日。肉身騰起。透穿屋樑。去五里許。棄身而往淨土也。寺北五里許。有燒身處磊塔。遺蛻尙存。其後。屋樑之透穿者。自合而不漏相傳。棟樑蓮會時。有監院犯戒。轉身作浮石寺牛。載持華嚴經。如是身轉爲女。以供養念佛人因緣。獲是報云。以上第一第二蓮會。俱載本寺故蹟。至本朝。改烈山爲杆城郡。寺爲名乾鳳。英宗壬戌。有聳庵碩旻和尙。設第三蓮會。多瑞相。惜事佚不可攷。哲宗辛亥冬。有碧梧聰和尙。設第四蓮會。與同志靈岩就學東化竺典二公。矢心廣募。不數歲。二公遷化。碧梧獨力勤苦。香徒雲集。至四年甲寅夏。會得頭陁永守齒珠二。潤宜齒珠、錦允齒眼珠各一。五年乙卯。直覺呂玉閣維後。因放瑞光。收拾靈珠拾七。六年丙辰四月。海月快俊齒珠一。七月善日宜活齒珠各一。童子申應俊叅供養訖齒珠一。前後合二十六枚。皆樹石鍾以藏之。古謂本寺爲千浮屠道場者。至是而符。人莫不異之。至二十九年己卯。而訖功焉。越二年。我奉天承運皇帝陛下御極十八年辛巳。萬化寬俊和尙。設第五蓮會。建叅禪室。今二十四年。以故事徵之。過五年。可以告竣矣。嗚呼大法之傳於東土久矣。自石趙姚晉。以及江南慧遠諸人。或有會。或有社。莫不强求玉要。普結善緣。未聞有證正果獲瑞應如是者。此發徵同時。支那則南北分宗。衣法南行。逮乎能公。順世淸源思南岳讓永嘉覺諸祖師。分化各方。其慧根玄解。立佛地位。後世宗之。亦未聞有親蒙接引往生者。然則海東萬日之會。其可謂直接靈山龍華。而

是閣。至今日而復舊之樣。有此神。有此僧。亘千秋而垂不朽之名。故遂爲之記。

光緒癸巳流月哉生明　砥山散人林鳴善

大韓國杆城乾鳳寺萬日蓮會緣起

崇祿大夫議政府贊政內部大臣兼弘文館學士　趙秉弼撰

崇政大夫議政贊政農商工部大臣　金嘉鎭書

通政大夫前行大邱判官　丁學喬篆

經曰。此去十萬億刹。有世界。名須摩提。譯云極樂國。有佛。號阿彌陁。譯云無量壽。寔上承賢劫七佛。下度苦海衆生之大聖人也。維時唐肅宗乾元戊子。新羅國固城縣圓覺寺。有僉徵大和尙。法諱棟樑。住持山門。發誓弘願。請頭陁僧貞信良順等三十一人。搬設彌陁萬日蓮會結香徒千八百二十八人。千七百人爲粥飯施主。百二十人。爲衣服施主。每歲歷諸家家。出米一斗香油一升五綜布一端。爲長年供具。至二十九年丙辰七月十七日夜半。大水暴漲于道塲門外。阿彌陁佛與觀音勢至二菩薩。乘紫金蓮臺。至門前舒金色臂。接引念佛大衆。大衆咸見。歡喜踊躍。得未曾有。于是佛領大衆。上般若船。唱四十八願。往白蓮花世界。令生上上品。時棟樑。巡到金城。宿良茂阿干家。是夜大光明。普照其室。棟樑驚起。與良茂阿干及家內男女出見。觀音菩薩。現身告棟樑。曰汝道塲僧。蒙佛接引。西方淨土上上品生。速往見之言訖遂隱。棟樑欲即往。良茂曰我師最初發願。謂如我愚迷等先度然後出世。我等亦謂二十九年。頗有徵勞。今日何得棄我等。獨自往也。擧身擗地。哭泣不已。棟樑乃率良茂等。往見三十一僧。肉身騰化。心生欣慶。向道塲千三百餘拜。然後茶毘之。因行歷香徒家。則九百十三人。與道塲衆。一時端坐而逝。餘九百七人尙存。棟樑還至道塲七日。又見阿彌陁佛。持船命同載。棟樑白言。我香徒。猶有未度者。獨先往者。非本願。佛復告言。十八人。可上品中生。其餘復令往業熟。然後來度也。告已遂隱。香徒聞之。

則衆心相應。一是落成。八月梵雲堅。自京山來。丹雘殿閣暨幀繪而畢。明春師設聖殿王殿之丹雘。仍補其相。書其幀。冬十一月。特下寶墨。定三殿誕辰上祝願堂。香幣齋需。凡諸日用之具。皆自上賜下。欽奉賊旨。齊修葵誠。偉矣盛矣。何幸有之。噫佛爲今古唯我之獨尊。寺是人間無如之樂土。況乎金剛名稱甲於一國外天下。此寺乃卅一人騰空之道場。如經云。其地堅固。金剛所成。又六千。道成於言下。玆非與之儔歟。然則列聖剏聖址梵刹。壯麗乎一新改觀。是信爲地之靈神之護。雖聾盲人。亦可覺知者而寺其庶幾乎。在餘執務之功。細瑣之役。存則存矣。幷不能舉悉。師以是之而裁而量也。余謹受遂爲記。

光緒十五年秋七月下澣

佛宗刹院長米叟寶雲旦葉謹識

金剛山乾鳳寺樂西庵山神閣重建及丹雘記

有名山則有大刹。有大刹則有神祠。余嘗於古史遺文見之矣。今夫靑邱之東。有名山金剛。千里一脉。遵海而南。逶迤蜿蜒。至水城郡西二十里許。聳然而特立。蔚然而深邃。峯巒羅列獻奇。林壑縈繞呈美。其上有一大刹。名金剛山乾風寺。寺之南。又有樂西庵。此寺此庵。搬在新羅。由來百千載。或隨頹圮而重修。或被回祿而重建。今復煥然如新。此寺之所以擅名於海東者。良有是也。余於是日。爲一消暢。與主倅李公。暇日登覽。轉遊至庵。庵之西。有一屋子一間新搬者。問諸主禪。曰山神閣。此閣與此庵搬設之所共立者。而其神靈異。人之有願者。求之則必應。不幸於戊寅春經燼之後。以其寺之力。纔成一間。不及數年。東傾西頹。非唯此庵住禪之慨嘆。過人行客聞其言而亦爲之嗟嘆。乃者有沙彌道三桂明等。與同志十餘名。各辦一緡銅。殖利數歲。僅至百餘。今夏方爲經始。而以若所辦之物。計其所用之費。杳沒繪素之計策。是所衆緇之憂嘆者也。李公特念普施。助給三千葉銅。亦勸傍人恭施。庶幾有補於丹雘之事。此豈非天公之會事。而山靈之陰助耶。是知其事有其時。功待其人也。嗟夫。如此名山之內。有是庵。有

神加威護。恩液時復隆彼。而護常扶律之師。架肩繼踵。則固知此寺。與天地相終始也。亘葉。愬々焉夬履貞屢。矯々乎厥孚交如。賁研幾居。行誠希濶何階所嗟寺之陳蹟。悉付蕭邱。果文獻無徵。何迺質推古蠹凡過數禩後。如煢々星繁者。編之爲一尻。猶海蠡勺。可脫人哂。其具眼隻。倘或注意取諸。

光緒十年甲申閏月上澣

世尊眞身塔廟寂滅寶宮守護釋品第一都院長寶雲亘葉謹誌以書留諸本寺

領議政李公最應　巡相洪公在鉉　郡守李公周沃　壽進宮次知李公敏和　尙宮淸信女河氏淨德慧　淸信女尹　功德雲　知事金潤鍾　主簿李禧源　知事李一壽　主簿劉天赫　知事金忠範　化主碧梧有聰　荷隱例珂　石潭志禧　幻應善昕　梵雲就堅　靈潭芙淵　西菴肯宗　夢虛普宜　翫溟心舟　慶波琪奕　天鳳妙允　月山三熙　寶雲亘葉　比丘奉直　監董聖鳳定安　雲溪敬行　住持雙月昌信　木手枕溪敏悅

畵師慶船應釋碧山榕夏

克期功成同願蓮胎

金剛山乾鳳寺重刱記

聖上二十六年己丑休夏日。聖鳳老德語余。寺之重刱。十有餘禩。因循子今。文無可徵於可畏。當究其原。撮其要。庶垂來日之指南也。且多諸德之囑。曰可。則余間遊乎三山道峯者。三十年於此。恐未知爲役事之大略。須以善說及之。老德言然。云戊寅四月三日。獰風大作。山火倏然。紺殿祥寮三千餘間架。沒入爵攸之灾。其愕然慘酷。曷尙勝言。官爺走報。巡相啓請。時相國筵奏。劃給六千餘金。春曹成八垓募緣文。碧梧聰。謀諸化士。同聲盡其力。雙月昌信、鶴林宜還干檢。而雲溪衍與吾。爲董役之總督。明年二月。召敏匠等數百工匠。營作御室閣、大法堂、觀音殿香爐殿。鱗次冥府殿、靈山殿、鳳棲樓、泛鍾閣、樂西庵、及廥廠之屬。俾萬化俊。建萬日蓮院、叅禪方丈。靈潭珠。策應潮佺等。造普眼法院。普琳

妙允。皆徒中錚々者。和光塵區。扇動檀那。敬行定安董其役。昌信總督住持。宜還干檢日費。同是事知人也。衆務各散。普合同謀。明年春二月。召工黽勉。敏悅率徒數百。伐毛十圍。舉羽千嶂。建御室閣、大法堂、各紺殿、及以法院、蓮社、與樓觀寮舍。同日經營。儘可巨役。皆爲傑搆連雲。暈飛曜日。如天兜率。可上帝攸居。迺魯靈光。寔人間稀有。頗增壯麗。信品前制。鱗次廊櫃齋厨庫廠之屬。咸具悉備。而肯宗茸青蓮。普宜修白華。奉直繕極樂。普琳則衆心歸一。並見落成。自內帑出萬錢。令就堅。丹雘御室閣、大法堂、觀音殿。又就諸各位後幀。大王大妃殿下賜萬錢。令亘葉。丹雘冥府殿四聖殿。又造十王像。補缺各位後幀十六聖。改彩各位後幀。兼以種々畫成。時乃利得。怳若五雲玲瓏。四花繽紛。上聞工匠之畢。佛事之成。定爲祝願堂。七月二十五日。大殿誕辰也。九月二十五日。坤殿誕辰也。二月初八日。東宮誕辰也。每自香幣。命壽進宮賜下。欽奉 賦旨。或遵科敎。咸集鴈衆。齋修葵誠。寧以微悃。能報洪恩。恭唯主上殿下。丕膺天休。聖作欣瞻。九五之飛。多亨神運景行。適丁千一之會。體 聖祖親幸之心。尊崇允副。念邦家永樂之旨。祝釐克尙。大業同周岳盤石。睿算等莊園長春。咸曰百神啓祐。可占萬慶畢至。中宮殿下。關雎雅規。椒蘭徽英。慈恩億兆。願戴己之堯。惠化至聖。擅壼內之御。麟趾相承螽羽。金枝益茂玉葉。事天。孰憂灾眚之或至。奉佛。將見來考之無彊。世子邸下。仁降靈粹。俊秀神武。銅錢合瑞。共兩儀而衍吉。鴻体爭光。並二曜而儲祥。壽算若地久。德譽與天長。世嬪邸下。貞慤融姿。純禧合儀。襲國封之重。必得祿嗣珠基之業。俾爾熾。俾爾昌。東朝殿下。女中舜眷。閫內伊周。承上天眷佑之休。德覆八表。贊下民涵育之化。慈蔭萬暈。文治武偃。永無邊鐸之鳴霄。風調雨順。常有野謠之擊壤。以至執務善男。助緣信父。一生種五福。因酬至誠所感。十程降百祥。果驗冥應不差。監董僉德。募緣化士。同慶喜之深心。生々爲上首人。效月蓋之法供養。世々依了義敎。功德河沙界量。盛頌塵墨刼數。得其時易昌。待斯人允成。可謂大塊一吹。空者喁穴者晌者也。噫理之往而復。事之廢而興。可信於古。可見乎斯。然發徵祖師。玆設阿彌陁念精進。千浮屠誓願力。等法界性。無有邊際。佛慈垂憫。

向佛前。御製發願文。御筆　御諱安　御寶。暨　大王妃殿下　王世子扈從文武群僚　五日駐蹕。爲設佛供作法之前。粲若梵呗。如圖繪跋陁耶之樣式。仍命定願堂。建御閣。於是風雲動色。草木生輝也。因行宮。遊海上。車馬之音。羽旄之美。使山巔水涯之民。何幸見未曾有之盛事。而庶衢之謠。南風之絃。遂致東方所無之太平。睿宗大王。下敎敦諭。又定願堂。逮至　成宗大王。以此寺爲兩聖願堂刹。且疇昔倍大駕臨覽之地。遣大君大臣大官　備考　先王之蹟。環寺山十里。賜牌封標屬寺。田地與結常歛之稅。並下王牌。皆得求免。孝宗大王。潛邸鳳林大君時。入啓賜下十石畓。以爲常住之資。卽祚之明年。特定願堂。英廟朝。又降御筆。奉安御閣。幸哉梵刹騰輝。亘千古而維舊維新。有松雲大師。號曰泗溟。白密州故山。至此薙髮乎愼默大德。住錫多年。學高解明。當龍己之變。仗節募義。効勞王室。其豊功偉烈。國之所誦也。往日本時。贖獲世尊齒牙舍利。還奉鷲棲山通度壇塔。又十七枚齒牙。則銀塔分藏。樂西庵者師之本寺。而其後霜月匪業。攻石屠塔。安齒牙于寺之西麓是矣。純祖朝庚辰。鐙虛碩旻和尙。重設蓮院克期萬日而終。此勝緣相資。寶運交泰也。憲宗朝丙午四月。水北鵝殿與翼寮。忽被囂攸之灾。伏蒙　領下重建之典。仙岳文與諸上士。協從盡出力。依舊制改製。辛亥冬東化竺典。碧梧有聰。同聲相應。三設萬日肆。庸行之謹。旁善世而提牖歟。我　聖上二年乙丑。華隱謹敬講伯。自雪峰來掫會講之院。開堂普說。通方之師子相響。若雲行雨施。窃念實坊旣蘇。法事俱興。自謂神應夙著。道樣遂奘。云誰不祥。距敢流芳。戊寅四月初三日。天遺火頭金剛。跳突山扃。條然俱時連燒八相殿、眞影閣、樂西庵、慧月堂、越及御室閣、大法堂、四聖殿、觀音殿、凝香閣、叅禪室、延賓館、萬日會、普眼院、鳳棲樓、泛鍾閣、含月堂、靑蓮堂、白華庵、靑蓮庵、普琳庵、上院庵、極樂庵、安養庵。慘矣昆明灰燼。奈此金田瓦礫之。有列聖朝揮涕之悲。又無兩足尊稽首之所。傷心兎葵燕麥。滿目衰草寒烟。郡守李公。官炊而餉。巡相洪公。啓請以典。時相國李公筵奏。自上給空名五百之帖。春曹有募緣八垓之文。定化主侑聰。上洛陽。例珂募海西。心舟往關北。政俊之湖南。三熙行錦湖。亘葉則亦叅在關西之緣。善昕、志禧、芙淵、琪奕、

216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金剛山乾鳳寺事蹟及重刱曠章總譜

我聞梵語枳達。譯云金剛。甲天下之名山。在海東之東。特立瘦骨。萬般奇形。邃而疊重。壯且雄圍者州如郡縣。可以十數邑。劉野之量也。然勝地別境。塵不能染。俗莫敢累。惟伽藍與蘭若。星羅於中。靈鷲之鍾響。梵魚之呪唄而已耳。主乾之逶迤南來。而百餘里。有甘露峯。勢下二十里。如龍蜿轉。向南天又東津。忽利見大人。還住在玆。而縈迴一洞。別開兩邊。其山之勝。水之麗。況孕毓楓岳乎。其北吞吐雪山五臺之南正。此天以利之秘。地尤固之藏。豈意青鳥善觀。發識白馬拓址。按前史。帝梁天鑑十九年即新羅法興王七年庚子。邑號古城。寺名圓覺。一與同泰之興。而至高麗烈山縣時。更扁曰西鳳。雖名殊事遷。道場嚴麗。依然金剛所成也。粵我 朝。揭爲乾鳳者。乾隅有石鳳。翩々下詔々九成之來儀。故以名之。稽古唐肅宗乾元戊子。發徵祖師。設萬日禪院。念彌陁聖號。請善知識貞信良順等三十一頭陁。與香徒契之叅同。自爲緣化之主。從玆聖號之稱。萬日之會。寔我東方始教。而願共依歸者。其儻不億。僧非白業。勤念積功。至二十九年。不覺水漲。彌陁大聖。與二菩薩淸淨大衆。乘龍船。坐蓮臺。三斯光臨三十一人。肉身騰空。與九百六十一人香徒。同時俱往上々品生。則再時毫相之徵。瑞相之感。滿天匝地六種交集。復有康州阿干婢之在彌陁會中。日舂石米。隨他匪懈。乃其掌撅。有空中教赴玆道場。專一念三七日。忽透穿屋樑。騰空去五里許。棄其身。與同誓二十一人。直向蓮坊。其後穴密而不漏。實希有思議之表也。然則天鍾中正。首出餘慶。俾所修勝願行。乃同趣有緣土。後先騰空。少多往生。是皆發徵化度無數億人於九品上。一住次第者乎。偉哉。何會人如發徵之主化也。又能有如是會是契之名稱。普聞十方刹耶。早如玆寺。南洲之即白蓬華界。發徵祖師。爲我等人之眞一佛出現也。且普琳古錐。止修解行於公案上。聾耳之玄學。掉舌之妙義。盡源底徹得去。仍以名庵。存諸舊績。扁西鳳時。多有解錫降鉢之專徵。駐車鎭帶之遺芳。想載前人之述。曾經契媼。而當成化元年夏四月。惟我世祖惠莊大王。東幸此寺。

自本宮。圖署公事于本道營。自監營。知委本郡。本寺之徭役。毋論大小。永爲革罷之意。圖書完文二卷。一置本邑。一在本寺。永久遵行。則何幸莫重　國恩。豈敢圖報於萬一哉。庚辰六月。化主侑聰。往咸鏡道德原武達寺。十王尊像。擔來于元山浦口。因其順風。一日之內。來泊本邑巨津浦。卽日移安于本寺。七月寶雲堂亘葉。令法子持擎送至寧邊藥山棲雲寺。金口一座。自本府所經列邑。刷馬到本寺。八月化主亘葉。又因得畿伯金公輔鉉。知委於長湍官本府心腹。十六羅漢尊像。移安于本寺。十月　大王大妃殿下趙氏。爲　完和君仙駕。賜下千金。命臣僧亘葉。作十王佛事。王大妃殿下洪氏、敬嬪邸下金氏宮禁巨室信男善女。抑有龍潭及安興館之同參。明年辛巳春三月。起始十王殿十六殿丹雘改金塗彩。幷造十王羅漢後幀。至四月初六日。告厥竣功。初十日。完和君生辰也。特下設齋。輦一座具莊嚴。陽傘、旗幟、燈籠、寶帳、卓衣。與所入、一一令僧知悉。董其事。又遣臣劉聖鍾監齋。五月化主侑聰及幻應堂善昕。同心建普琳庵。沙彌奉直。建極樂菴。又明年壬午四月。尙宮申氏極樂華。爲薦預修於本寺。新造佛器及齋時所用之具。新鑄器皿。工錢四百金施給。而其弟申長連錫孝。躬參齋席之壯觀。仍爲發心。千六百餘金。大補於難掉之餘。且鏡波堂琪奕。自募得中鍾及大甑。留諸時用之矣。幸哉偉哉。此豈非佛護而神助歟。第念朝家曠絕之恩。本宮軫念之惠。天長地久。營邑顧護之澤。檀越捨施之願。山高海深。如不碧梧寶雲之化行。幻應梵雲之願力。及此鏡波諸禪師之傾葵劃一。焉可有濫觴之妙道。又非聖鳳雲溪雙月宜還僉和上之執塵合議。寧能成覆簣之方策。吁且嘻矣。然被災之後。物無餘存。文無可徵。若欲原始要終。莫如廣記備言。故叅互一一推考。則本寺卽列聖朝定願堂賜牌之年紀。優加賜送之恩典。對對實有。班班可據。而今又定。三殿誕辰。爲祝願堂之所。香幣之需。所用之物。此莫非自上賜送。而　聖址守護何等所重歟。玆成顚末。貽厥可長。所冀。雖復經千載。如昭在目前耳。

光緒八年壬午五月日　行郡守

四月初三日申時量。獰風大作。山火忽起於本寺丙丁方數十里之外。霎時間連燒至寺。先自普琳庵。上院庵、八相殿、樂西庵、慧月堂。越燒御室閣、大法堂、香殿四聖殿、寅府殿、普眼院、鳳棲樓、泛鍾閣、萬日會、觀音殿、眞影閣、延賓館、叅禪室、含月堂、靑蓮堂、白華庵、靑蓮庵、極樂庵、安養庵、涅槃堂、養老房、合三千一百八十三間。及傳來之古蹟。寺山之叢林。盡入於昆明之地。佛像露地。僧徒失所。慘慘之狀。曷復成言。本郡守李公周鈺。先自官廚。炊飯作粥。使官屬。負至寺塲。聚僧饋之。一一犒好後即令梧峴、大垈、海上、郡內、旺谷等五面。各持盖草。開基結搆大幕。被燒間架。修成冊報營。巡相洪公在鉉。即爲狀啓。又親作勸善文三軸。使之募化道內。又爲下帖本邑儒鄉中。優數助給。以爲始役之資。五月初五日。領上閣下李公最應。重拜出仕日。爲本寺筵稟蒙允。特下空名帖五百張。又自禮曹。出給八道勸善文。自五斜正所通諭。都會於興仁門外塔洞彌陁寺。望定八道化主。勤勤鳩財。而本寺都化主碧梧堂侑聰。盟心首唱。爰召枕溪堂玟悅木手。率其徒百餘名。當歲七月始役。先建觀音殿及萬日會。越明年春二月。主管聖鳳堂定安。都監雲溪堂敬衍。僧統雙月堂昌信。別座鶴林堂宜還等。自爲主張。先建御室閣、極樂殿、四聖殿、寅府殿、鳳棲樓、泛鍾閣、香爐殿、普眼院、樂西庵、白華庵、靑蓮庵、至十月畢役。雖宏壯嚴龐。比前倍品。所建則不過三分之二也。是年三月。我　主上殿下五百金。王妃殿下五百金。世子邸下五百金。又有　大王大妃殿下趙氏百金。王大妃殿下洪氏百金。雲峴宮四百金。領議政李公最應二百金。兵判李公載元百金。判書閔公謙鎬二百金。畿伯金公輔鉉百金。判書尹公滋眞百金。戶判金公在昱百金矣。於是壽進宮次知臣李公敏和。收給化主臣僧梵雲堂就堅。又自　大內輦一座、引路轎、陽傘、各一件。淸道、巡視、紅令、靑令、各一雙。燈籠二雙。卓衣窠帳等賜下。而就堅併持至此寺。七月起始御室閣。大法堂。觀音殿丹雘、及幀畵。一時並擧就成。十月又定　兩殿誕辰、世子宮誕辰。爲祝願堂。從玆二月初八日、七月二十五日、九月二十五日。渾寺諸僧。虔設齋會。奉爲　眞壽無疆之祝。封菓進上、占書進上于壽進宮。進　御。又有願堂寺刹。勿侵徭役。特爲令次知臣李公奉審。傳敎施行。

賜千金。重修釋迦如來齒牙奉安九層石塔。乾隆十年乙丑。鳳棲樓前虹橋水圮。己巳改造。十九年甲戌。貞聖王后徐氏。建八相殿。定願堂。秋八月。英宗大王。賜肅廟朝御製折檻圖。奉安御室閣。願堂寺刹。勿侵徭役。四十一年丙申四月。貞純王后金氏。特設國齋於本寺。遣提臣李仁培。監其齋。五十三年戊申。本郡守李公最源。入侍時。梨子早霍進上。筵奏蒙允。永爲革罷。嘉慶元年丙辰。巡相徐公。有坊巡歷。駐節於此。奉審御閣。憂其將頹也。出廩二百緡。亦令道內僧軍。四日赴役。以爲重修。四年己未。巡相南公公轍。製泗溟紀蹟之碑。出二百緡。又出勸善二度。募財道內。以相其役。二十年己亥。本郡守李公海魯。減其徭役。二十五年庚辰春。孝懿王后金氏。賜送平床。奉安御閣。道光二年壬午。本郡守金公鎔六年宋公在誼。以紙役與雜役。減之又減。餘存無幾。八年戊子。領府事鄭公元容。按本道時。出廩錢二百緡。一以營泗溟碑閣。一以助影堂丹雘。蓋泗溟大師之功存邦國。國人之所謳歌相頌。而此寺即泗溟大師落髮本寺也。當壬辰時。仗節倡義於此寺。而生前眞影、願佛、銀塔、袈裟、念珠、馬上長衫、烏銅香爐、鐵杖、木橇鞋等物。皆在於此寺故也。至道光二十六年丙午四月十一年夜半。忽被鬱攸之災。水北各公廨寮舍。一時沒燒。本郡守鄭公在容。牒報營門。巡相朴公宗吉。卽爲狀啓。請得空名帖三百張。又爲發關道內。募緣鳩財。令道內僧軍。五日赴役。越明年丁未訖役。又明年戊申。純元王后金氏。賜千金興寢帳卓衣等物。令臣僧東化堂竺典。恪勤奉行。咸平三年癸丑。本郡守徐公有畕。賜牌五結零沒匿邑案中者。查出一結。以給於本寺。七年丁巳。本守郡李公容學。出六百緡。付之作廳。以本寺僧番錢七十兩零自作廳擔當上納。同治二年癸亥。本郡守李公仁會。使本寺辦備六百兩。永防紙役。五年丙寅九月。本寺僧永起。以泗溟大師酬忠請額事。上言入啓。啓下禮曹。自禮曹發關本道監營。自巡營。以其泗溟大師事蹟一一詳查之意。發關本郡。郡守李公寅正。招致該狀。頭僧永起。參互爰辭。屢考實蹟。修成冊報營矣巡相曺公錫輿。以爲乾鳳。卽泗溟落髮之本寺。效忠樹功之所也。遺像遺物。尙在此寺。則僧徒輩。冀蒙恩典。欲爲崇奉者。容或無恠。具由狀 啓。逮至光緒四年戊寅。卽我 聖上殿下臨御之十五年也。不意

十年之內。日日祝　聖歲之萬歲。日日誦彌陁之萬聲。三十年之外。我與法界生靈。共乘寶筏。咸登彼岸天壤之間。豈多有如是之慶哉。

金剛山乾鳳寺事蹟

窃以本寺。掫自新羅法興王六年。卽天鑑十九年庚子也。初掫此寺。名圓覺。卽古城縣也。越唐肅宗乾元元年戊戌。有發徵法師。設彌陁萬日會。至二十九年丙寅。績功匪懈。三十一人肉身空之實蹟。具載傳史。而高麗烈山縣時。更扁名曰西鳳。今乾鳳寺者。乾隅有鳳石。故又名焉。粵惟成化元年乙酉四月十一日。我　世祖大王。東幸時。到此寺。五日駐蹕。定願堂。建御室閣。賜田畓。以爲佛供作法之所。御製御筆。同叅願文。曰凡我同契之人。旣生淨信。勿作妄惑。妄惑生處。皆是緣塵。緣塵之聚。重濁成山。塹竟限碍。輕清無日。若欲除之。叅錙幷用。猶如大海。羅蚊同飮。悉得充足。勿爲自棄。欲竭漂沉。善提結實。其在慈焉。署曰承天體道。烈文英武。朝鮮國王李御諱。安玉璽。奉安于本寺。願堂寺刹。勿侵徭役。五年己丑。睿宗大王。仰體　先聖之志。又定願堂。下敎敎諭。願堂寺刹。勿侵徭役。六年庚寅。成宗大王。特遣孝寧大君。臣補。輸忠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兼經筵春秋館事書雲館事世子師高靈府院君臣申公叔舟。輸忠衛社協策靖難同德佐翼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上黨府院君兼判兵曹事江原道黃海平安咸吉道體察使韓公明澮。進勇校尉趙公興洙等。備考　先王之蹟。特賜奴婢採蜜船鹽盆等。環寺山四方十里。封標定界。東至十里六松亭。南至十里草高介下險川。西至十里古津嶺下第三川。北至十里獐項峙。願堂寺刹。勿侵徭役。嘉靖三十一年壬子。鳳林睿安兩大君。入啓承傳。臣河公善弼。次知傳敎內。乾鳳寺。列聖朝願堂寺刹也。所重自別。本郡也非客十石畓劃給。以助香火矣。萬曆三十年壬寅十月。懿仁王后朴氏。復給復戶五結。順治六年乙丑。孝宗大王。又定願堂。重建　御室閣。願堂寺刹。勿侵徭役。康熙二十二年癸亥三月。明聖王后金氏。賜千金寢帳卓衣之汁物。雍正二年甲辰。又

鳳寺古萬日會之事。衆皆請余曰。古發徽和尙。設萬日會。至有三十一人。肉身騰空云。事甚靈異。播傳人口。尊師傾誓海。卓盟山。而重設新萬日會於舊萬日之場。以濟末運之迷淪。則豈獨使發徽。專美於古哉。余曰發徽。可謂其人。而遇其時焉。當其限滿。親見彌陁。三一禪和。肉身凌空而西。今之時。不及其時。今之人。不及其人。則安敢望古之時與人也。固辭。諸釋請益勤曰。師安知乎師非其人。時非其時也哉。於是與霽峯大師。晏官同知。共結誓願。作勸疏二軸。峰老官師。留京師而募得善緣。余於至月日還本寺。以是言通於寺中。衆論不同。然成大功者。不謀於衆。吾其力焉。可先始講法之堂。而次邀念佛之人也。因以巨鍬。定都監。以運悟入允等。看別座。蓮坡大師。摠幹其役。而伐材。即辛酉三月三日也作募緣文五軸。分送南北。余自袖勸疏。第向南方。漸至永川銀海等寺。所募之錢。近至千金。豈非佛佑聖助之力哉。四月日。在嶺南未旋。而役所財路有乏。鍬與官等。束乎無策。事將中道而廢也。於南所得之物。轉輸致寺。財路始得。坦然因成九仞矣。南之募貨已畢。六月十八日到寺。蕭然新閣。有若落空。余觀之自喜曰。念佛之堂。不累月而如是告成。念佛之人。何待三十年而登空乎。猶或有目笑而腹誹者。幸事之未就。人非我也。安知我也。又豈以人言而我退也。遂卜日而落成之。八月北漢寺國齋時。嶺南影波法老傳。乘馹至京師。叅 齋席。乃承命之行也。余亦叅席。齋後因迎歸老傳。而又與霽峰和尙。共還之日。霽峯師記萬日會之古蹟。達乎 九重。九重雖深。微誠有感。自 殿中。賜青銅二百。黃金六束。使之成寶幀。而紅緞帳二件、紅緞陽傘一件、注黃燭百雙。以資奉佛之具。又賜二百緡鋼。貿香供聖。又賜百五十緡銅。限百日。爲 新上祝壽。影波霽峯蓮坡三和尙。又與衆多禪和。開百日供佛之場。諸大衆誦彌陁。祝 聖壽之萬歲。老和尙。講華嚴之大經。獻 寶齡之無彊。癸亥春。又賜二百緡銅。再設百日佛供。繼下金露滴大紅燭二雙。建袈裟佛事於萬日道場。前後 賜送。二度百日之命。悉爲我 聖上寶齡無彊而然也。一與晦雲之夢。何其相符也。由此觀之。質直影直之理信矣。河海之渥。普洽於雲山。雞伏巖穴。麋鹿等隣。豈不讖傾葵芹之誠。盡華封之祝哉。幸值太平之盛世。熹成千古之雅事。難事限萬日三

222 -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원문

碑銘融。以至於畢竟之空。山與寺尙不立。況堂乎。堂尙不有。況堂中人乎。無境無人。蕩蕩然者。卽是圓覺大伽藍畢竟空寂舍也。此舍不借人功。本來成就者也。但以人不知。故見成見壞。見新見舊。盖此桂月堂者。與此寺並興。此寺之創。旣不知其幾年。此堂年紀。又何識之。己巳之夏。惟見湛然子載敏蕊菊重搆而已。粤乾隆丙子冬夜。忽失火。不救盡燒。而丁丑春。召良工。伐美材。迄季夏。始告成。間架則皆準於前。而端美實倍增於舊。非一堂衆發矢心。各出財盡其力。焉能致是。況華谷道人。克其志。而獨求化助。功盖多者乎。然從來人與法。俱無我。誰是成之者。誰是施物者。云何是所施之物。云何是所成之堂。堂尙不成。何況識之者乎。華谷雖請余記。那容點雪於大紅熠裡乎。

時乾隆二十三年戊寅桐秋　　某人識之

新創萬日會事蹟日記

太淸嘉慶庚申六月二十八日。我

聖上正宗大王。遽昇蒼遐。國中如喪考妣。雖在深山窮谷之殘氓。豈有遠千里而不奔哭哉。余於八月。舍悲携苦。轉向京師。將於因山之日。望大輿。欲遣天崩無涯之痛。然　因山之日。隔在至月日。故往來於華溪晦雲之間。待日矣。忽於晦雲九月十三日之夜夢。路側　聖上與春宮。作康衢之樂。俯伏而俟。上顧謂小臣曰。盍爲新　聖上呼萬歲。臣惟對惟命而已。春宮曰。汝已祝慶。無以大貲。汝可持此而去。卽以一篇　宸翰。投于前。臣稽首擎出。百拜揚言曰。臣猥以蟻螻之蹤。得沾河海之渥。臣當殞首結草。仰報萬一耳。轉眄之頃。乍夢乍覺。通宵如是。翌朝。不勝感隕摧咽之至。謹以一絕。敬識其事云。夢侍鑾輿玉路傍。威顔咫尺語琅琅。曙罷高呼忽驚起。弊衲依然襲　御香。其翌日。望月　國齋。被招躬詣。而叅席焉。夢與昨宵。小無毛差。兩宵同夢。實爲神異。噫夢者覺之影也。覺者夢之質也。質直影直。理之常然。夢有如是之異。覺豈無如是之異哉。心喜自負。八垓講匠禪伯。多會齋筵。閑論時事。語及於乾

釋迦如來齒相立塔碑銘並序

蓬萊山春坡第二世雲坡門人

月峯禪師雙式撰書幷篆

聞夫於過去世。慈藏法師。躬入西國。而得釋迦如來頂骨齒牙舍利及金點袈裟若干。藏之於梁山通度寺未知其幾千年之由來矣。中間倭來取去。舉國失望。泗溟大禪師唯政。奉使于日本。還取齒相一十二枚。藏之於乾鳳寺之樂西庵。人皆珍玩者。亦閱年禩矣。衆曰佛法墜殘。人輕法輕。則不可發外而奉安也。衆謀堅塔。各出物財。請工伐石。安居于寺之西麓宜安之處。雖云釋道之夙願。亦爲萬世深遠之長久矣。可謂奉佛之誠。增深密密者也。於是雲欣水悅。僧顚俗倒。凡諸見聞者。莫不興敬。眞古今罕有之勝因緣也。然則施財檀越。執役僉員。鍊石良工。使佛寶牙。重光於今日者也。嗚呼美哉。雙會不揆不才。謹拜稽首。而爲之銘曰。

是我大覺。人天之師。示滅西天。建塔忉利。八萬周國。有緣東土。寶牙奉之。有麟之角。以鮮山門。所立卓爾。人皆敬之。龍天護祐。國之美矣。萬世榮風。從古不滅。

皇明崇禎紀元後一百年太歲丙午六月日立

金剛山乾鳳寺新成桂月堂記

山也以金剛爲名。有堅有利。寺也以乾鳳爲號。有質有文。夫桂月者。虛空能出沒。有時白。有時黑。圓缺自由。此堂之額。特以此者。深有以。蓋欲令人。因之而修。以至於無悟無修之域耳。是故古今人夜話翫月詩。或云可爲供養。或云可爲修行。末後一人。拂袖而去。得非斯體。堂建。則奚但金剛中有乾鳳乾鳳中有桂月乎。亦可桂月裡有乾鳳。乾鳳裡有金剛矣。若更展轉。微細推究。即一即三。非三非一。無

乾鳳寺古記錄

肅宗大王御製

朱雲折檻圖序

昔在孝廟朝。宰臣李行進。以節使副价。赴燕都。偶得此圖。具疏投進。乃朱雲折檻圖也。成帝之色厲朱雲之慷慨。善形容於一幅之中。雖謂之妙筆。亦不過矣。漢自建始以來。王氏執國命。國勢之危。不啻累卵。方是時也。吏民多上書言灾異之應。譏切王氏專政所致。成帝之意頗然之。至幸張禹之第。辟左右問禹以天變。仍以吏民所言王氏事示禹。此正漢室轉危爲安之一大機會。而禹爲帝師傅。附下罔上。以成常之昏愚。安能察其言之邪佞乎。由是不復疑王氏。他日莽賊之簒位。未必非張禹啓之也。通天之罪。可勝誅哉。槐里令朱雲。以微末小臣。上書求見。請借尙方之劍。欲斷佞臣之頭。直氣可謂凜凜也。成帝不惟不納忠言。反加威怒。當御史之將雲出也。漢廷公卿。皆畏王氏之威勢。嘿々無一人敢言者。若帶左將軍辛慶忌之免冠力爭。雲必不免於死矣。千載覽圖。令人感慨也。惟我 孝廟。暨我 先王。常置斯圖左右。時時觀。。意甚盛也。意甚盛也。今予展玩于高堂者。匪曰嗜書。蓋體 兩聖之意也。遂自作贊。書諸上面焉。昔者西京。外家擅朝。太阿倒柄。主勢潛銷。憂疑未決。枉讒不泛。禹乃圖全。忠直是欠。有一介臣。其名曰雲。忠憤所激。意在悟君。雷霆震擊。不摧不折。攀檻大呼。言辭彌切。嗟哉高名。重於泰山。求之歷代。蓋亦罕看。

歲次屠維赤奮若陬月之日書

鳳岩

鳳岩庵의北에在하니 鳳形의石이 斷崖絕壁에危立하야 奇觀을呈하나니라

普琳洞

寺로부터 普琳庵에至하는中間에在하니 洞天이幽閒하고 泉石이淸洒하야 자못仙界를作하니라

燒身臺

發徵和尙의萬日會에서 念佛하든 三十一人의 往生燒身臺니 二千九百四十二年에浮屠를立하야 善男善女信仰의 表的이되나니라

乾鳳寺의眞影

發徵和尙眞影　淸虛堂眞影　泗溟堂眞影　楓嶽堂眞影　影波堂眞影
月峰堂眞影　樂虛堂眞影　松岩堂眞影　聳虛堂眞影　大雲堂眞影
性圓堂眞影　松坡堂眞影　樂貧堂眞影　松源堂眞影　影海堂眞影
夢月堂眞影　錦城堂眞影　雲溪堂眞影　浩然堂眞影　眞覺堂眞影
應雲堂眞影　麒峰堂眞影　鳳溪堂眞影　仙嶽堂眞影　鳳林堂眞影
碧梧堂眞影　聖鳳堂眞影　仙閣堂眞影　碧岩堂眞影　華隱堂眞影
靈潭堂眞影　圓惺堂眞影　蓮藕堂眞影　仁坡堂眞影　石潭堂眞影
楓溪堂眞影　夢山堂眞影　慧庵堂眞影　碧潭堂眞影　源湖堂眞影
鶴林堂眞影　雙月堂眞影　萬化堂眞影　靑庵堂眞影

乾鳳寺의名所

九折瀑

白雲洞의下流가 紆回九折하야 瀑沛가되니 高는約四十尺이오 其傍에臺가有하야 澤堂李植이 此를企挹臺라名하니 風光이明媚하고 氣韻이淸爽하니라

○○堂浮屠　牧羊堂浮屠　雲坡堂浮屠　月峰堂浮屠　華隱堂浮屠　松岳堂浮屠
雲岩堂浮屠　錦月堂浮屠　靑岩堂浮屠　眞覺堂浮屠　松虛堂浮屠　○○堂浮屠
○○堂浮屠　眞浮堂浮屠　馴羊堂浮屠　影雲堂浮屠　碧河堂浮屠　海岬堂浮屠
河雲堂浮屠　明眞堂浮屠　石坡堂浮屠　松華堂浮屠　白雲堂浮屠　月谷堂浮屠
洪然堂浮屠　龍岩堂浮屠　大印堂浮屠　大梵華浮屠　龍峯堂浮屠　龍波堂浮屠
震海堂浮屠　井源堂浮屠　遺　骨浮屠　林幸復浮屠　惠能堂浮屠　信默堂浮屠

乾鳳寺의碑

佛靈牙塔碑　佛齒相塔碑　泗溟堂碑　大雲堂碑
萬日會緣起碑　聳虛堂碑　日庵堂碑　碧梧堂碑
雲坡堂碑　牧羊堂碑　月峯堂碑　海谷堂碑
松岩堂碑　萬化堂碑　乾鳳寺蓮會碑　乾鳳寺事蹟碑
凌波橋碑　六松亭虹橋碑　石橋造成題名碑　大小行人下馬碑
觀察使朴宗吉碑　觀察使趙鶴年碑　郡守李最源碑　郡守李容學碑
郡守徐有畬碑　郡守鄭在容碑　郡守金鎔碑　郡守李海魯碑
郡守朴敦浩碑　郡守宋在誼碑　郡守李冕翼碑

鐵　杖

右三品은　泗溟의遺物

大　鍾

二千七百年(朝鮮顯宗十四年癸丑)에　鑄成하니　重이一千七百斤

折　檻　圖

砷碾茶盤

右二品은　朝鮮肅宗의下賜品

烏銅香爐

朝鮮純祖時에　王大妃金氏의下賜品

乾鳳寺의塔

佛舍利塔　浦岩堂塔　金柱花塔　崔氏舍利塔　月光童子塔　月城堂塔

同時舍利塔　桂雲堂塔

乾鳳寺의浮屠

淸潭堂浮屠　井波堂浮屠　抱雲堂浮屠　震谷堂浮屠　龍眼堂浮屠　日庵堂浮屠

石峰堂浮屠　楓嶽堂浮屠　海雲堂浮屠　夢月堂浮屠　霽峰堂浮屠　東峰堂浮屠

乾鳳寺의土地

土地		地價
社寺地	七、三四〇坪	四四、九一一圓〇三
畓	五〇七、八八三坪	三、一二一圓三五
田	一六四、五二七坪	一圓一九
雜種地	二九八坪	二〇〇圓九八
垈	四、四八六坪	四八、三三四圓五五
共計	六八四、五三四坪	

乾鳳寺의林野

林野	一八四〇町三一〇六
雜種地	四六一四

乾鳳寺의寶物

鍍金願佛

鳥銅香爐(小型)

乾鳳寺의 建物

大雄殿 九間　八相殿 九間　觀音殿 三間　四聖殿 六間
冥府殿 六間　獨聖閣 三間　山神閣 一間　丹霞閣 一間
眞影閣 六間　泛鍾閣 一間　鳳捷樓 十四間　普濟樓 六間
大持殿 九間　東持殿 十二間　西持殿 九間　御室閣 六間
御香門 三間　東　庫 三間　樂西庵 百六十八間　極樂殿 百六十五間
萬日院 八十九間　普眼院 五十八間　禪　院 九間　圓寂庵 十二間
事務所 十三間　不二門 一間　旅　館 十三間　葬儀庫 三間
城隍堂 二間　水砧室 二間

共計 六百四十二間

屬庵의 建物

普琳庵 九間　鳳巖庵 三十二間（山神閣一間入）
白蓮庵 六間　白華庵 二十八間（山神閣一間入）
極樂庵 四十九間（山神閣一間入）

共計一百二十四間

東臺庵 廢庵)

二千七百三十五年(朝鮮肅宗三十四年戊子)에 廢하고 二千八百七十三年(丙午)에 火하니라

望海庵(廢庵)

二千八百五十五年(朝鮮純祖二十八年戊子)에 廢하고 後에 廢하니라

隱禪庵 靈龜庵 捿鳳庵等은 廢의 年代가 未詳하고 古址만 有하니라

寺의東十五里에在하니라

白蓮庵(廢庵)

二千三百八十六年(高麗恭愍王八年己亥)에 刱하고 二千七百五十三年(丙午)에 毁撤하니라

普門庵(廢庵)

二千三百八十六年(高麗恭愍王八年己亥)에 刱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災하니라

大願庵(廢庵)

二千三百八十六年(高麗恭愍王八年己亥)에刱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災하야 後五年에 比丘尼性允淨心이重建하고 二千九百十五年(戊子)에災하니라

日出庵(廢庵)

二千四百九十二年(朝鮮世祖十年乙酉) 에 玄鵬이刱하고 二千六百十九年(壬辰 의兵火에廢하니라

安養庵(廢庵)

二千六百三十三年(朝鮮宣祖三十九年丙午)에 惠能이刱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火하니라

二千九百三十三年(大韓光武十年丙午) 에蓮湖大師ㅣ刱建하니라

般若庵(廢庵)

一千五百六十年(新羅法興王二十年癸丑) 에刱建하야 二千八百七十三年(丙午)에災하니 古址는 寺의西一里에在하니라

靑蓮庵(廢庵)

一千九百七十二年(高麗惠宗二年乙巳)에 刱建하고 二千六百三十三年(丙午)에 信默이重修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災하야 翌年에 西庵이重建하고 二千九百十五年(戊子)에災하니 古址는 寺의東約八里에在하니라

大聖庵(廢庵)

一千九百七十二年(高麗惠宗二年乙巳)에 刱建하고 後에廢하니 廢墟는靑裳峰下에在하니라

寂明庵(廢庵)

二千一百八十八年(高麗毅宗十五年辛巳)에 刱하고 二千六百三十三年(丙午)에 惠能이重建하고 其後約一百七十年頃에廢하니 古址는 寺의南遊仙谷에在하니라

菩提庵(廢庵)

二千一百八十八年(高麗毅宗十五年辛巳)에 刱하고 其後에廢하니 古址는

乾鳳寺屬庵一覽

普琳庵

一千五百六十年(新羅法興王二十年癸丑)에 刱建하고 二千五百五十年(癸未)에 普琳禪師ㅣ重建하고 二千九百七年(庚辰)에災하야 翌年에 碧梧幻應兩師ㅣ重建하고 二千九百二十四年(丁酉)에 鶴林龍成兩師ㅣ 重修하니라

白華庵

一千八百七十二年(新羅文聖王七年乙丑)에 刱建하니 一名祝聖庵이라 二千八百七十三年(丙午)에災하야 二千八百八十五年(戊午)에 石潭夢虛兩師ㅣ重建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災하야 翌年에重建하니라

鳳岩庵

一千九百七十二年(高麗惠宗二年乙巳)에 刱建하고 二千七百六十九年(壬戌)에 海雲이重修하고 二千九百二十五年(戊戌) 에晦明이重建하다

極樂庵

一千九百七十二年(高麗惠宗二年乙巳)에 刱建하고 二千九百五年(戊寅)에災하야 後四年에 沙彌奉直이 重建하다

白蓮庵

寒岩禪伯을請하야 無遮禪會를設하다

二千九百五十年(癸亥) 十月에 盧霽峯이 住持에被任하다

二千九百五十一年(甲子) 鳳林學校를廢하다

二千九百五十二年(乙丑) 寺務所를重修하고 極樂殿과萬日會의附屬舍를重建하다

住持霽峰이 寺用을節約하야 寺債一萬六千餘圓을 辦償하니 寺中으로부터住持에게 賞品을贈呈하다

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 十月에 李大蓮이 住持에被任하다

二千九百五十四年(丁卯) 佛敎專門講院을設하고 公費生三十人을養成하다

佛像七位를改金하고 葬具舍를建하다

圓翁德性이 化主에被選되야 第五回萬日會를 繼承하다

二千九百四十年(癸丑) 平壤府에 布敎所를設하얏다가 未幾에廢하다
二千九百四十一年(甲寅) 九月에 李雲坡ㅣ 住持에被任하다
二千九百四十二年(乙卯) 三十一人燒身臺에 浮屠를設하다
杆城郡에 布敎所를設하다
二千九百四十五年(戊午) 八相殿과樂西庵의道場을 石築하니 錦岩鏡月兩師ㅣ 監役하니라
二千九百四十六年(己未) 凌虛景海兩師의監董으로 極樂殿道場을築石하다
極樂殿의水道를埋設하다
雲坡和尙이募緣하야 中鍾五坐와 佛器三十坐를 備置하다
樂西庵의丹霞閣을 築石하다
十一月李大蓮이 住持에被任하다
二千九百四十七年(庚申) 不二門을建하고 迎賓館別室을建하고文殊橋를新架하고 山映橋를改修하니 凌虛大師ㅣ 金千圓을奉納하야 費用에充하니라
鳳棲樓萬日會曾眼院萬石階의 築石을竣成하다
樂西庵의水道를埋設하다
二千九百四十八年(辛酉) 仁川에 布敎堂을設하다
鳳林學校를設하다

翌年에 鳳鳴學校를廢하다

二千九百三十五年(大韓隆熙二年戊申) 第四回萬日會를回向하니 七日立精進으로 盛大히擧行하다

錦岩宜重이 第五回萬日會를設하다

二千九百三十六年(大韓隆熙三年己酉) 戊午甲子兩契에서 六百圓을出하야 東爐殿墻垣을築하고 萬石階東邊을築石하다

二千九百三十七年(大韓隆熙四年庚戌) 普眼院과東持殿의墻垣과水閣을 建造하다

二千九百三十八年(辛亥)六月에 朝鮮寺刹令이 發布되야 住持制를立하니 九月에 趙世杲ㅣ 住持에被任하다

迎賓館을建하다

二千九百三十九年(壬子) 寺法을制定하니 本寺는禪敎兩宗大本山이되고末寺는左와如히定하니라

百潭寺(麟蹄郡) 神興寺(襄陽郡) 洛山寺(襄陽郡)

禾岩寺(襄陽郡) 靈穴寺(襄陽郡) 明珠寺(襄陽郡)

壽陁寺(洪川郡) 鳥啼庵(高城郡) 深谷寺(楊口郡)

上海로부터 新刊大藏經一部를購入하야 奉安하다

雄殿佛像을 改金하다

二千九百二十八年(大韓光武五年辛丑) 極樂殿南別堂을建하다

萬化和尙이 行化募緣하야 畓十石落을買入하야 普眼院에付하다

二千九百二十九年(大韓光武六年壬寅) 樂西庵의南別堂과玄關을建하고 附屬舍를移建하다

翌年에 大房後佛幀을繪成하다

二千九百三十一年(大韓光武八年甲辰) 晦明大師ㅣ 畓四十斗落을 寺中에 獻納하다

二千九百三十二年(大韓光武九年乙巳) 冥府殿을 重葺丹雘하고 爐殿을建하다

純明皇后의小祥齋를設하다

樂西庵의庫房十六間을 新建하다

夢山大師ㅣ 畓八十斗落을 獻納하다

二千九百三十三年(大韓光武十年丙午) 寺蹟碑를立하다

魚山廳梵音契의主務로 釋迦靈牙塔奉安碑를立하다

鳳鳴學校를設立하다

蓮湖大師ㅣ 白蓮庵을刱하다

二千九百十二年(朝鮮高宗二十二年乙酉) 雲坡大師ㅣ 募緣金으로 大雄殿
觀音殿、冥府殿、四聖殿의門子를 改造하고 大雄殿後面을 築石하다
二千九百十三年(朝鮮高宗二十三年丙戌) 明禮宮의土地를 買入하다
二千九百十五年(朝鮮高宗二十五年戊子) 靑蓮庵과大願庵이災하다
二千九百十七年(朝鮮高宗二十七年庚寅) 仁坡、萬化等이 八相殿、眞影閣
爐殿、極樂殿을 重建하다
二千九百十八年(朝鮮高宗二十八年辛卯) 神貞王后의小祥齋를設하다
梵雲和尙이 佛의齒牙를 天安廣德寺僧에게得하야 八相殿에奉安하다
二千九百二十年 朝鮮高宗三十年癸巳 鏡月이 獨聖閣을重建하매 西峯이
丹雘하다
二千九百二十一年(朝鮮高宗三十一年甲子) 圓寂庵을重建하다
萬化大師ㅣ 叅禪室을粧하다
二千九百二十四年(大韓光武元年丁酉) 明成皇后의大祥齋를設行하다
鶴林龍成兩師ㅣ 普琳庵을重修하다
二千九百二十五年(大韓光武二年戊戌) 晦明大師ㅣ 慶善宮의命을承하야鳳
岩庵을重修하다
二千九百二十六年(大韓光武三年己亥) 化主應湖ㅣ 鳳棲樓를重建하고 大

朝鮮高宗이 三殿(大殿、坤殿、東宮)誕辰을爲하야 願堂을定하고 敎旨를下하야 一切徭役을 革罷하다

二千九百七年(朝鮮高宗十七年庚辰) 凌波橋ㅣ圮하니其石材를 大雄殿石階와 山映樓修築에 移用하다

普琳庵이災하다

碧梧和尙이 德源武達寺로부터 十王像을移安하니라

寶雲和尙이 寧邊捿雲寺로부터 金皷一坐를 移來하고 長湍心腹寺로부터 十六羅漢像을移安하니라

大王大妃趙氏ㅣ 完和君의靈을爲하야 千金을賜하사 十王佛事를作하니라

二千九百八年(朝鮮高宗十八年辛巳) 萬化寬俊이 第四會念佛萬日會를設하다

碧梧、幻應兩師ㅣ 普琳庵을重建하고 沙彌奉直이 極樂庵을重建하다

十王殿과十六殿을 丹雘하고 十六羅漢의後幀을 造成하다

二千九百九年(朝鮮高宗十九年壬午) 尙宮申氏ㅣ 預修齋를設할새 四百金을奉納하고 其弟長連이 一千六百金을奉納하야 佛具를造成하니라

碧梧、幻應兩師ㅣ 普琳庵을重建하다

比丘尼性允、淨心兩人이 大願庵을重建하다

本郡守李周鉉이 官厨로부터 飯羹을炊하야 官屬으로하야금 寺에運搬하야 僧侶를饋하고 附近五面의人民에게 盖草를徵發하야 臨時住宅을 經營하니라

政府로부터 空名帖五百張과 八道勸善文을 頒下하다

乾鳳寺重建의大事를 籌辦하기爲하야 五斜正所(開運寺、重興寺、奉恩寺、奉先寺、龍珠寺)로부터 通諭를發하야 東大門外彌陁寺에 會合하야 八道化主를 左와如히 望定하니라

碧梧侑聰(都化主)(京 城) 梵雲就堅 (京畿道) 越山三熙 (忠淸道)
漢隱政俊 (全羅道) 龍湖海珠 (慶尙道) 寶雲本葉 (平安道) 荷
隱例珂 (黃海道) 翫溟心舟 (咸鏡道) 栗庵、石潭等 (江原道)

是歲에 觀音殿과萬日會를 重建하다

二千九百六年(朝鮮高宗十六年己卯) 大雄殿、御室閣、四聖殿、冥府殿、泛鍾閣、香爐殿、普眼院、樂西庵、白華庵、靑蓮庵을重建하다

王室과各宮과各宰輔로부터 佛具와金品을 多數寄贈하다

七月에 大雄殿御室閣觀音殿을 丹雘하고 後佛幀을 造成하다

大王大妃趙氏로부터 萬錢을賜하사 寺僧寶雲으로하야금 冥府殿、四聖殿을丹雘하고 十六殿의後幀을 繪成하다

二千八百八十年(朝鮮哲宗四年癸丑) 本郡守徐有畬ㅣ本寺賜牌土地中의 地稅五結餘의 邑案中에隱匿되얏든者를 査出하야 其中一結을本寺에還付하다

二千八百八十四年(朝鮮哲宗八年丁巳) 本郡守李容學이 自俸六百緡을出하야作廳에付하고 其利息으로 每年七十餘兩씩 南漢山城에納付하는 本寺僧番錢을代辦케하다

二千八百八十五年(朝鮮哲宗九年戊午) 祝聖庵이災하다

翌年에 寺僧石潭、夢虛ㅣ 祝聖庵을重建하다

二千八百九十年(朝鮮哲宗十四年癸亥) 本郡守李仁會ㅣ 私俸六百緡을出하야 의紙役을寺本 永防하다

二千八百九十二年(朝鮮高宗二年乙丑) 華隱講伯을請하야 講院을設하니此后로 講鍾이不絕하니라

二千八百九十四年(朝鮮高宗四年丁卯) 信女金氏極樂華ㅣ 佛香畓十石落을獻納하다

二千九百五年(朝鮮高宗十五年戊寅) 四月三日에 山火로因하야 寺庵三千一百八十三間이 全燒하다

時에 鶴林和尙이 火를冒하고 八相殿의三尊佛像과 鳥銅香爐와折檻圖等을救出할뿐이니라

二千八百四十五年(朝鮮純祖十八年戊寅) 貴嬪林氏ㅣ灯籠日傘令旗等을 寄贈하다

二千八百四十七年 (朝鮮純祖二十年庚辰) 孝懿王后ㅣ平床을賜하야 御閣에置하다

二千八百四十九年(朝鮮純祖二十二年壬午) 本郡守金鎔이 本寺所供의厚紙三卷、白紙七卷、雜紙三十餘卷、籠骨四駄를 燭減하다

二千八百五十三年(朝鮮純祖二十六年丙戌) 本郡守宋在誼ㅣ 本寺의雜役을減하다

二千百八五十五年(朝鮮純祖二十八年戊子) 泗溟의影閣을建하고 丹雘하다 望海庵을刱하다

二千八百七十三年(朝鮮憲宗十二年丙子) 水北의公殿寮舍二十一棟이 全燒하다

翌年에 化主仙岳이 募緣하야 此를一新重建하니 政府로부터 空名帖三百張을 寄贈하고 道內僧軍으로 五日을赴役하다

二千八百七十五年(朝鮮憲宗十四年戊申) 純元王后ㅣ 金品과汁物을賜하야 寺僧東化로祈禱를行하다

二千八百七十八年(朝鮮哲宗二年辛亥) 碧梧侑聰이第三回萬日會를設하다

仁培를遣하야 齋를監하다

二千八百十五年(朝鮮正宗十二年戊申) 本郡守李最源이 上奏하야 本寺의 進貢을革罷하다

二千八百二十三年(朝鮮正宗二十年丙辰) 江原道巡相徐有坊이 廩錢二百緡을出하야 御室閣을重修할새 道內僧軍을徵發하야 四日을赴役하니라

二千八百二十六年(朝鮮正宗二十三年己未) 江原道巡相南公轍의發起로 泗溟禪師紀績碑를立하다

二千八百二十七年(朝鮮正宗二十四年庚申) 寺僧聳虛碩旻等이 泗溟酬忠閣과 泗溟碑閣과 御重樓를 刱建하다

二千八百二十九年(朝鮮純祖二年壬戌) 聳虛ㅣ 第二回萬日會를設하다

二千八百三十一年(朝鮮純祖四年甲子) 王妃金氏ㅣ 金千金과烏銅香爐烏銅花檀陽傘等을 賜하사 聖壽를祝하다

二千八百三十二年(朝鮮純祖五年乙丑) 王妃金氏ㅣ國齋를設하고 金字大屛과華嚴經一部를賜하다

二千八百四十二年(朝鮮純祖十五年乙亥) 本郡守李海魯ㅣ 本寺의詳定貸下錢五百緡과 族徵의弊를 革罷하고 所供厚紙六卷을減하고 還俗僧의貧富를隨하야 徵贖하는法을 設定하다

白蓮庵을毁撤하야 靑蓮堂을建하다

二千七百六十二年(朝鮮英宗十一年乙卯) 寺僧緇淑、了泄、楚淸等이 送月寮를重修하다

二千七百六十九年(朝鮮英宗十八年壬戌) 海雲大師ㅣ 鳳岩庵을重建하다

二千七百七十二年(朝鮮英宗二十一年乙丑) 鳳捿樓前의石虹橋ㅣ圮하다

後二年에 石虹橋를重修하다

二千七百八十年(朝鮮英宗二十九年癸酉) 信士智海와信女智慧ㅣ 十王像을重修하다

二千七百八十一年(朝鮮英宗三十年甲戌) 貞聖王后ㅣ 尙宮李氏安氏를遣하야 釋迦像을造하고 八相殿을建하야 願堂을定하다

八月에 朝鮮英宗이 肅宗의御製折檻圖와御筆書를賜하야 御室閣에奉安하고 徭役을免하다

二千七百八十三年(朝鮮英宗三十二年丙子) 桂月堂이災하다

翌年에 寺僧華谷이 桂月堂을重建하다

二千七百九十二年(朝鮮英宗四十一年乙酉) 寺僧玄鵬緇洽이 六松亭白雲橋를重建하고 碑를立하다

二千七百三年(朝鮮英宗五十二年丙申) 貞純王后ㅣ 國齋를設하고 別提李

二千六百七十七年(朝鮮孝宗元年庚寅) 朝鮮孝宗이 敎旨를下하야 願堂을
定하고 御室閣을重建하다
二千六百七十九年(期鮮孝宗三年壬辰) 桂月堂이災하다
後二年에 寺僧尙眉、大云、大奎、旻英等이 桂月堂을重建하다
二千七百年(朝鮮顯宗十四年癸丑) 寺僧修洽道律等이化主가되야 大鍾을鑄
하니 重이一千二百斤이라
二千七百十年(朝鮮肅宗九年癸亥) 明聖王后ㅣ 佛帳과卓衣를賜하고 千金
을賜하야 佛像을改金하다
二千七百三十五年(朝鮮肅宗三十四年戊子) 凌波橋의碑를立하다
東臺庵을粧하다
二千七百三十九年(朝鮮肅宗三十八年壬辰) 水北八房이災하야 仍即重建하
니 時에水北八房水南六房이有하니라
二千七百五十年(朝鮮景宗三年癸卯) 寺僧文奎ㅣ 六松亭石橋를架하야
二千七百五十一年(朝鮮景宗四年甲辰) 住持彩寶ㅣ 九層塔을建造하야 佛
의齒牙를奉安하니 明聖王后ㅣ 千金을賜하다
二千七百五十三年(朝鮮英宗二年丙午) 釋迦齒相塔碑를立하다
六松亭石橋를重建하고 碑를立하다

二千四百九十七年(朝鮮成宗元年庚寅) 朝鮮成宗이 孝寧大君、申叔舟、韓明澮、趙興洙等을 派遣하야 奴婢와採蔈場과 墟盆을 下賜하고 四方十里로 寺山을定하다

二千五百五十年(朝鮮中宗十八年癸未) 普琳禪師ㅣ 乾鳳寺와普琳庵을重修하다

二千五百七十九年(朝鮮明宗七年壬子) 朝鮮明宗이 敎旨를下하야 畓十石落을賜하다

二千六百十九年(朝鮮宣祖二十五年壬辰) 日出庵이災하다

二千六百二十九年(朝鮮宣祖三十五年壬寅) 懿仁王后ㅣ 復戶五結을賜하다

二千六百三十二年(朝鮮宣祖三十八年乙巳) 泗溟이 日本에使行하얏다가佛의齒牙와佛舍利等을 奉還하야 本寺에藏하다 先是에 慈藏法師ㅣ 唐에往하야佛의齒牙와舍利等을 奉來하야 通度寺月精寺等各寺에分奉하얏더니 壬辰의役에 倭兵이 通度寺에侵入하야 佛의齒牙와舍利를取去하얏는데 是에至하야 泗溟이奉還하니라

二千六百三十三年(朝鮮宣祖三十九年丙午) 泗溟惠能兩師ㅣ 寺를重建하다

惠能이 安養庵과寂明庵을重建하다

信默大師ㅣ 靑蓮庵을重修하다

勝詮이 唐에 往하야 賢首法師에게 經敎를 學하더니 此에 至하야 經을 講하니라

一千八百七十二年(新羅文聖王七年乙丑) 白華庵을 創하다

一千九百六十四年(高麗太祖二十年丁酉) 道詵法師ㅣ 高麗太祖의 命을 承하야 圓覺寺를 重修하고 西鳳寺라 改稱하니 寺의 西에 鳳形의 石이 有한 故로 命名함이니라

一千九百七十二年(高麗惠宗二年乙巳) 鳳巖庵과 靑蓮庵과 極樂庵을 創하다

二千一百八十八年(高麗毅宗十五年辛巳) 菩提庵과 寂明庵과 大聖庵을 創하다

二千三百八十五年(高麗恭愍王七年戊戌) 懶翁和尙이 西鳳寺를 重修하고 乾鳳寺라 改名하니라

二千三百八十六年(高麗恭愍王八年己亥) 白蓮庵과 普門庵과 上院庵과 大願庵을 創하다

二千四百九十二年(朝鮮世祖十年乙酉) 朝鮮世祖ㅣ 本寺에 幸行하사 願堂을 定하고 御室閣을 建케하고 田畓을 賜하고 親製親筆의 同參文을 賜하다

玄鵬大師ㅣ 日出庵을 創하다

二千四百九十六年(朝鮮睿宗元年己丑) 朝鮮睿宗이 敎旨를 下하야 願堂을 定하고 徭役을 免하다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乾鳳寺(江原道高城郡梧垈面冷泉里)史蹟

一千五百四十七年(新羅法興王七年庚子)阿道和尙이古城縣金剛山南麓에 寺를刱하고 圓覺寺라名하다

一千五百六十年(新羅法興王二十年癸丑)普琳庵과般若庵을刱하다

一千七百八十五年(新羅景德王十七年戊戌)發徵和尙이圓覺寺를重建하고念佛萬日會를設하니 此가朝鮮의念佛萬日會의嚆矢가되니라

時에發徵和尙이 貞信、良順等三十一人으로더부러 念佛을勤修할새 香徒一千八百二十人이 自願發心하야 其中의一百二十人은 衣服을施하고 一千七百人은 飮食을施하니 衣服을施하는者는 每人每歲에 布一端을納하고 飮食을施하는者는 每人每歲에 白米一斗와 淨油一升을納하야 念佛人의生受를供하니라

一千八百十四年(新羅元聖王三年丁卯) 念佛萬日會에서 淨業을修하든三十一人이 阿彌陀佛의加被를承하야 淨土에往生하고 香徒諸人도 漸次往生하니라

一千八百三十七年(新羅憲德王二年庚寅) 勝詮和尙이華嚴經을講하다 初에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目錄

乾鳳寺史蹟……一
乾鳳寺屬庵一覽……一六
乾鳳寺의建物、土地、林野……二〇
乾鳳寺의寶物……二一
乾鳳寺의塔、浮屠、碑……二三
乾鳳寺의眞影……二四
乾鳳寺의名所……二四
乾鳳寺古記錄……二六

凡例

一、本編의編撰은 編年式으로함

一、年次는 釋尊의誕生紀元을用함

一、史實은 各本寺에서錄送한記錄에依함

一、年代와人物에關한事는 他의史籍을參考하야 証正함

一、本文의後에 各寺現在의財産과古記錄을 附錄하야參考에供함

序

내가 本史蹟을編撰하게된것은 다만 乾鳳寺本末寺各位의 懇曲한委囑에 從함이오 조금도 編撰할만한自信이잇서서 붓을잡게된것은아니다 그런데 不幸히 朝鮮各寺刹의 史的記錄은 完璧이少할뿐아니라 斷片的으로保存된 記錄도 너무나 奇蹟을超越하야 荒誕에近하고 或은 文飾에傾하고 史實을罕하야 實로史的價値를가진者ㅣ 僅少한것은 만한遺憾이다 그러나 至今에 寺刹의歷史를編撰코자하는者는 不完全하나마나 寺刹의古記錄을 參考하는外에 他道가업슬것이다 나도無論 그러한古記錄을參考하야 編撰하게되얏스나 奇蹟보다 常事를重히하고 文飾을廢하고 史實만을記錄하야歷史的本質에 置重하얏슨즉 編撰의善否는 別問題이고 寺刹의歷史에 新面目을開展한것만은 事實일것이다 그러나 古記錄을 그대로保存하는것도또한 儼然한史實이될것인故로 各記錄을 本文의後에附하야 參考에供하노라

二千九百五十五年六月十日

韓龍雲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국역
건봉사의
역사적 발자취
고성문화원